



嶺南文化財研究 29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2016

大邱 八達洞遺蹟
The Ancient Site at Paldal-dong, Daegu



嶺南文化財研究 29



2016

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Korea
<http://www.ynicp.or.kr>

표지사진

앞 _ 유적전경
45호 출토 흑색마연장경호
90호 출토 동과
뒤 _ 유적출토 청동제무기류 일괄



嶺南文化財研究 29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2016



재단 영남문화재연구원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목차

目次

대구 팔달동유적	5
----------	---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 정창희	27
---------------------------	----

- I. 서론 및 개관
- II.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 III. 팔달동 유적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및 구조
- IV.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
- V. 결론-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의 변천 / 이석범	55
--------------------------------	----

-대구 팔달동 옹관묘를 중심으로-

- I. 머리말
- II. 팔달동 옹관묘의 편년
- III.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변천
- IV. 맺음말

대구 팔달동 유적 금속기를 통해 본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전환양상 / 박장호	87
---	----

- I. 머리말
- II. 팔달동유적의 금속기 현황
- III. 금속기의 변천과 부장양상
- IV. 금속기를 통해 본 원삼국시대로의 전환
- V. 맺음말

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와질화와 그 의미 / 박진일	113
--	-----

- I. 머리말
- II. 와질토기의 정의와 구분
- III. 팔달동 목관묘 출토 토기의 검토
- IV. 무문토기의 와질화
- V. 와질토기의 등장과 원삼국시대의 개시
- VI. 맺음말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 김권구	141
--	-----

- I. 머리말
- II. 시간적 · 공간적 범위와 연구방법
- III. 대구 팔달동유적 속에서의 집단구성과 사회구조
- IV.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위계
- V. 맺는말

【附錄1】	181
--------------	-----

대구 구암동고분군 1호분 조사내용과 성과 / 이재광 · 김경환	183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김지영 · 최규진	203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이수정 · 권용규	223
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남도인 · 박영협 · 장기명	241

【附錄2】	265
--------------	-----

『嶺南文化財研究』 총목차	267
---------------	-----

대구 팔달동유적 大邱 八達洞遺蹟

|| 유 적 성 격 || 청동기시대 취락,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분묘, 삼국시대 분묘

|| 발 굴 기 간 || 1996. 8. 16. ~ 1997. 5. 31.

|| 발 굴 면 적 || 약 8,900평

|| 유적의 소재지 || 대구광역시 북구 팔달동 135번지

대구 팔달동유적은 영남지역의 대표적인 원삼국시대 분묘유적으로, 1980년 예비군 훈련 중에 참호를 파다가 토기가 발견됨으로써 처음으로 알려졌다. 1992년 12월 7일부터 1993년 2월 3일까지 팔달동 산8·9-1·16-1과 노곡동 107 일대를 경북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굴하여 토광묘 17기, 석곽묘 3기, 석실묘 1기를 조사했으며, 1996년 8월 16일부터 1997년 5월 31일에 걸쳐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팔달동 145번지 일대를 발굴하였는데, 이곳은 경북대학교에서 조사한 지점의 서편 구릉이다. 발굴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9기, 원삼국시대 목관묘·토광묘 102기·목곽묘 1기·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석곽(실)묘 32기, 조선시대 분묘 146기 등을 조사했다.

대구 분지를 동서로 관류하는 금호강의 북편에는 경북내륙으로 진입하는 주요 교통로로 이용되는 팔거평야가 펼쳐져 있다. 팔달동유적은 팔거평야의 초입부 구릉사면에 위치하여, 서편으로 팔거천과 주변의 충적지대를 곁에 두고, 맞은편으로 금호강을 끼고 대구분지를 조망할 수 있는 경관을 갖추고 있다. 유적의 남쪽으로는 약 4km 떨어진 금호강 대안에 평리동유적

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4km 떨어진 지점에 연암산과 침산유적이 위치한다. 또 북쪽으로 5km 떨어진 지점에는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칠곡3지구 생활유적이 조사된 바 있다.

목관묘는 장축 방향이 주로 동서향이며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거나 엇비슷하게 설치되어 있고, 깊이가 있는 묘광은 장벽이나 단벽을 단이 지게 굴착하였다. 목관은 대부분 묘광 바닥의 중앙에 안치하였으나 유물 부장공간을 배려하여 목관을 장벽이나 단벽 쪽으로 치우치게 안치한 경우도 있다. 요갱이나 부장갱이 확인된 유구는 대부분 통나무관이며 그것을 고정시키기 위한 켜기공이 확인된 유구도 있다. 목관의 사용유무에 따라 목관묘와 토광묘로 대별하고, 목관묘는 다시 목관의 형태에 따라 판재식 목관과 통나무관의 두 유형으로 분류, 다시 적석유무에 따라 무적석식과 적석식으로 소분류된다. 적석목관묘는 석관계석곽묘, 적석석관묘 등 여러 용어로 불리던 대전 괴정동·예산 동서리·함평 초포리·부여 함송리·장수 남양리 유적의 계보를 잇는 것으로 지금까지 보고된 적석목관묘의 마지막 단계로 판단하고 있다.

토기에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있으며, 전자는 점토대옹·두형토기·흑도장경호·개(蓋)·대부발 등이 있고, 와질토기는 전기와질토기 단계의 대표적인 유물인 주머니호·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단경호·완·편구호·양이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점토대토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주로 출토되지만 30호처럼 원형점토대토기가 주머니호와 공반되는 경우도 있다.

철기류는 철부·철검·철모·철검·철촉·철착·도자·따비 등이 있다. 청동기류는 세형동검과 검파두식·동모·동과·환형토기·쌍두관상동기·칼집부속구 등이 있으며, 장신구류로 유리제 구슬과 천하석제 구슬·골제 구슬·토제 장신구 등이 있고 그 외에 방추차·어망추 등이 있다.

45호와 57호는 영남지역에서 판상철부가 처음으로 부장된 유구로 논의되고 있다. 45호 판상철부는 부장갱 내에서 세형동검·검파두식, 주조철부·철모 등 위세품으로 추정되는 유물과 함께 부장되었으며, 57호 부장품은 부장갱은 아니지만 목관 내에서 철검·검파두식·철모와 함께 부장되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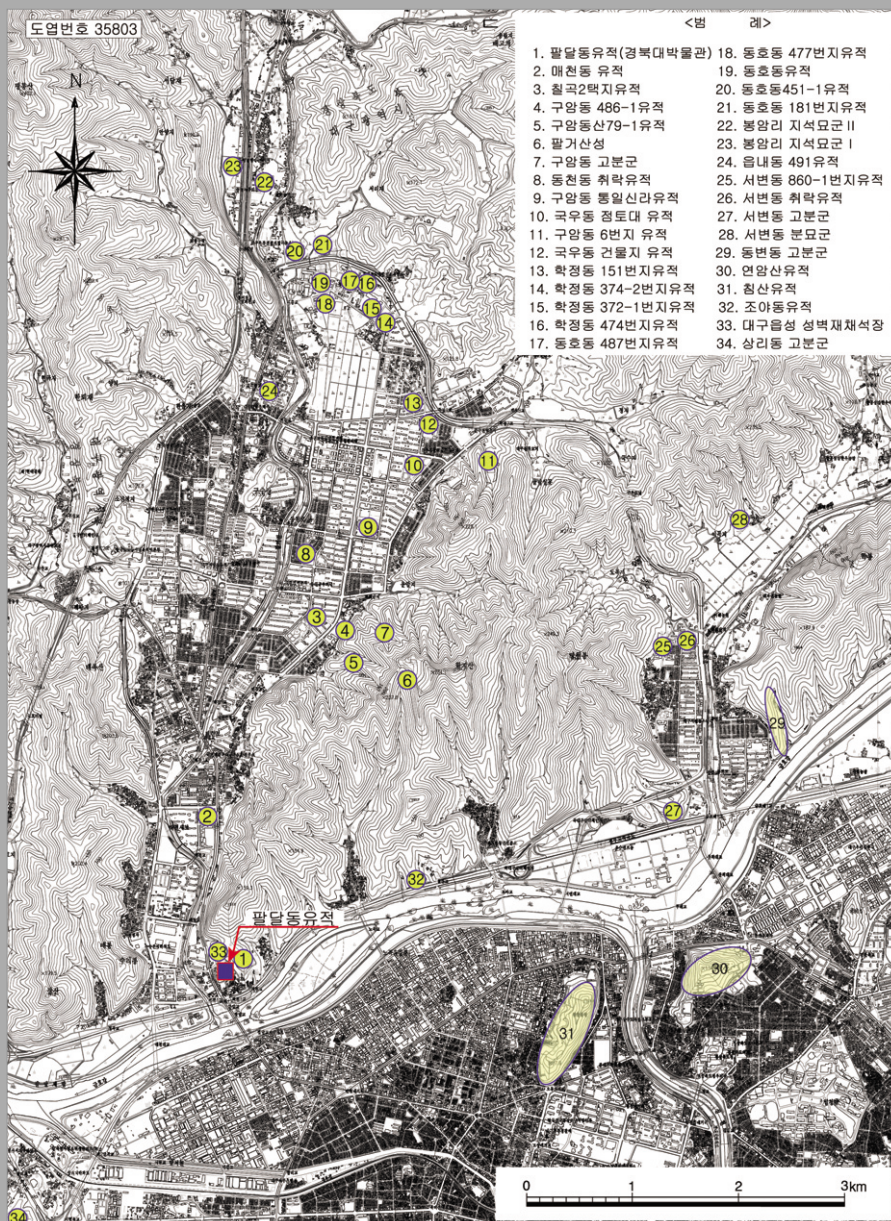
다. 45호 판상철부와 공반토기는 조양동 5호의 무문토기옹과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유사한 형식으로 보이며 흑도장경호가 공반된다.

옹관묘는 삼각형점토대옹 등의 무문토기로 구성된 합구식이 대부분이나 일부 와질토기로 구성된 것도 있다. 옹관묘는 3단계로 구분되는데 1기는 점토대옹, 발, 시루, 장동옹, 장동호, 파수부호 등 일상 토기가 옹관으로 주로 사용되고, 소형장경호, 배가 일부 부장되기도 한다. 2기는 삼각형점토대옹이 소멸하고, 장동호와 파수호의 양뉴부호가 출현한다. 3기는 와질토기가 출현하며 기종으로는 장동옹, 단경호, 첨저호, 완, 시루, 사이부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등이 있다. 옹관묘는 목관묘와 함께 조성되기 시작하여 기원 전후까지 이어진다. 한편 목관묘는 옹관묘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되어 서기 2세기 중엽까지 확인되며, 3세기후엽에는 목곽묘로 대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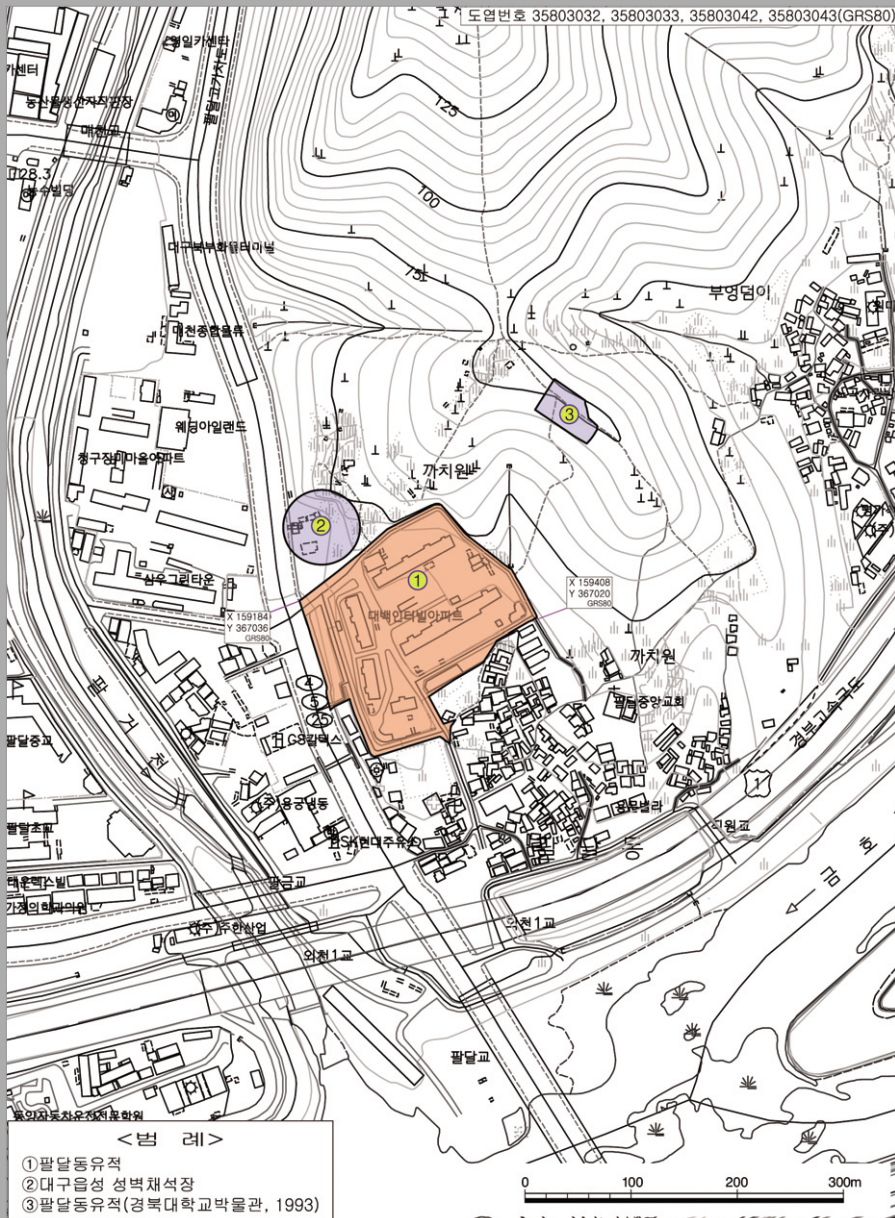
팔달동유적 목관묘와 옹관묘의 조성 시기는 서기전 2세기~서기 2세기대가 중심연대임을 알 수 있다. 팔달동유적은 영남지역에서 적석목관묘 및 철기유입양상, 와질토기와 목곽묘의 등장과 변천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慶北大學校博物館, 1993, 『大邱 八達洞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大邱 八達洞遺蹟Ⅰ』.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5, 『大邱 八達洞遺蹟Ⅱ』.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5, 『大邱 八達洞遺蹟Ⅲ』.】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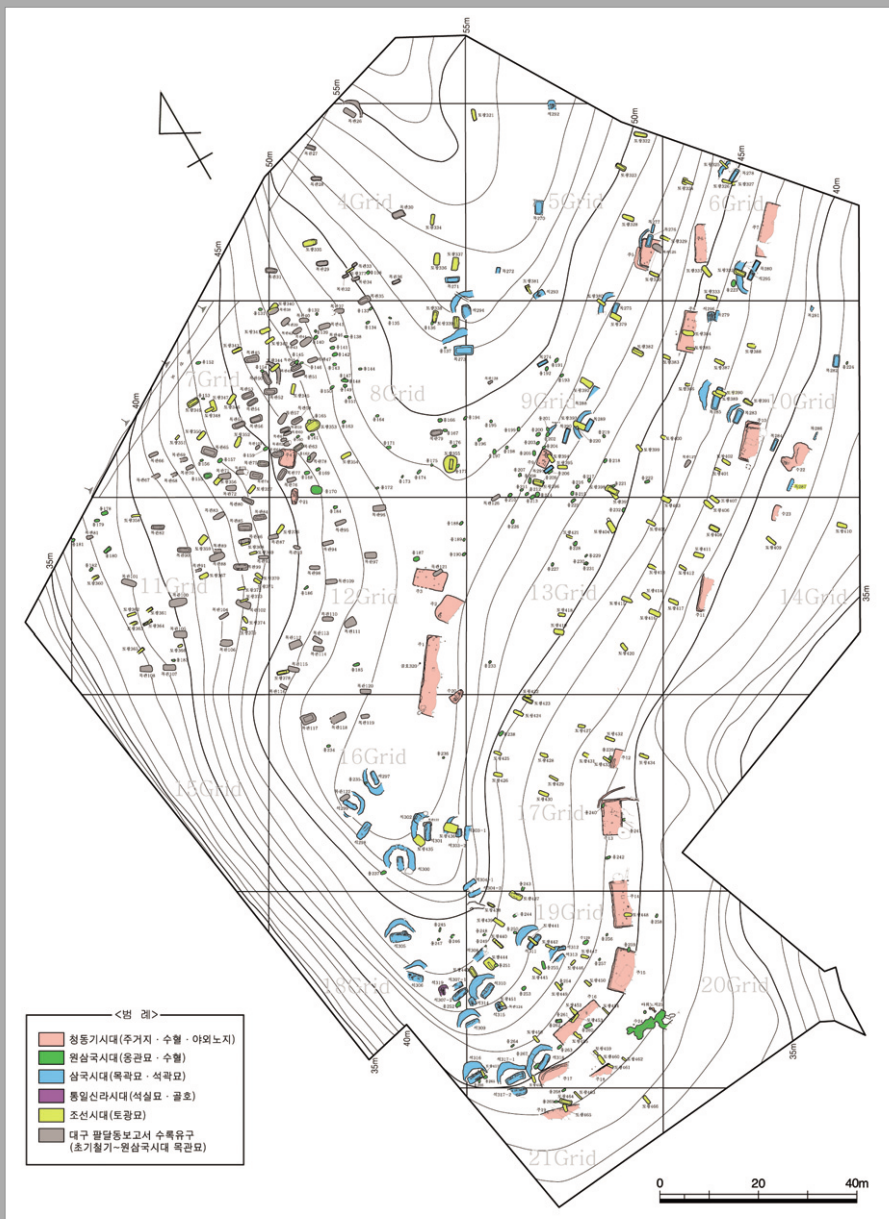


[유적의 위치 및 주변유적 분포도]



[유적의 범위 및 주변유적 분포도]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시대별 유구배치도]



[유적전경(1997년)]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청동기시대 주거지 전경: ①②4호, ③④9호, ⑤⑥13호, ⑦14호]



①



②

[청동기시대 주거지 · 수혈 출토유물: ①토도류, ②석기류]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목관묘: ①~③45호 조사전경, ④⑤유물출토상태]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목관묘: ①~③90호 조사전경, ④⑤유물출토상태]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목관묘: ①100호, ②83호, ③④99호 전경 및 99호 출토 철초]



[목관묘 출토유물: ①청동제 검파두식과 청동기류, ②청동제 무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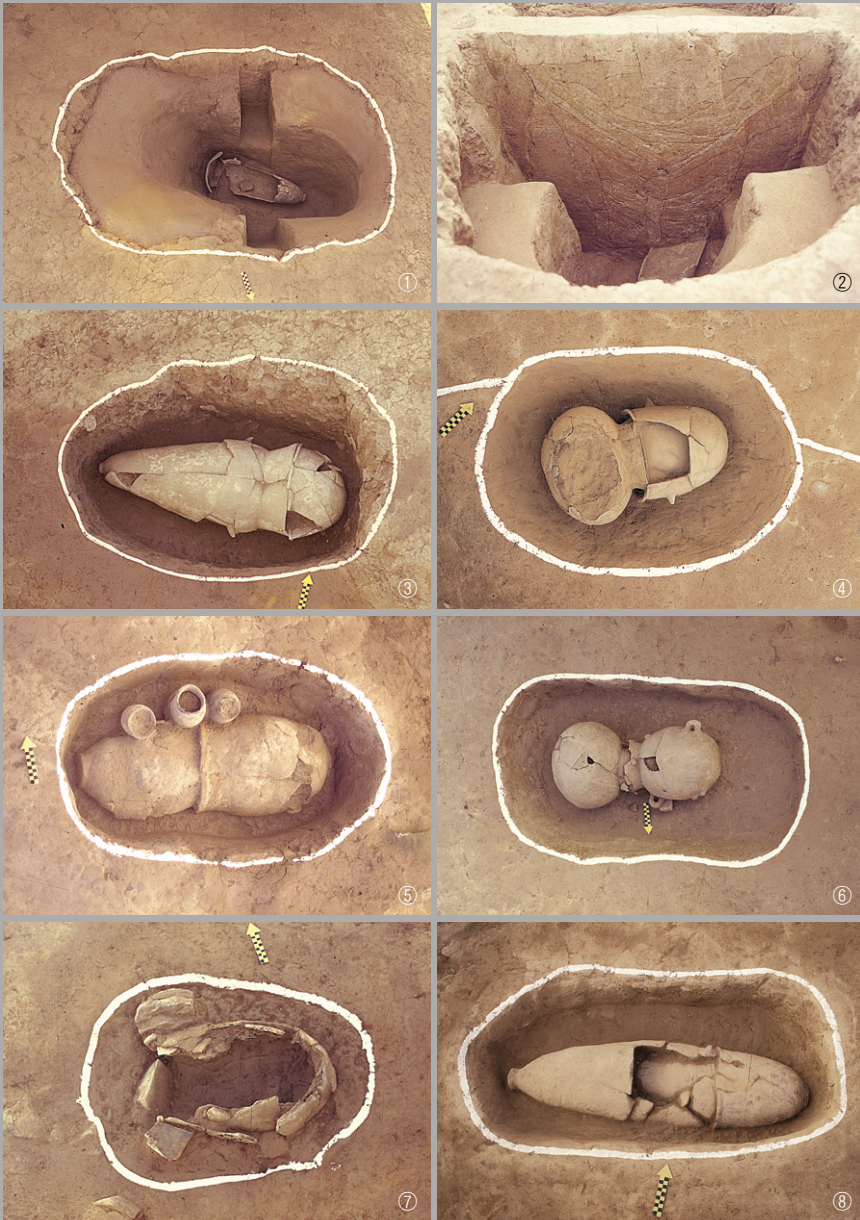
[목관묘 출토유물: ①철제 농공구류, ②각종 철부]



[목관묘 출토유물: ①무문토기류, ②고배류]



[목관묘 출토유물: ①대부옹과 주머니호, ②장경호류]



[옹관묘 전경: ①②155호, ③157호, ④162호, ⑤169호, ⑥178호, ⑦184호, ⑧263호]



[옹관묘 출토유물]



[옹관묘 출토유물]



[삼국시대 목곽묘: ①280호 전경, ②출토유물-금속류]



[삼국시대 석곽묘: ①317호 전경, ②출토유물-토도류]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정 창 희

영남문화재연구원

I. 서론 및 개관

1. 연구 목적과 방법
2.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대한 인식의 틀

II.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1. 적석목관묘
2. 목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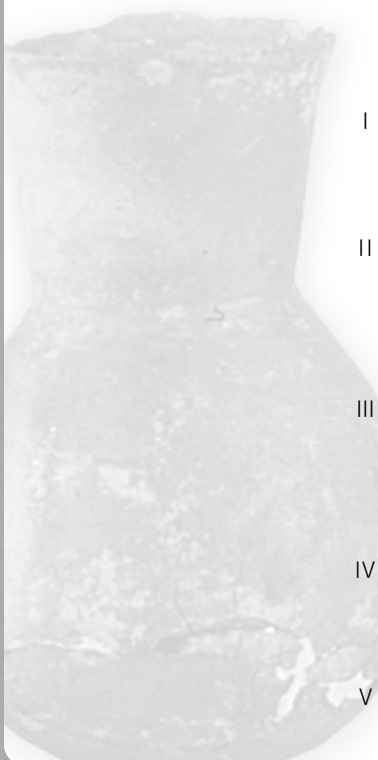
III. 팔달동 유적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및 구조

1. 적석목관묘
2. 목관묘
3.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구조

IV.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

1. 목관
2. 적석

V. 결론-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 국문초록 |

본고는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출토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관묘의 구조를 복원하고 그를 바탕으로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행하는데에 목적이 있다.

연구 대상은 팔달동 유적에서 출토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이며, 연구방법은 잔존상태가 양호하여 충분한 깊이를 가진 유구를 대상으로 묘광 내에서 검출된 제 양상을 검토하고 그를 통해 당초 묘광 내에 안치되었던 목관과 묘광의 폐쇄 및 분묘의 외형에 대한 복원을 행하였다. 분석결과 팔달동 유적에서 확인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는 무단 혹은 복수의 단을 조성하여 굴착한 묘광 내에 목관을 안치한 후, 묘광 내부는 비워둔 채로 목개를 이용하여 묘광을 폐쇄하였으며, 적석목관묘의 경우 목개 상위에 일정한 수량의 적석을 행하였고 목관묘의 경우 목개 상위에 성토 분구를 조성하였음을 논증하였다. 층위와 유물의 출토상으로 보아 묘광 내 목관의 측부와 상위의 충전토는 상정할 수 없어 묘광 내부가 비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행하였다. 계통에 대한 분석은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석관묘에서 이미 목관이 사용되었던 사례들이 다수 있었고, 더하여 이른바 묘역지석묘로 보이는 발전형의 지석묘 문화에서 매장주체부 상위에 다량의 적석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와같은 요소들이 반영되거나 혹은 질적인 변형을 거쳐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원류가 되었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그 결과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문화는 청동기시대의 분묘문화와 비교하여 이질적이며 따라서 이 시기의 철기 도입을 비롯한 새로운 분묘 문화의 유입이 기원전 43세기경에 이루어진 대규모의 이주나 인구 이동 혹은 유이민의 유입에 의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견해는 재고하여야 하고 초기철기시대 이후에 일어난 일련의 문화변동을 돌발적인 이주나 문화전파가 아닌 재지인들에 의한 장시간에 걸친 문화변동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 주제어 |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적석목관묘, 구조, 계통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정창희*

I. 서론 및 개관

팔달동유적은 1980년 9월 예비군 훈련중 유물이 발견되어 당시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그 내용이 신고됨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당시 신고에 따른 수습조사에서 토광묘와 옹관묘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조사에서 와질토기와 무문토기를 주옹과 막음옹으로 조합한 옹관묘가 수습되었다¹⁾.

그 후 1992년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시행(92.10-93.2)되었고 당시 조사에서 목관묘 1기, 목곽묘 16기, 횡구식석실 1기, 수혈식석곽 3기가 조사되었다²⁾.

이 조사 후 팔달동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는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1996년 8월부터 익년 5월까지 진행된 조사에서는 목관묘 102기, 목곽묘 1기, 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석실묘 32기 외 청동기시대 주거지 19동 그리고 조선시대의 분묘 등이 검출되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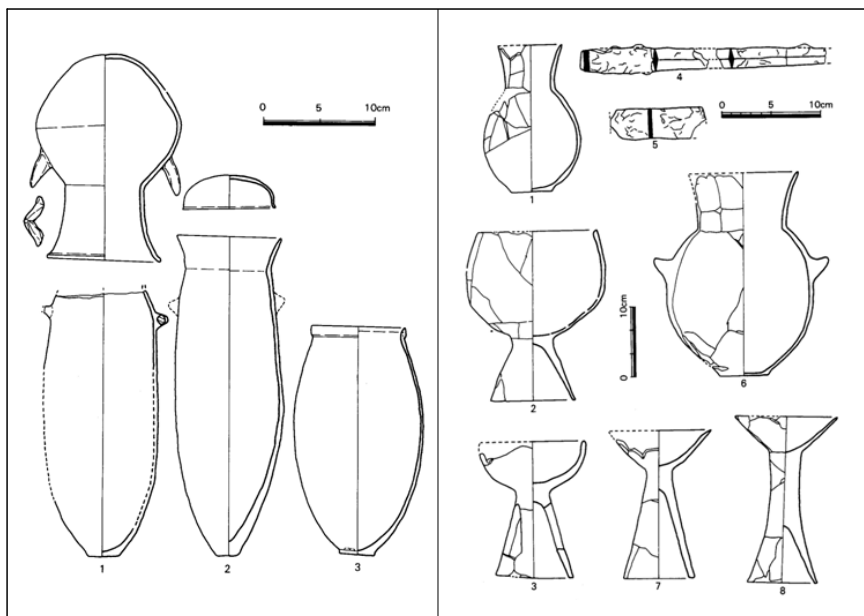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팔달동 유적은 청동기시대에 이미 취락지가 형성되었고 이어서 초기철기시대의 분묘군이 조성된 이래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무덤군이 만들어졌고,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가

* 영남문화재연구원

1) 윤용진, 1990, 「한국초기철기문화에 관한 연구-대구지방에서의 초기철기문화」 『한국사학』 11집.

2)尹容鎭 外, 1993, 『大邱 八達洞遺蹟』, 慶北大博物館.

3)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도 1〉 팔달동 유적 출토 옹관과 토기류

100여기 이상 군집을 이루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후기와질토기 단계의 목곽묘군이 목관묘군의 동북편 구릉 사면에 조영되어 있음도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최근에는 팔달동유적으로부터 북쪽으로 8km 이격된 학정동 일대에서 목관묘군이 검출되었고 출토유물과 분묘의 구조로 보아 팔달동 목관묘군과 병행하는 시기임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로보아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동안 팔거평야 일대에는 최소 두 개 이상의 단위 친족 집단이 병존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팔거평야 일대를 기반으로 한 기초정치체의 근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팔달동유적이 위치한 곳은 금호강의 북안으로 금호강 이남의 대구지역에서 보면 칠곡지역에 이르는 입구에 해당하여 선산과 의성, 안동 등 북부 내륙지역으로 통하는 길목에 해당하고, 동서로는 성주지역으로부터 대구 해안지역(불로동일대), 영천으로 이어지는 금호강 북안의 주요 내륙 교통로에 해당한다. 이와같은 입지를 바탕으로 금호강연안에는 침산 유적, 연암산 유적을 비롯하여 평리동유적, 만촌동유적, 신천동유적을 비롯한 초기철기

시대의 취락과 분묘 및 의례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고자료의 분포상은 금호강 양안에 전개된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물질문화를 이해하는데에 기초 자료가 되고 있다.

1. 연구 목적과 방법

본고는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를 대상으로 개별 분묘의 내부구조를 복원하고 그에 기반하여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과 장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한다. 목관묘의 구조 및 그 변천에 주안하여 일차적으로는 목관묘의 구조를 복원하고 그를 바탕으로 장제와 계통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데에 있다. 그간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주요제로 알려진 토광목관묘에 대해서는 출토 유물-토기와 금속기-을 대상으로 한 변천과 지역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분묘의례의 과정 등에 대한 접근이 시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목관묘 구조 자체에 대한 논의는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목관묘가 안치된 묘광 내부의 충전토의 양상에 대해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목관묘의 장의 프로세스에 대한 접근은 물론 목관의 용도와 사용과정에 대한 접근에 조차 다양한 의견만 개진되어 오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우선 팔달동에서 검출된 목관묘에 주안하여 잔존상태와 출토유물의 검출 양상을 통해 목관묘의 묘광 내부 구조에 대한 복원을 시도하고 그로부터 목관의 용도와 부장 양상 그리고 그와같은 구조가 지닌 고고학적 함의를 추적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는 목관묘 축조집단의 계통과 계보에 대한 문제에 대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영남지방에서는 지석묘에 이어 초기철기시대 이후 이 지역에 등장한 목관묘 문화가 매우 돌출적이며 이질적이라는 점에 주안하여 기원전 4세기 이후 역사적 기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주민 이동과 목관묘의 출현을 연동하여 보고자 하는 시각⁴⁾이 엄존해 있다. 그것은 결국 이 지역에서 철기문화의 등장이 외부세력에 의해 타율적이고 우발적으로 등장

4) 최몽룡 외, 1997, 「Ⅱ. 초기철기문화」 『한국사』 3, 국사편찬위원회.

한 것으로 인식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의 고대사는 타율적이고 전파론적 시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⁵⁾도 있을 뿐더러 그런데 이와같은 논의 구조에서 진행된 연구는 무엇보다도 청동기시대 이래 지역에 무수히 분포하는 지석묘 축조 집단의 향방에 대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결과에 봉착하게 되었다. 최근 일부 유적에서 확인되는 점토대 토기 관련자료가 재지의 지석묘나 석관묘 축조 집단과 관련된 생활유적이나 분묘 유적에서 검출된 자료에 주안하여 철기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문화요소가 이입되고 확산되는 과정에 재지의 사람들과 일정한 관계성이 있을 가능성을 개진하는 연구성과가 발표되어 주목된 바 있다.⁶⁾ 결국 목관묘 축조집단의 등장이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문화요소가 이주나 이민에 의한 단순 전파의 과정이 아니라 유입과 확산 재지문화와의 융합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되는 출현기 목관묘 특히 적석목관묘를 대상으로 그와같은 가능성에 대한 초보적인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논의 전개는 우선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구조를 상세히 검토하고 분묘를 구성하는 각 요소에 대한 구조 복원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각 구조의 요소가 비교자료를 통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목관묘의 계통과 계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보는 것으로 하겠다.

2.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대한 인식의 틀

우선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대한 시대개념이 정착된 과정과 쟁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 그간 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왔으므로 개별적인 연구성과를 모두 인용할 수는 없고 지면이 허하는 범위에서 간단히 핵심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겠다.

먼저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개념을 정리해 보면 초기철기시대는

5)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성장」, 서울대학교대학원 문학박사학위논문.

6) 신영애, 2011, 「영남지방 점토대토기 단계 문화접변」, 경북대학교 문학석사학위논문.

당초 김원용에 의해 정의되었다. 그에 의하면 이 시대는 중국 전국시대에 출현한 철기문화⁷⁾가 장성 바깥으로 파급되면서 북방계 청동기문화와 혼합되어 한반도로 유입되었으며 이는 비파형동검 문화 이후 청동기문화의 2차적인 파급이며 철기문화의 1차적 파급이 이루어진 시기로 정의하였다.⁸⁾ 이 시대의 고고학적 의의를 좀 더 살펴보면, 철기가 출현하고 청동기는 실용성을 상실하고 의기화가 진행된다. 청동제품은 양적으로 급증하고 청동 제작 기술이 발전하는 시기로 규정짓고 있다. 역연대로는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후까지 약 300년간으로 보았다. 결국 기술적으로 완숙된 청동기와 철기가 공반하는 시기를 일컫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완숙된 청동기라고 한다면 실물로서는 의장성이 강조된 무기형 청동제 의기를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는 서남부지방의 화순 대곡리 출토품과 같은 다뉴세문경을 공반한 청동기의 일괄품으로 보아도 좋겠다. 즉 청동제작 기술이 정점에 달한 어느 시점에 철기가 유입되었고 출현기 철기는 청동제품과 같은 주조기술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다. 결국 당진 소소리, 장수 남양리 출토품과 같은 주조제 철기는 한반도 남부지방에서 출현기 철기를 대표하는 고고자료로 인식되고 있다. 평행기의 고고자료를 영남지방에서 찾는다면 역시 무기형 청동 의기와 주조 철기의 조합 관계가 성립하는 자료가 대상이 되며 대표적인 사례는 팔달동과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주조제 철기와 공반한 청동 의기가 그에 해당할 것이다. 즉 팔달동 유적의 유구 유물 복합체는 영남지방에 있어 초기철기 사회의 개시와 전개를 말해주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7) 중국에서 가장 오랜 철기의 사례는 상대(기원전 1700-1028) 중기로 편년되는 鐵刃銅鉞(하북성 藁台村출토품)이 알려져 있다. 그 외에도 서주시대(기원전 1100-770) 초기의 하남성 위휘부출토로 알려진 철인동월과 鐵援銅戈의 사례가 있다. 이 시기의 철기생산은 지배계급에 배타적으로 소속된 특정 공인에 의해 수행된 청동 의기 제작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으며 본격적으로 이기로서 철기 제작이 개시된 시기는 전국시대 중,후기로 지적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전국의 패자였던 지, 초, 한, 연, 위, 조, 제나라 각국의 도성지내에서 철기생산이 이루어진 공간이 확인되고 있으며 연의 경우 언하도를 중심으로 철기 공방이 검출된다. (무라카미 야스유키, 1999)

8) 김원용, 1964, 「한국문화의 고고학적 연구」 『한국문화사대계』 1, 고대민족문화연구구소, pp.263-272 : 초기철기시대에 이어지는 시기로서 낙랑문화를 통해 한대문화가 확산되 북쪽으로부터 철기문화가 파급되면서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 대해서는 당초 김원용이 김해시대로 규정(1964)하였다가 원삼국시대로 정리(1973)⁹⁾한 바 있다. 당초 김해기를 부정하고 새로운 용어인 원삼국시대를 제창한데에는 한반도 북부에 이미 고구려가 성립하였으므로 한반도 남부를 중심으로 하여 김해기로 부르는 것이 적절치 않으며 원삼국시대라는 용어가 한반도를 관통하는 용어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는 철기의 보급과 사용이 확대되고, 전국계 회도를 기술적 기반으로 한 타날문토기의 제작 및 한경 등 한식유물 복합체의 반출로 정의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반출되는 이른바 와질토기의 계통과 출현에 관계하여 그 기술적기반이 한식기술을 기반한 낙랑지역에 있는 것인지 고조선 단계에 유입된 전국계회도에 그 기술적기반이 있는지에 대해 논자에 따라 의견차가 엄존하고 있고 연동하여 최근에는 와질토기의 출현연대에 대한 논쟁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더하여 이 시기가 문헌사학에서 이야기하는 삼한시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김원용의 의견대로 삼국시대의 원초적 기반이 형성된 시기로 보아 원삼국시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양립하고 있다. 그런데 원삼국시대의 물적 기반에 대한 논의 역시 그를 구성하는 제 문화복합체의 기술적 원류를 외부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청동기시대 이후 초기철기시대를 거치면서 실제적인 주민교체나 대규모의 이민을 가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해석의 틀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그점에서 본다면 초기철기시대의 물질문화의 조작과 사용 보급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의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를 관통하여 남부지방에서 복합사회의 출현을 담당하였던 문화적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에 매우 중요한 주제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팔달동 유적의 묘제 변천과정을 통해서 대구지역에 있어서의 초기철기시대의 개시기에 제기되는 제양상을 분묘라는 관점에서 제기해 보게 될 것이다.

9) 김원용, 1973, 『한국고고학개설』, 일지사.

Ⅱ.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앞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을 위해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된 분묘유구에 대한 접근에 앞서 현재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에 번성 하였던 묘제-적석목관묘, 목관묘-에 대한 인식들을 살펴두도록 하겠다. 최근 발굴조사 자료의 증가에 따라 상기한 묘제의 구조에 대한 상세한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각 묘제의 구조를 우선 검토하고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된 각 묘제의 구조와 변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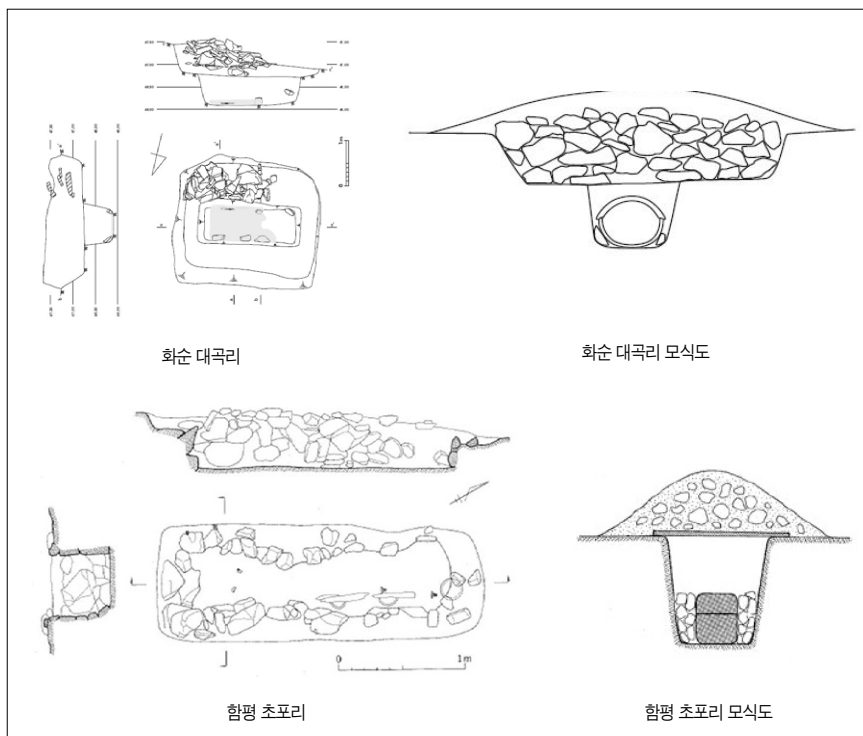
1. 적석목관묘¹⁰⁾

초기철기시대의 대표적 묘제 가운데 하나이다. 대전 괴정동, 아산 남성리, 예산 동서리, 부여 연화리, 화순 대곡리, 함평 초포리 유적이 대표적이다. 최근 화순 대곡리 유적의 재조사에 의해 구조의 일단이 구체화 되고 있다. 다만 함평 초포리¹¹⁾와 같이 매장주체부가 석관인 것과 그 외의 목관을 주체부로 하는 구조의 의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다. 적석목관묘는 조문경과 원형점토대토기 및 흑도장경호가 세형동검이 공반하며 한반도 남부에서 초기철기문화의 개시를 말해주는 고고학적 지표로 이해되고 있다.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의 서부지역과 대구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 최근에는 충북 내륙지역에서 최초로 충주 호암동유적에서 검출된 바 있어 점차 그 분포역이 커질 가능성이 엿보인다.¹²⁾ 적석목관묘의 구조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대략 2m 깊이의 묘광에 매장주체부를 설치하는데 매장주체부는 통나무관 혹은 판재관을 사용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다. 묘광의 단면형태는 1단의 것과 2단의 것으로 구분된다. 주로 깊은 묘광을 가진 분묘는 2

10) 적석목관묘의 용어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적석목관묘, 적석석관묘, 위석식 토광묘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박진일, 2013)

11) 국립광주박물관, 1988, 『함평 초포리 유적』.

12) 소준섭, 2016,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공사 부지 내 충주 호암동 유적」 제 63회 공개강좌자료집, 영남문화재연구원 : 이곳에서는 한 분묘 내에서 세형동검 7, 동모 3, 동과 1, 정문경1, 동사 4, 동착 2점 등 다량의 청동기가 흑도장경호와 공반되어 검출되었다.



〈도 2〉 적석목관묘의 구조(축적부동)

단으로 만들어진 사례가 많고 청동제 의기의 출토 빈도가 높은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적석목관묘의 구조는 우선 토광을 깊이 파고 매장주체부를 석관 혹은 목관으로 조영하며, 목관과 묘광 사이에 할석을 채운다. 묘광 상부에는 목개의 존재 가능성이 높으며 그 위에 다시 적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묘광의 바닥은 2m 깊이에 조성되었다. 묘광의 단면은 1단의 것과 2단의 것이 있으며 후자의 경우 묘광이 깊어서 2m 이상인 것이 많다. 아산 남성리와 익산 다송리에서는 바닥석의 존재가 확인되기도 한다. 영남지방에서는 조양동 5호, 임당 FI-15호도 이 구조에 해당한다. 팔달동 유적에서는 16기의 적석목관묘가 있다. (30,35,41,44,47,56,77, 79,80,86,88,101,106 (판재관)/45,55,90 (통나무관)) 함평 초포리의 사례를 본다면 목관의 측부에 석

재 충전이 이루어졌거나 석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 경우 목관이라면 석재 충전의 높이는 목관 측부의 충전토 높이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함평 초포리 등의 사례가 목관묘와 계보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면(세형동검 조합의 유물 복합체로 보면 동일 계보로 볼 수 있음) 목관묘의 경우 충전토가 목관 상부가 아닌 목관 측부에 국한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석목관묘의 구조와 연대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 성과가 개진된 바 있으나 대부분 목관묘와 함께 다루어졌으며 기본적으로는 목관묘에 선행하여 출현한 묘제로서의 인식하고 있다¹³⁾. 그리고 영남지방의 적석목관묘의 경우 금강유역으로부터의 영향이 상정된다는 접근도 이루어진 바 있다.

2. 목관묘

토광목관묘 혹은 목관묘로도 불리우는 묘제는 원삼국시대에 한반도 중남부 일원에서 광범위하게 조영되었으며 여기서 출토되는 이른바 와질토기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고고학적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목관묘의 내부구조에 대해서는 경주 조양동 유적과 의창 다호리 유적의 발굴조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90년대 이후 김해 양동리와 대성동, 대구 팔달동과 경산 임당 유적, 함안 황사리 유적을 비롯하여 성주 예산리와 밀양 교동유적, 경주 덕천리와 사라리 유적 등지에 대한 발굴조사에서 다양한 청동유물과 후기무문토기 및 와질토기가 검출되었다. 특히 이들 조사에서 다양한 구조를 가진 목관의 존재가 확인되었는데 통나무관과 판재관이 그것이다. 통나무관의 경우 다호리 1호분 출토의 실물자료와 함께 토광의 상부 단면에서 곡선을 나타내는 층위의 확인을 통해 추정되어 왔다. 판재관은 실물자료로 확인된 사례는 없으나 역시 상부의 층위를 통해 판재관임과 함께 결구 상태의 양상을 추정하는 것으로 그 구조를 확인해 왔다. 하지만 이와같은 목관의 구조에 대한 이와같은 추정은 발굴조사 현장에서 즉물적으로 이루어지는데에 그쳤고 목관을 안치한 묘광내부의 구조에 대한 복원적 접근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목관의 외곽과 상부 충전토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목관의 측부 충전이 이루어지고 목관의 상부가 비

13) 이재현, 2003, 「진·변한사회의 고고학적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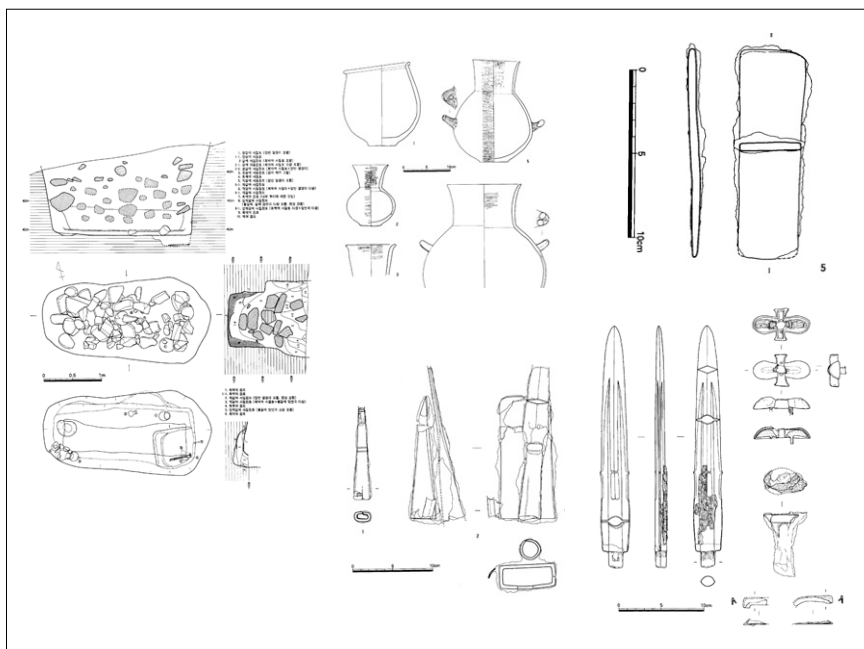
어진 것으로 보는 견해와 목관의 측부와 상부는 물론 목관이 안치된 묘광내부 전체가 충전토로 채워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엄존한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목관이 안치된 묘광의 폐쇄와 관련하여 목개의 존재를 추정하는데에 이르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 진다. 실제로 묘광내부를 충전토로 채울 경우 목개는 그 필요성을 상실하며 목관묘 상부에 봉분이 존재하였다고 볼 경우 묘광의 굴착과정에서 확보된 토사를 다시 메울 경우 봉분을 조성할 토사가 부족하게 되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높이 50cm 내외의 목관을 제외하고 묘광 내부가 충전토로 채워질 경우 묘광의 내부토에서 매우 높은 빈도로 확인되는 급격한 함몰을 설명할 수 없는 현상만 보더라도 묘광내 완전 충전에 대한 부분은 재고를 요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특히 층위상에서 명백히 확인되는 몇몇 사례를 통해서도 목관묘의 묘광상부에는 목개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고 층위상 목개의 부식흔이 검출되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도 명확히 발견되는 사례를 빌어 목개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 외에도 상기한 적석목관묘의 경우 상당량의 석재가 묘광 상부에 적재되었다가 묘광 내부로 낙하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묘광을 폐쇄하였던 목개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팔달동 목관묘에 천착하여 목개의 존재와 묘광내 충전토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게 될 것이다. 다만 최근 같은 주제에 대하여 접근을 이루어낸 성과들을 볼 때 주의하여야 할 점을 언급하자면 이와같은 접근을 위해서는 모든 목관묘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0cm 이상의 깊이를 가진 목관묘를 분석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수십센티 내외의 깊이로 유존한 목관묘는 검토자료로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면서 본고에서도 이와같은 전제하에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Ⅲ. 팔달동 유적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 및 구조

1. 적석목관묘

1) 45호 적석목관묘

팔달동 유적에서는 15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에 비교



〈도 3〉 팔달동 45호 적석목관묘와 출토유물

적 유존 상태가 좋고 청동기가 반출된 유구로서 45호 적석목관묘를 표식으로 구조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다. 이 유구는 묘광의 상부 직경이 293cm, 너비 134cm, 잔존깊이가 155cm에 이르는 큰 규모의 적석목관묘이다. 床面에서 60cm 높이에 턱이 있어 2단 굴광의 묘광으로 볼 수 있다. 보고자의 보고대로 묘광 내에서 발견된 100개의 할석은 모두 묘광 상부 목개 위에 적석되었던 것으로 추정해 무방하다. 묘광의 바닥 서편과 동편 목관 아래에서 켜기공이 검출되어 목관을 고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편 목관 아래에 조성된 부장갱에서 세형동검과 검파두식, 주조철부와 판상철부가, 목관의 측부와 상부에서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가 출토되었다. 함몰된 적석 사이에서 지석과 함께 장경호편, 무문토기 저부편, 우각형파수가 출토되었다. 45호묘 외에 팔달동유적에서는 15기의 적석목관묘가 확인되었다. 그 가운데에 적석 시설이 있으면서 통나무관을 매장주체부로 한 분묘는 55,56,90호이며 이 가운데 90호에서도 동모와 동과 및

철부와 철모 철검이 검출되었다. 팔달동유적에서 확인된 102기의 목관묘 가운데 청동기가 검출된 분묘는 모두 4기이며 그 가운데 2기가 통나무관을 매장주체부로 한 적석목관묘라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2) 86호묘

45호와 같은 적석목관묘이며 매장주체부는 판재식 관을 이용하였다. 길이 240cm, 너비 80cm, 잔존깊이 130cm의 토광목관묘이다. 판재로 제작된 목관의 측부에는 목관을 지지하기 위한 충전석을 놓았고 묘광 상부는 적석이 이루어졌다. 적석의 존재로 보아 목개의 존재가 상정되며 내부에서 발견된 옹과 철부는 원래의 부장 위치인지 목개에서 낙하한 것인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

2. 목관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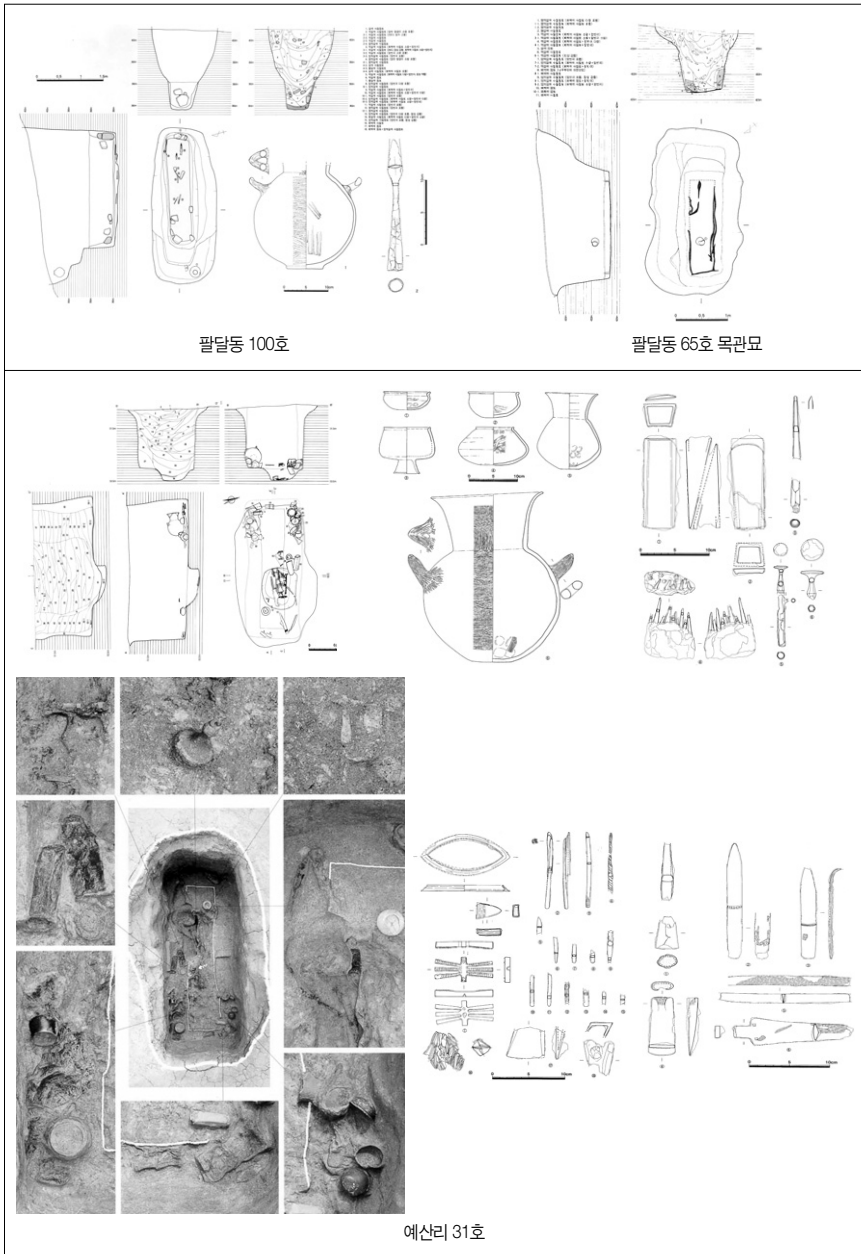
팔달동에서 검출된 102기의 목관묘 가운데 상기한 14기의 적석목관묘를 제외한 잔여 분묘가 대상이 된다. 그 가운데 잔존깊이가 양호한 유구를 통해 목관묘의 구조를 복원해 보고자 한다.

1) 100호

잔존상태가 매우 양호한 목관묘이다. 평면 규모 360cm, 너비 145cm, 잔존 깊이 205cm이다. 묘광은 한쪽 장벽을 3단의 계단상으로 굴광되었고, 통나무관을 매장주체부로 사용하였다. 통나무관 아래 묘광 床部에 철기류와 청동기가 부장되었다. 묘광과 목관 사이에는 충전토를 조성하였고, 묘광 내부 층위에서 목개의 함몰 흔적으로 보이는 백색 토양이 검출되어 보고자는 목개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2) 65호

묘광의 규모가 328cm, 너비 176cm, 잔존깊이 139cm의 목관묘이다. 묘광은 아래로 좁아지며 북장벽과 동단벽은 2단으로 굴광되었다. 매장주체부는 판재관이다. 보고자는 목관 측부에서 검출되는 충전토와 목관 상위에서 검



출되는 함몰토의 토양이 상이하다는 점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묘광 내 함몰토에서 발견되는 토양가운데 목개의 흔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목관이 안치된 묘광 내부는 목관의 측부를 제외하고 빈공간으로 남겨졌으며 목개를 이용하여 묘광이 폐쇄된 것으로 보았다. 목관의 규모는 $185 \times 48\text{cm}$ 이다.

3.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구조

이상 간략하게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사례와 부위별 구조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묘광

우선 적석목관묘의 구조는 우선 묘광의 깊이가 매우 깊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토광묘의 경우 삭평이나 유실의 정도를 가늠할 수 없으므로 잔존 깊이를 통해 원래의 깊이를 상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동일 유형의 분묘가 큰 시차없이 축조된 경우 묘지의 일부 구역이 특별히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은 한 잔존 깊이의 전반적인 경향성은 유의미한 속성으로 상정할 수 있겠다. 팔달동에서 검출된 15기의 적석목관묘 가운데 6기는 100cm 이상의 깊이를 가진다. 팔달동 목관묘 102기 가운데 100cm 이상의 깊이를 가진 분묘는 모두 14기다. 전체의 15%에 불과한 적석목관묘의 비율에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빈도이며 적석목관묘라는 묘제 자체가 원래부터 상당한 깊이로 조영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목관묘의 묘광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석목관묘와 같은 깊은 묘광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묘광은 상부의 경우 말각 장방형 혹은 타원형의 평면을 띠며 아래로 내려갈수록 좁아져서 상면은 거의 목관의 규모 정도로 구성된다. 목관이 상면에 거의 확찬 상태로 안치되는 것이다. 아마도 묘광의 한쪽 장벽과 단벽에 1-2개의 단을 조성한 것은 목관을 묘광 床面에 안치할 경우 작업자의 공간이 부족한 데서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2) 목관



〈도 5〉 통나무관의 사례

일단 깊은 묘광을 굴착한 다음 상면에 부장 공간으로서 요갱을 굴착하고 청동기를 중심으로 한 부장품 매납이 이루어졌다. 목관은 상기한 바와 같이 통나무관과 판재식관을 이용하였다. 매장주체부인 목관은 목관묘의 가장 핵심적인 시설이다. 매장주체부이기도 하지만 석관을 중심으로 선행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비교할 때 가장 이질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목관묘를 사용한 집단이 선행의 청동기시대 주민들과는 구분되는 주요한 속성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진주 호탄동 유적¹⁴⁾ 등지에서 목관을 사용한 양상들이 검출된 바 있고 거제 중촌 지석묘에서는 석관의 내부에 목관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목관 자체는 선행 청동기시대의 물질 문화와 이질적인 요소로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같이 지석묘와 결합된 양상으로 확인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유입된 것인지 이입 후에 일정 기간 동안 재지의 문화와 결합된 과정을 거친 후 각지로 확산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이다. 상기한 유적의 연대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늦추어 보아도 영남지방 각지에서 초기철기시대의 물질문화가 출현하는 단계보다 늦은 연대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목관이라는 요소만으로 목관묘 축조 집단이 외래의 집단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조적인 점에서 주목할 점은 통나무관을 사용한 45호묘의 경우 바닥에서 켜기공의 흔적이 확인되었다. 알려져 있다시피 이와

14)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2012, 『晋州 虎灘洞 先史遺蹟』.

같은 켜기공은 다호리 1호 목관묘에서 검출된 바 있다. 이것은 관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이다. 여기서 발표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목관의 규모와 켜기공의 존재이다. 다호리 1호 목관의 사례로 본다면 이 켜기공은 목관의 蓋板으로부터 묘광의 바닥면까지 관통한 켜기를 위한 시설이다. 즉 켜기공은 목관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목관의 고정을 위한 충전토는 불요한 요소가 되므로 적어도 켜기공이 발견되는 사례에 있어서는 목관의 안정화를 위한 충전석은 필요치 않다. 특히 다호리 1호의 경우 목관의 바닥 측부에서 목관의 고정을 위한 석재도 동시에 검출되었으므로 저면이 편평치 않은 목관의 고정을 고려한 장치들이 시행된 것은 분명하다. 다음으로 개관으로부터 저면까지 관통한 켜기는 목관의 고정을 위한 것도 있지만 목관의 개관을 저판과 잘 교합토록 하는 역할도 하였을 것이다. 즉 통나무관의 경우 저판과 개관의 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목관묘에서 사용된 목관의 용도 중 장의의례와 관련된 주요한 대목을 시사해 주고 있다. 즉 통나무관의 경우 운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묘광 내에 설치되는 '설치식'이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실물로 검출된 다호리 1호 목관의 경우 그 규모를 감안하면 운구가 가능하였을까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蓋板과 底板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 遺體를 포함하여 함께 운구하기 어렵다는 점은 용이하게 추정할 수 있다. 물론 개관과 저판을 결박한 상태로 고정할 수 있지만 운구과정에서 개관과 저판이 분리된다든지하는 우려를 고려하면 더욱이 그러하다. 이점은 묘광에서 발견되는 단상의 구조에서도 추정할 수 있다. 묘광이 깊어서 상면에서 작업한 후 지상으로 통행하기 위한 계단 시설로 보기에겐 사다리와의 같은 구조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물론 굴광 과정에서 이와같은 계단이 필요할 수 있지만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와같은 단을 조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판을 내리고 저판 내부에 매장주체부를 모신 다음 개관을 덮고 켜기를 이용하여 목관을 고정하는 등의 일련의 의례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묘광 상면에서의 공간 확보가 용이치 않았으므로 묘광 중간에 단을 만들어 의례를 진행하는 과정의 수행을 위한 공간 확보의 의미가 클 것이다. 그런데 이와같이 매장주체부인 목관이 '운구용'이 아니라면 과연 이것을 '관'으로 고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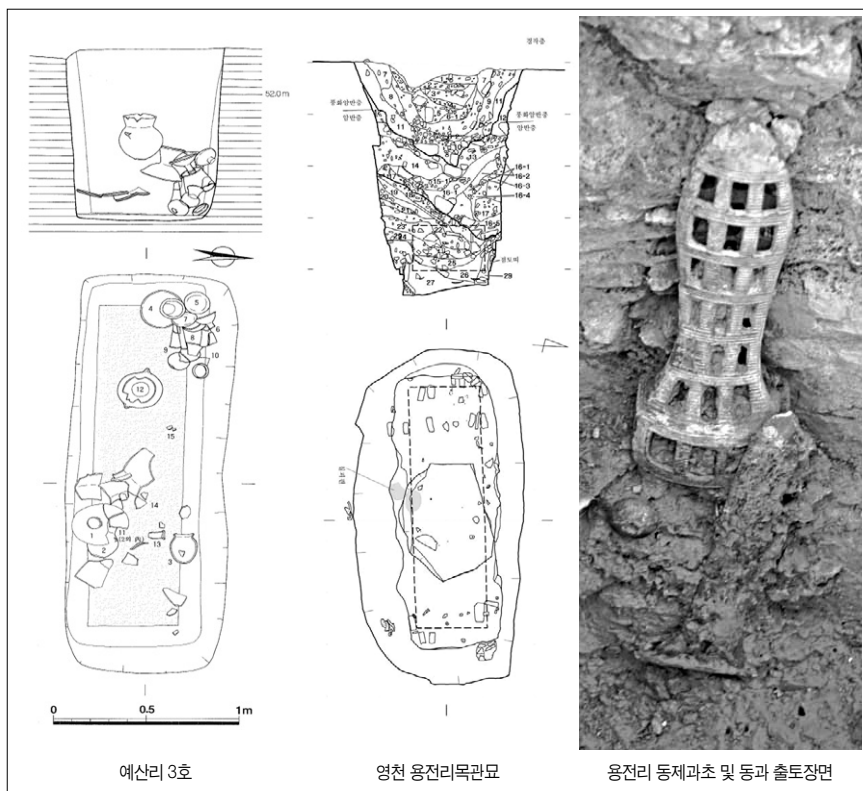
하다. 목관과 목곽의 개념은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고 논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선 ‘棺’과 ‘槨’의 구별에 대해서는 주피장자와 부장 유물이 함께 부장되는 공간을 槨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지만 그와는 달리 해당 시설이 유해를 운반하는데에 사용된 것인가 혹은 묘장 내에 부설된 시설인가에 따라 구별하기도 하여서 유해 운반을 위한 葬具를 棺으로, 묘장 내에 부설된 장구를 槨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¹⁵⁾ 그런데 이는 장제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결국 관과 곽의 구별이 사이즈 혹은 포함되는 구성(관/유물)의 문제가 아니라 장제의 관점에서 유해와 함께 운반된 것인지, 묘광에 설치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어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 결국 매장주체부가 관인지 곽인지 또 그에 따라 목관묘인가 목곽묘인가 묘제의 구별 역시 현상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영역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다.

3) 목개와 적석

목관의 폐쇄에는 목개를 이용하여 묘광을 일시에 폐쇄한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적석목관묘의 경우 상면까지 낙하하여 발견된 적석의 존재를 통해 목개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적석이 묘광 내부 목관 상부에 놓여졌을 가능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적어도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의 경우 내부토에서 확인되는 함몰 층위의 깊이와 곡률을 고려하면 이들 적석은 묘광 상부로부터 묘광 내부로 낙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사례는 경주 조양동 5호묘¹⁶⁾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성주 예산리 3호 목관묘(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의 경우 겹겹이 적재된 토기가운데 일부가 도치되어 낙하한 양상이 충전토 내부에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영천 용전리유적에서는 남장벽에 밀착하여 출토된 동과가 동제과초와 공반하였는데 출토양상으로 보면 당초 과초에 동과가 삽입된 상태로 부장 혹은 놓여졌다가 급격한 함몰에 의해 과초로부터 분리된 것을 알 수 있다. 묘광 내부가 충전토로 가득 차 있었다면 이와같은 분리과정을 이루어지기

15) 劉振東, 2011, 「中日古代墳丘墓の研究」, 立命館大學大學院博士論文.

16) 조양동 5호의 조사자인 한병삼은 조양동 5호의 구조에 대하여 묘광내에 목관을 안치하고 목개를 이용하여 묘광을 폐쇄한 후



〈도 6〉 묘광내부 유물의 낙하 양상

어렵다. 즉 이와같은 현상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묘광 내부가 충전토로 채워지지 않고, 목개에 의해 폐쇄되었으며 목개 상위에 두어졌던 의뢰의 공헌품들이 목개의 부식으로 인한 붕괴에 의해 묘광내부로 추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고려하여야 할 점은 목개 위에 다량의 석재가 적재되고 봉토가 조성되었을 경우 목개가 붕괴하는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전면적인 부식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시간동안 가장 많은 하중을 부담하는 부분으로부터 부식이 시작되었다면 갑작스러운 목개의 붕괴와 그로인해 아직 원상을 유지하고 있던 유물이 거의 빈 상태로 있던 공간에 추락함으로써 마치 투척한 것과 같은 양상의 전개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적석목관묘의 경우 목개 상부에는 적석을 하였다. 적석의 규모는 정확히 추정하기 어렵지만 45호묘의 사례로 본다면 100여개 이상의 석재를 얹었고 그 상부에 봉토 피복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묘광 내부에 낙하한 적석과 함께 다량의 토사가 포함되어 있음을 통해 알 수 있지만 그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목개 상위 적석목관묘의 가장 특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깊은 묘광을 지닌 초기 철기시대 분묘로서 이와같은 적석시설을 가진 대표적인 유적으로 함평 초포리 유적을 들 수 있다. 목관 또는 석관과 함께 그 외곽에 조성된 석곽과 매장주체부 상위에 적석을 시행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러한 복원안에 대해 큰 이견이 있지 않다.

4) 봉분

봉분의 존재가 추정된다. 함안 도항리고분군¹⁷⁾에서 검출된 목관묘의 경우 묘광 외곽에서 주구가 검출된 바 있고 이 주구는 봉분의 외연에 둘러진 것이다. 실제로 팔달동 유적의 사례에서도 발견된 목관묘 102기에서 거의 중복관계가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들 목관묘가 일정한 묘표 시설이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봉토의 존재에 대해서는 묘광 내의 충전토 양상으로 추정해 볼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묘광 내부의 충전 여부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최소 100cm 이상의 깊이를 가진 유구를 통해 본다면 급격한 함몰 층위가 내부토에서 관찰되는 점과 함몰토 속에서 목개의 흔적이 보이는 점으로 본다면 목관의 상부 충전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묘광 내부를 비워둔 상태에서 목개를 이용하여 묘광을 폐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비교자료의 검토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성주 예산리 목관묘 31호의 경우 통상적인 조사와 달리 묘광의 장축을 가로지르는 층서 확인 독에서 묘광 중앙부와 외연에 단층에 가까운 단절적인 층위가 확인되고 있어 목개 상부의 봉분 토양이 한꺼번에 묘광 내부로 떨어진 상태가 확인된 바 있어 참고된다¹⁸⁾.

묘광 상위의 양상에 대해서는 팔달동유적의 자료로는 검토가 가능하지

17)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1997, 『咸安道項里古墳群 1』.

18)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 『성주 백전 예산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않지만 일단 상기한 양상들을 전제로 살펴본다면 묘광 내부의 함몰토가 사실점토로 구성되면서 일정한 비율로 암반괴가 포함되어 있는 등의 양상을 띠고 있는 점은 참고된다. 즉 성층의 양상이 일반적으로 고분의 봉토에서 발견되는 판축 성토에 의한 성층양상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서 굴광 과정에서 확보된 토양을 일정한 비례의 구성물로 혼합하고 일정한 두께로 성토하였던 봉토의 토양이 묘광내부로 함몰될 결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봉분의 높이를 가늠하는 것이 용이치 않지만 팔달동 100호를 참고할 때 최소 2m 내외의 규모는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

이상 팔달동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해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목관묘 문화에 대해서는 목관묘 문화의 계통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지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고 초기철기문화의 유입에 따른 외부로부터의 이주민에 의해 영위되고 도입되었던 분묘문화로서의 이해가 일반적이다. 역사적 사건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고조선의 준왕 남천 혹은 위만조선의 멸망에 따른 대규모의 이주민 남하를 계기로 전개된 한반도 남부지방에서의 문화 변동의 일환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¹⁹⁾. 하지만 한국의 고대사 전개를 그와같은 일방적인 문화 전파와 이주민에 의한 것으로만 설명될 경우 재지문화와의 접변과 변동에 대한 설명이 지난하다는 지적과 비판²⁰⁾도 엄존한다.

본장에서는 이와같은 문제의식에서 팔달동 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해명을 간단히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앞서 검토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핵심구조에 해당하는 적석과 목관에 천착하고자

19) 국사편찬위원회, 1998, 「철기문화」 『한국사』 3.

20) 이성주, 1998, 「신라·가야사회의 정치·경제적 기원과 성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다. 그 이유는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로 상징되는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 시대의 분묘문화에서 적석과 목관은 앞선 청동기시대의 지석묘와 석관묘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고, 그것을 결국 이전시기 재지 문화에서 보이지 않던 문화요소가 돌발적으로 출현하다는 인식의 출발점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와같은 새로운 문화요소의 돌발적인 출현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주와 전파라는 해석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두 요소가 청동기시대의 재지 분묘에서 발견되는 사례를 검토해보고 재지 분묘의 역동적인 변모 과정에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발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두 요소가 검출되는 청동기시대의 재지 분묘의 사례를 검토하고 비교하여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한 시론적 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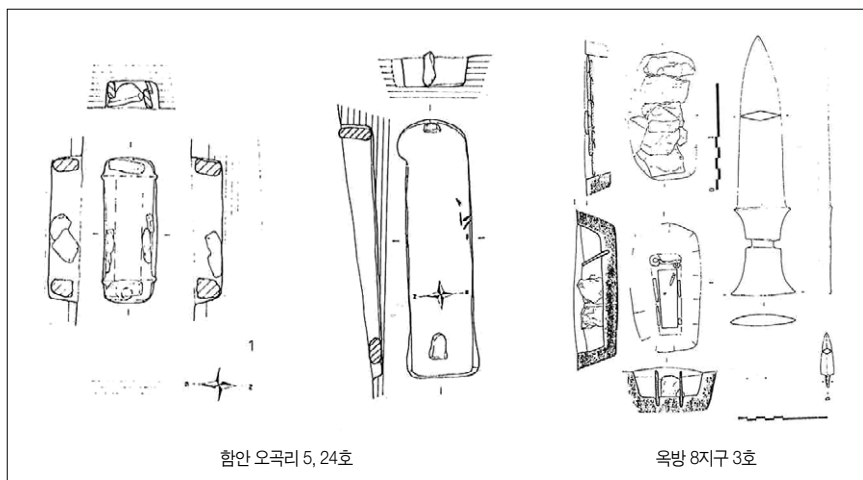
1. 목관

최근 지석묘와 목관묘에서 목관의 흔적 목관에 대한 고고자료들이 검출되고 있어 주목된다. 대표적으로는 사천 이금동 유적²¹⁾을 들 수 있다. 이곳에서는 석관묘의 토광 내에서 목관의 흔적이 검출된 바 있다. D-3-1호와 D-17호, D12호, A-9호에서 목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목관의 흔적은 석관 내에서 유기물의 흔적으로 발견되거나 혹은 석재와 목재를 혼용하여 석관의 벽을 구축한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신천리 I지구 16호 분묘²²⁾의 경우 토광묘의 바닥에 목관의 관재를 세우기 위한 홈이 검출되고 있고 목재를 이용하여 네 벽을 세운 후 생토와 천석을 혼합하여 목관의 외측을 보강하여 토광의 상변까지 이르게 조성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함안 오곡리 5호 석곽묘²³⁾에서는 양 단벽 근처의 장벽모서리에서 결구된 상태로 검출된 목관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천석을 이용하여 목재를 보강한 흔적도 발견되고 있다. 그 외에 진주 대평 옥방 1지구 10호와 45호 토광묘를 비롯하여 다수의 청동기시대 분묘유적에서 토광묘 및 석관 내에 목관을 사용하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21) 경남고고학연구소, 2003, 『사천 이금동 유적』.

22) 최종규·안재호, 1983, 「신천리분묘군」 『중도-진전보고IV』, 국립중앙박물관.

23) 박동백, 1995, 『함안 오곡리유적』, 창원대학교박물관.



〈도 7〉 목관이 확인된 청동기시대의 분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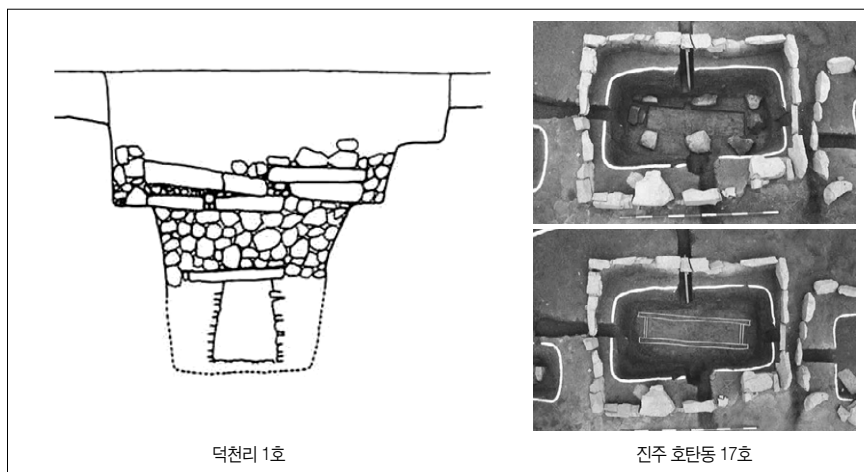
즉 목관이라는 매장주체부가 초기철기시대에 돌연히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시기의 청동기시대에 토광묘 혹은 지석묘와 석관묘의 내부구조 혹은 매장주체부로서 이미 채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적석

적석시설 역시 적석목관묘의 구조적 속성으로서 상징적인 요소이다. 영남지방의 경우에 초포리 이전 단계 즉 청동기시대의 묘제에서도 이와같은 적석 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바로 묘역지석묘²⁴⁾이다. 墓域支石墓는 한강유역과 금강, 섬진강, 낙동강유역 등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고 그 분포에 있고 무엇보다도 해안에 인접해 있거나 해안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지점에서 발견되는 묘역지석묘의 경우 규모가 압도적이고 밀집도가 높은 특징을 가진다.²⁵⁾ 묘역지석묘의 가장 중요한 구조적 특징은 매장주체부를 폐쇄

24) 묘역지석묘는 구획묘, 용담식지석묘, 기단묘 등의 명칭으로 지칭되고 있지만 묘역지석묘의 명칭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명하, 2013, 「嶺南地域 墓域支石墓의 展開」, 영남대학교 대학원.

25) 윤호필, 2010, 「영남지역 묘역지석묘의 변천과 성격」 『한일고고학의 신전개』, 제10회 영남,구주학회 합동고고학대회.



〈도 8〉 묘역지석묘의 구조

한 뒤 다량의 석재를 이용하여 그를 폐회하고 동시에 일정한 구획을 만들어 묘역시설을 조성한 점이다.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되는 적석목관묘의 경우 묘광 내부에 낙하한 석재만 잔존하고 있어 원형을 추정하기 어렵지만 석재의 양으로 본다면 묘역지석묘에서 보이는 양상 비교될 수 있는 정도의 양으로 볼 수 있다. 창원 덕천리유적의 경우 4.5m 깊이로 굴광하고 상면에 매장주체부를 두었으며 묘광은 3단으로 굴광되었고 판석과 적석이 반복되고 있다.²⁶⁾ 대구 지역에서는 상인동 유적²⁷⁾과 진천동유적에서 묘역지석묘가 검출된 바 있다.

V. 결론- 목관묘의 구조와 계통

이상으로 팔달동유적에서 검출된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사례를 통해 해당 분묘의 구조에 대해 살펴보았다.

목관묘의 분묘조성은 기본적으로 굴광-목관-(충전)-목개-적석-봉토의 축

26) 경남대학교박물관, 2013, 『徳川里』.

27) 경북대학교박물관, 1990, 『연보』.

조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목관성격(설치-운구)에 따라 장제의 프로세스가 달라진다. 그런데 이와같은 장제의 복원을 위해서는 잔존한 유구의 구조복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잔존유구에 대한 정확한 복원과 원형에 대한 추론이 없이 분묘의 축조과정이나 의례의 복원은 불가능하며 무의미하다. 목관묘의 연구에 있어서도 구조의 복원에 대한 시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른바 ‘목관묘’가 처음으로 검출되었던 조양동 유적의 조사를 수행하였던 한병삼은 조양동 5호에 대한 기술에서 「조양동 5호묘는 봉토는 대부분 없어졌지만 묘광의 주위와 상부에 적석이 남아있는 점으로 본다면 원래 적석봉토분이었다고 추정된다. 묘광의 중심부에는 길이 140, 폭 50 정도의 목관을 놓고, 목관과 묘광 벽과의 사이에는 회색 점토를 채웠다. 묘광의 중앙벽에 걸쳐 흑색 마연 장경호 1점이 출토한 점으로 보아 원래 묘광은 나무판 뚜껑이 덮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국립경주 박물관 2003 조양동 ii보고서 p51 인용) 이 기술에 따르면 해당 유구는 묘광 내에 목관이 안치되고 관의 광내 목관 상부는 공간을 가지며 목개에 의해 묘광이 폐쇄되고 목개 상면에 흑색 마연 장경호를 이용한 의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한병삼의 이와같은 견해는 당시 발굴조사를 직접 수행하였던 최종규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최종규는 조양동 발굴조사 당시 발표한 개략적인 보고분²⁸⁾에서 목관묘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유물들은 마치 상부로부터 낙하하여 부서지며 사방으로 흩어진 듯한 양상으로 검출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같이 당시 최초의 조사에서 묘광 내부의 양상에 대한 관찰과 그에 근거한 보고가 있음에도 이후의 조사와 그 보고문에서 이와같은 의견이 왜 부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묘광 내부는 충전토로 가득차 있었다는 복원안이 제시된 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재고할 여지가 있고 팔달동유적의 조사에서 검출된 목관묘에 대한 정보는 이와같은 목관묘의 구조 복원을 위한 중요한 자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적석목관묘와 목관묘의 계통에 대해서는 해당 분묘의 적석 시설과 목관이 이전단계의 재지 분묘에서 발견되는 사례에 주목하였다. 초기철기시대

28) 최종규, 1983, 「경주시조양동유적발굴조사개요와 그 성과」 『고대문화』 제 35권 8호, 고대학협회.

의 대표적인 묘제로 알려진 목관묘의 매장주체부인 목관은 지석묘의 하부 구조에서도 발견례가 증가하고 있고 이미 청동기시대에 지석묘의 하부구조 및 매장주체부로 채용되고 있으므로 목관 그 자체만으로 대표되는 문화복합체 전체를 청동기시대 한반도 재지 문화와는 이질적인 요소로 간단히 규정짓기는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목관묘 가운데 목개 상위에 적석을 시행한 적석목관묘의 경우 적석 시설 역시 청동기시대의 이른바 ‘묘역지석묘’와 같은 사례에서 찾아질 수 있는 묘광 상위의 시설과 매우 유사하며 역시 초기철기시대에 갑작스럽게 출현하는 요소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와같이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적석목관묘와 목관묘는 기존 청동기시대의 재지 지석묘와 석관묘에서 이미 채용되고 있던 구성요소이고 그러한 요소가 발전적으로 변화하여 전개되는 과정에서 초기철기시대에 이르러서는 청동기시대의 분묘와는 구별되는 질적 변화를 거쳤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두철, 2008, 「木棺墓와 木槨墓의 조사」, 고고학공개강좌 22회 (재)영남문화재연구원.
- 국립경주박물관, 2003, 『경주 조양동 유적 II』.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大學院 國史學科 博士學位論文.
- 權志瑛, 2006, 「木棺墓에서 木槨墓로의 轉換樣相에 대한 檢討」『嶺南考古學』 38.
- 金度憲, 2002, 「三韓時期 鑄造鑄造의 流通樣相에 대한 檢討」『嶺南考古學』 31, 嶺南考古學會.
- 김두철, 2009, 「변진한의 철기문화」『考古學誌』 특별호, 국립중앙박물관.
- 김상민, 2012, 「한반도 서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양상」『2012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 연구 국제학술포럼』, 국립문화재연구소.
- 金相民, 2013a, 「東北アジアにおける初期鐵器文化の成立と發展」, 九州大學大學院 比較社會文化學府 博士學位論文.
- 김상민, 2013b, 「한반도 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유입과 전개과정」『考古學誌』 19, 국립문화재연구소.
- 미야자토 오사무, 2010, 「다뉴경의 제작지」『청동거울과 고대사회』, 복천박물관.
- 朴升圭, 2000, 「大邱·慶北地方의 木棺墓 資料紹介」『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 합동고고학대회.
- 박승규, 2010, 「영남지방의 목관묘 연구」『2010년도 매장문화재 전문 교육목관묘 조사연구법』,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朴辰一, 2000,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湖南考古學報』 12, 湖南考古學會.
- 朴辰一, 2006, 「기원전 3·2세기대 묘제 고찰」『國史館論叢』 106, 國史編纂委.
- 신경철, 1995, 「삼한·삼국시대의 동래」『동래군지』.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의 변천

-대구 팔달동 옹관묘를 중심으로-

이 석 범

영남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팔달동 옹관묘의 편년

1. 옹관묘의 구조
2. 유물검토
3. 편년 및 분기설정

III.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변천

1. 옹관묘의 출현배경
2. 옹관묘의 단계설정
3. 옹관묘의 배치유형과 부장유물의 변화

IV. 맺음말

| 국문초록 |

점토대토기단계 용관묘에 관한 연구는 횡치용관의 출현배경과 관련한 송국리단계의 직치 또는 시치용관과 관련성을 찾는 자체발생설과 외부유입설로 대별되면서 각 지역 단위별 용관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원형점토대토기단계 늦은 시기에 이미 합구횡치용관이 출현하고, 명사리식토기가 전파되어 재지의 용관묘 조영전통과 결합하여 성립된다. 즉 송국리형 직치용관묘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결합하여 합구횡치용관 출현하였고, 이 후 명사리식토기 유입되면서 합구횡치용관 성행으로 이어진다.

영남지역의 합구횡치용관묘는 김해 회현리, 사천 녹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남서남지역에서 먼저 성행하였고 영남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전파루트는 영남동남지역은 김해를 거쳐 경주-양산구조곡을 따라 형산강까지 확산되었고, 영남내륙지역은 낙동강을 따라 금호강유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아진다. 전자는 김해 화정, 울산 교동리, 경주 하구리, 포항 자명리 등,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역)의 대구 팔달동·신천동·옥수동유적이 해당된다.

대구 팔달동 용관묘는 서기전 1세기 전반 경 영남서남지역의 횡치용관 확산과정에서 출현하며 무문토기(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로 용관묘 I기는 목관묘 Ib단계(서기전 1세기 전반), 용관묘 II기는 목관묘 Ic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 용관묘 III기는 목관묘 IIa단계(서기 1세기 전반), 용관묘 IV기는 목관묘 IIb단계(서기 1세기 후반)와 편행하며, 용관묘 I·II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로 용관묘 III·IV기는 전기와질토기단계로 이다.

토기의 변화상을 토대로 금호강유역 용관묘를 I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 II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전기와질토기 공존기), III단계(전기와질토기단계), IV단계(후기와질토기단계)로 구분하여 용관묘 배치유형과 부장유물의 변화상에서 살펴본 결과, 금호강유역에서는 주거지와 묘역인접형(A형)과 묘역분리형(B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동묘지 내 묘역분리형(C형-팔달동 I II, 학정동)→혼재형(D형-팔달동 III·IV기, 임당, 신대리, 신서동, 내리리, 사수동)→배장형(E형-괴전동, 동내동)순의 변화가 인정되며 용관묘의 단계변화와 일치한다. I 단계에서 IV단계로 갈수록 목관묘 수 대비 용관묘의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성이 보이며 혼재형(D형)이 보이는 서기 1세기 무렵부터 용관의 규모, 청동유물의 부장 등에서 차별성이 보인다. 이는 용관조성시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고 귀족지위가 반영된 결과로 불평등사회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

초기철기시대, 원삼국시대, 삼각형점토대토기, 합구횡치용관, 귀족지위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의 변천

- 대구 팔달동 옹관묘를 중심으로 -

이석범*

I. 머리말

점토대토기단계 옹관묘에 관한 연구는 횡치옹관의 출현배경과 관련한 송국리단계의 직치 또는 시치옹관과 관련성을 찾는 자체발생설(성낙중 1983, 서영남 2004, 박진일 2013)과 전국시대 연나라의 합구식 옹관묘가 요동반도에 전해지고(정대영 2009) 철기문화와 관련을 찾는 외부유입설(이재현 2004, 이춘선 2011)로 대별되면서 각 지역단위별 옹관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횡치옹관의 출현과 계통이 자생적 변화이든 외부의 전파이든 간에 직치단웅에서 횡치합구웅으로의 장법변화는 명확하며 피장자를 신전장하는 횡치옹관의 등장은 묘제변화의 큰 획기가 된다.

영남지역의 옹관묘는 사천 이금동, 거창 대야리, 달성 평촌리의 직치옹관이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되며, 원형점토대토기를 사용한 사천 방지리 63-1호, 김해 회현리 옹관(김해식옹관묘)이 그 이후로 편년된다. 금강유역을 청동기시대 옹관의 중심 분포지역으로 본다면, 영남지역은 초기철기시대부터 목관묘와 함께 옹관묘가 집중적으로 조성되고 변화·발전하는 양상이다. 출현기의 횡치옹관은 초기 목관묘와 함께 등장하며 삼각형점토대웅과 파수부발이 옹관에 사용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은 대구 팔달동유적, 사천 늑도유적, 경주 하구리 및 포항 자명리유적이 있다. 팔달동 유적은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분묘군으

* 영남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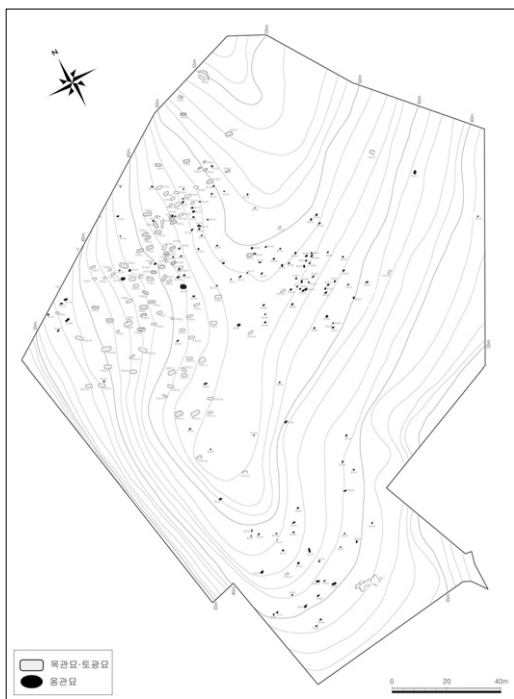
로서 낙동강 중류의 초기 목관묘·옹관묘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필자는 팔달동 옹관토기의 형식변화를 통해 편년을 시도하고 옹관묘의 출현배경과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역) 옹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옹관묘의 배치정형과 유물부장의 변화가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팔달동 옹관묘의 편년

1. 옹관묘의 구조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확인된 옹관묘는 139기¹⁾이며, 목관묘 및 토광묘(102기)와 동일 묘역을 공유하고 있다. 목관묘는 구릉 서북사면에 집중되며, 옹관묘는 목관묘 주변에서 일부 확인되지만, 대부분 구릉의 능선부와 동남사면부에 밀집조성되었다.

옹관묘의 분류는 안치방식, 외부구조, 배치형태, 조합형식에 따라 분류되는데, 팔달동 옹관묘는 옹관을 횡치한 토광옹관묘이다. 배치형태는 대부분 성인묘(목관묘 및



〈도 1〉 팔달동 옹관묘 배치도

1) 1980년에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수습조사 된 3기를 포함하면 142기이다.

토광묘)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조성되었으며 일부 성인묘 주변에 배장한 형태이다. 조합방식은 단옹식, 이음식(2옹식, 3옹식)이 확인된다.

〈표 1〉 옹관의 결합형태

옹관결합형태		유수(기)	전체유구수 대비 비율
단옹식		32	23.0%
이음식	2옹식	93	66.9%
	3옹식	2	1.4%
?		12	8.6%

2. 유물검토²⁾

옹관묘 출토 토기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로 구분된다. 양자의 구분은 기형, 태토, 소성방법 등을 종합하여 구분하여야 하겠지만, 무문토기에 비해 정선된 태토, 환원염 소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등 토기 제작기술의 변화로 출현하는 단경호, 주머니호, 침저호, 장동옹, 완,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의 기종은 와질토기로 정선도가 부족하고 산화염으로 소성된 점토대토기는 무문토기로 보고자 한다.

팔달동 옹관토기 중 기형³⁾을 알 수 있는 옹, 발, 파수부호, 장경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단경호, 침저호, 대호, 완 등의 속성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⁴⁾.

2) 옹의 분류에서 보고서 고찰의 외반구연옹은 Ⅲ형에 해당한다.

3) 보통 옹과 호를 구분없이 사용하는 예가 많은데, 이승태(2008)는 목지름:동최대경이 1 : 0.66 미만을 호로 1 : 0.66 이상을 옹으로 분류하였고, 이춘선(2010)은 동최대경이 구연에 위치/구경부가 형성/구연단이 존재하는 형태를 壺, 동최대경이 동체부에 위치/구경이 동최대경과 비슷하거나 넓은 경우를 甕으로 구분하였다. 필자는 위의 구분은 모든 토기에 일률적인 적용이 어려우므로 경부의 유무에 따라 호와 옹·발로 구분하고, 옹과 발은 구경이 동최대경과 같거나 큰 형태는 발, 구경이 동최대경보다 작은 형태를 옹으로 구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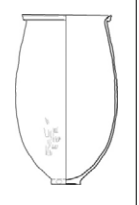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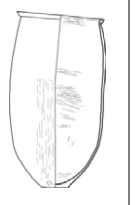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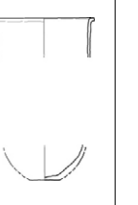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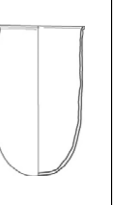
4) 유물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 고찰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속성 간 상관관계는 생략한다.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大邱 八達洞遺蹟Ⅲ』, pp. 390~407.

1) 옹

옹은 구연부의 형태에 따라 크게 점토대옹(74점)과 외반구연옹(8점)으로 구분되며 시루 3점이 포함된다.

〈표 2〉 옹의 형식변화

					
I A식(140호)	II A식(147호)	II B식(252호)	II C식(134호)	III C식(253호)	III D식(156호)

옹의 구연부 형태는 원형→삼각형→외반구연, 저부 형태는 굽형→평저→원저의 변화가 인정된다(서영남 1989, 이성주 1999, 이창희 2005, 이춘선 2010). 팔달동 옹관묘에서는 삼각형점토대옹과 외반구연옹만 확인되므로 구연부 형태에 따라 삼각형점토대가 뚜렷한 것(I)/삼각형점토대를 붙인 뒤 내부 단부를 꺾은 것(II)/외반구연(III), 저부 형태에 따라 굽형(A), 미미한 굽(B), (말각)평저(C), 원저(D)로 구분하여 형식조열하면 〈표 2〉와 같이 I A식→II A식→II B식·II C식→III C식→III D식의 변화가 인정된다.

목관묘와 교차편년하면, I A식·II A식은 팔달동 I b단계(서기전 1세기 전반), II B식·II C식은 팔달동 I c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 III C식은 무문토기질의 마지막단계의 옹으로 I c단계의 늦은 시기로 편년할 수 있다. III D식은 와질의 장동옹으로 팔달동 II a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그 이후의 형식변화는 뚜렷하지 않다. 수평구연에서 <자상 꺾임구연으로 바뀌고 서기 2세기대 무렵부터 타날(덕천리 62호 옹관)이 시문되는 것으로 보인다.

2) 발

발은 파수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24점을 대상으로 분류하면, 구연부 형태에 따라 직립구연(I)⁵⁾/삼각형점토대가 뚜렷한 것(II)/삼각형점토대를 붙

인 뒤 내부 단부를 꺾은 것(Ⅲ), 저부 형태에 따라 굽형(A)/미미한 굽(B)/(말각)평저(C)로 분류하여 형식조열하면 <표 3>과 같이 ⅠA식→ⅡA식→ⅡB식→ⅢB식→ⅢC식의 시간성이 인정된다. 옹의 속성변화와 거의 동일한 양상이며, 유물의 형식상 ⅠA식·ⅡA식·ⅡB식은 팔달동 I b단계(서기전 1세기 전반)로 편년할 수 있다. ⅢB식은 ⅢC식(옹)과 세트를 보이므로 ⅢC식과 함께 팔달동 I c단계의 늦은 시기로 볼 수 있다.

<표 3> 발의 형식변화

				
ⅠA식(214호)	ⅡA식(200호)	ⅡB식(210호)	ⅢB식(192호)	ⅢC식(22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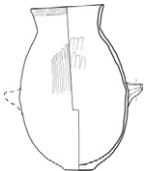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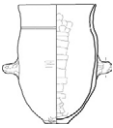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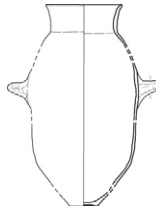
3) 파수부호 · 장동호

파수부호의 분류기준은 구경부 형태, 저부 형태, 파수 위치 등이 있다. 기형이 파악되는 22점을 위의 3가지 형태적속성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구경부 형태에 따라 구경부가 외경하는 것(Ⅰ)/외반하는 것(Ⅱ), 파수 위치는 중위(A)/중상위(B), 저부 형태는 굽형(1)/(말각)평저(2)로 구분된다. 형식조열하면 대체로 ⅠA1식→ⅡB2식의 시간성이 인정되나 각 형식간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며 저부의 형태에 있어서 중형의 동체가 볼록한 기형은 평저화, 대형의 장동한 기형은 좁은 저부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옹과 발의 조합관계에서 ⅠA1식·ⅡA1식은 팔달동 I b단계, ⅡB1식은 팔달동 I c단계로 볼 수 있다. 목관묘(28호, 35호, 90호, 108호, 118호)에서는 모두 동체가 볼록한 형태인데, 옹관묘에서는 두 기형이 점토대발과 조합되는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점, 두 기형이 조합되는 경우(신천동 1호)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시기 차이보다는 매장관습으로 보고 싶다.

5) 직립구연의 발은 무문토기 천발에서 변화된 형식으로 이른 형식의 ⅠA식(옹, 파수부호)과 조합을 보이므로 삼각형점토대발보다 이른 형태로 볼 수 있다.

〈표 4〉 파수부호의 형식변화

				
I A1식(207호)	II A1식(190호)	II B1식(232호)	II B2식(227호, 179호)	

목관묘 편년에 따르면 파수부호는 팔달동 I b단계에 출현하여 서기전후 한 시기의 장동한 형태의 파수부호(임당 A-I -31호)가 첨저호로 변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장동호는 장동한 파수부호의 기형변화와 동일한데, 외경→외반구경으로, 저부 형태는 굽형→(말각)평저로 변화된다.

4) 장경호

전형적인 흑도장경호는 없으며 무문토기질 5점이 출토되었다. 20cm 미만에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있고 미미한 굽을 가진 것(169호, 225호) 2점, 10cm 미만에 동최대경이 동하위에 있고 평저인 것(142호, 216호, 265호) 3점이 확인된다. 전자인 169호, 225호 장경호는 각각 I A식 웅, II B식 발과 공반되므로 팔달동 I b단계로 볼 수 있으며, 후자는 94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형식으로 팔달동 I C단계(서기전 1세기 후반)로 편년된다.

5)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길게 외반하는 구경부편 1점(153호), 원저에 구형인 동체부편 1점(156호)이 확인된다. 2점 모두 85호 목관묘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로 팔달동 II a단계(서기 1세기 전반)로 볼 수 있다.

6) 주머니호

주머니호는 말각평저에 동체부가 편평한 것 1점(170호), 원저에 동체부가 편평한 것 1점(260호)이 확인된다. 전자는 85호 목관묘, 후자는 29호, 31호, 47호, 82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팔달동 Ⅱa단계로 볼 수 있다.

7) 단경호

단경호는 구경부 형태, 동체부 형태, 저부 형태, 타날 형태 등이 기준이 된다. 팔달동 옹관묘에서는 원저에 구경부가 직립·외경하고 구연부가 수평으로 꺾인 것(Ⅰ식), 구경부가 직립·외반하고 구연부가 곡선적으로 꺾인 것(Ⅱ식)으로 구분되며, 동체는 횡타원형에 승문 타날 후 횡침선을 돌렸다. 기형상 Ⅰ식→Ⅱ식으로 변화가 상징되지만, 기형변화가 뚜렷하지 않다. 1식은 82호 목관묘 출토품, 2식은 74호 목관묘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의 단경호로 볼 수 있으므로 팔달동 Ⅱa단계에 속한다.

8) 침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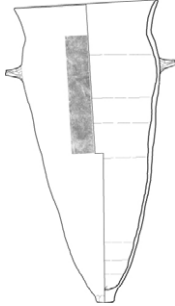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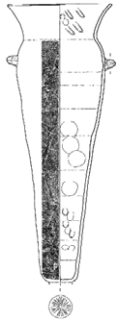
침저호⁶⁾는 장동한 파수부호에서 변화된 기종으로 대부분 완 또는 단경호와 조합을 이룬다. 침저호의 분류는 구경부 형태는 외경(Ⅰ)/외반(Ⅱ), 동체부 형태는 장동형(A)/역삼각형(B)으로 구분된다. 동체부의 타날은 무문, 승문이 있으며, 격자문은 확인되지 않지만, 서기 2세기 전엽으로 편년되는 신대리 26호, 32호, 37호 침저호가 늦은 형식으로 보아진다. 속성간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지만 <표 5>와 같이 ⅠA식→ⅡB식의 변화는 인정된다.

침저호는 263호에서 점토대발(ⅢC식)과 조합되는 형식이 가장 이르며, 임당 A-Ⅰ-34호(ⅠA식) 공반유물(주머니호, 단경호, 검파두식 등)을 참고

6) 침저호는 침저옹, 파수부장동옹, 파수부호, 장동옹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는 데, 필자는 경부를 가지므로 일단 호로 분류하고 기형적인 특징을 강조하여 파수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침저호로 칭하고, 기벽이 두껍고 타원형 동체에 돌출저부나 원저를 띤 대형의 호(40cm 이상)는 대호(소위 대옹)라 칭한다(보고서에는 침저호로 표기함).

하면 서기전 1세기 말에는 등장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첨저호의 형식

				
I A식(263호)	II A식(182호)	II B식(180호, 185호)		II B식(격자문) (신대 37호)

9) 대호

대호는 주로 단웅식 옹관에 사용된다. 대호의 분류⁷⁾는 구경부 형태, 동체부 형태, 저부형태로 구분된다. 구경부 형태는 외경(Ⅰ)/외반(Ⅱ)/C자상 또는 직립외반(Ⅲ), 동체부 형태는 동최대경이 동중상위에 있는 것(A)/동최대경이 중위에 있는 것(B)으로 구분된다. 저부 형태는 첨저에서 원저로 변화하는데 원저는 보이지 않는다. 동체부 타날은 대부분 무문이며 일부 승문이 확인될 뿐, 격자문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팔달동에서는 I A식(170호, 255호)과 I B식(159호)이 확인된다. 금호강유역의 옹관묘 출토 대호를 포함하면 I A식, I B식, II B식, III B식의 형식이 확인된다. 각 형식과 공반되는 유물을 통해 교차편년하면, I A식은 공반된 주머니호를 통해 팔달동 II a단계(서기 1세기 전반)로 볼 수 있으며, 안테나식 검파두식(서기전 1세기 후엽)이 출토된 봉무동 1호 대호가 가장 이른 형식으로 볼 수 있다. I B식은 신서동 1호가 여기에 속하며 원

7) 필자는 대호(대웅)을 기술적 속성(타날기법)을 1분류로 설정하여 형식분류한 바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기종과 일관되게 구경부/동체부/저부 순으로 속성기준을 정하기로 한다.

저에 내만하는 동체를 가진 주머니호(96호, 112호 목관묘)를 통해 팔달동 Ⅱb단계(서기 1세기 후반), ⅡB식(신대리 19호)은 서기 2세기 전반, ⅢB식(괴전동 1호, 동대동 1·2호)는 서기 2세기 말 ~ 3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10) 완

완은 주로 장동옹과 침저호의 막음옹으로 사용된다. 대부분 원저이며 말각평저인 148호가 늦은 형식으로 볼 수 있으며, 170호 출토 소형완은 공반된 주머니호를 통해 서기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3. 편년 및 분기설정⁸⁾

이상과 같이 옹관묘 출토유물을 검토해 본 결과, 팔달동 옹관묘는 동일묘역 내에 목관묘 및 토광묘가 동시기에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목관묘 보고서 고찰(김수경·진수정 2000)에서 언급되었듯이 팔달동 Ia단계는 흑도장경호와 점토대옹이 공반되는 단계이고, 이 단계의 옹관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팔달동 옹관묘(목관묘)의 편년에 근거가 되는 자료는 조양동 5호 출토 多鈕鏡(서기전 1C 전엽), 다호리 1호 및 용전리 목관묘 출토 星雲文鏡(서기전 1C 중·후엽), 조양동 38호 출토 異體字銘帶鏡(서기전 1C 후엽)이 있다. 이 유물들의 절대연대를 참고하여 공반유물을 통한 비교편년하면 아래와 같다.

옹관묘 I 기에는 옹(I A식, II A식), 발(I A식, II A식, II B식), 파수부호(I A1식, II A1식), 장동호가 옹관에 사용되고, 소형의 장경호, 점토대옹, 배 등이 일부 옹관에 부장된다. 옹과 발은 삼각형점토대가 뚜렷하고 굽을 가진 형식이다. 목관묘(토광묘)와의 공반관계를 통해 조양동 5호단계,

8) 필자는 팔달동 옹관묘 고찰에서 유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옹관묘의 편년을 3 단계로 설정하였다. 이번 기회를 통해 옹관묘 조성시기를 목관묘단계와 평행한 4 분기의 수정연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늑도 3기, 다호리 I 기와 평행한 서기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옹관묘 II 기에는 옹(ⅡB식, ⅡC식, ⅢC식), 발(ⅢB식, ⅢC식), 파수부호(ⅡB1식, ⅡB2식) 등의 점토대토기가 주류이며 와질의 시루와 침저호가 등장한다. 옹과 발은 삼각형점토대를 붙인 뒤 내부 단부를 깎은 형태이며 미미한 굽이거나 (말각)평저를 띤다. 침저호는 II 기 말경에 장동한 파수부호(ⅡB2식)가 변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기의 형식변화와 공반관계를 통해 옹관묘 II 기는 서기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할 수 있다.

옹관묘 III 기는 전기와질토기가 주를 이루며 앞선 시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는 소멸하고 장동옹(ⅢD식), 조합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단경호(I식, II식), 대호(ⅠA식), 침저호(ⅡA식), 완(Ⅰ형), 시루(B형) 등이 주를 이룬다. 철기유물이 부장되기 시작한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크게 외반하는 구경부, 원저의 구형 동체인 점에서 출현기에서 변화된 형식(85호 목관)에 해당되며, 주머니호는 말각평저 또는 원저에 편평한 동체를 띠므로 팔달동 II a단계(29호, 31호, 47호, 82호, 85 목관묘)에 속한다. 이러한 형식은 조양동 38호 출토품보다 늦은 형식으로 서기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된다.

〈표 6〉 옹관묘 유물 형식조열표

단계	호수	옹					발					파수부호				장동호	장경호	조합우각파수	주머니호	단경호		대호		침저호		시루		완		사이부호
		I A	II A	II B	III C	III D	I A	II A	II B	III B	III C	I A 1	II A 1	II B 1	II B 2					I	II	I A	I B	I A	II A	II B	A	B	I	
I 기	139호	●																												
	140호	●																												
	144호	●																												
	145호	●																												
	146호	●																												
	167호	●																												
	214호							●				●																		
169호	●							●								●														

단계	호수	옹					발					파수부호			장동호	장경호	조함우각파수	주머니호	단경호		대호		첨저호		시루		완		사이부호
		I A	II A	III B	III C	III D	I A	II A	III B	III C	I A 1	II A 1	III B 1	III B 2					I	II	I A	I B	I A	II A	II B	A	B	I	II
I 기	221호	●													●														
	258호	●							●																				
	264호	●										●																	
	149호										?															●			
	147호	●																											
	216호							●				●																	
	136호								●																				
	207호								●			●																	
	208호								●			●																	
	210호								●			●																	
	211호											●																	
	190호	●										●																	
	225호								●				●		●														
II 기	188호		●							●																			
	192호		●							●																			
	218호		●							●																			
	252호		●							●																			
	131호		●																										
	158호		●																										
	196호		●																										
	217호		●																										
	236호		●																										
	250호		●																										
	176호		●	●																									
	133호			●																									
	134호			●																									
	253호				●					●																			
	171호				●																								
	240호									●			●																
	166호			?						●																			1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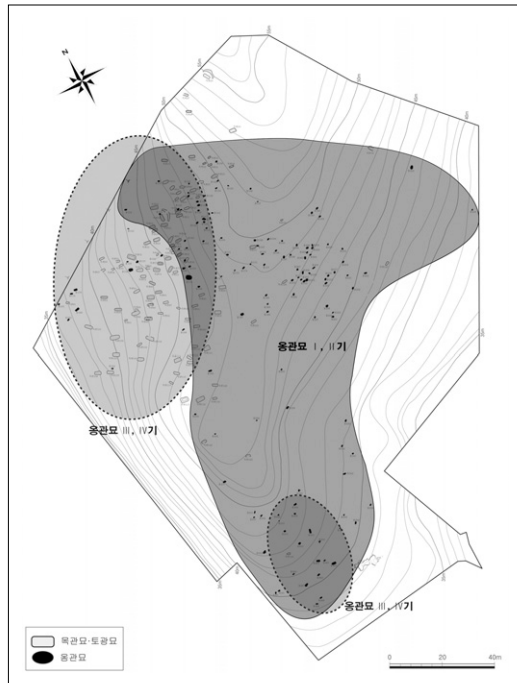
단계	호수	응					발					파수부호			장동호	장경호	조합우각파수	주머니호	단경호		대호		침저호		시루		완		사이부호
		I A	II A	II B	II C	III C	I A	II A	II B	III C	I A 1	II A 1	II B 1	II B 2					I	II	I A	I B	I A	II A	II B	A	B	I	
II기	168호													●													●		
	202호			?										●															
	232호													●															
	235호													●															
	237호															●													
	268호															●													
	233호															●													
	227호														●		●												
	263호														●									●					
III기	260호													●				●											
	179호													●					●										
	156호						●											●											
	153호																	●											
	170호																		●		●						●		
	255호						●													●	●								
	132호						●																						
	182호																			?				●					
	186호																							●					
	162호																			●							●		
	163호																			●									
IV기	159호																		?		●								
	180호																		●						●				
	155호																								●				
	262호																								●		●		
	157호																								●		●		
	185호																								●		●		
	148호						●															?						●	
	269호							?																				●	
	178호																			●									●

옹관묘 Ⅳ기는 Ⅲ기와 거의 동일한 와질토기기가 종이 주를 이룬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는 확인되지 않고, 단경호(Ⅱ식), 대호(ⅠB식), 첨저호(ⅡB식), 완(Ⅰ, Ⅱ형), 사이부호 등이 출토된다. 신서동 1호, 5호의 대호(ⅠB식)의 공반유물(주머니호)을 통해 교차편년하면서 서기 1세기 후반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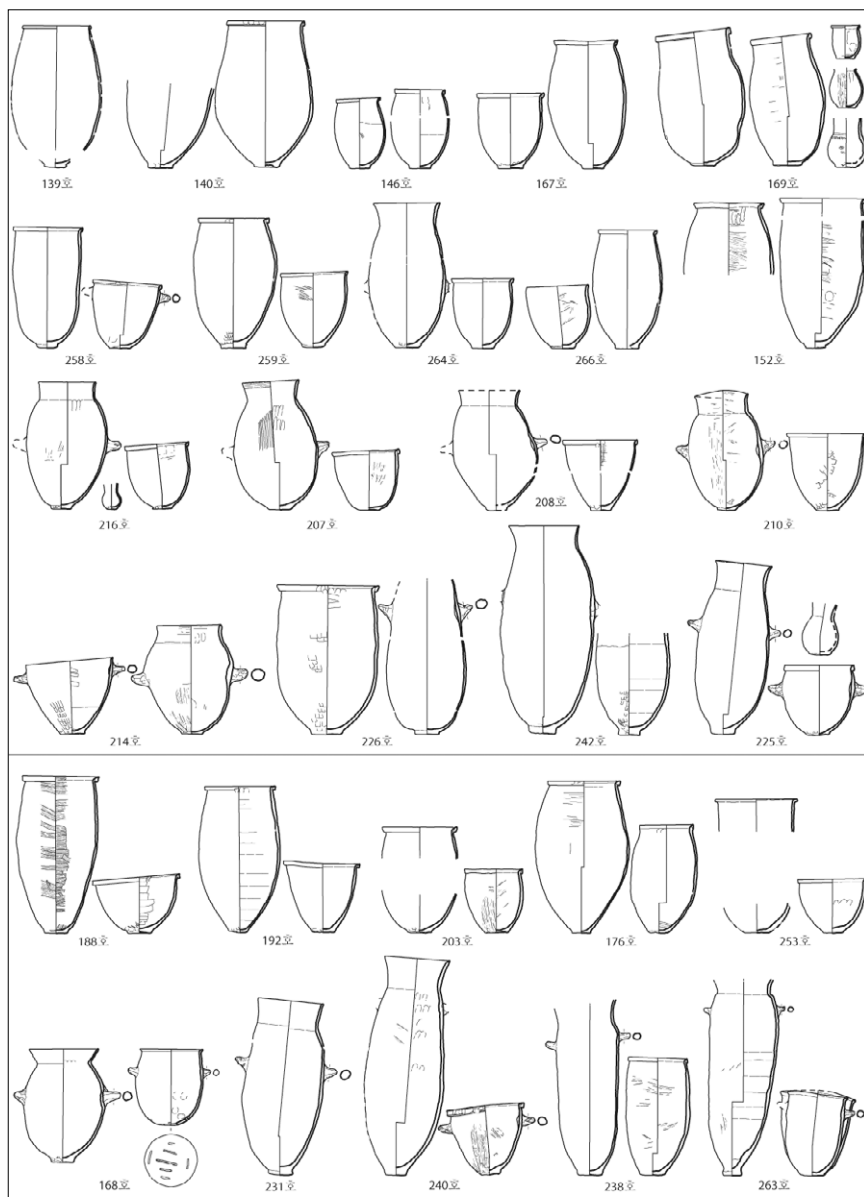
팔달동 옹관묘는 <표 7>과 같이 목관묘 Ⅰb단계 ~ Ⅱb단계는 옹관묘 Ⅰ기 ~ Ⅳ기와 병행하며,

목관묘 Ⅰa단계와 목곽묘단계인 Ⅲ 단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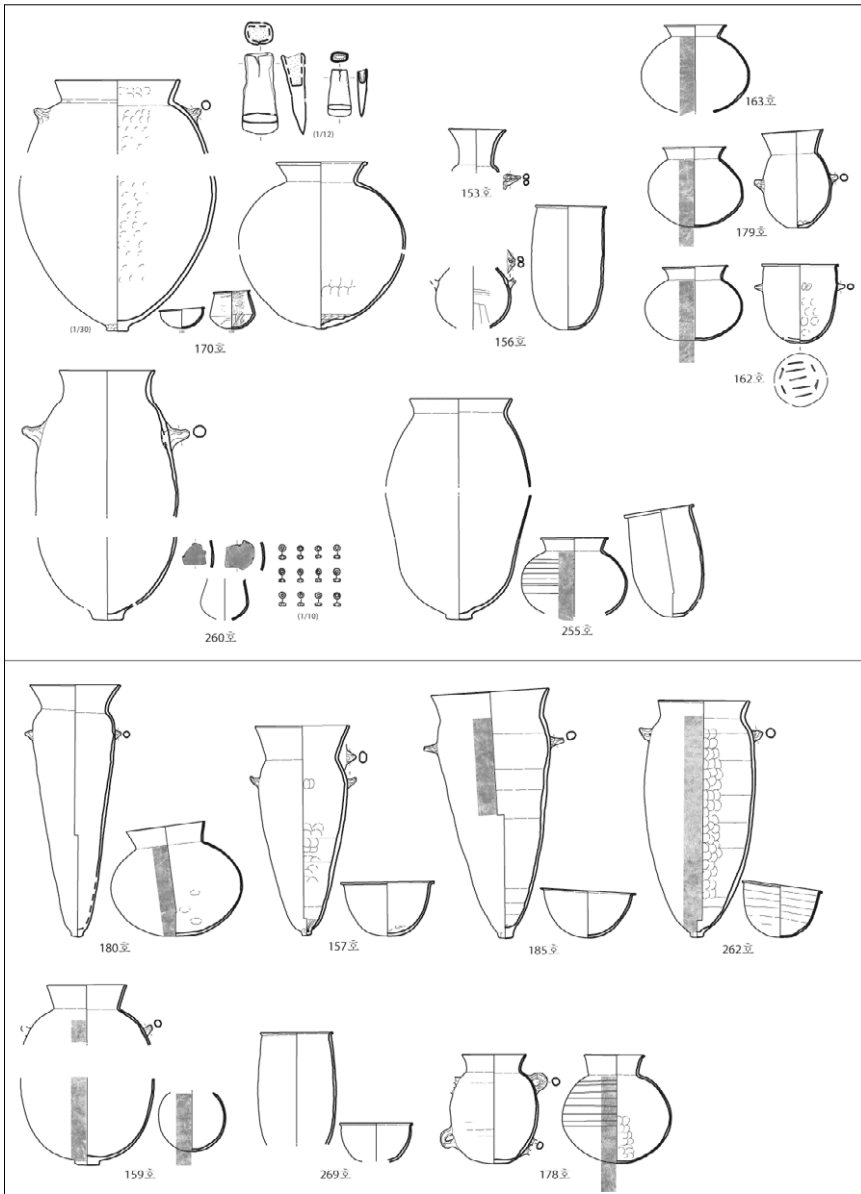
옹관묘 Ⅰ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Ⅱ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 토기가 주를 이루고 와질의 시루와 첨저호가 등장하여 파수부호와 점토대발과 조합을 이룬다. 옹관묘 Ⅲ·Ⅳ기는 전기와질토기단계에 해당된다. 옹관묘에서는 이른 형식의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옹관묘의 특성상 유아매장에 용이한 옹, 발, 호 등 아가리가 넓은 대형토기를 선호했던 것으로 이해되며, Ⅱ기에 시루와 첨저호가 먼저 사용되는 점도 그러한 연유인 듯하다.



〈도 2〉 팔달동 옹관묘 분기별 배치



〈도 3〉 팔달동 응관묘 I기(상) 및 II기(하) 유물(1/10)



〈도 4〉 팔달동 옹관묘 Ⅲ기(상) 및 Ⅳ기(하) 유물(1/10, 축적이 다른 경우는 별도 표기함)

〈표 7〉 팔달동 옹관묘의 상대편년

연년	내용	목관묘 단계	옹관묘 분기	해당유구(호수)
서기전 2C 후반		a		
서기전 1C 전반		b	옹관묘 Ⅰ기	136, 139, 140, 144~147, 149, 152, 167, 169, 181, 184, 190, 193, 200, 207, 208, 210~212, 214, 216, 221, 225, 242, 258, 259, 264, 266, 267
서기전 1C 후반		c	옹관묘 Ⅱ기	131, 133, 134, 158, 165, 166, 168, 171, 176, 188, 192, 196, 202, 203, 217, 218, 227, 232, 233, 236, 237, 240, 241, 250, 252, 253, 257, 263, 268
서기 1C 전반		a	옹관묘 Ⅲ기	132, 153, 156, 162, 163, 170, 182, 186, 255, 260
서기 1C 후반		b	옹관묘 Ⅳ기	148, 155, 157, 159, 178, 180, 185, 262, 269
서기 2C 중반		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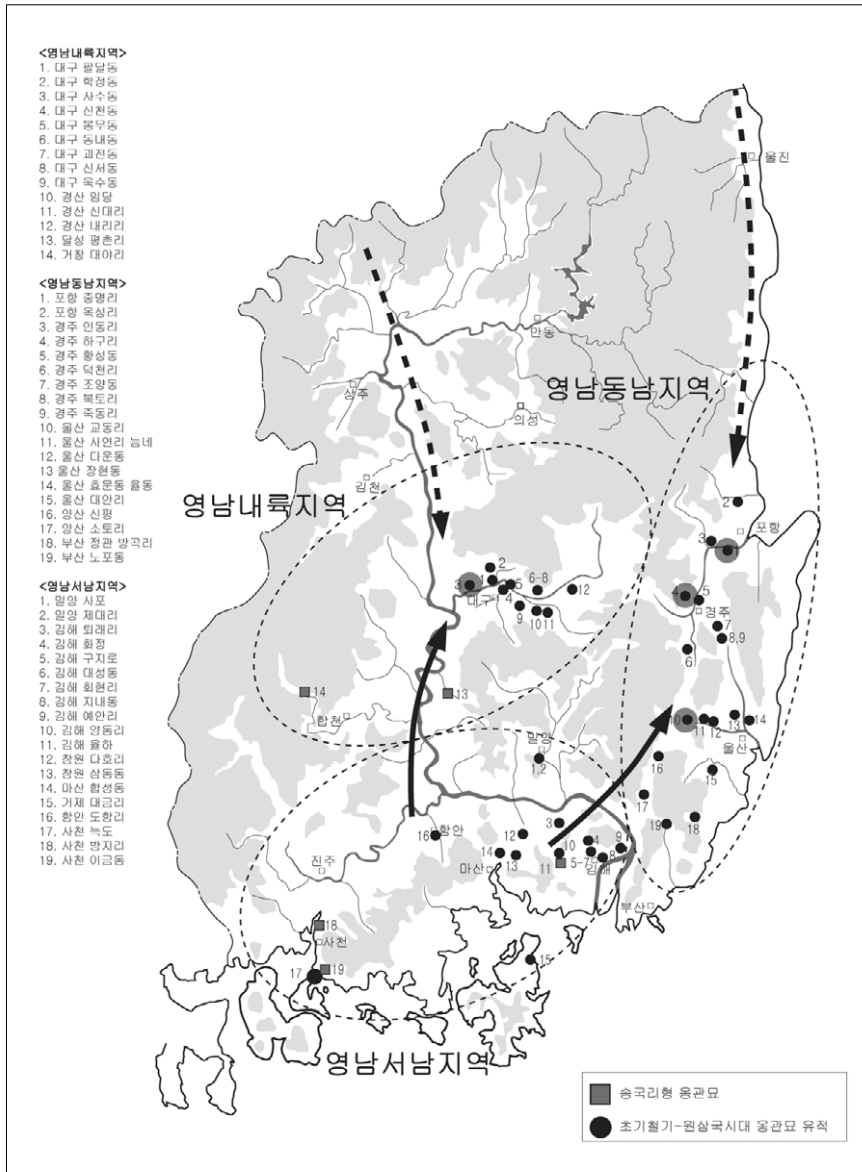
Ⅲ.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변천

1.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출현배경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출현배경에 앞서 한반도 남부지역 횡치옹관의 출현 배경에 대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횡치옹관의 출현배경은 송국리단계의 직치 또는 시치옹관과 관련성을 찾는 자체발생설과 전국계 철기문화와 관련성을 찾는 외부유입설이 있다.

자체발생설은 청동기시대 직치옹관인 사천 이금동 A-8호, 거창 대야리 1·2호 옹관에 사용된 외반구연호가 송국리형 외반구연호에서 변형된 점과 보령 관창리 F-42호의 우각형파수가 붙은 외반구연호, 원형점토대옹을 사용한 사천 방지리 38호의 직치옹관 등을 통해 볼 때, 토기 및 장법상에서 재지계의 송국리형직치옹관의 전통이 원형점토대단계로 연결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우각형파수가 부착된 외반구연호 1점을 횡치한 김해 율하 F-2호묘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옹관묘 조영 전통은 늑도 옹관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합치횡구, 판석폐쇄, 단옹식이 다수인 점, 배수용 투공 등이 된다(서영남 2003). 박진일(2013)은 서영남의 견해를 바탕으로 원형점토대토기단계(방지리 1기)에 이미 봉상파수가 출토되는 점에서 삼각형점토대토기 등장 이전에 명사리식토기가 서남해안을 통해 남부지방에 전래되어 서기전 200년경에 사천 방지리유적과 늑도유적



<도 5> 영남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분포 및 전파루트

등 영남서부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가 등장하였으며 이런 관점에서 영남지역의 횡치옹관은 늑도유적에서 성립하여 영남전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외부유입설에도 약간의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합구식옹관의 등장을 한반도 남부지역에 철기문화 1차 파급과 밀접하고 고조선 멸망(서기전 108년) 후 유민의 남하에 따른 철기문화의 2차 파급과 함께 유입된 명사리식토기와 관련된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함께 성행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재현 2004), 서북한 지역의 명사리식토기가 서남해안 루트를 통해 전파되어 재지의 외반구연 토기문화에 봉상파수가 결합하여 삼각형점토대단계부터 자비용 토기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토기분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춘선 2010) 등이 있다. 외부유입설과 자체발생설 모두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함께 합구횡치옹관이 성행한다는 점은 이견이 없는 듯하다.

필자는 원형점토대토기단계 늦은 시기에 이미 합구횡치옹관이 출현하므로 명사리식 옹관과 계보상 무관하며, 명사리식토기가 원형점토대토기 단계(방지리 1기)에 이미 전파되어 재지의 옹관묘 조형전통과 결합하여 성립하였다는 박진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송국리형 직치옹관묘에 원형점토대토기문화가 결합하여 합구횡치옹관이 출현하였고, 이 후 명사리식토기 유입되면서 합구횡치옹관 성행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해 회현리옹관의 경우는 재지의 합구횡치옹관에 야요이식토기가 사용된 예로서 야요이식토기(城ノ越式)와 공반유물(세형동검, 동사)를 통해 늑도옹관보다 약간 앞선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영남지역에서는 김해, 사천을 중심으로 하는 영남서남지역에서 합구횡치옹관이 먼저 성행하였고 영남전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파루트⁹⁾는 영남동남지역은 김해를 거쳐 경주-양산구조곡을 따라 형산강까지 확산되었고, 영남내륙지역은 낙동강을 따라 금호강유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아진다. 전자는 김해 화정, 울산 교동리, 경주 하구리, 포항 자명리 등,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역)

9) 영남북부지역에서는 아직 초기 옹관자료가 없지만, 상주 병성동, 상주 이부곡토성, 안동 지례리, 의성 기도리, 울진 봉산리유적 등에서 원형점토대토기단계의 토기가 출토된 바 있으므로 북부내륙과 동해안루트를 통한 전파 가능성은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의 대구 팔달동·신천동·옥수동유적이 해당된다.

따라서 팔달동 옹관묘는 서기전 1세기 전반경 영남서남지역의 횡치옹관 확산과정에서 출현하여 서기 1세기 후반까지 조영된다. 주변으로 팔달동 목곽묘, 서변동 목곽묘가 서기 4세기 전반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반해 해당 시기의 옹관묘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이 의문이며, 이 시기에는 금호강 중류역의 대구 경산지역(임당, 신대리, 내리리)에서 옹관묘 조성이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2. 옹관묘의 단계설정

금호강유역(영남내륙지역)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서기전 1세기~서기 3세기) 유적은 <표 8>과 같이 총 12개소가 확인되고 있다.

<표 8>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현황

유적 번호	유적명	옹관묘 (기)	공반유구	입지	참고문헌	조성시기 (보고서 참조)
1	대구 팔달동유적	139	목관·토광묘 102	구룡사면	2015,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전반 ~서기 1C 후반
2	대구 학정동유적	8	목관53	구룡사면	2009, 2015, 영남문화재연구원 2012, 세종문화재연구원	서기전후~2C 전엽
3	대구 사수동유적	2	목관15	구룡사면	2012, 세종문화재연구원	서기 1C 후반~2C 중반
4	대구 신천동 621-1유적	1	초기철기 생활유구	구룡사면	2009, 삼한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전엽
5	대구 봉무동유적	1	·	충적지	2010,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후엽
6	대구 동내동유적	2	목관6, 목곽8	구룡사면	2002,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 3C 전반
7	대구 괴전동유적	2	목곽20	구룡사면	2004, 영남대학교박물관	서기 3C 전반
8	대구 신서동유적	11	목관15	구룡사면	201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서기 1C 중·후엽
9	대구 옥수동 128유적	1	·	선상지	2003,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전 1C 전반
10	경산 임당 유적	19	목관49, 목곽30	저구릉	1998,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서기전후~3C후반
11	경산 신대리유적	45	목관112	저구릉	2010, 영남문화재연구원	서기 1C 전반~2C 전반
12	경산 내리리유적	14	목관9	구릉	2009, 한빛문화재연구원	서기 1C 대

*유적번호는 도면의 유적번호와 같음

영남서남지역의 삼각형점토대토기문화와 함께 유입된 옹관묘는 금호강하류의 팔달동유적부터 시작된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팔달동 옹관묘

는 Ⅰ기~Ⅳ기(서기전 1세기 전반~서기 1세기 후반)까지 편년된다. 점토 대토기에서 와질토기의 변화과정이 명확한 팔달동 옹관묘를 통해 금호강유역의 옹관유적을 발생순서대로 배열하면 <표 9>와 같다.

옹관은 시신을 신전장을 목적으로 하는 묘제이므로 옹관토기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 여러 개의 토기를 결합하여 신전장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옹관의 합구방법에 있어 특별한 정형성이나 시간성을 찾기 어려우며 일상토기(자비용 또는 저장용)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당시 유행 하던 기종이 그대로 반영된다. 시기에 따라 토기의 제작기법과 변천이 일치 하는 점에서 토기의 변화상에 따라 Ⅰ~Ⅳ단계로 설정할 수 있다¹⁰⁾.

<표 9>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상대편년(조성시기는 보고서 참고)

구 분	서기전(B.C.)				서기(A.D.)							
	2C 전반	2C 후반	1C 전반	1C 후반	1C 전반	1C 후반	2C 전반	2C 후반	3C 전반	3C 후반		
영남서남		사전 늑도(출현기)										
		회현리										
영남동남			울산 교동리(출현기)									
			경주 하구리(출현기)									
			포항 자명리(출현기)									
영남내륙 (금호강 유역)			팔달동Ⅰ기	팔달동Ⅱ기	팔달동Ⅲ기	팔달동Ⅳ기						
			대구 신천동									
			대구 옥수동									
				대구 봉무동								
					경산 입당							
					대구 학정동							
					경산 신태리							
					경산 내대리							
					대구 신서동							
					대구 사수동							
										대구 괴전동		
										대구 동내동		
단계			Ⅰ 단계	Ⅱ 단계	Ⅲ 단계				Ⅳ 단계			
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전기와질토기					후기와질토기			

10) Ⅲ 단계는 대호, 단경호, 완, 첨저호 등 토기의 형식변화를 통해 세분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큰 흐름만 파악하기로 한다.

I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는 서기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며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옹(시루), 발, 파수부호, 장동호 등이 확인된다. 삼각형점토대가 뚜렷하고 굽형저부를 가지는 점이 특징이다. 옹관 조합방식은 단옹식과 2옹식만 확인된다. 팔달동 I 기, 신천동, 옥수동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II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전기와질토기 공존기)는 서기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의 토기 기종은 I 단계와 동일하다. 삼각형점토대를 붙인 뒤 내부 단부를 꺾었으며, 저부는 (말각)평저화가 진행된다. 와질토기(대호, 첨저호)가 등장한다. 옹관 조합방식은 단옹식과 2옹식만 확인된다. 팔달동 II 기, 봉무동 1호가 이 단계에 속한다.

III 단계(전기와질토기단계)는 서기 1세기~2세기 중엽까지로 편년된다. 주옹은 대호, 첨저호, 장동호, 장동옹(시루), 단경호 등이, 막음옹은 단경호, 장동옹, 파수부호, 사이부호, 완 등으로 기종이 다양해진다. 옹관 조합방식은 대부분 단옹식과 2옹식이며 3옹식과 4옹식도 일부 확인된다. 팔달동 III·IV 기, 학정동, 임당, 신대리, 내리리, 신서동, 사수동이 여기에 속한다.

IV 단계(후기와질토기단계)는 목곽묘단계로 서기 2세기 후엽~3세기까지로 편년된다. 후기와질토기가 주류이며 대호, 장동옹, 양이부호, 완 등이 확인된다. IV 단계는 옹관자료가 빈약하지만, 노형토기, 파수부발 등도 사용되었을 것이다.

3. 옹관묘의 배치유형과 부장유물의 변화

유아의 전용묘인 옹관묘는 성인묘와의 배치유형상 일정한 정형성을 보인다. 이재현(2003)은 신평리형, 팔달동형, 임당동형으로 옹관묘의 분포유형을 설정하고 목관묘의 늦은 시기(A.D. 1세기 무렵)에 조성된 임당동 옹관묘부터 유아에게 귀속지위¹¹⁾가 부여된다고 보았으며 2~3세기 무렵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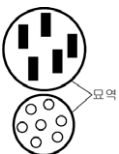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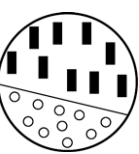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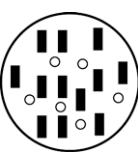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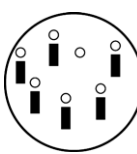
11) 귀속지위는 개인이 출생이나 직접적인 가족적 배경의 결과로서 할당받게 되는 사회적 지위이다. 지위의 상속, 즉 출생에 의해 다른 구성원보다 높거나 낮은 지위차이를 말하며, 불평등이 제도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혈통이나 혈연에 의해 세습화되는 특징을 가진다.

목곽묘의 출현과 함께 옹관묘가 성인묘역에 조성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등 귀족지위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제도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영남(2004)은 입당동형(3유형)을 옹관묘의 점유비율에 따라 4가지로 세분하고 배묘가 출현하는 4유형까지 설정하였다. 이춘선(2010)은 이재현의 3가지 유형에 늑도유형, 덕천리유형, 삼동동유형을 추가하여 a류~f류로 나누었다.

아래의 표는 금호강유역 옹관묘의 배치형태를 토대로 이춘선의 배치유형을 일부 수정하여 도식화 한 것이다.

〈표 10〉 옹관묘 배치유형

* 이춘선(2010)의 옹관 배치유형 일부 수정

구분	주거/묘역인접형 (A형)	묘역분리형 (B형)	공동묘지 내 묘역분리형(C형)	성인묘와 혼재형 (D형)	성인묘의 배장형 (E형)
배치유형					
해당유적	사천 늑도	양산 신평 경주 하구리 포항 중명리	팔달동 I · II기 학정동 울산 교동리	팔달동 III · IV기 신대리, 입당, 내리리, 사수동, 신서동	괴전동, 동내동
금호강 유역 옹관묘 단계	출현기	영남동남지역	I ~ II 단계 III 단계 이른 시기	III 단계	IV 단계

A형-주거지와 접해 성인묘와 혼재하여 무질서하게 배치

B형-성인묘와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군집 배치

C형-공동묘지 내에서 성인묘와 분리되어 군집 또는 무질서하게 배치

D형-공동묘지 내에서 성인묘와 혼재하여 무질서하게 배치

E형-공동묘지 내에서 성인묘의 배장묘로 배치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徐姈男, 2003, 『嶺南地域 三韓·三國時代 幼兒墓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崔志惠, 2010, 『嶺南地域 古代 幼兒墓를 통한 社會的 位階化』,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A형은 늑도유적에 해당한다. 옹관묘의 수가 성인묘보다 많고, 주거지와 접해 성인묘와 혼재된 양상이다. 이는 지형적인 제약이 많은 늑도유적만의 특수성으로 파악된다.

B형은 금호강유역에서는 찾을 수 없으며, 포항 중명리, 경주 하구리, 양산 신평유적이 여기에 속한다. 성인묘 대비 옹관묘의 비율이 70% 이상이며 신평유적과 중명리유적의 경우는 조사된 범위 내에서 성인묘가 확인되지 않아 배치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주변에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경주 하구리의 경우는 인접지역의 발굴조사(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0, 2011)에서 동시기의 목관묘가 확인되고 있어 묘역분리형으로 볼 수 있다. 영남동남지역의 이른 시기의 유적에서만 확인된다.

C형은 팔달동 I·II기, 학정동, 울산 교동리 유적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옹관묘 비율이 높은 편이다. I~II단계와 III단계 이른 시기의 옹관이 여기에 속한다.

D형부터 성인묘와 옹관묘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팔달동 III·IV기, 신대리, 임당, 내리리, 사수동, 신서동이 여기에 속하며 III단계(전기와질토기단계)에 해당되는 유적들이다. D형부터 성인묘에 비해 옹관묘의 비율이 급격히 낮아진다.

E형과 F형은 자료가 부족하여 명확하지 않지만, IV단계(후기와질토기단계)에 속하는 괴전동, 동내동유적이 여기에 속하며, 동내동 54호는 배치상 55호 목곽묘의 배장으로 볼 수 있겠다.

옹관묘의 부장유물은 성별, 나이, 신분 등과 그에 따른 사회적 지위를 유출할 수 있는 자료가 되므로 그 부장품의 종류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표 11〉은 유물을 부장한 옹관묘이다. 전체 옹관묘수 대비 유물을 부장한 옹관묘의 비율을 살펴보면, 팔달동(7.2%), 봉무동(100%), 임당(39.6%), 신대리(22.3%), 내리리(14.3%), 신서동(27.3%)의 비율을 보인다. 이러한 비율은 조사범위와 연관되므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순 없지만, III단계부터 유물을 부장한 옹관묘가 확연히 증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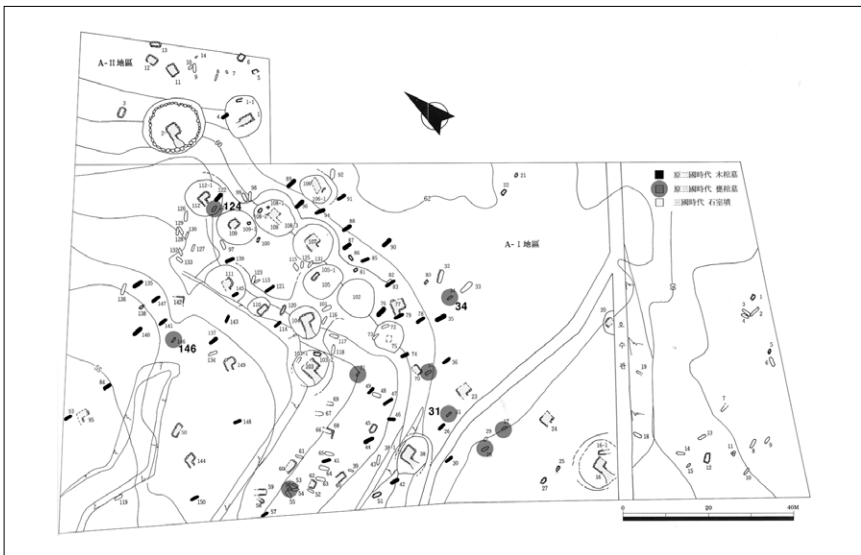
I·II단계는 팔달동 I·II기와 봉무동 1호가 해당된다. 팔달동 옹관에서는 관외에 소형의 장경호, 배, 점토대웅을 매납하고 있는데, 명사리식 옹

관묘의 부장습속으로 보고 있다(이춘선 2010). 봉무동 1호는 단옹식으로 대호 내부에 철초검파두식철검 1점과 소환두소도 1점을 매납하였는데, 서기전 1세기 후엽부터 청동유물과 철기의 부장이 시작됨을 알 수 있다.

〈표 11〉 금호강유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옹관묘 부장유물

유구명(호)	옹관형식		옹관길이 (cm)	부장유물		옹관묘 단계
	조합방식	주용		관내	관외	
팔달동 169	2옹식	점토대용	86	.	점토대발1, 소호1, 장경호1	Ⅰ 단계
팔달동 225	2옹식	파수부호	74	.	장경호1	
팔달동 243	?	옹편	?	.	배1	
팔달동 216	2옹식	파수부호	68.5	.	장경호1	Ⅱ 단계
팔달동 252	2옹식	점토대용	96	.	점토대용1	
팔달동 265	?	점토대용	?	.	장경호1	
팔달동 142	2옹식	점토대용	88	.	장경호1	
팔달동 161	2옹식	점토대용	70	.	배1	
봉무동 1	단옹식	대호	(152.5)	철초검파두식철검1, 환두소도1	.	
팔달동 170	2옹식	대호	152	.	완1, 주머니호1, 철부2	Ⅲ 단계
팔달동 260	2옹식	파수부호	142	골제구슬1(?)	주머니호1, 동체부편1	
임당A-I-28	2옹식	첨저호	125	.	완1	
임당A-I-31	2옹식	첨저호	96.3	검파두식1	.	
임당A-I-34	2옹식	첨저호	123	주머니호1, 검파두식1, 청동마1 철완1, 환옥63	.	
임당A-I-124	2옹식	대호	132	검파두식1, 청동완1, 환옥(93+60) 수정제다면옥1, 청동장식1	주머니호1	
임당A-I-146	단옹식	대호	113	세형동검편1, 와절호편1	.	
임당C-I-51	단옹식	대호	?	.	조합우각형파수부호1	
임당D-II-184	2옹식	첨저호	130	방추차1, 환옥5	주머니호1	
신대리 2	2옹식	첨저호	60	불명옥1	.	
신대리 3	2옹식	대호	90	불명옥2	.	
신대리 8	2옹식	첨저호	141	환옥2, 치아1	.	
신대리 17	2옹식	첨저호	(147)	환옥2	.	
신대리 19	2옹식	대호	116	환옥4	.	
신대리 30	3옹식	대호	129	환옥11	.	
신대리 34	2옹식	대호	91	불명철기1	.	
신대리 40	2옹식	첨저호	124	환옥3	.	
신대리 42	2옹식	대호	109	환옥269	.	

유구명(호)	옹관형식		옹관길이 (cm)	부장유물		옹관묘 단계
	조함방식	주옹		관내	관외	
신대리 44	2옹식	침저호	117	환옥2	.	Ⅲ 단계
내리리 8	2옹식	대호	116	.	개1	
내리리 10	2옹식	침저호	86	.	완1	
신서동 1	2옹식	대호	151	유개원통형토기1, 주머니호1, 완1	.	
신서동 5	2옹식	대호	155	.	주머니호1	
신서동 6	2옹식	대호	127	.	단경호1	



〈도 6〉 경산 임당 A-I 지구 옹관묘 배치도

Ⅲ 단계에 해당하는 임당, 신대리, 내리리, 신서동 옹관묘부터 유물을 부장한 옹관묘가 증가한다. 임당 A-I 지구의 경우, 성인묘 대비 옹관묘 비율이 23%이며, 옹관묘 중 5기(56%)의 옹관묘에서 부장유물이 확인된다. A-I-31호, A-I-34호, A-I-124호, A-I-146호는 청동기가 부장된다. 34호, 124호의 경우, 주변 성인묘(목관묘)와 비교해도 동등하거나 더 우월하다.

신대리유적에는 청동유물은 없으며 대부분 환옥을 부장하였다. 그리고 내리리, 신서동유적은 주머니호, 단경호, 개, 완 등의 소형토기를 관외에

부장한 양상이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유적 내에서도 부장유물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며, 성인묘보다 우월한 유물을 부장한 임당 A-I 지구의 옹관묘의 주인공은 귀족지위가 부여된 것으로 보아진다. 따라서 목관묘의 늦은 시기(서기 1세기 무렵)부터 유아에게 귀족지위가 부여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재현의 의견에 적극 찬동한다. 이 시기에 임당동 집단이 중심(집단)음악을 부각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처럼 옹관묘의 배치유형이 부장유물의 변화와 연관됨을 알 수 있다. 묘역분리형(C형)까지는 옹관 조성비율이 높으며 특히 일부 옹관에만 소형토기가 부장되는 점은 당시의 차별성을 내포한 부장습속으로 생각된다. 성인묘와 옹관묘의 혼재형(D형)은 옹관묘의 비율이 감소하고 부장유물에서 청동기가 부장되는 등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이는 부모의 지위에 따라 공동묘역 내에서 옹관조성에 일정한 제약(불평등)이 따랐고 귀족지위가 옹관조성에 반영된 결과로 보고 싶다.

Ⅳ. 맺음말

대구 팔달동유적은 초기철기~원삼국시대에 걸쳐서 조성된 대규모 분묘군이다. 무문토기(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해당되어 토기문화 뿐만 아니라 초기철기문화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 글은 팔달동 옹관묘의 편년을 시도하고 영남내륙지역(금호강유역) 옹관묘의 배치정형과 부장유물을 통한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발표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팔달동 옹관묘는 동일묘역 내에 목관묘 및 토광묘가 동시기에 조성된 유적으로 팔달동 목관묘 I a단계와 목곽묘단계(Ⅲ 단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옹관묘 I 기는 목관묘 I b단계, 옹관묘 II 기는 목관묘 I c단계, 옹관묘 III 기는 목관묘 II a단계, 옹관묘 IV 기는 목관묘 II b단계와 편행한 것으로 보았다. 그 연대는 각각 서기전 1세기 전반, 서기전 1세기 후반, 서기 1세기 전반, 서기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옹관묘 I · II 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단계로 옹관묘 III · IV 기는 전기와질토기단계에 대체로 부합되며 옹관묘

Ⅱ기의 늦은 시기부터 와질토기가 등장하여 점토대토기와 일부 공존기를 갖는다.

토기의 변화상을 토대로 금호강유역 옹관묘를 I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 단순기), II 단계(삼각형점토대토기와 전기와질토기 공존기), III 단계(전기와질토기단계), IV 단계(후기와질토기단계)로 구분하여 옹관묘 배치유형과 부장유물의 변화상에서 살펴본 결과, 금호강유역에서는 주거지와 묘역인접형(A형)과 묘역분리형(B형)은 확인되지 않으며, 공동묘지 내 묘역분리형(C형-팔달동 IⅡ, 학정동)→혼재형(D형-팔달동 III·IV기, 임당, 신대리, 신서동, 내리리, 사수동)→배장형(E형-괴전동, 동내동) 순의 변화가 인정되며 옹관묘의 단계변화와 일치한다. I 단계에서 IV 단계로 갈수록 성인묘수 대비 옹관묘의 비율이 감소되는 경향성이 보이며 혼재형(D형)이 나타나는 서기 1세기 무렵부터 유물부장상에서 차별성이 나타난다. 이는 옹관 조성시에 일정한 제약이 있었고 귀속지위가 반영된 결과로 불평등사회로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

〈논문 및 단행본〉

- 國立金海博物館, 2003, 『弁辰韓의 黎明-점토대토기의 등장』.
- 國立金海博物館, 2004, 『韓國 圓形粘土帶土器文化資料集』.
- 국립진주박물관, 2016, 『늑도와 하루노쓰지를 통해 본 동아시아 교류의 양상』.
- 權志瑛, 2006, 「경주지역 와질토기 편년 검토-조양동·황성동유적을 중심으로-」
『石軒 鄭澄元教授 停年退任記念論叢』.
- 董眞淑, 2002, 「嶺南地域 粘土帶土器文化期の 甕棺墓 檢討」『博物館研究論集』9,
釜山博物館.
- 朴種燮, 1992, 『嶺南地方의 古代甕棺墓에 대한 一考察』, 韓國精神文化研究院 韓國
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朴辰一, 2000, 『圓形粘土帶土器文化研究-湖西 및 湖南地方을 中心으로-』, 釜山大
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朴辰一, 2001, 「嶺南地方粘土帶土器文化試論」『韓國上古史學報』35.
- 朴辰一, 2007, 「粘土帶土器, 그리고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韓國青銅器學
報』創刊號.
- 朴辰一, 2013,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文學博士 學位論
文.
- 徐姈男, 2003, 『嶺南地域 三韓·三國時代 幼兒墓 研究』,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
位論文.
- 申英愛, 2011, 『嶺南地方 粘土帶土器 段階 文化接變』,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
位論文.
- 安在皓, 2000, 「昌原茶戶里遺蹟의 編年」『韓國古代史와 考古學』, 學研文化史.
- 安在皓, 1989, 「三角形粘土帶土器의 性格과 年代」『勒島住居址』, 釜山大學校博物
館.
- 安春培, 1985, 「韓國의 甕棺墓에 관한 研究」『釜山女大論文集』18.
- 양하석, 2009, 「영남의 옹관묘」『한국의 고대 옹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양하석, 2010, 『한국의 옹관묘-경상남북도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 예지은, 2011, 『韓半島 出土 弥生系土器의 研究』,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
文.
- 이명훈, 2015, 『松菊里型 墓制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이명훈, 2016, 「청동기시대 옹관묘의 전개양상」『한국상고사학보』93.
- 李相玉, 1992, 「洛東江 下流의 甕棺墓 研究」『考古歷史學志』8, 東亞大學校博物館.

- 이석범, 2007, 「慶州地域 原三國時代 甕棺墓의 編年」『嶺南文化財研究』, 20.
-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嶺南考古學』24.
- 李元太, 2011, 『慶北地域 前期 瓦質土器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李在賢, 2004, 「영남지역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성격」『新羅文化』23.
- 李昌熙, 2005, 『三韓時代 南海岸의 日常土器 研究』,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李春先, 2010, 『嶺南地方 初期鐵器~原三國時代 甕棺墓의 變遷過程』,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井上主稅, 2006, 『嶺南地方 출토 倭系遺物로 본 한일교섭』, 慶北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崔鍾圭, 1995, 『三韓考古學研究』, 서경출판사.
- 崔志惠, 2010, 『嶺南地域 古代 幼兒墓를 통한 社會的 位階化』, 嶺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報告書 및 資料〉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泗川 梨琴洞 遺蹟』.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3, 『勒島貝塚-A地區·住居群』.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勒島 貝塚 I ~ V』.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5, 『泗川芳芝里遺蹟 I』.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泗川芳芝里遺蹟 II』.
-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2007, 『泗川芳芝里遺蹟 III』.
- 國立慶州博物館, 2003, 『慶州 朝陽洞遺蹟 II』.
- 경상대학교박물관, 2007, 『사천 방지리 나지구 유적』.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II)-青銅器~近代』.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10, 『달성 평촌리유적·예현리유적』.
- 東義大學校博物館, 1989, 『大也里住居址 II』.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 釜山大學校博物館, 2000, 『梁山新平遺蹟』.
- 釜山大學校博物館, 2002, 『金海大清遺蹟』.
- 釜山大學校博物館, 2004, 『勒島 貝塚과 古墳群』.
- 三韓文化財研究院, 2010, 『大邱 新川洞 621-1蕃地 遺蹟』.
- 世宗文化財研究院, 2012, 『大邱 鶴亭洞 474番地 遺蹟』.
- 世宗文化財研究院, 2012, 『大邱 泗水洞 563番地 遺蹟』.

- 嶺南大學校博物館, 1998, 『慶山林堂地域古墳群Ⅲ-造永ⅠB地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大邱八達洞遺蹟Ⅰ』.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2, 『大邱 東內洞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3, 『大邱 旭水洞 128番地 生活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9, 『大邱 鶴亭洞 474番地遺蹟』.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慶山 新垜里遺蹟Ⅰ, Ⅱ』.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0, 『大邱 鳳舞洞遺蹟Ⅲ』.
- 嶺南文化財研究院, 2015, 『大邱 八達洞遺蹟Ⅱ』.
-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경북대학교병원 임상실습동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 조사 부분완료(1차) 약보고서』.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蔚山蔣峴洞遺蹟Ⅲ-Ⅳ地區 靑銅器·三韓·統一新羅時代-』.
- 울산문화재연구원, 2013, 『蔚山校洞里遺蹟Ⅲ』.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1998, 『慶山 林堂遺蹟(Ⅰ~Ⅴ)』.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06, 『大邱 新西, 大林·司福洞遺蹟/慶山 平沙里 遺蹟』.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0, 『慶山 內里里遺蹟』.
- 한빛문화재연구원, 2011, 『慶山 內里里遺蹟(Ⅰ)』.

대구 팔달동 유적 금속기를 통해 본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전환양상

박 장 호
세종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팔달동유적의 금속기 현황

1. 청동기류
2. 철기류

III. 금속기의 변천과 부장양상

1. 금속기의 출현과 변천
2. 금속기의 부장양상

IV. 금속기를 통해 본 원삼국시대로의 전환

V. 맺음말

| 국문초록 |

대구 팔달동 유적은 대구지역 내에서 최초로 조사된 목관묘이고, 다양한 토기와 함께 청동기, 철기 등의 다종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영남지역의 목관묘 문화를 대표하는 표지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철기는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편년의 중요한 요소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제까지 대구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청동기, 철기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팔달동유적만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고 영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팔달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일부 선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본고에서는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금속기의 검토를 통하여 기종구성이나 부장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비슷한 시기의 유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의 금속기 양상을 확인해 보았다.

팔달동 유적의 금속기는 주로 이성주의 1-1단계에서 1-3단계에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1-1단계에는 장방형의 주조철부와 단봉형의 철모가 주를 이루 다가 1-2단계에 제형의 주조철부가 추가되고, 1-3단계에 장신형의 철모가 부장된다.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부장양상에서도 확인되는데 1-1단계와 1-2단계에는 정형화가 확인되지 않다가 1-3단계가 되면 어느정도 정형화되는 패턴이 확인된다. 그래서 다양한 철기의 부장, 부장양상의 정형화, 다량 부장의 시작이 철기생산의 본격화로 판단하였으며, 이때부터가 원삼국시대의 시작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삼국시대의 시작은 1-3단계이며, 그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보았다.

| 주제어 |

초기철기, 원삼국, 청동기, 철기, 전환시점

대구 팔달동 유적 금속기를 통해 본 초기철기 · 원삼국시대 전환양상

박장호*

I. 머리말

대구 팔달동 유적은 1996년 8월 16일부터 1997년 5월 31일까지 영남 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한 유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19동, 원삼국시대 목관묘 102기, 목곽묘 1기, 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석곽(실)묘 32기, 조선시대 분묘 146기, 기타유구 8기 등 총 499기의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 중 대구 팔달동 유적은 원삼국시대 목관묘가 연구자들의 주목을 주로 받고 있다. 대구 팔달동 유적이 조사되기 전까지 대구 지역 내에서는 원삼국시대 목관묘가 발굴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사례가 없었고, 청동유물들이 수습되었다고 전해지는 유적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주로 출토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구지역 내에서 최초로 조사된 목관묘이고, 다양한 토기와 함께 청동기, 철기 등의 다종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성주 예산리 유적, 경산 임당동 유적, 경주 조양동 유적, 창원 다호리 유적 등과 함께 영남지역의 목관묘 문화를 대표하는 표지적인 유적으로 알려져 있다.

대구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에서는 다종다양한 토기와 함께 청동기, 철기 등도 다수 출토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청동기와 철기는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어 편년의 중

* 세종문화재연구원

요한 요소로서 사용되어 왔다.

이제까지 대구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에서 출토된 청동기, 철기에 대한 연구는 개별 기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 팔달동유적만을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고 영남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팔달동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을 일부 선별하여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금속기의 검토를 통하여 기종구성이나 부장양상의 특징을 살펴보고 다른 비슷한 시기의 유적과의 비교를 통하여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하는 시점의 금속기 양상을 확인하여 팔달동 유적만의 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팔달동유적의 금속기 현황¹⁾

대구 팔달동 유적의 초기철기·원삼국시대 목관묘에서는 동검, 동모 등과, 철검, 철모 등 무기류를 비롯해서 철부, 철검, 따비 등 다양한 금속기가 출토하였지만 재질별로 살펴보면 청동기와 철기로 구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청동기류와 철기류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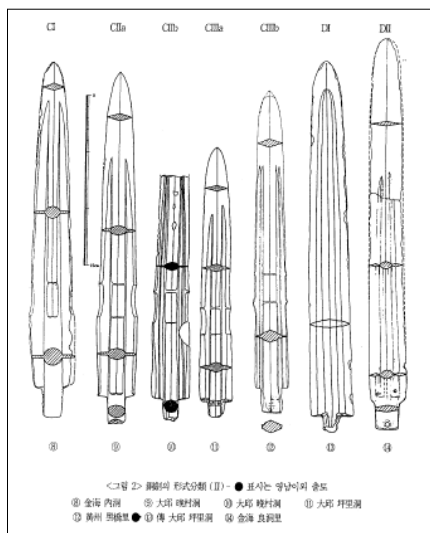
1. 청동기류

청동기는 동검, 동모, 동과 등 무기류가 주로 출토되었으며, 검초장식과 검파두식 등 검과 관련된 부속구, 환형동기, 관상형동기 등 소형의 청동기가 일부 확인된다.

1) 동검(銅劍)

세형동검은 45호 요갱에서 1점이 확인되었으며, 100호 바닥 중앙부 움

1) 유물의 연대에 대하여는 연대관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인 유물의 형식분류와 단계설정은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존의 단계설정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양상 속에서 그 위치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도면 1〉 동검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폭파인 곳에서 1점이 확인되었다.

45호 동검은 결입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검날의 마연이 제1절대까지만 이루어져 있다. 이청규의 형식분류 C I 형식에 해당한다. 45호의 연대는 공반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옹으로 연대를 정할 수 있는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옹의 형태가 경주 조양동 5호 출토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옹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경주 조양동 5호와 동일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다. 그렇지만 판상철부의 형태가 최고식(最古式)보다는 약간 길어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조양동 5호보다는 조금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는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2단계에 해당한다.

100호 동검은 결입부가 형성되어 있으며, 검날의 마연이 검신하부까지 이어진다. 이청규의 형식분류로 C II a형식에 해당한다. 100호의 연대는 공반된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와 판상철부를 통해서 정할 수 있다.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형태상 경주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100호의 연대는 이성주의 1-3단계로 볼 수 있다.

2) 동모(銅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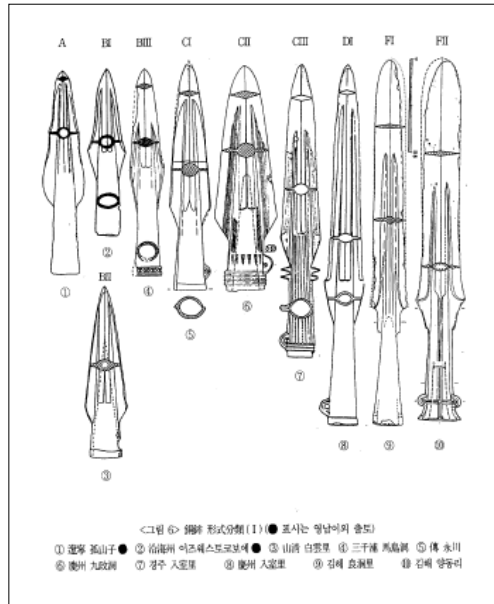
동모는 90호 요갱에서 1점이 출토되었고, 100호 바닥 중앙부 움푹파인 곳에서 동모가 2점 출토되었다. 120호 남장벽 암반층에서 박힌 채 동모 1점이 출토하였다.

90호 동모는 투공이 측면에서 확인되는 유공식으로 공부에 여러줄의 돌대가 돌아가는 형태이다. 이청규의 분류안으로 C III 식에 해당하는 세형동모이다. 공반유물로 보았을 때 조양동 38호에서 출토하는 판상철부와 90호 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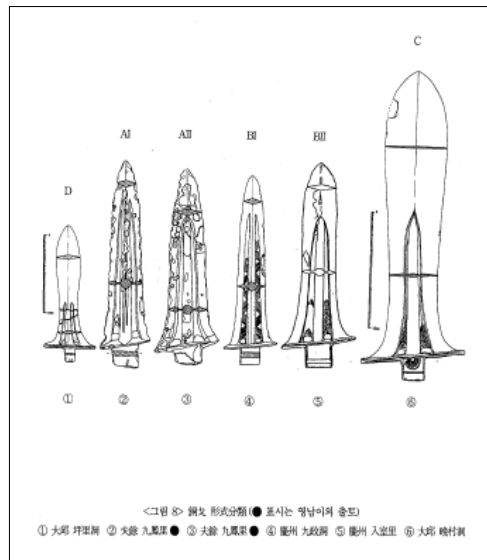
철부가 거의 동일한 형식이기 때문에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3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100호 출토 동모는 2점으로 유공식과 유이식이 각 1점씩 출토되었다. 유공식은 이청규의 분류안에서 공부에 돌대가 한 줄 돌아가는 BⅡ식의 세형동모로 볼 수 있다. 유이식은 모신에 무늬가 전혀 장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청규의 분류안으로 CⅠ식에 해당하는 세형동모로 볼 수 있다. 시기는 공반 유물로 보았을 때 조양동 38호와 동일한 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성주의 단계 설정에서 1-3단계로 볼 수 있다. 120호 동모는 공부가 결실되어 정확한 형식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전체적인 길이와 비율에서 볼 때 이청규의 분류안으로 B, C식에 속하는 세형이다.

3) 동과(銅戈)

동과는 90호 요갱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세형의 동과로 과신부에 삼지문(杉



〈도면 2〉 동모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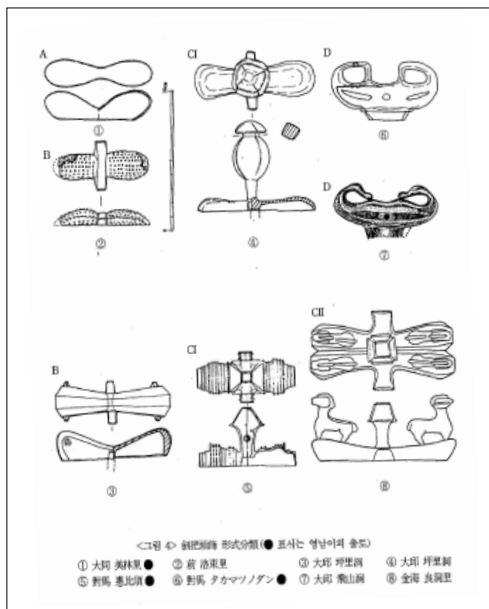


〈도면 3〉 동과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枝文)이 새겨져있다. 이청규의 분류안에서 B I 식에 해당한다. 이청규(1998)는 일본의 중세형동과와 문양이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점이 있으며, 경주 구정동 출토 동과가 동일한 형식이라고 하였다. 연대는 공반 유물을 통하여 볼 때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3단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4) 검파두식, 검초금구

45호에서는 십자입주형 검파두식이 1점, 검초금구로 보이는 청동기편이 일부 확인되었다. 검파두식은 문양이 없는 것으로 입주 주변으로 4개의 투공이 확인된다. 검초금구는 검초의 끝을 장식하는 금구 중 일부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7호에서도 검파두식이 1점 출토되었는데 문양이 없는 십자형이다. 99호에서는 검초와 검파두식 1개 세트가 확인되었는데 검초는 철의 흔적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으며 검초금구가 장착



〈도면 4〉 검파두식의 형식분류(이청규 1998)

되어 있는 채로 확인되었으며, 검코와 검파두식이 장착된 위치에서 나왔다. 검은 내부에서 확인되지 않아 동검인지 철검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보고자는 목검이거나 검을 넣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100호에서는 십자형의 검파두식이 1점 출토되었는데 외면에는 타원형의 돌기가 전체적으로 확인된다. 101호에서는 십자형 검파두식 1점과 검코, 검초금구편이 출토되었다. 검파두식은 십자형에 작은 원형의 돌기가 옆을 이루어 붙어 있는 형태로 확인된다. 120호에서는 청동제 검코가 1점 출토되었다.

검파두식과 검초금구가 확인된 유구에서는 검이 확인되는 경우와 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된다. 검이 확인되는 유구에서는 45호와 100호에서 동검이 확인되었고, 57호에서는 철검이 확인되었다. 99호와 101호에서는 검은 확인되지 않아 어떠한 재질의 검이 사용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검이 있는 사례로 보았을 때 동검이나 철검 모두에 검파두식과 검초가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5) 기타 장식류

101호에서만 확인되는 청동제 장식류는 동제한 1점, 쌍두관상동기 1점, 삼각주동기 1점 이 있다. 이 중 동제한은 영천 어은동에서 마형대구와 함께 출토된 동제한과 동일한 형태의 환으로 표면에 삼각거치문이 태양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영천 어은동 유적이 보고될 당시에 보고자가 동제한을 마형대구의 고리부분에 거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려졌으나 출토상황이나 발굴사례를 보았을 때 마형대구와 관련성보다는 검의 장식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유는 허리띠의 고리라면 고리를 걸어야 하는데 걸수 있는 부분이 확인되지 않고 환의 중심을 지나가는 투공이 확인되고 있으며, 다호리의 경우에는 비파형대구가 공반되어 있지만 쓰시마의 토우토쿠야마유적이나 팔달동의 경우 대구(帶鉤)는 확인되지 않으며, 검과 함께 같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검의 장식구가 아닐까 한다. 쌍두관상동기의 경우도 출토위치와 비교하였을 때 동제한, 검파두식과 같이 출토되었기 때문에 검과 관련있는 장식구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도면 5〉 유적별 출토 동제한

2. 철기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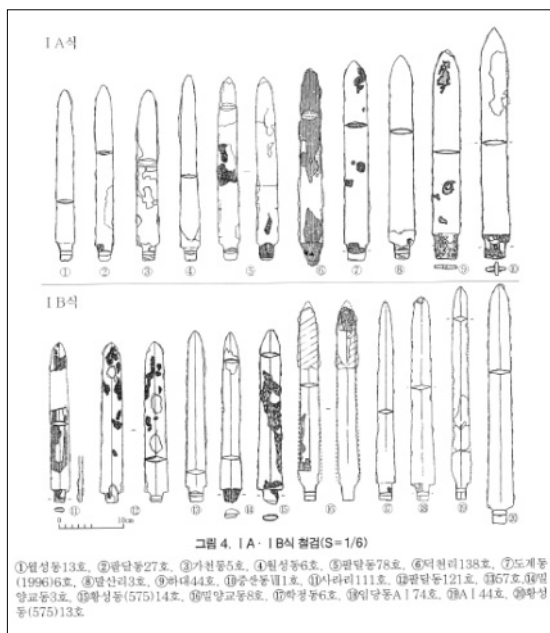
철기는 철검, 철모 등 무기류와 철부, 철도자, 철검, 따비 등 농공구류로 구분 할 수 있다.

1) 철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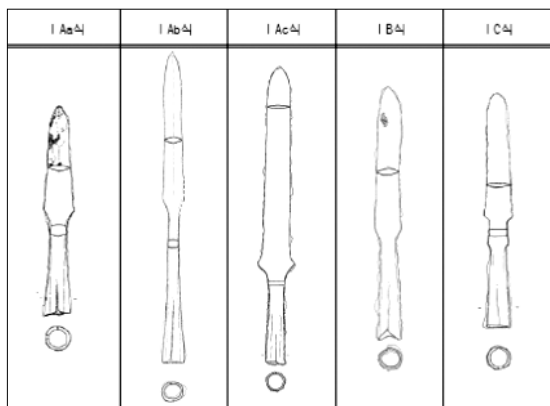
철검은 27호, 30호, 31호, 57호, 71호, 75호, 77호, 78호, 90호, 100호, 107호, 121호에서 각 1점씩 총 12점이 출토되었다. 단면은 대부분 볼록렌즈형이며, 검하부는 직각형태를 띠고 있다. 검은 주로 1점씩만 부장하고 있으며, 100호는 동검과 철검을 동시에 부장하고 있다. 107호를 제외한 대부분의 철검이 초기철기에서 와질토기로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유물들과 공반하고 있으며, 이성주의 단계설정 중 1-1~1-3단계에 집중 분포한다.

2) 철모

철모는 27호, 31호, 45호, 57호, 67호, 90



〈도면 6〉 철검의 형식분류(임영희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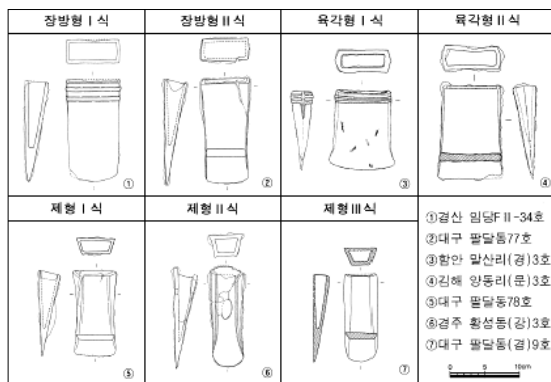
〈도면 7〉 철모의 형식분류(신동조 2007)

호, 99호, 100호, 117호에서 출토하였다. 세가지의 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단봉형의 철모와 장신의 철모, 이단관식철모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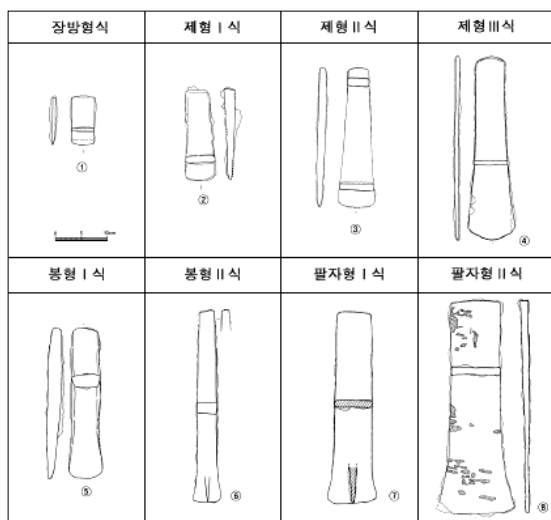
단봉형의 철모는 동모에서 소재를 철로 변경하여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팔달동에서 주로 단봉형의 철모가 출토되고 있다. 장신형의 철모는 90호와 100호에서만 확인된다. 이단관식철모는 관부가 2개처럼 보이는 철모로 기원후 1세기대에 출현하는 철모이다. 117호에서 1점이 출토되었 다.

3) 철부

철부는 판상철부, 주조철부, 단조철부 세 가지 종류가 확인된다. 판상철부는 신동조의 형식분류안에서 장방형식이 주로 확인되고 있으며, 제형 1식과 제형 2식까지만 출토되었다. 주조철부는 장방형과 제형이 확인되고 있으며, 장방형에서 제형의 순서로 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시기에 출현하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단조철부는 유견식과 무견식으로 구분가능하며 무견식에서 유견식으로 형식변화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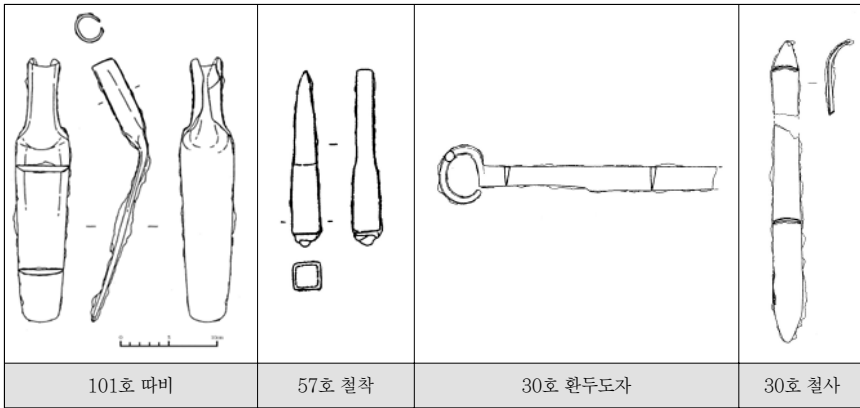
〈도면 8〉 주조철부의 형식분류(신동조 2007)



〈도면 9〉 판상철부의 형식분류(신동조 2007)

4) 기타 농공구류

팔달동 목관묘에서는 철검과 철모, 철부 뿐 아니라 철촉 등의 무기류, 도자, 철착, 철검, 따비 등의 농공류도 다수 출토하였다. 형식변화자체가 뚜렷하지 않아 변화양상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유물들이다. 그렇지만 초기철기시대부터 출현하여 사용되었으며, 원삼국시대에 들어가면서 다양한 기종이 추가되는 양상이 확인된다.



〈도면 10〉 팔달동유적 출토 농공구류

Ⅲ. 금속기의 변천과 부장양상

1. 금속기의 출현과 변천³⁾

1) 금속기의 시기별 분포

목관묘 출토 유물에 대한 단계설정과 편년은 연대론적인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며, 형식변화의 흐름과 단계구분은 거의 모든 연구자들

2) 張大振, 2013, 「鐵斧를 통해 본 嶺南地域 初期鐵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 토기를 기준으로 하여 팔달동유적의 철기 출토 유구의 단계별 위치를 정리하여 보았다.

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그렇기에 이성주의 단계 구분안⁴⁾을 사용하여 팔달동유적 금속기의 단계를 구분하였다.

팔달동유적에서 출토하는 금속기들의 시기별 분포는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1단계에서 1-3단계까지 대부분의 유물들이 집중하고 있으며, 일부 1-5단계와 1-6단계에 해당하는 유물들이 확인된다.

1-1단계(도면 11)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주로 철기류만 확인되는데 장방형 Ⅱ식 주조철부와 1A식 철검, 장방형 판상철부, 단봉형의 철모가 주로 확인되며, 단조철부와 철착⁵⁾, 철사 등이 출토한다. 검파두식은 십자형의 검파두식이 이시기에 해당한다. 57호, 75호, 77호 등이 이시기에 해당하며, 성주 예산동 3호가 1-1단계의 대표적인 표지유구이다.

1-2단계(도면 12)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철기류와 함께 동검이 같이 확인된다. 이시기의 동검은 45호에서 1점 확인되는데 등날의 마연을 제1절대까지만 이청규의 C1식에 해당하는 동검이다. 장방형 Ⅱ식 주조철부와 제형 I식 주조철부가 확인되며, 1A식 철검이 공반한다. 철모는 단봉형의 철모가 계속적으로 사용되며, 장방형 판상철부는 약간 길어진 형태인 제형1식이 확인된다. 45호, 78호, 86호 등이 이시기에 해당한다.

1-3단계(도면 13)에는 동검, 동모, 동과가 출토하며, 장신형의 철모와 따비가 새로 출현한다. 동검은 이청규의 형식분류로 CⅡa형식에 속하는 동검으로 이전단계의 동검보다 등날 마연의 범위가 더 넓어져 검신하부까지 이어진다. 동모는 유공식과 유이식 동모가 같이 공반된다. 철모는 장신형의 철모가 처음 출현하며, 여러점이 부장되기도 한다. 판상철부는 제형2식이 주로 출토한다. 90호, 100호, 101호가 이시기에 해당하며, 경주 조양동 38호, 경산 임당 A-11호가 이시기의 대표적인 유구이다.

1-4단계와 1-5단계(도면 14)는 1-3단계까지 많은 수의 유구가 확인된 것에 비하여 몇 개의 유구만이 확인되며, 철기의 수량과 기종구성도 단순화

4)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24, 嶺南考古學會.

5) 57호 철착이 주조철착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실견결과 함범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테두리의 각지는 정도가 당진 소소리 등지에서 보이는 주조철착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보여 주조철착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으며, 단점선 등의 흔적 또한 보이지 않아 단조철착일 가능성도 확신하기 어렵다.

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50호, 92호, 102호, 107호, 112호 등이 이시기에 해당한다,

1-6단계(도면 15)에는 이전시기와 비슷하게 유구 수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이단관식철모가 확인되는 시점이다. 112호와 117호가 이시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유구로는 경주 사라리 130호가 있다.

2) 금속기의 특징과 기종별 출현시점

팔달동유적의 금속기는 대부분이 1-1단계에서 1-3단계에 집중분포하고 있으며, 청동기보다는 철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청동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팔달동유적에서 청동기는 45호, 57호, 90호, 100호, 101호, 120호에서 출토하였다. 주로 무기류와 무기와 관련된 장식구로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검과 관련된 장식구가 주를 이룬다. 청동무기는 동검 2점, 동모 4점, 동과 1점이 출토하였는데, 동모는 유공식과 유이식이 공반하고 있으며, 동과는 유문동과가 확인된다. 다른 청동기는 검과두식과 검초금구, 동환, 쌍두관상동기 등이 확인되는데 주로 검과 관련된 장식구로서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팔달동유적 내에서 청동유물은 무기류와 관련있는 것만이 출토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들어온 유물인 한경이나 오수전 등의 외래계유물과 청동대구, 동탁, 동포 등의 청동기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팔달동유적만의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⁶⁾. 팔달동유적에서 확인된 청동기의 출현시점은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2단계와 1-3단계에만 확인된다.

철기의 특징을 살펴보면 팔달동의 철기는 1-1단계에 출현하여 1-3단계에 기종구성이 가장 다양해지며, 1-6단계까지 철기가 형식변화를 거치면서 사용되었다.

철기의 기종 구성을 살펴보면 무기류와 농공구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6) 목관묘 출토 청동기에 대하여는 이청규와 이양수의 논고를 참고하였다.

이청규,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21, 嶺南考古學會.

이양수, 2008, 「辰韓地域 木棺墓 出土 靑銅器」, 『영남지역의 목관묘』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제21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무기류는 철검과 철모, 철촉이 확인되며, 철검과 철모는 1-1단계부터 출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철검은 단면 볼록렌즈형과 단면 마름모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볼록렌즈형의 사례가 더 많으며 일부 마름모형 철검이 확인된다. 출현시점은 볼록렌즈형이 조금더 빠르다고 할 수 있지만 팔달동 유적 내에서는 크게 마름모형도 일찍 출현하는 것으로 보인다.

철모는 단봉형과 장신형, 이단관식철모가 출토하였다. 1-1단계와 1-2단계에는 단봉형의 철모만 출토하고 있으며 대체로 1점이 부장되고 있다. 1-3단계가 되면 장신형의 철모가 추가되는데 1점만 부장되는 것이 아니라 2~3점이 동시에 부장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1-6단계에는 이단관식철모로 철모의 형식이 변화되는 것이 확인된다.

농공구류를 살펴보면 철부, 철착, 철사, 철검, 따비 등이 출토되었다. 철부는 판상철부, 주조철부, 단조철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철부 별로 형식변화를 거치면서 부장되고 있다.

먼저 판상철부를 살펴보면 1-1단계에는 장방형의 소형의 판상철부가 확인되다가 1-2단계가 되면 약간 길어지는 형태로 변화한다. 1-3단계가 되면 길이도 길어지고 평면형태가 제형으로 변화하여 일반적으로 판상철부라고 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주조철부는 1-1단계에는 단면 장방형의 주조철부만 확인되다가 1-2단계에 단면 제형의 주조철부가 추가되며, 그 이후로 형식변화를 거치며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단조철부는 1-1단계부터 출토하고 있으나 수량은 많지 않다. 1-3단계가 되면 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형식은 무견식에서 유견식으로 변화하며 수량도 1~2점이 부장되는 것에서 여러 점이 부장되는 것으로 변화한다.

철사와 철착은 1-1단계에서부터 계속 사용되는 것으로 형식변화가 크지는 않으나 이른 시기에 주로 확인되는 철기이다. 따비는 1-3단계에서부터 부장되는 기종으로 많은 수량이 부장되지는 않으나 꾸준히 부장되는 철기 중 하나이다.

〈표 1〉 단계별 금속기의 기종별 정리

단계	청동기	철기	비고
1-1	검파두식	장방형주조철부, 장방형판상철부, 철검, 단조철부, 단봉형철모, 철착, 철사	
1-2	동검, 검파두식	장방형주조철부, 제형주조철부, 철검, 장방형판상철부, 철착, 단봉형철모	
1-3	동검, 동모, 동과, 검파두식	철검, 장신형철모, 제형판상철부, 제형주조철부, 단조철부, 따비 등	
1-4 1-5		철검, 판상철부, 단조철부, 철촉, 환두도자 등	
1-6		이단관식철모, 제형주조철부, 장방형주조철부, 단조철부, 따비 등	

2. 금속기의 부장양상

1) 부장위치검토

팔달동 유적 금속기의 부장위치를 살펴보면 요갱 내 부장, 목관내부, 묘광바닥, 충전토내, 충전토 상면, 목관 상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청동기의 경우 주로 요갱 내에 주로 부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일부 동모의 경우 단벽에 박아 넣은 것이 확인된다. 100호에서 출토된 청동기의 경우 보고서에는 묘광바닥에서 출토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도면과 출토사진을 검토한 결과 요갱과 같은 묘광 바닥에서 움푹 들어간 부분에 부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청동기 중 청동무기류는 피장자가 소유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목관을 하관하기 전에 다른 의미의 제사용으로 사용하였던 유물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⁷⁾.

청동기의 요갱 내 부장 뿐 아니라 동모 1점을 단벽에 박아 넣는 행위가 확인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을 나타내는지에 대하여는 알 수 없지만, 45호에서 철착이 단벽에 박힌 채 출토되고 있으며, 대구 학정동 경북대학교병원부지에서도 비슷한 양상의 행위가 확인되고 있어 초기철기에서

7) 요갱은 하관전에 거행된 제사흔적으로 상장례의 방상과 같은 의미이다.

崔種圭, 2007, 「三韓 早期墓의 禮制」, 『考古學探究』 創刊號, 考古學探究會.

원삼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지역 내에서 공유되는 어떠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철기의 경우 요갱 내 부장과 목관내부, 묘광바닥, 충전토 내, 충전토 상부, 목관 상부 등에서 다양하게 부장되고 있다. 이 중 철검은 주로 목관내부에서 확인되고 있으나 충전토 내, 충전토 상면, 목관상부 등에서 확인되기도 한다. 임영희(2011)의 연구에 따르면 철검은 최초 부장되는 시점에는 묘광상면이나 충전토 내, 목관 외 바닥에서 부장된다는 점에서 부장양상의 정형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이후 영남지역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목관 내 부장이 되기 시작하면서 정형화 된다고 하였다. 팔달동유적 내의 상황을 보면 일괄적으로 철검이 목관내부에 부장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검초와 같이 구성되는 경우에는 주로 목관내부에 부장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모의 경우 주로 충전토 내에 부장되지만 요갱에서 확인되는 경우와 목관내부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신동조(2007)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의 철모는 부장갱에서 확인되거나 발치부장이 많은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을 팔달동 유적에 대입하여 보면 요갱에 부장되는 경우는 있지만 발치부장의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장양상을 정리하여 보면 관내 부장보다는 관외에 부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인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철기류를 살펴보면 주로 충전토 내, 충전토 상면에 많이 부장되는 것이 확인된다. 일부 철사나 도자 등이 목관내부에 부장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관외에 부장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2) 비정형화에서 정형화로의 변화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속기들의 부장양상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보면 관내 부장되는 유물과 관외에 부장되는 유물들로 구분되어지는 양상이 확인된다. 명확하게 이 유물은 여기라는 지정된 장소나 위치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성은 확인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1-1단계와 1-2단계에 속하는 금속기의 부장양상을 보면 목관내부에 철검, 철부, 철모 등 다양한 철기류가 목관내부에서 부장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1-3단계에 들어가면 목관내부에 부장되는 유물은 검과 관련된 유물과 철사, 도자 등의 간단한 철기만이 부장되는 양상으로 바뀌어 지며, 농공구류는 충전도 내와 충전도 상면 등에 주로 부장되게 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은 부장양상이 비정형화에서 정형화로 변화하는 시점이 존재하며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패턴이 정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요갱 내 부장의 경우 피장자에 대한 부장품의 의미가 아닌 또 다른 의미의 제사행위로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동기와 철기가 한꺼번에 요갱 내 부장되는 것은 1-2단계와 1-3단계에서 주로 확인되는 현상으로 창원다호리 1호나 경산 임당동 조영1B-2호에서 보이는 요갱 내 부장 현상으로 보았을 때 팔달동 유적에서만 확인되는 부장패턴은 아니며 이 시점에 공유하는 부장 양상 중 하나인 것으로 보여진다.

팔달동 유적만의 고유한 부장양상으로 한다면 묘광 내에 동모나 철착을 박아 넣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부장양상의 의미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지 않을까 한다.

Ⅳ. 금속기를 통해 본 원삼국시대로의 전환

정인성은 ‘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낙동강유역권의 물질문화의 변동에는 몇가지의 획기가 존재하며 그 획기에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등장, 철기의 이입과 제작, 회도와 자비용토기의 권역내 이입, 그로 인한 와질토기 양식의 성립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와질토기 양식의 성립이 원삼국시대의 시작이며, 와질토기가 등장하는 시점이 철기문화가 본격화 되는 시점이라 하였다⁸⁾.

그렇다면 철기문화가 본격화 되는 시점의 문화는 어떠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발생하게 된다. 철기가 본격화 되는 시점의 조건이라고 한다면 기종 구성의 변화, 다량부장, 부장양상의 정형화가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한다. 그

8) 정인성, 2011, 「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 -낙동강유역권에서 와질토기의 성립-」, 『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재)세종문화재연구원 개원2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 자료집.

렇게 본다면 본격화의 시점을 어느 단계로 설정할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 내에서 철기문화의 이입은 금번에 검토하고 있는 대구 팔달동 유적이나 대구 월성동 777번지 유적, 경주 조양동유적, 창원 다호리 유적을 살펴보았을 때 와질토기와 공반하지 않고 삼각형점토대토기와 흑도장경호와 주로 공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성주의 단계설정에서 1-1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1-1단계의 철기양상은 주로 철검과 함께 장방형 주조철부가 확인되며, 단봉형의 철모, 소형장방형 판상철부와 함께 철사, 철착 등의 공구류가 소량 부장되는 시점이다.

1-2단계가 되면 제형의 주조철부가 추가되지만 기종 구성에서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1-3단계가 되면 장신형의 철부가 다량으로 부장되기 시작하며, 단조철부의 부장도 많아지고, 따비 등의 농공구류가 추가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1-3단계에는 토기도 삼각형점토대토기에서 와질토기로의 정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으로 1-3단계에 철기 또한 본격화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철기의 기종의 변화 뿐 아니라 부장양상에서도 변화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앞서 검토한 팔달동 유적의 부장양상에서 1-1단계와 1-2단계에서는 부장양상이 비교적 정형화되지 않고 패턴이 확인되지 않는 비정형화된 상태였으나 1-3단계부터는 어느정도의 정형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양상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철기가 본격적으로 재지화되어 생산되기 시작하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철기의 정형화 시점에 대하여 이성주의 1-3단계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성주의 연대설정은 필자의 연대 설정과는 차이가 있다. 이성주는 1-3단계의 연대를 조양동 38호에서 출토된 전한경인 이체자명대경의 연대를 가지고 편년의 기준을 삼아 오카무라의 거울 연대가 기원전 1세기 후반에서 기원후 1세기초로 편년되기 때문에 1-3단계의 연대를 기원후 1세기 전엽으로 설정하였다. 그렇지만 정인성이 주장한 ‘와질토기 낙랑영향설 검토’에서 촉발된 와질토기의 연대 상승이 시작되게 되었고⁹⁾ 다호리 학

9) 鄭仁盛,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영남고고학』 47호, 영남고고학회.

술대회에서는 1-3단계의 연대 즉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경으로 올리고 있다¹⁰⁾. 최근 정인성(2011)은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2/4분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기원전 1세기 1/4분기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대관은 거울의 부장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로 귀결되는데 최근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거울을 정리한 박지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거울의 전세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¹⁾.

필자는 거울의 연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전세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내 거울의 유행연대를 고려해 보았을 때 이체자명대경이 출토된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조양동 38호의 연대를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놓는다면 1-3단계의 연대는 기원전 1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앞 단계인

〈표 2〉 한반도 남부 동경의 매장 연대(박지영 2014)

거울공반유구	서기전1세기			서기1세기		
	前	中	後	前	中	後
다호리1	■					
교동3	■					
성곡리13	■	■				
용전리	■	■				
조양동38		■				
교동17		■				
창평동2		■				
임당E58		■				
임당E138			■			
임당A1122			■			
신대리37			■			
다호리119			■	■		
사라리130					■	
탑동					■	
신대리75						■

10) 김현희, 2009, 「茶戶里遺蹟의 編年과 弁辰韓의 土器文化」, 『考古學誌』 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11) 박지영, 2014, 「한반도 남부 출토 前漢式鏡의 유통체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기1-2단계와 1-1단계는 기원전 1세기 전엽과 기원전 2세기 후엽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남지역내에서 출현하는 철기는 기원전 2세기부터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발전하면서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전환해간다고 생각한다.

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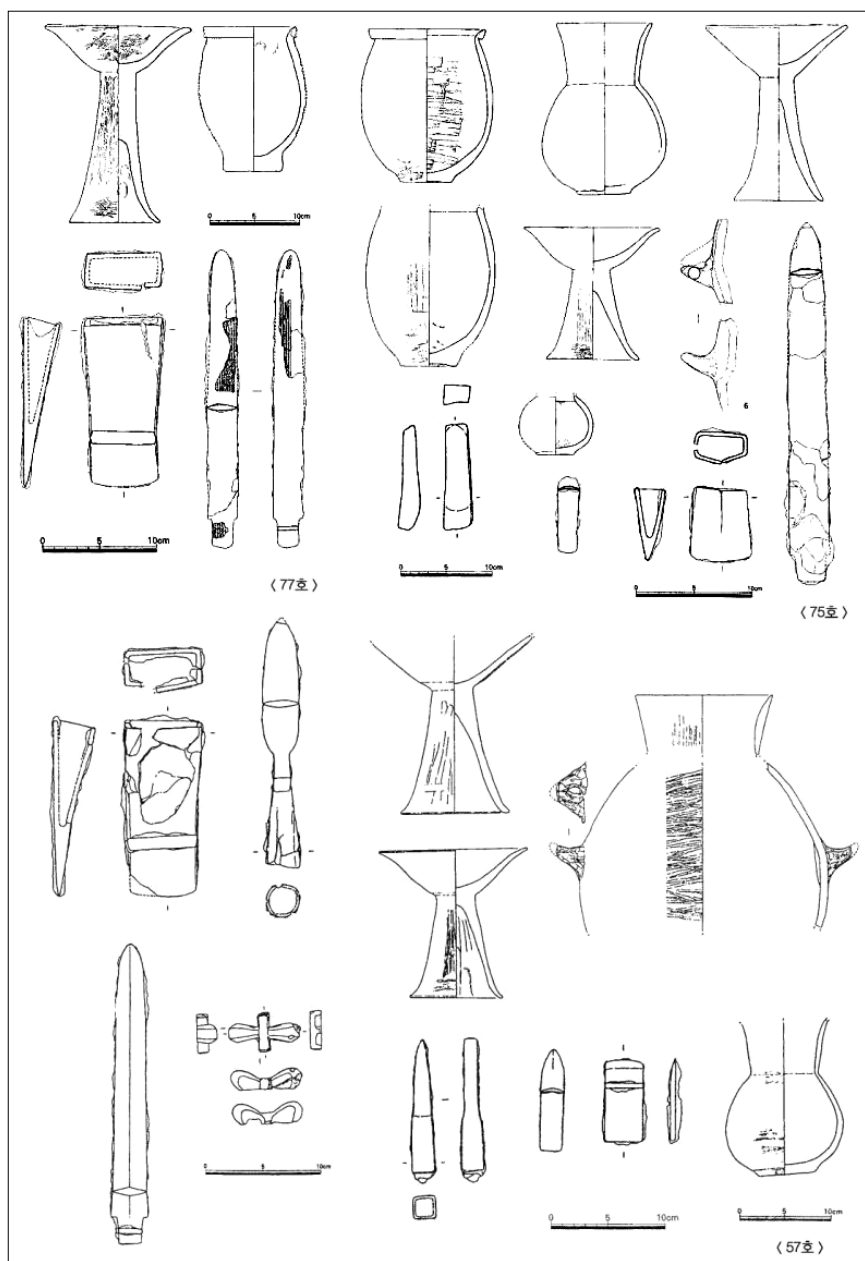
팔달동 유적 금속기의 가장 큰 의미는 팔달동 유적에서 확인된 철기가 영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점의 철기 중 하나이고 많은 수량의 무덤에서 다량의 철기가 형식변화를 거치면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목관묘의 전시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창기 철기의 이입과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유적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구 팔달동 유적의 금속기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변화하는 시점의 금속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팔달동 유적을 중심으로 살펴긴 하였지만 철기기종의 변화와 부장양상이 정형화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이 철기혼자만의 변화가 아니라 토기와 묘제 등 전체적인 변화 과정 속에 있는 변화의 한 흐름이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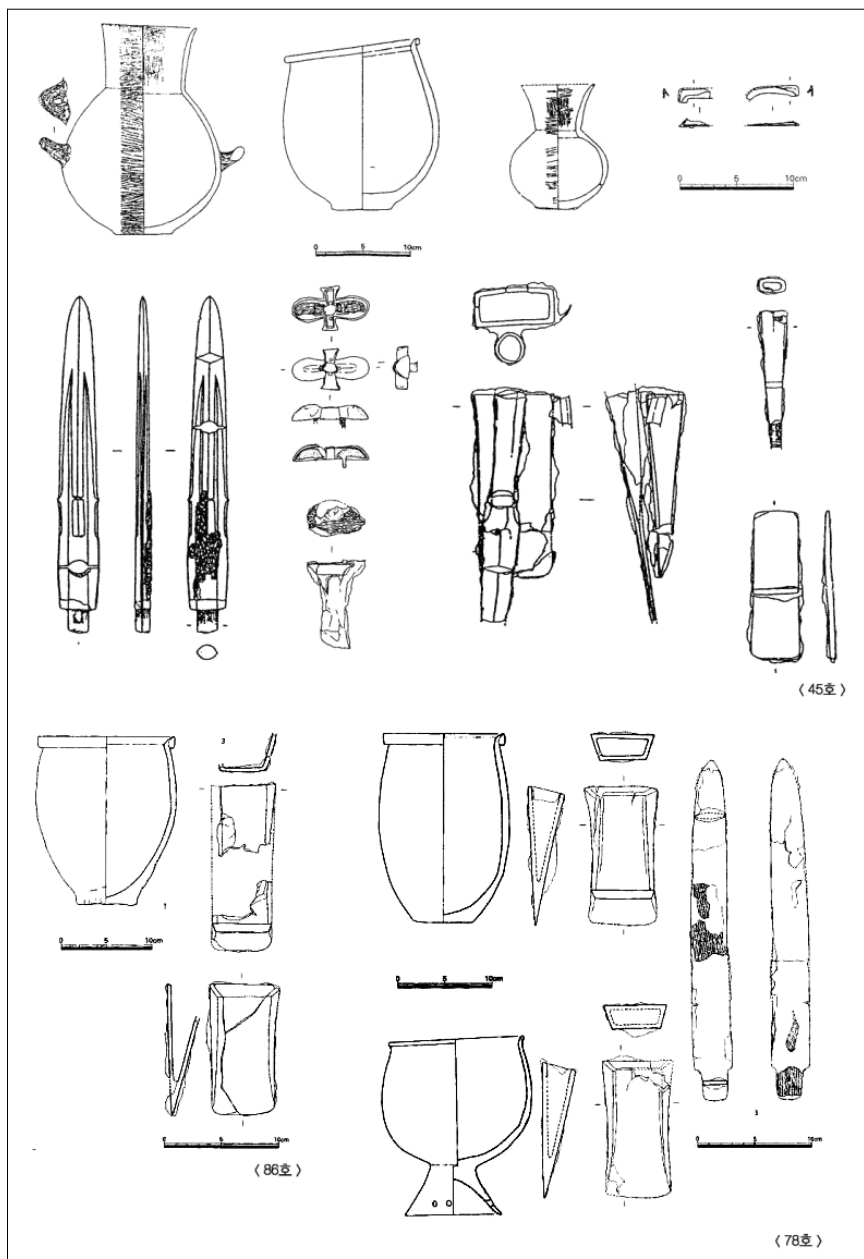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러한 변화가 팔달동 위주의 변화인지 전체적인 변화인지에 대하여는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하였으며, 철기의 유입시점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못한 것이 한계점이며 앞으로의 연구과제라 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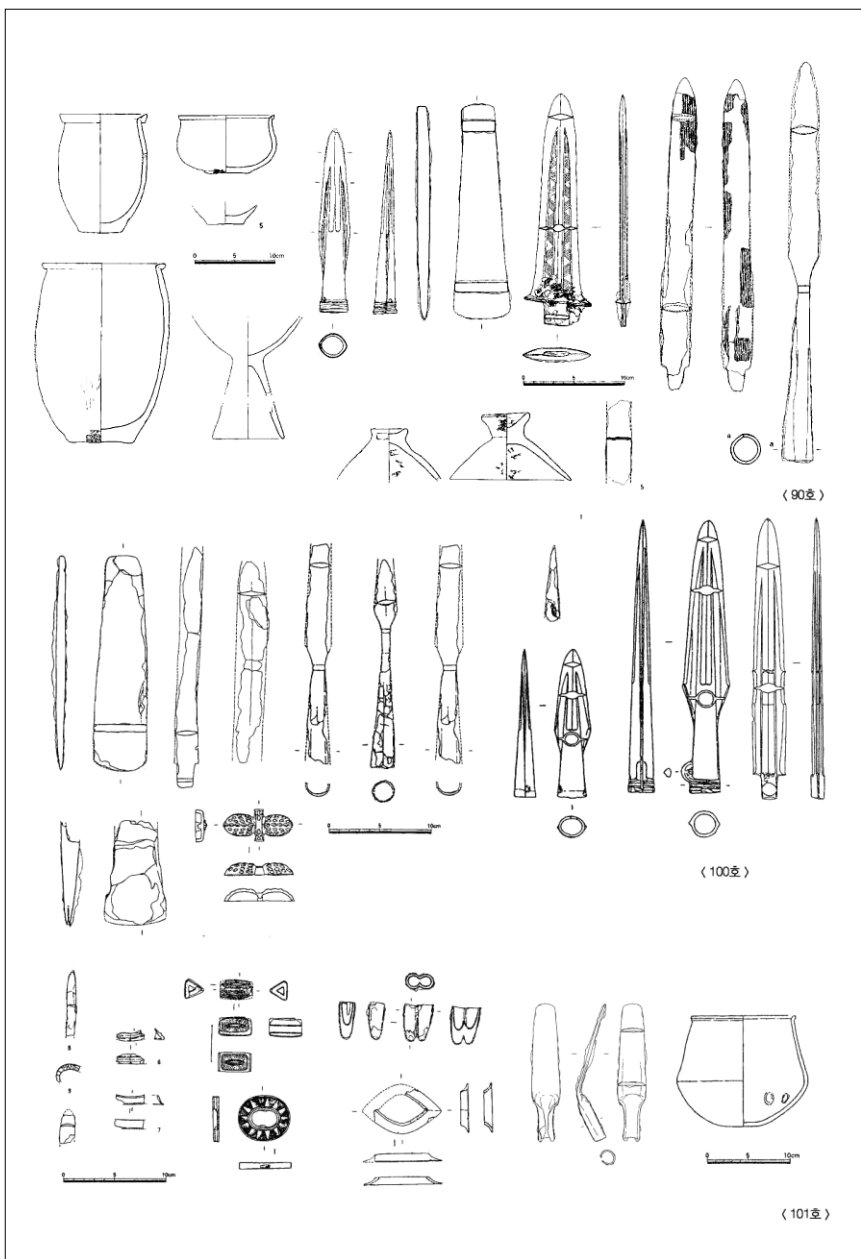
- 이청규, 1997, 「嶺南지방 靑銅器文化의 전개」, 『嶺南考古學』21, 嶺南考古學會.
- 李盛周, 1999, 「辰·弁韓地域 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24, 嶺南考古學會.
- 申東昭, 2007, 「嶺南地方 原三國時代 鐵斧와 鐵矛의 分布定型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崔種圭, 2007, 「三韓 早期墓의 禮制」, 『考古學探究』創刊號, 考古學探究會.
- 이양수, 2008, 「辰韓地域 木棺墓 出土 靑銅器」, 『영남지역의 목관묘』(재)영남문화재단연구원 제21회 조사연구회 발표자료집, (재)영남문화재단연구원.
- 鄭仁盛,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영남고고학』47호, 영남고고학회.
- 김현희, 2009, 「茶戶里遺蹟의 編年과 弁辰韓의 土器文化」, 『考古學誌』特輯號, 국립중앙박물관.
- 정인성, 2011, 「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 -낙동강유역권에서 와질토기의 성립-」, 『원삼국시대 연대론의 제문제』(재)세종문화재단연구원 개원 2주년 기념 초청강연회 자료집.
- 임영희, 2011, 「영남지역 원삼국기 철검·환두도의 지역별 전개과정」, 『영남고고학』59, 영남고고학회.
- 張大振, 2013, 「鐵斧를 통해 본 嶺南地域 初期鐵文化의 收容과 展開」,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朴知英, 2014, 「한반도 남부 출토 前漢式鏡의 유통체계」,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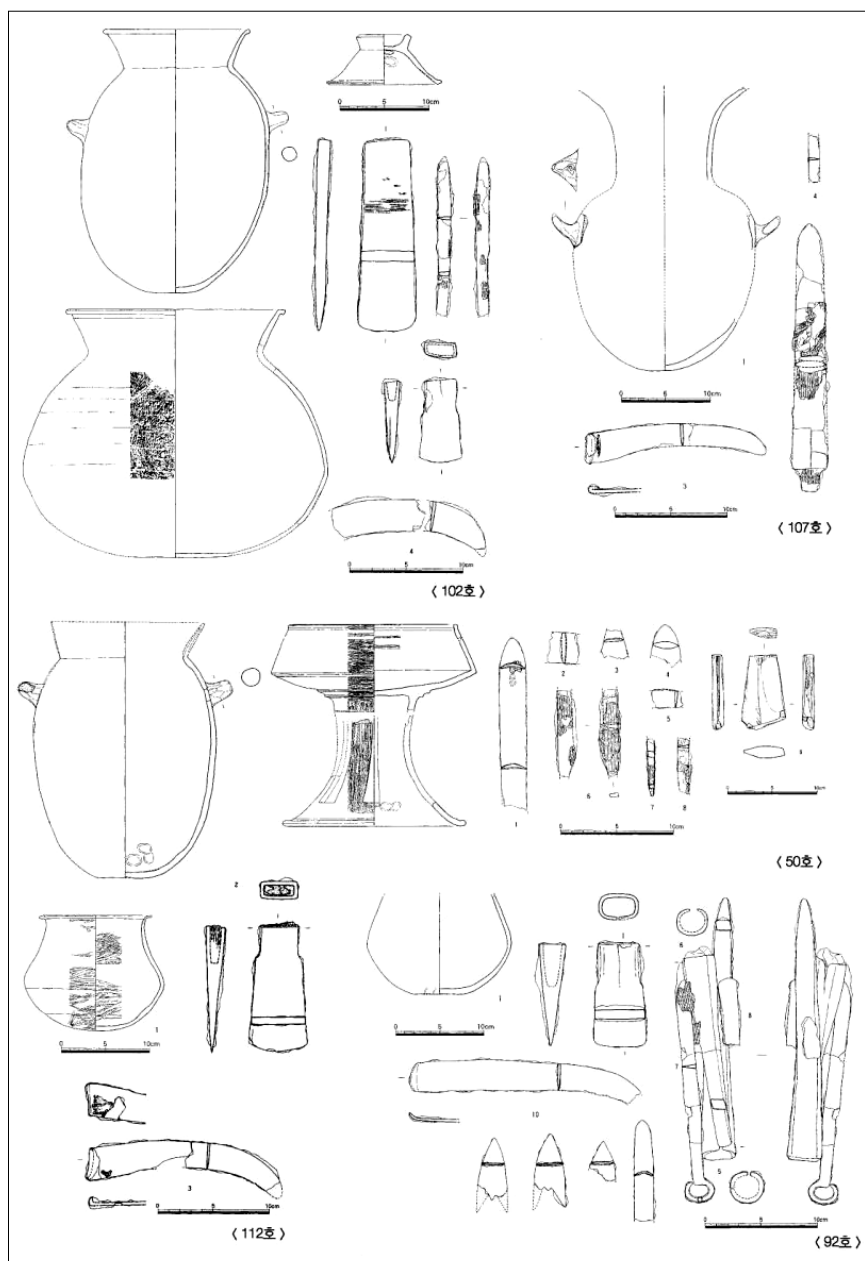
<도면 11> 1-1단계의 대표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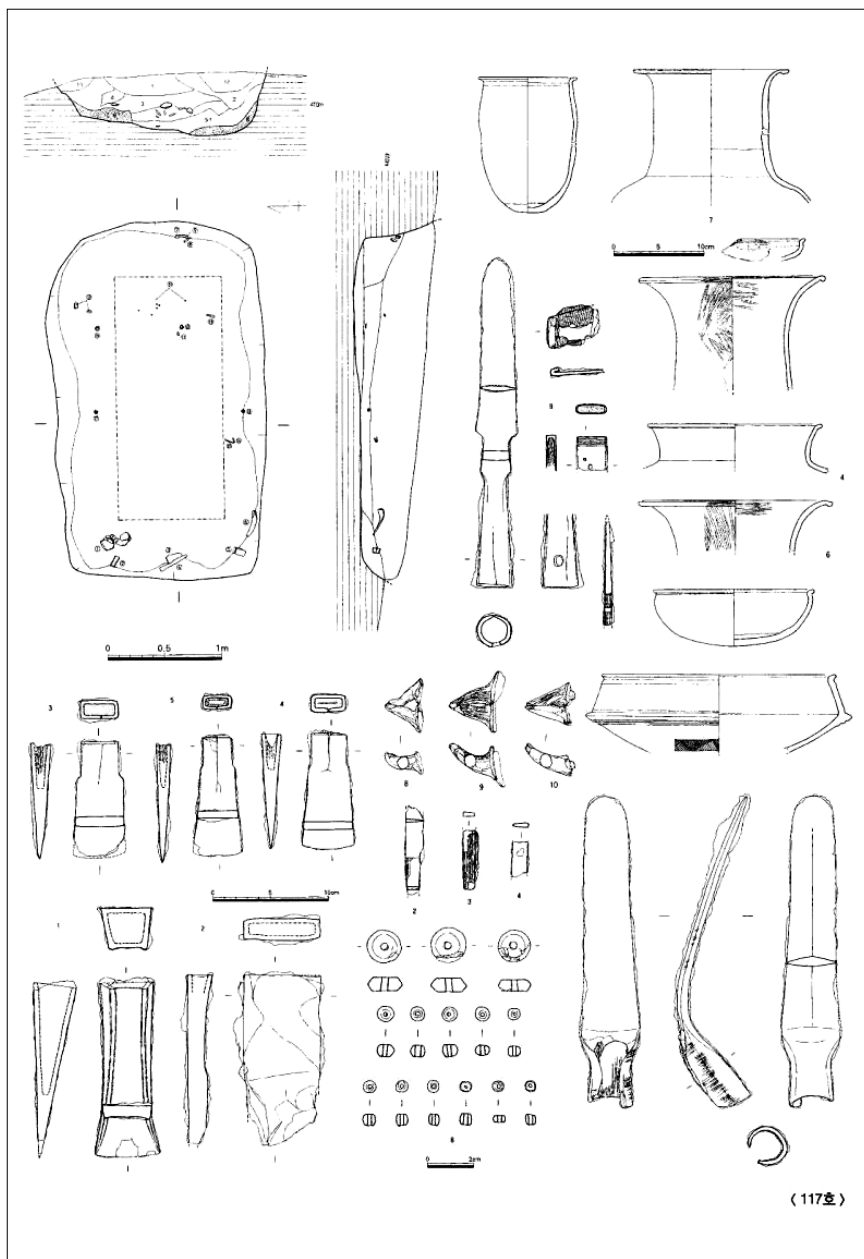
〈도면 12〉 1-2단계의 대표유물



〈도면 13〉 1-3단계의 대표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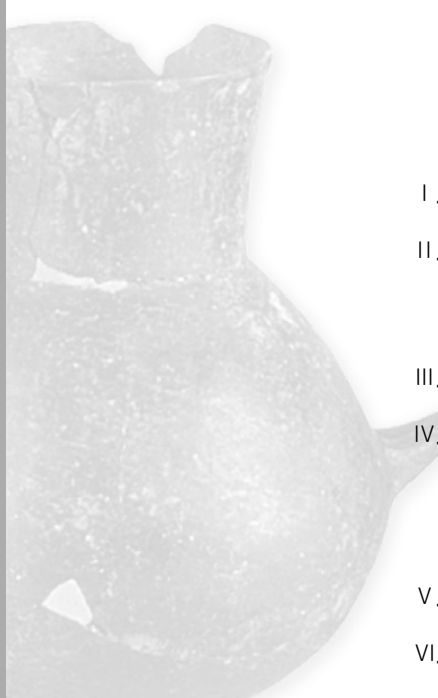
<도면 14> 1-4, 1-5단계의 대표유물



〈도면 15〉 1-6단계의 대표유물

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와질화와 그 의미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I. 머리말

II. 와질토기의 정의와 구분

1. 와질토기의 정의
2. 와질토기의 구분

III. 팔달동 목관묘 출토 토기의 검토

IV. 무문토기의 와질화

1. 분기 설정
2. 연대 추정
3. 무문토기의 와질화

V. 와질토기의 등장과 원삼국시대의 개시

VI. 맺음말

국문초록

대구 팔달동 유적은 진한 지역에서 와질토기가 가장 먼저 출토되는 군집 목관묘 중 하나이다. 와질토기는 재지의 삼각형점토대토기 문화가 戰國 灰陶 제작 기술을 받아 성립한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와질토기에 수용되는 전국 회도의 제작 기술을 살펴 와질토기를 정의하였다. 그 결과 진·변한 지역에서 서기전 2세기~서기 3세기 목관묘와 목곽묘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토기 중, ‘원저’, ‘승문 타날’, ‘회전 정면’, ‘회전 침선문’과 ‘명백한 와질 소성’ 중 한 속성을 가진 토기를 와질토기로 정의할 수 있다.

위의 기준으로 와질토기와 무문토기를 구분하여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를 모두 7시기로 분기하였다. 그 결과 팔달동 I기와 II기에는 무문토기만 출토되었다. 또 팔달동 목관묘에서 처음으로 무문토기의 와질화가 이루어지는 시기는 팔달동 III기로 서기전 1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었다. 이후 팔달동 V기인 서기 1세기 전반 정도에는 모든 무문토기의 와질화가 완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무문토기의 기종별로 와질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도 밝혀졌다. 즉 ‘주머니호→(점토대)옹→조합우각형 파수부호→봉상파수부호’의 순서대로 무문토기의 와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와질토기의 제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토기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제어

팔달동, 와질토기, 목관묘, 단조철기, 원삼국시대

대구 팔달동 유적 무문토기의 와질화와 그 의미

박진일*

I. 머리말

대구 팔달동 유적은 1980년대에 알려진 이후 1992~1993년에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한 조사¹⁾가 있었다. 이 조사에서는 토광묘(목관묘로 추정됨)와 옹관묘 각 1기가 확인되었다. 이후 잘 알려져 있다시피 1996~1997년에 영남문화재연구원은 대규모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모두 세 권의 보고서²⁾를 간행하였다. 2000년에 간행한 보고서 I에서는 원삼국시대의 무덤 103기와 461점의 유물을 보고하였다. 2015년에 간행한 보고서 II에는 원삼국시대 옹관묘와 수혈을 중심으로 165기의 유구와 776점의 유물을, 보고서 III에는 삼국시대~조선시대에 이르는 분묘를 중심으로 197기의 유구와 1,512점의 유물을 수록하였다.

이번 발표는 2000년도에 발간한 보고서 I에 수록한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들을 살펴 무문토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와질토기로 변해가는 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구분이 중요한 논점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먼저 선학들의 와질토기 정의를 살핀 후 필자가 생각하는 와질토기의 개념을 제시하겠다. 이를 토대로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와질화 과정과 그

* 국립중앙박물관

1) 윤용진 외, 1993, 『대구 팔달동 유적』, 경북대학교박물관.

2)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대구팔달동유적 I』.

_____, 2015, 『대구팔달동유적 II』.

_____, 2015, 『대구팔달동유적 III』.

의미를 고찰하겠다. 다만 목곽묘라고 보고된 117호 출토 토기는 목관묘 출토 토기의 연장선상에서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살펴겠다.

Ⅱ. 와질토기의 정의와 구분

1. 와질토기의 정의

와질토기의 정의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자의 다양한 견해가 있었는데 이미 정인성에 의해 잘 정리³⁾되었다. 먼저 이를 간단히 요약하고 최근의 두 견해는 추가로 자세히 살펴보겠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와질토기’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연구자는 신경철⁴⁾과 최종규⁵⁾다. 물론 그 이전에 일본에서 간행된 보고서⁶⁾나 논문⁷⁾에서 토기 質의 하나로 ‘瓦質’이란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현재의 용례처럼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목곽묘에서 주로 출토되는 일군의 토기를 대표하는 개념은 아니었다. 신경철은 와질토기를 재래의 무문토기 문화 기반 위에 환원염소성이라는 새로운 제도 기술의 도입으로 생성된 남부지역 특유의 토기로 보았는데, 새로운 제도술이란 낙랑군의 설치와 관련된 漢式 토기 기술로 보았다. 경주 조양동 5호와 창원 다호리 1호를 最古의 와질토기 단계로 보았으며 조양동 38호는 그 다음 단계로 보았다. 최종규 역시 와질토기를 재래 무문토기 기반 위에 漢式 토기의 영향으로 성립된 일군의 토기로 보았는데, 그 특징으로 태토의 정선화(泥質 점토), 회전판 성형의 도입, 타날 기법의 도입을 들었다. 최종규는 조양동 38호를 最古의 와질토기 단계로 설정하였다. 신경철과 최종규의 와질토기 개념은 이후 연구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대부분 논의⁸⁾의 출발점이 된다.

3) 정인성,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嶺南考古學』47.

4) 申敬澈, 1982,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12.

_____, 1991, 「韓國の瓦質土器」, 『日韓交渉の考古學』, 六興出版.

5) 崔鍾圭, 1982, 「瓦質土器 成立前夜の 全開」, 『韓國考古學報』12.

6) 長崎縣教育委員會, 1974, 『對馬・淺茅灣とその周邊の考古學調査』, 長崎縣文化財調査報告書 第17集.

7) 武末純一, 1974, 「金海式土器に關する一私見」『古文化談叢』1, 九州考古學研究會.

한편 최병현⁹⁾은 낙동강 유역의 ‘와질토기’를 중부지역을 거쳐서 내려온 전국계통의 타날문토기 요법이 낙동강 유역권으로 도입된 결과로 보았다. 또 경주 조양동 38호보다 이른 창원 다호리 1호 단계¹⁰⁾부터 와질토기 단계로 인식하였는데 이것은 ‘타날’보다 ‘환원염소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와질토기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지만 최근에 제시된 와질토기의 정의와 관련한 견해를 살펴보자.

이성주¹¹⁾는 ‘(와질토기란) 원삼국 시대의 영남지방 즉, 진·변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토기이다. 원삼국 시대에 접어들면 한반도 남부 각지에서는 고운 원료 점토로 빚고 회색 또는 회백색의 토기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가마 안에서 환원 소성을 했지만 낮은 온도로 처리되어 무른 편에 속하므로 와질토기라고 부른다. 우리가 흔히 와질토기라고 생각하는 범주에 포함되는 토기는 주로 진·변한 지역의 무덤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용 토기를 일컫는 것이다. 원삼국 시대 초기에 남한 지역으로 확산되어 와질토기 출현의 토대가 된 새로운 토기 제작 기술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원료 점토의 선택과 가공기술이다. 이때부터 점토를 임의로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 이상의 곱고 치밀한 점토를 선택하여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가공하기도 한다. 둘째로는 성형 기술의 혁신이다. 그릇을 물레 위에 놓고 돌리면서 경부와 구연부의 수평과 균형, 전체적인 대칭을 만들어 낸다. 그리고 반건조의 상태에서 그릇 안쪽을 받치면서 표면을 두드려 둥근 형태를 자유자재로 만드는 타날 기술이 적용된다. 셋째로는 소성 기술의 변화이다. 신기술 체계에서 토기의 소성은 밀폐할 수 있는 가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8) 이에 대해서는 정인성의 위 논문(2008)에 잘 정리되어 있다.

9)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38.

10) 최병현은 다호리 1호에서 환원염 소성의 와질토기가 출토되었다고 보았다.

11) 이성주, 2015, 「와질토기」, 『韓國考古學專門辭典 古墳遺物篇』, 625~628쪽 발췌 편집, 國立文化財研究所.

정인성¹²⁾은 ‘와질토기에 대해서 선학들은 태토의 정선화, 환원염소성의 채용, 타날의 채용, 물레에서의 성형 등이 가장 주목해야 될 속성이라고 판단하였다. 태토의 정선화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변화이기 때문에 발생기의 와질토기를 무문토기와 구분해 내는 절대기준으로 삼는 것은 곤란하다. 와질토기화의 중요 속성으로 단순히 타날 성형을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이미 이재현이 지적한 것처럼 승문 타날의 도입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 한편 와질토기가 등장하면서 빠른 회전이 담보되는 물레가 전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 초창기의 와질토기론자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처음부터 빠른 회전력이 수용된 토기제작이 아니었다. 환원염 소성이 무문토기와 와질토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결국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혁신이다. (중략) 어느 정도 회전 성형이 예상되는 토기의 저부가 원저화 공정과 같은 2차 조정을 거쳤는지의 여부와 환원염소성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승문)타날과 태토의 정선 정도 등을 2차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간 연구자마다 일치되지 않았던 와질토기의 개념과 발생시점에 대한 인식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이처럼 와질토기의 정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치해지긴 했지만 대동소이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2. 와질토기의 구분

1980~90년대에 제시된 신경철, 최종규와 최병현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는 정인성에 의해 잘 정리되었다. 다만 이 연구들은 와질토기의 정의보다 기술적 계보가 어디에 있는지가 더 중요한 논점이었다. 이하에서는 여러 견해를 종합한 이성주와 정인성의 최근 정의만 살펴보겠다.

이성주의 정의를 요약하면 와질토기란 ‘정선된 점토 사용, 물레의 사용, 저부 원저화 타날, 밀폐요 소성을 한 토기로 주로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제

12) 정인성,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269~277쪽 발췌 편집, 사회평론.

사용 토기'이다. 그렇다면 그가 제시한 4개의 기술적 속성 모두를 충족해야만 와질토기인가? 정선된 점토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물레에서 성형이나 정형을 하지 않았다면, 원저가 아니라면, 타날을 하지 않았다면 와질토기가 아닌가?¹³⁾ 와질토기에는 태토가 정선되지 않은 것도 있고 타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또 장동웅처럼 원저로 만들지 않지만 와질로 소성된 기종도 있다. 따라서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와질토기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인성은 1차 기준과 2차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1차 기준은 저부 원저화 같은 2차 조정과 환원염 소성이다. 그런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원저가 아닌 와질토기도 있으므로 원저가 와질토기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더불어 제시한 2차 기준은 약간 모호하다. 즉 승문 타날과 태토의 정선 정도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와질토기이냐는 것이다. 승문 타날이 있고 정선된 태토를 사용해야 와질토기인지, 둘 중 하나만 있어도 와질토기인지 문맥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다.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와질토기란 와질로 소성한 토기이다. 무문토기 제작 기술로 만들었던, 와질토기 제작 기술로 만들었던 밀폐요에서 환원염으로 소성한 토기는 모두 와질토기인 것이다. 명백하게 와질로 소성된 모든 토기는 제작 기술에 상관없이 와질토기로 보아야 할 이유이다. 문제는 이 '와질 소성'의 명백한 기준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팔달동 유적 같은 초기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이를 구분해내기가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필자는 소성 결과로서의 토기 질을 제외한 제작 기술을 중점적으로 살펴 와질토기를 정의하고자 한다. 와질토기 제작 기술로 만든 토기는 와질토기 제작 시스템 속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제작 기술은 '토기 성형 기술로서의 원저와 승문 타날', '물레 사용의 결과로서의 회전정면과 회전 침선문'이다.

13) 엄밀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환원염 소성 의도'가 와질토기 정의에서 가장 중요하다.

제작 기술 중 동체부와 저부에 베푸는 승문 타날은 무문토기 제작자가 와질토기 제작 과정의 관찰만으로도 쉽게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원저는 제작 도중 저부가 파손될 수 있어 약간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또 물레를 사용한 회전정면과 회전 침선의 시문은 제작 기술 중 아주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것은 환원염 소성과 이를 위한 밀폐요의 제작일 것이다. 환원염 소성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여러 공정(밀폐요 제작, 땀감의 확보, 소성 등)을 고려해 본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권력이 개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한다면 태토만 정선했던 토기와 와질토기를 흉내 내었지만 무문토기 제작 기술로 만든 토기(팔달동 28호 素文단경호 등)들은 와질토기의 범주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진·변한 지역에서 서기전 2세기~서기 3세기 목관묘와 목곽묘를 중심으로 출토되는 토기 중, ‘원저’, ‘승문 타날’, ‘회전 정면’, ‘회전 침선문’과 ‘명백한 와질 소성’ 중 한 속성을 가진 토기를 와질토기로 정의한다. 여기에는 와질토기 제작 기법(원저, 타날, 물레)으로 만든 이후 환원염 소성을 시도했지만 의도와 달리 환원염으로 소성되지 않은 토기들도 포함한다. 이 토기들은 와질토기의 제작 의도가 충분할뿐더러 와질토기 제작 시스템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되므로 와질토기의 범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실제 소성 결과와 상관없이 와질토기 제작시스템에서 성형(원저, 승문 타날)하거나 정형(회전정면, 회전 침선문)한 토기를 확인하면 와질토기와 무문토기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이것은 정인성이 제시한 ‘2차 조정’이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이런 기준으로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는 다음과 같은 네 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 중 ‘나’, ‘다’와 ‘라’ 군을 와질토기로 볼 수 있겠다.

〈표 1〉 무문토기와 와질토기의 분류 기준

구분	제작 기법	소성 상태	팔달동 사례	구분
‘가’ 군	무문토기 제작 기법	무문 소성	30호 주머니호	무문토기

14) 저부 원저화가 이루어진 토기는 대부분 물레에서 성형이나 정형을 한 것이다.

구분	제작 기법	소성 상태	팔달동 사례	구분
'나' 군	무문토기 제작 기법	와질 소성	없음 ¹⁵⁾	와질토기
'다' 군	와질토기 제작 기법	무문 소성	41호 단경호	
'라' 군	와질토기 제작 기법	와질 소성	105호 단경호	

위와 같이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서 출토된 토기를 네 군으로 나눌 때 본고의 주제인 '와질토기화'라는 과정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것은 와질토기의 조건인 원저, 승문 타날, 회전정면, 회전 침선문을 구분해 내고 이를 순서화, 도식화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저부의 형태(굽, 평저, 원저), 승문 타날(없음, 있음), 구경부의 형태(점토대, 외경, 만곡 또는 돌대나 凹面), 횡침선(없음, 있음)을 주요 속성으로 삼겠다. 가장 중요한 와질 소성은 객관화하기가 어려울뿐더러 제작자의 의도와 달리 소성되는 경우도 있어서 제외한다. 태토의 정선도 역시 와질토기의 필요조건이 아니어서 제외한다.

Ⅲ. 팔달동 목관묘 출토 토기의 검토

앞서 제시한 와질토기의 기준으로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무문토기의 와질토기화를 살펴보겠다. 분류 기준은 '저부의 형태, 승문 타날, 회전정면에 의한 구경부의 형태, 회전 침선문'이다. 이것은 필자가 앞서 제시한 창원 다호리 유적 9차 발굴조사보고서¹⁶⁾의 분류 기준과 비슷한 것이다.

1. 주머니호

주머니호는 점토대토기 소형용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삼각형점토대토기의

15) 거친 태토에 굽이 있어 무문토기 제작 기법으로 만들었지만 밑폐요에서 와질로 소성한 나주 구기촌 2호 토광묘 출토 단경호는 와질토기의 범주에 포함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나주 구기촌, 덕곡유적』.

16) 국립김해박물관·창원시, 2011, 『昌原 茶戶里 遺蹟 9차 발굴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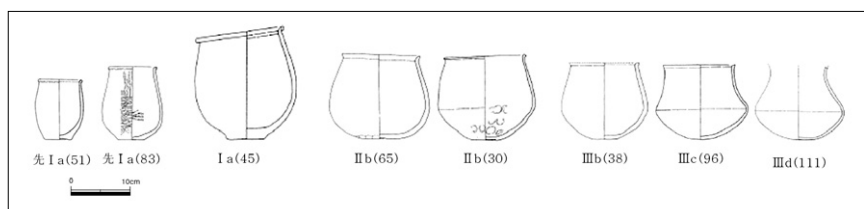
표지 유적인 늪도 8호주거지¹⁷⁾에서도 점토대토기 소형옹이 출토되었다. 팔달동 유적 51호나 83호 출토품처럼 동최대경이 강조되지 않고 구연부에 퇴화된 작은 점토대가 붙으며 기고가 구경보다 큰 것이 주머니호의 조형이다. 또 111호 출토품처럼 원저에 구경부의 외반도가 강한 것은 가장 늦은 형식이다. 이 중 ‘기고>구경’인 조형은 전형적인 주머니호 등장 이전에 짧은 기간에 사용되는 것으로 연구자들은 점토대토기 소형옹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주머니호 중 가장 이른 형식을 본고에서는 I a식으로 설정할 것이므로 ‘기고>구경’인 점토대토기 소형옹을 ‘先 I a식’이라 하겠다. 다른 와질토기와 마찬가지로 무문토기에서 와질토기로 변화하는 주머니호의 방향성은 원저와 회전 정면의 채용이다. 형식설정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2〉 주머니호의 속성

	저부	동체 상부
古 ↓ 新	굽(I) ↓ 평저&오목저(Ⅱ) ↓ 원저(Ⅲ)	점토대 구연(a) ↓ 동체 상부 내반(b) ↓ 동체 상부 약 외반(c) ↓ 동체 상부 강 외반(d)

〈표 3〉 주머니호의 형식

	先 \ a		b	c	d
I	51,78,83	44,45,78 ¹⁸⁾ ,94			
Ⅱ			30,31,65,87,110		
Ⅲ			28,29,32,37,38,48,82,85,101,121	47,96,112	111



17)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보고서에서는 8호주거지를 늪도Ⅱ기로 보고 있는데 절대연대는 서기전 2세기 후반이 중심이다.

2. (점토대)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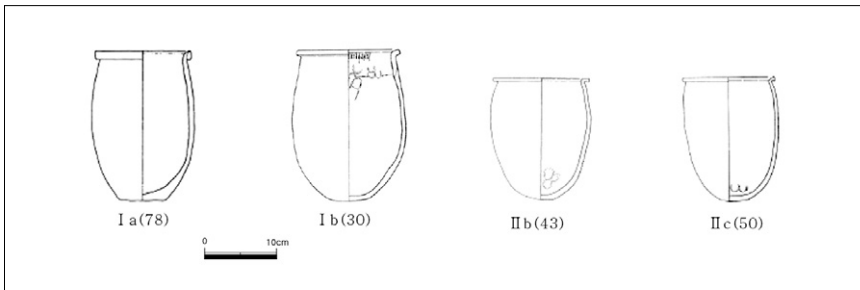
점토대가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의 변화는 자명하다. 굽 모양 저부나 평저, 점토대가 있는 것이 이른 속성이며 원저와 회전정면으로 인한 구연단의 변화는 늦은 속성이다.

〈표 4〉 (점토대)옹의 속성

	저부	구경부
古 ↓ 新	굽 또는 평저(Ⅰ) ↓ 원저(Ⅱ)	점토대 有(a) ↓ 구연단 짧게 외반(b) ↓ 구연단 凹面(c)

〈표 5〉 (점토대)옹의 형식

	a	b	c
Ⅰ	30,78,90,94	30	
Ⅱ		43,117	50,95



3. 조합우각형과수부호

팔달동 목관묘에서 출토된 조합우각형과수부호는 수량도 적고 타날과 횡침선이 시문된 것도 적다¹⁹⁾. 또 106호 출토품처럼 경부에 암문이 시문된 것은 늦은 시기의 것이다. 무문토기의 특징인 굽의 유무에 따른 선후관계(有→無)를 설정할 수 있으며 회전력 증가에 의한 구경부 변화를 주요 속성으로 설정할 수 있다.

18) 78호에서 출토품처럼 ‘대각’ 역시 굽처럼 토기를 안정적으로 세우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 동일한 맥락에서 파악해도 문제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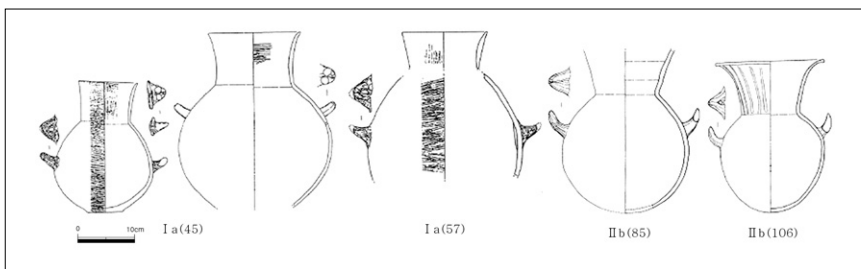
19) 111호 출토 조합우각형과수부호에서는 승문타날흔이 확실히 관찰된다. 하지만 사례가 적어 형식설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다.

〈표 6〉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속성

	저부	구경부
古 ↓ 新	굽(Ⅰ) ↓ 원저(Ⅱ)	구경부 적립 또는 외경(a) ↓ 구연부 외반(b)

〈표 7〉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형식

	a	b
Ⅰ	45,57,100	
Ⅱ	85,96?	106,111



4. 봉상파수부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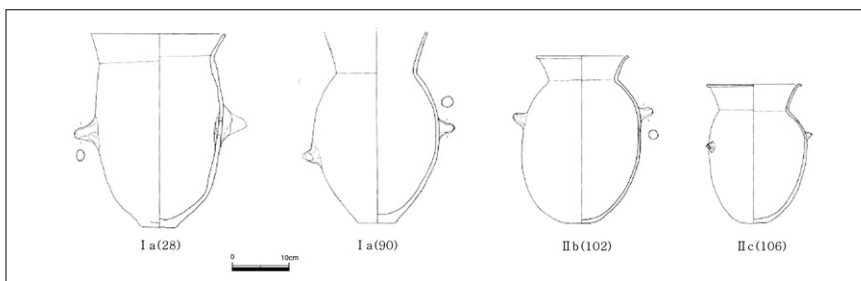
굽상 저부나 평저, 구경부 외경은 古式이며 원저, 물레 도입에 의한 구경부 외반은 新式이다. 그런데 팔달동 유적에서는 출토 수량도 적을뿐더러 경부나 구연부가 파손된 것들이 많아 변화 시기를 자세히 파악하기 힘들다. 乳狀 파수는 106호에서 출토된 1점밖에 없다.

〈표 8〉 봉상파수부호의 속성

	저부	구경부/파수
古 ↓ 新	굽 또는 평저(Ⅰ) ↓ 원저(Ⅱ)	구경부 외경(a) ↓ 구연단 외반(b) ↓ 구연단 외반(유상 파수)(c)

〈표 9〉 봉상파수부호의 형식

	a	b	c
Ⅰ	28, 90		
Ⅱ		50,102	106



5.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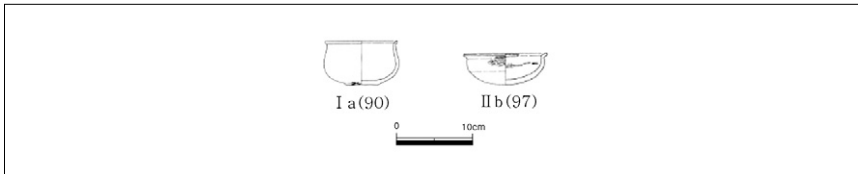
洗, 천발 또는 보시기라고도 부르는 것이다. 타날문단경호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기종으로 보는 견해와 재지계 기종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데 팔달동 90호 목판묘에서 완전한 무문토기 제작기법으로 만든 완이 출토되어 팔달동 유적에서 재지계 기종으로 먼저 등장했을 가능성이 높으리라 생각한다²⁰⁾. 저부의 형태와 회전력 증가에 따른 구경부의 변화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나눌 수 있다.

〈표 10〉 완의 속성

	저부	구경부/파수
古 ↓ 新	굽 또는 평저(Ⅰ) ↓ 원저(Ⅱ)	구경부 직립(a) ↓ 구연단 외반(b)

〈표 11〉 완의 형식

	a	b
Ⅰ	90	
Ⅱ	33	97, 117



6. 단경호

단경호는 등장 시기부터 완전한 와질토기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와질토기 속성이 전혀 없는 것도 있다. 전국계 灰陶인 타날문단경호를 조형으로 볼 수 있지만 팔달동 유적에서 회도 자체가 출토되지는 않는다. 창원 다호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소형이면서 素文인 것이 이른 시기의 것이며, 이후 승문 타날과 횡침선의 속성이 채용된다. 또 회전력의 증대와 함께 구연단에 수평면이 생기는 Ⅱ 식이 구경부가 외경하는 Ⅰ 식보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

20) 팔달동 90호 출토 완을 근거로 이 기종이 재지계 기종일 가능성은 이미 정인성에 의해 지적되었다. (정인성, 2008, 앞의 논문)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는 무문토기로 제작된 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유적별로 등장기의 와질토기 종류가 달랐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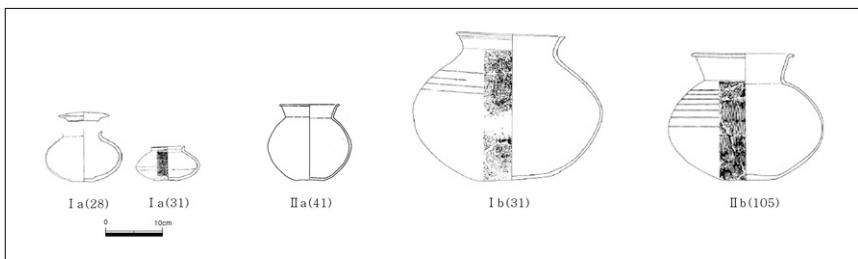
인데, 구연단에 돌대나 凹面이 있는 것 역시 회전판의 속도 증가로 인한 것이다.

〈표 12〉 단경호의 속성

	구경부	타날, 횡침선
古 ↓ 新	외경(Ⅰ) ↓ 구연단에 면 또는 凹面(Ⅱ)	無(a) ↓ 有(b)

〈표 13〉 단경호의 형식

	a	b
Ⅰ	28,31,121	31
Ⅱ	41	74 ²¹⁾ ,82,95,101,102,111



Ⅳ. 무문토기의 와질화

1. 분기 설정

앞서 설정한 각 토기 형식의 공반 관계를 근거로 팔달동 유적의 목관묘를 아래와 같이 7시기로 나눌 수 있다.(도1~도8참조)

〈표 14〉 시기별 토기 공반 관계

시기	주머니호	(점토대)웅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봉상파수부호	완	단경호
Ⅰ	先Ⅰa	Ⅰa	Ⅰa			
Ⅱ	先Ⅰa, Ⅰa	Ⅰa	Ⅰa	Ⅰa	Ⅰa	

21) 74호 출토 단경호는 보고서에서 종방향 승문 타날만 언급되어 있으나 필자가 관찰한 결과 최소 2~3조의 횡침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	주머니호	(점토대)용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봉상파수부호	완	단경호
Ⅲ	Ⅱ b	I a, I b		I a		I a
Ⅳ	Ⅱ b, Ⅲ b					I a, I b, Ⅱ a
Ⅴ	Ⅲ b		Ⅱ b			Ⅱ b
Ⅵ	Ⅲ c	Ⅱ b	Ⅱ b	Ⅱ b		Ⅱ b
Ⅶ	Ⅲ d	Ⅱ b, Ⅱ c	Ⅱ b	Ⅱ b, Ⅱ c		Ⅱ b
목곽묘					Ⅱ b	Ⅱ b

I 기에는 51호, 57호와 83호가 속하는데 무문토기만 출토되는 단계다. 주머니호는 점토대가 있고 기고가 구경보다 큰 先 I a식²²⁾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57호에서는 마연한 I a식 조합우각형파수부호가 출토되었는데 공반된 주조 철착, 단면 장방형 공부와 함께 단조 소형 판상철부, 철사, 철모, 철검은 팔달동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철기 조합으로 볼 수 있다. 57호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단조 소형 판상철부가 출토된 67호나 116호도 이 시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Ⅱ 기에는 44호, 45호, 78호, 90호, 94호와 100호가 속하는데 역시 무문토기만 출토되는 단계다. 주머니호는 先 I a식, I a식이 출토된다. 점토대용,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봉상파수부호, 완은 I a식으로 모두 굽이 있고, 점토대가 있는 것도 있으며 마연 같은 무문토기 정면기법도 관찰된다. 단경호는 여전히 출토되지 않는다. 한편 토기로는 구분하기 힘들지만 Ⅱ 기의 철부나 판상철부는 시간적인 선후 관계가 보인다. 즉 45호의 주조 단면 장방형 공부나 짧은 판상철부의 조합은 90호나 100호 철기보다 이른 시기의 모습이다.

Ⅲ 기에는 28호, 30호, 65호와 87호가 속하며 무문토기와 함께 처음으로

22) 늑도 I a지구 8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것과 같은 이 기형은 전형적인 주머니호와 는 다르고 오히려 소형화된 원형점토대토기와 닮았다. 하지만 형식학적으로 보아 주머니호의 조형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머니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겠다.

와질토기가 출토된다. 주머니호는 평저와 오목한 저부를 가진 Ⅱb식과 함께 원저인 Ⅲb식이 출토된다. 65호와 87호의 주머니호는 평저인데 65호 출토품의 바닥에서는 제작대에서 떼 낸 흔적이 잘 보인다. 구연단이 살짝 외반한 것은 이전 시기 Ia식의 영향이다. 바닥이 오목한 30호 주머니호의 외면에서는 목판으로 정면한 흔적이 보인다. 28호에서 출토된 주머니호는 Ⅲb식으로 파손과 표면 박락이 심해 정확하게 관찰되지는 않지만 원저이며 동체부도 물레에서 정면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회색 와질로 소성되어 팔달동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와질토기로 볼 수 있다. (점토대)옹은 30호에서 보듯이 점토대와 굽이 있는 Ia식과 점토대가 있고 평저인 Ib식과 함께 출토된다. Ib식에서도 역시 와질토기 제작기법은 찾아볼 수 없지만 평저가 채용되고 점토대도 사라져 절충 형식으로 볼 수 있겠다. 봉상파수부호는 여전히 무문토기인 Ia식이다. 단경호도 소형이면서 素文인 Ia식이 28호에서 출토되었다. 이 단경호는 적갈색으로 소성되고 동체에서 회전정면흔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 평저인 바닥에는 제작대에서 떼 낸 흔적이 있어 무문토기임이 확실하다. 와질단경호를 인지하고 있던 재지 장인이 만든 절충 형식으로 추정된다. Ⅲ기는 팔달동 유적에서 무문토기가 와질화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Ⅳ기에는 31호, 41호와 121호가 속한다. 와질토기가 본격적으로 출토하는 단계이다. 주머니호는 주로 Ⅲb식이 출토되는데 31호처럼 이전 Ⅱb식이 출토되기도 한다. Ⅲb식 주머니호는 다른 목관묘군과 마찬가지로 출토되는 수량도 많고 지속되는 기간도 길다. 또 이 시기에는 여러 형식의 단경호가 출토되는데 소형이면서 素文인 Ia식이 31호와 121호에서, Ib식이 31호에서, Ⅱa식이 41호에서 출토된다. 먼저 31호 출토품은 이전 단계인 28호 출토품과 달리 태토가 매우 정선되고 회색으로 소성되었다. 비록 외부는 마연으로 보기 힘들지만 구연과 내면에서는 회전정면흔이 관찰되어 물레에서 정면한 것을 알 수 있다. 41호에서 출토된 Ⅱa식 단경호²³⁾는 황

23) 필자가 다호리 Ⅶ기(다호리 1기와 동일 단계)로 설정한 다호리 40호 출토 단경호와 아주 비슷한 모습이다. 다호리 유적에서도 직전인 다호리 Ⅲ기에 소형 소문 단경호가 출토되어 팔달동과 같은 양상을 보인다.

갈색으로 소성되고 동체에서 회전정면흔이 관찰되지 않으며 평저이다. 하지만 수평으로 외반한 구연은 회전물손질하여 와질토기 제작기법으로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31호에서 출토된 I b식은 태토에 사립이 많이 함유되었지만 소성도가 낮아 회갈색을 띠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회색을 띠며 승문 타날과 횡침선이 시문되고 구연부에서는 회전물손질흔도 볼 수 있다. 팔달동 유적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타날문 단경호’이다.

V 기에는 82호, 85호와 101호가 속한다. 주머니호는 이전과 같은 III b식만 출토된다. 조합우각형파수부호는 구연단이 결실되어 정확하지는 않지만 II b식일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가 85호에서 출토되었다. 단경호는 82호 출토품처럼 타날과 회전 횡침선이 부가되면서 구연단이 수평으로 꺾여 회전정면된 II b식 단경호가 등장하는데 이 형식의 단경호는 팔달동 목관묘 마지막 단계까지 지속된다. 이것은 물레의 회전력이 이전 단계보다 훨씬 빨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보아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형 무문토기의 와질화는 이 시기에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높다. (점토대)옹 역시 점토대가 없고 말각평저인 I b식이 III 기에 이미 등장하였음을 고려한다면 43호 출토품 같은 II b식의 옹(점토대가 없고 원저)은 이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봉상파수부호는 명확히 이 시기로 볼 만한 것이 없다. V 기부터 무문토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VI 기에는 96호, 102호와 112호가 속한다. 주머니호는 동체의 상부가 약하게 외반하는 III c식이 등장하며 봉상파수부호와 단경호 II b식이 보인다.

VII 기에는 50호, 95호, 106호와 111호가 속한다. 주머니호는 동체의 상부가 강하게 외반하는 III d식이 보이며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단경호는 II b식이, 봉상파수부호는 II b식과 II c식이 확인된다. 이 시기의 특징은 목관묘적인 토기가 보인다는 것이다. 106호에서 출토된 조합우각형파수부호의 경부에는 길이 방향의 암문을 시문하였으며 이전 단계에는 보이지 않던 고배²⁴⁾가 50호에서 처음으로 출토된다.

목곽묘 단계의 무덤은 117호 한 기만 해당한다. 하지만 토기 유물상은 목관묘의 전통이 그대로 남아 Ⅱb식의 옹과 완이 출토되며 이전 단계에 등장했던 고배도 확인된다.

2. 연대 추정

앞에서 팔달동 유적 목관묘를 출토 토기를 기준으로 7시기로 나누었다. 영남 지방의 대체적인 연대판으로 목곽묘의 시작을 2세기 중엽 정도로 본다면 목관묘의 마지막 단계인 Ⅶ기는 2세기 전엽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하지만 그 앞 시기는 절대 연대를 추론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 따라서 필자가 이전에 제시²⁵⁾한 창원 다호리와 경주 조양동 유적의 절대연대와 비교하여 추정하겠다.

먼저 본고에서 Ⅱ기로 설정한 78호에서 주머니호 ‘先Ⅰa식’과 ‘Ⅰa식’이 함께 출토되는 것이 주목된다. 이것은 창원 다호리 유적 1기²⁶⁾ 무덤인 34호나 77호와 같은 출토 양상이다. 그런데 팔달동 Ⅰ기의 무덤인 51호와 83호에서는 ‘先Ⅰa식’ 주머니호만 출토되므로 다호리 1기보다 한 단계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자의 다호리 1기는 서기 2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한 시기이므로 팔달동 유적의 상한인 Ⅰ기는 서기전 2세기 전반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본다. 짧은 판상철부(우병철의 장방형식)가 출토된 67호와 116호도 이 시기로 편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57호에서 출토된 주조 철착은 주로 마한 영역에서 출토되는 것이라 주목된다.

Ⅱ기 유물 중에는 90호에서 출토된 판상철부를 주목할 만하다. 이 철부는 기부가 두꺼운 것으로 조양동 5호에서 출토된 것과 비슷한 형식인데 그보다 조금 길다. 한편 45호에서는 90호 출토품보다 이른 형식의 판상철부가 있어 시기폭이 좀 넓어 보인다. 필자는 조양동 5호를 다호리 2기와 비슷

24) 박형열은 아산 용두리 유적 등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된 토기와 함께 이 기종을 유개대부호로 칭하고 있다. 그의 분류에 따르면 팔달동 50호에서 출토된 고배는 Ⅴ단계에 해당하며 117호에 출토된 고배는 Ⅶ단계에 해당한다. 박형열, 2015,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 『호남고고학보』50.

25) 拙稿, 2013,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6) 국립김해박물관·창원시, 2011, 전게서.

한 서기전 1세기 전엽 정도로 보고 있으므로 팔달동 Ⅱ기는 서기전 2세기 후반 정도로 보면 적당하겠다. Ⅳ기에 출토되는 와질제 소형단경호는 다호리 3기 무덤인 27호에서 출토된 바가 있는데 보고서에서 서기전 1세기 중엽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팔달동 Ⅲ~Ⅳ기는 서기전 1세기를 중심으로, Ⅴ~Ⅶ기는 서기 1세기를 중심으로 하여 설정하면 적당할 것 같다.

정리하자면 팔달동 목관묘 출토 무문토기의 와질화는 팔달동 Ⅲ기인 서기전 1세기 전반에 시작되어 팔달동 Ⅴ기인 서기 1세기 전반 정도에 완성되는 것이 된다.

3. 무문토기의 와질화

팔달동 유적에서 기종별 와질토기가 출토되는 시기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²⁷⁾.

〈표 15〉 기종별 와질토기 등장 시기

시기	주머니호	(점토대)옹	조합우각형 파수부호	봉상 파수부호	단경호
Ⅰ기					
Ⅱ기					
Ⅲ기					
Ⅳ기					
Ⅴ기					
Ⅵ기					
Ⅶ기					
목곽					

위의 표를 살펴보면 기종별로 와질토기화가 진행되는 시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머니호→(점토대)옹→조합우각형파수부호→봉상파수부호

27) 완은 출토 사례가 적어 확인되지는 않지만 Ⅱ기인 90호에서 무문토기로 출토된 사례가 있어 주머니호가 와질화되는 Ⅲ기 정도에 와질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호'의 순서대로 무문토기의 와질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와질토기의 제작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제작할 수 있는 토기의 종류가 많아지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즉 素文短頸壺의 형태로 팔달동 유적에 처음으로 등장한 와질토기는 모든 재지 토기의 제작기법을 일거에 바꾼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재지 집단의 선택적인 기술 수용을 알 수 있다. 크기가 작은 토기에서 큰 토기로 변화의 방향성이 설정된다²⁸⁾. 또 기술적으로 보자면 '저부 원저화→회전정면→승문 타날→회전 횡침선 시문'의 순으로 새로운 기술이 토기 제작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머니호, 완과(점토대)웅에서 점토대가 사라지는 것은 물레 사용으로 인한 회전정면의 필연적 결과이다.

V. 와질토기의 등장과 원삼국시대의 개시

원삼국시대 개시의 지표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자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1988년 한국고고학개설 제3판에서 원삼국시대는 서력기원 전후부터 서기 300년경까지로 설정되었으며 청동기의 소멸, 철기의 발달 및 보급, 농경의 발전, 김해토기의 생산으로 정의된 바 있다²⁹⁾. 이후의 연구로 원삼국시대의 문화상이 정치하게 밝혀졌으며 절대연대 역시 꾸준히 상향되어 왔다. 이에 대해 원삼국시대의 문화변동을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 '전국계 철기 유입', '외줄고래의 등장³⁰⁾'과 '삼각형점토대토기군에서 고식와질토기군'으로의 변천으로 보고 이 변동의 시작을 원삼국시대의 개시(서기전 100년)보다 훨씬 이르게 볼 이유는

28) 이희준 역시 와질토기의 지역성을 지적하면서 여러 기종의 와질토기가 동시에 발생하지 않고 시점을 달리하면서 서서히 등장한다고 보았다.

이희준, 2002,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29) 金元龍, 1988,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30) 외줄고래의 등장은 늪도 유적 등 원삼국시대 주거지에서 확인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분묘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 시기 영남 지역 고고자료의 틀에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어렵다.

없다는 견해³¹⁾가 있다. 그런데 영남지방에서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와 ‘진·변한식 단조철기의 등장³²⁾’ 시점이 와질토기의 등장시점과 다르다는 견해³³⁾ 역시 이미 제시되어 있으며 필자 역시 이에 동감한다. 다시 말해 영남 지방의 고식와질토기군의 개시 연대는 전국계 철기의 유입, 목관묘의 집단화 개시 연대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³⁴⁾이나 경주 하구리 유적³⁵⁾의 사례에서 보듯이 대구 분지나 경주의 초기 목관묘에서 와질토기는 없지만 무문토기와 함께 짧은 판상철부나 철모, 철검 같은 진·변한식 ‘단조철기’가 출토된다. 진·변한지역에서 일정 기간 ‘와질토기 비공반 군집 목관묘’가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다. 군집 목관묘의 확산 루트를 상정해 본다면 마한에서 진한으로 목관묘문화의 확산 도상에 있는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칠곡 등지에서 대구 월성동 777-2번지 유적과 마한 지역 군집 목관묘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군집 목관묘가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칠곡 심천리 유적은 군집 목관묘는 아니지만 1호 목관묘³⁶⁾에서 나온 양뉴부 원형점토대토기를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와질토기의 등장과 단조철기의 등장 시점이 다르다면 둘 중 무엇을 원삼국시대 개시 지표로 삼아야 할까?

원삼국시대는 이전 초기철기시대보다 권력 체계가 구조적일 것이며 질적으로도 발달한 사회상을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이전보다 질적으로 발달한 사회를 고고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분명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이다. 이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와 함께 보이는 고고학적 현상이 진·변한식 단조 철기의 등장이다. 하지만 단조철기문화는 월성동 777-2번지나 팔달동 유적의 예처럼 와질토기는 함께 등장하지 않는다. 물론 와질토기는 단

31) 이성주,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226~227쪽, 사회평론.

32) 단조철기는 낙랑이 아닌 후기 고조선 또는 戰國 燕나라와 관계된 것이다.

33) 李熙濬, 2004,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再論」, 『韓國考古學報』52, 韓國考古學會.

34)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Ⅱ)-青銅器~近代』.

3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경주 하구리 유적』.

36)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漆谷深川里遺蹟發掘調查報告書-木槨墓外』.

조철기가 영남지방에 등장한 이후 오래지 않아 제작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기는 아니다. 따라서 ‘지배집단 목관묘의 집단화’와 ‘단조철기의 등장’이 곧 원삼국시대 개시의 충분조건이며 여기에 굳이 와질토기의 등장을 소개시킬 이유는 없다. 이런 관점은 와질토기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지만 무문 조합우각형파수부호와 주머니호의 前身인 소형 점토대토기기가 단조제 소형 판상철부, 철모, 철착, 鑿斧와 함께 출토된 팔달동 45호묘를 초기철기 시대가 아닌 원삼국시대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구분 기준의 모호함은 연구자들의 인식에서도 종종 드러난다. 우병철은 ‘기왕의 일반적인 관점에 접근해 삼각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두형토기 등 무문토기 기종만 출토되는 것을 초기철기시대로 보고, 무문토기와 와질토기가 공반하여 확인되는 시점부터 원삼국시대로 규정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³⁷⁾. 이와 같은 기준에서 월성동 777-2번지 유적과 대구 팔달동 유적에서 와질토기가 출토되지 않는 45호나 90호 목관묘를 초기철기시대로 위치시켰는데 필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동일한 단조철기문화와 묘제를 가지지만 ‘와질토기’의 유무가 시대구분의 기준이 되어 버린 것으로 합리적이지 않다. 원삼국시대로의 질적 변화는 ‘토기의 변화’가 아니라 ‘철기의 변화’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Ⅵ. 맺음말

三國志 魏書 東夷傳 辰韓전에 “진한은 마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들은] 옛날의 망명인으로 秦나라의苦役을 피하여 韓國으로 왔는데, 馬韓이 그들의 동쪽 땅을 분할하여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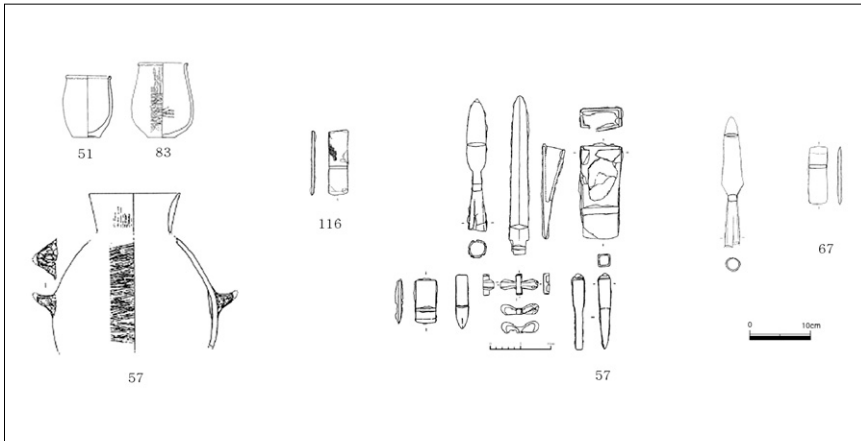
이것은 최근 많이 조사된 마한과 진한 지역의 목관묘군의 분포나 시기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한 마한 목관묘군과 대구·경산을 중심으로 한 진한 목관묘군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양 지역

37) 우병철, 2012, 「한반도 동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 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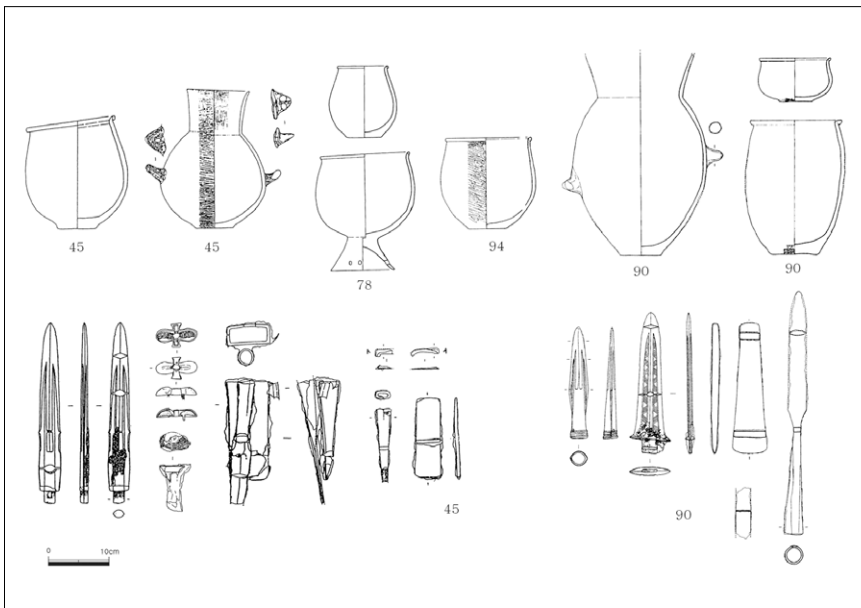
목관묘에서 출토된 유물복합체 중 유물의 구성과 형식이 아주 유사한 무덤은 찾기 힘들다. 주조철부, 주조철착, 철사 등 철기와 점토대토기, 조합우각형과수부호 등 일부 유물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마한 목관묘 중심지인 전주, 완주와 진한 목관묘의 등장지인 금호강 하류를 잇는 교통로 상의 장수, 함양, 거창, 합천, 고령, 칠곡 등지에서 지배집단의 군집 목관묘가 추가로 확인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장수 남양리 유적은 그 중 하나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앞으로의 자료 증가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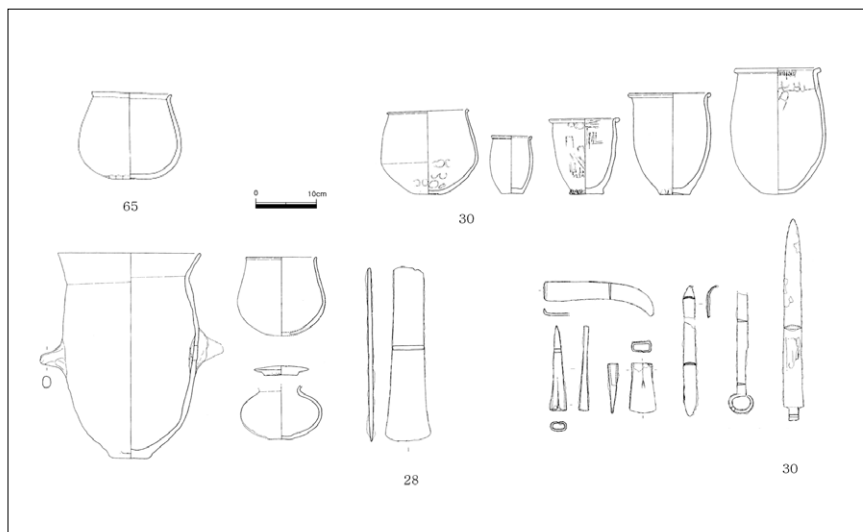
- 국립김해박물관·창원시, 2011, 『昌原 茶戶里 遺蹟 9차 발굴조사보고서』.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漆谷深川里遺蹟發掘調査報告書-木槨墓外-』.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Ⅱ)-青銅器~近代-』.
- 金元龍, 1988, 『韓國考古學概說 第三版』, 一志社.
- 武末純一, 1974, 「金海式土器に關する一私見」, 『古文化談叢』1, 九州考古學研究會.
- 박진일, 2013, 『韓半島 粘土帶土器文化 研究』,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 박형열, 2015, 「원삼국시대 유개대부호의 편년」, 『호남고고학보』50.
-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勒島住居址』.
- 申敬澈, 1982,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12.
- 1991, 「韓國の瓦質土器」, 『日韓交渉の考古學』, 六興出版.
-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13, 『경주 하구리 유적』.
- 윤용진 외, 1993, 『대구 팔달동 유적』경북대학교박물관.
-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 『대구팔달동유적 I』.
- _____, 2015, 『대구팔달동유적 II』.
- _____, 2015, 『대구팔달동유적 III』.
- 우병철, 2012, 「한반도 동남부지역 철기문화의 성격과 전개양상」,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연구, 燕國철기문화의 형성과 확산,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성주, 2015, 「와질토기」, 『韓國考古學專門辭典 古墳遺物篇』, 國立文化財研究所.
- 이성주,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사회평론.
- 이희준, 2002,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한국학연구원.
- 李熙濬, 2004,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再論」, 『韓國考古學報』52, 韓國考古學會.
- 長崎縣教育委員會, 1974, 『對馬 -淺茅灣とその周邊の考古學調査-』, 長崎縣文化財調査報告書 第17集.
-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나주 구기촌, 덕곡유적』.
- 정인성, 2008, 「'瓦質土器 樂浪影響說'의 검토」, 『嶺南考古學』47.
- 정인성, 2015, 「원삼국시대와 와질토기」, 『영남의 고고학』, 사회평론.
-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 『韓國考古學報』38.
- 崔鍾圭, 1982, 「瓦質土器 成立前夜の 全開」, 『韓國考古學報』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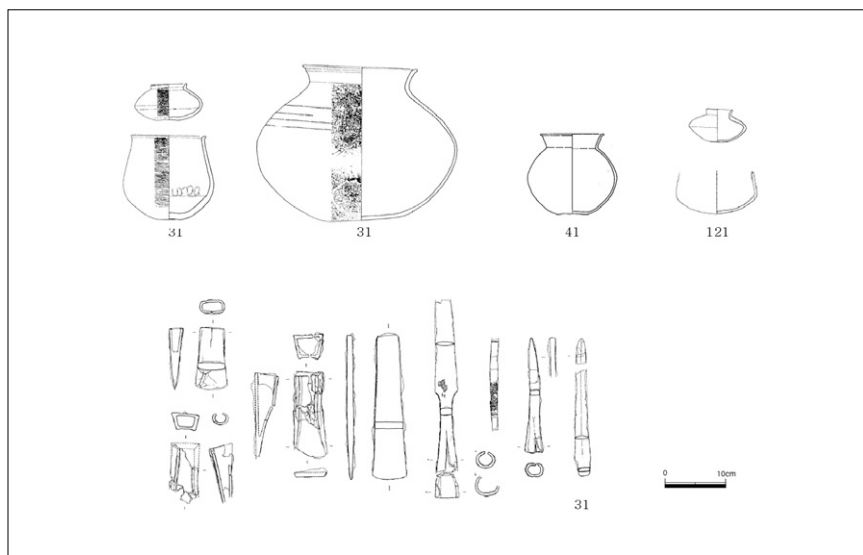
〈도면 1〉 팔달동 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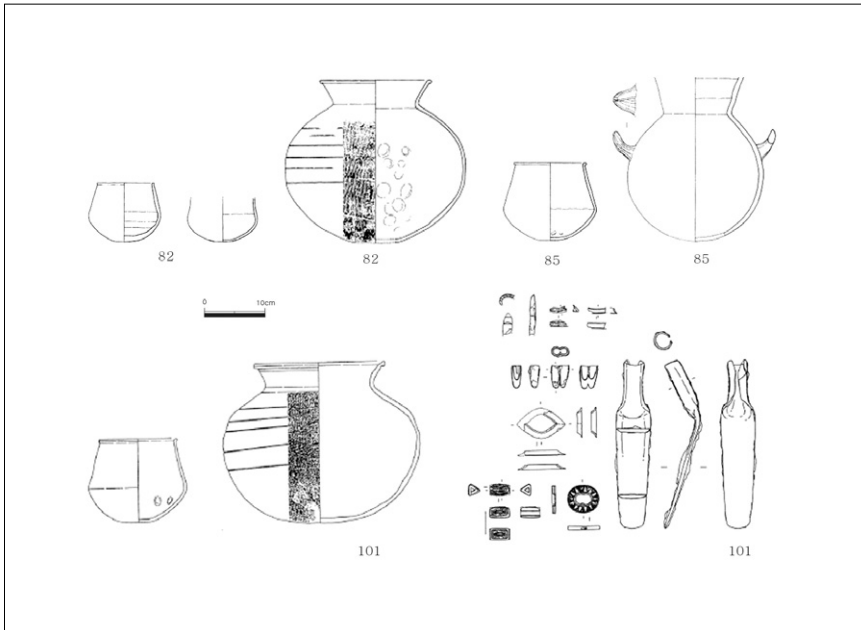
〈도면 2〉 팔달동 2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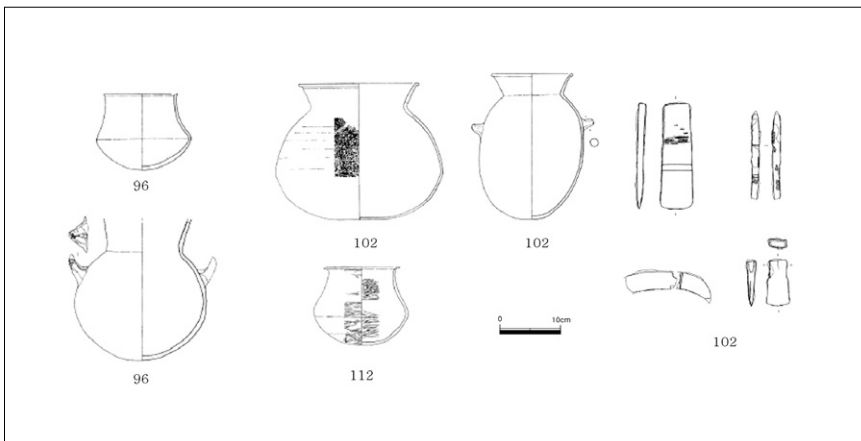
〈도면 3〉 팔달동 3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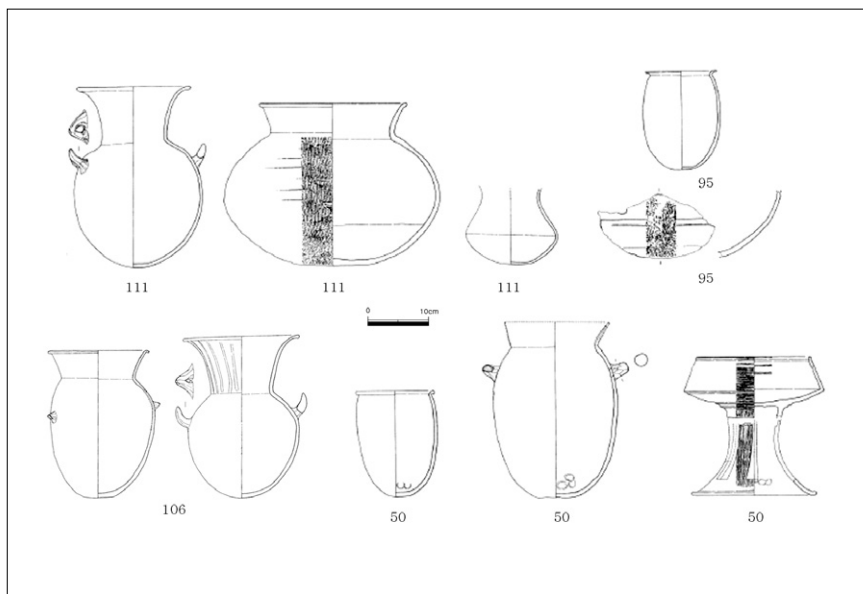
〈도면 4〉 팔달동 4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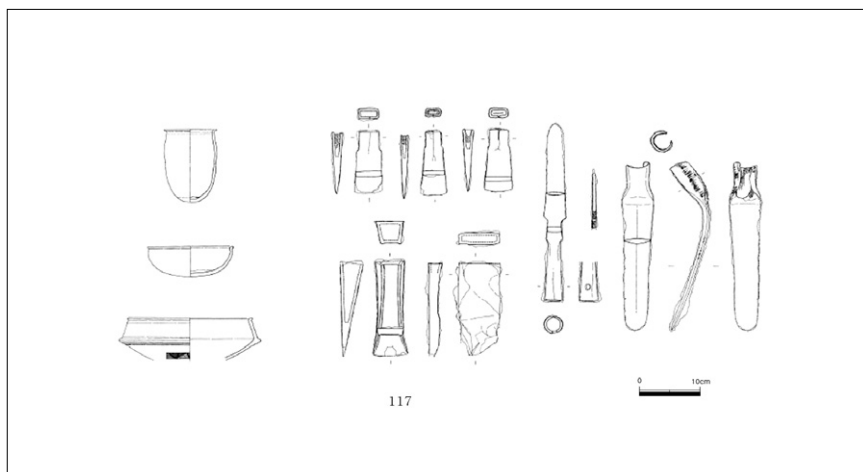
〈도면 5〉 팔달동 5기



〈도면 6〉 팔달동 6기



〈도면 7〉 팔달동 7기



〈도면 8〉 목곽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김 권 구
계명대학교 사학과



I. 머리말

II. 시간적·공간적 범위와 연구방법

III. 대구 팔달동유적 속에서의 집단구성과 사회구조

1. 대구 팔달동유적의 축조집단계통 파악
2. 유력부장묘의 출현과 분묘양상
3. 팔달동 유적 장기지속성의 검토

IV.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위계

1.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위계
2. 대구지역사회에서의 장거리 교역양상
3. 대구지역에서의 「국(國)」의 형성양상에 대한 검토

V. 맺는말

국문초록

대구지역에서는 대체로 IIa기인 기원전 1세기 전반부터 유력자가 나타나고 또 유력자를 중심으로 장거리교역이 이루어지며 유력자가 속한 집단과 그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 정치체인 소국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IIb기인 기원후 1세기 대에는 기원전 1세기경에 성립된 소국이 내적으로 통합되고 외적으로 더 강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묘군의 지속적 축조, 와질토기의 정형화, 철기의 생산과 보급, 장거리교역의 출현과 다변화, 유력자의 등장과 다수 유력자의 확인 등은 「國」의 형성과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國」의 내부구조도 암시한다.

I기에는 연암산유적의 다량의 미완성석재와 다른 중소규모 유적의 존재 등이 암시하듯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다. 대구지역의 무덤으로 본 집단의 위계양상을 따져보면 IIa단계의 팔달동집단과 학정동집단, IIIb기의 대구 만촌동유적집단, 대구 비산동유적집단, 대구 평리동유적집단이 주목되며 이들의 관계망과 장거리교역 그리고 해당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의 종류와 양에서의 상대적 우월성은 유력자 존재를 강하게 암시한다. 특히 한경 또는 방제경 등 여러 청동유물 등이 다수 출토된 IIa기 전 대구 지산동유적과 III기 대구 평리동유적은 대구지역 소국의 왕묘(王墓)로서 주목된다. 적어도 III기 대구 평리동유적은 대구지역 소국의 왕묘(王墓)일 가능성이 IIa기 전 대구 지산동유적보다 훨씬 더 높다.

III기(기원후 2세기-3세기)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목관묘군이 주목되는데 달성고분군으로 발전하며 대구지역에서 가장 유력했던 고분축조집단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제어

목관묘군 유적의 위계, 취락의 위계, 소국형성, 소국의 왕묘, 장거리교역의 다변화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

김권구*

I. 머리말

대구 팔달동유적이 1992년 경북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처음 발굴되고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하여 1996년 대구모로 발굴되어 2015년 발굴보고서가 완간되었다. 적어도 본격적으로 대구 팔달동유적이 1996년 발굴되기 시작한 후 20년이 지나고 발굴보고서가 완간된 현재 팔달동유적을 포함한 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사회구조와 위계형성양상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커졌다. 특히 발굴된 중요자료가 정리되어 발굴보고서가 출간된 시점에 그 동안 조사되거나 확인된 유적자료를 종합하여 대구지역에서의 사회복합도 진전과정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연구사적 측면에서도 필요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면서도 그 동안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속하는 중요유적이 다수 알려져 있어서 사회구조와 위계형성의 파악을 통한 소국형성과정을 재검토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대구지역에 알려진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에 속하는 유적을 통해 본 사회복합도의 진전양상을 연구하는 것은 대구지역에서의 소국형성과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경주, 김해, 경산 등지에서의 사회복합도 진전양상과 비교되며 그 특성을 살펴보고 해당 시기의 사회복합도진전과정을 보는 일반사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 계명대학교 사학과

그 동안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의 사회복합도 진전과정에 대해서는 일찍이 유적과 유물을 토대로 국가형성과정을 검토하고자 한 연구가 1970년대 중반에 있었고(尹容鎭 1974:231-243) 그로부터 25년 정도 흐른 후인 2000년 대구지역 고대정치체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취락분포정형을 토대로 시도되었다(李熙濬 2000a:81-119, 咸舜燮 2001:185-203). 읍락을 기초정치체로 보고 그 이외의 다양한 정치체를 ‘지역정치체’로 보면서 대구지역에서 지름 3~4km의 공간을 가진 기초정치체가 초기철기시대에 비로소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李熙濬 2000a:81-119). 또 대구지역 삼한단계 소국 및 소별읍의 추정범위도 관련된 유적의 분포를 토대로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한 연구(咸舜燮 2001:185-203)도 나왔다. 이들 연구는 당시까지 발굴되거나 알려진 자료를 토대로 논지를 전개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또 이희준의 연구는 단순한 유적과 유물의 공간적 분포양상만 다룬 것이 아니라 통나무적석목관묘, 판재목관묘, 목관묘, 옹관묘 등이 시기별로 대구 팔달동유적 내에 어떤 양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를 토대로 해당 유적 내에서 사회구조의 한 단면을 찾으려 한 점은 주목된다¹⁾. 대구지역에서의 『國』의 형성과정에 관한 논문은 아니지만 대구지역 소국형성과정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우리나라에서의 『國』의 형성과정, 『國』의 내부구조와 그 변화양상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李賢惠 1984, 李熙濬 2000b:113-138, 주보돈 2002:5-71, 노중국 2002:217-294, 李在賢 2003). 또 『國』의 형성과정에서의 교역중심지 또는 교역망의 변화양상에 대한 관심을 둔 연구(李在賢 2003:119-168, 야나기모토 테루오 2012:114-138, 이노우에 치카라 2011:247-267)도 나와 대구지역에서의 소국형성과정에서의 교역양상에 대한 고찰도 하였다. 고대사에서 논의된 『國』의 형성과정과 『國』의 내부구조와 그 변화양상을 유적과 유물을 관련시켜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더 규명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요망된

1) 대구지역의 정치체 성장에 관한 연구는 아니지만 대구 인근의 경산 임당유적의 경우 압독정치체의 성립을 군집목관묘 속의 유력자묘의 존재로 보고 압독정치체의 성장은 취락연계망의 구축으로 그리고 압독정치체의 변천을 토기양식의 변동과 고총의 출현으로 보았는데(박승규 2008:104-111) 소국형성에 관한 연구방법론상의 고민이 묻어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다. 왜냐하면 고대의 역사기록은 고고학이 다루는 해당 시기에 대한 민족지 자료(ethnographic records)로서 중요성을 갖고 있고 고고학과 고대사에서의 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Ⅱ. 시간적 · 공간적 범위와 연구방법

이 논문에서는 2016년도까지 새롭게 확인되거나 발굴보고서가 출간된 유적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의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사회구조와 위계형성양상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대구지역은 대체로 좁은 의미의 대구분지의 개념(李熙濬 2000a:85)을 토대로 한다. 시간적 범위는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로 그 구체적 시기구분은 통설적 견해에 따라(李在賢 2003:207, 영남문화재연구원 2000:276-282)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자 한다(표1)(도면1).

〈표 1〉 유적의 편년과 기준

시기		중심시기	대표유물	대표유적	역사적 사건
I기	Ia기	기원전 300년-기원전 200년	원형점토대토기단계 (적석목관묘)	대구 연암산 유적(대구 산격동 1180유적), 대구 서변동유적(유전동부), 대구 침산유적,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 대구 월성동 산 6번지 주거유적, 대구 상동 76번지유적 등	燕나라 장수 진개의 침입
	Ib기	기원전 200년-기원전 100년	삼각형점토대토기, 와질토기 발생 이전	대구 연암산 유적(대구 산격동 1180유적), 팔달동 40호·41호·71호·76호·110호 목관묘, 대구 상인동128-8번지 목관묘, 대구 월성동777-2번지 목관묘군	위만조선의 성립, 고조선유민의 호서·호남지역으로의 유입, 한사군의 설치로 인한 위만조선유민발생과 영남지역으로의 이동
II기	IIa기	기원전 100년-0년	삼각형점토대토기, 고석와질토기단계 (목관묘)	대구 팔달동 35호·39호·42호·44호·45호·49호·52호·55호·57호·63호·73호·75호·77호·79호·81호·99호·113호·114호·122호·125호·126호 목관묘 (이상 기원전 1세기 전반) 대구 팔달동 30호·59호·60호·64호·78호·80호·83호·86호·87호·88호·90호·94호·100호·116호·118호·120호·124호(이상 기원전 1세기 중후반), 대구 신천동589-205유적, 전 대구 지산동 한경 출토유적	위만조선유민의 영남 지역으로의 유입, 「國」의 형성

시기		중심시기	대표유물	대표유적	역사적 사건
II기	IIb기	0년-기원후 100년	삼각형점토대토기, 고식와 질토기단계 (목관묘)	대구 평리동유적, 대구 만촌동유적, 대구 비산동유적, 대구 팔달동 12호·26호·28호·29호·31호·32호·37호·38호·43호·47호·48호·74호·82호·85호·101호(이상 기원후 1세기 전반) 대구 팔달동 50호·95호·96호·102호·105호·106호·107호·111호·112호(이상 기원후 1세기 후반)	新나라의 성립, 후한의 시작, 「國」의 형성과 발전
III기		기원후 100년-기원후 300년	신식와질토기 단계 (목관묘)	대구 팔달동 117호(목관묘)와 대구 팔달동 목관묘군, 대구 봉무동유적V, 대구 봉무동 750번지유적, 구 비산동 목관묘군, 대구 서변동목관묘군, 대구 봉무동 추정목관묘,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관묘군	桓靈之末 韓의 强盛, 漢의 멸망과 魏·蜀 蜀나라 성립, 낙랑의 쇠퇴, 「國」의 통합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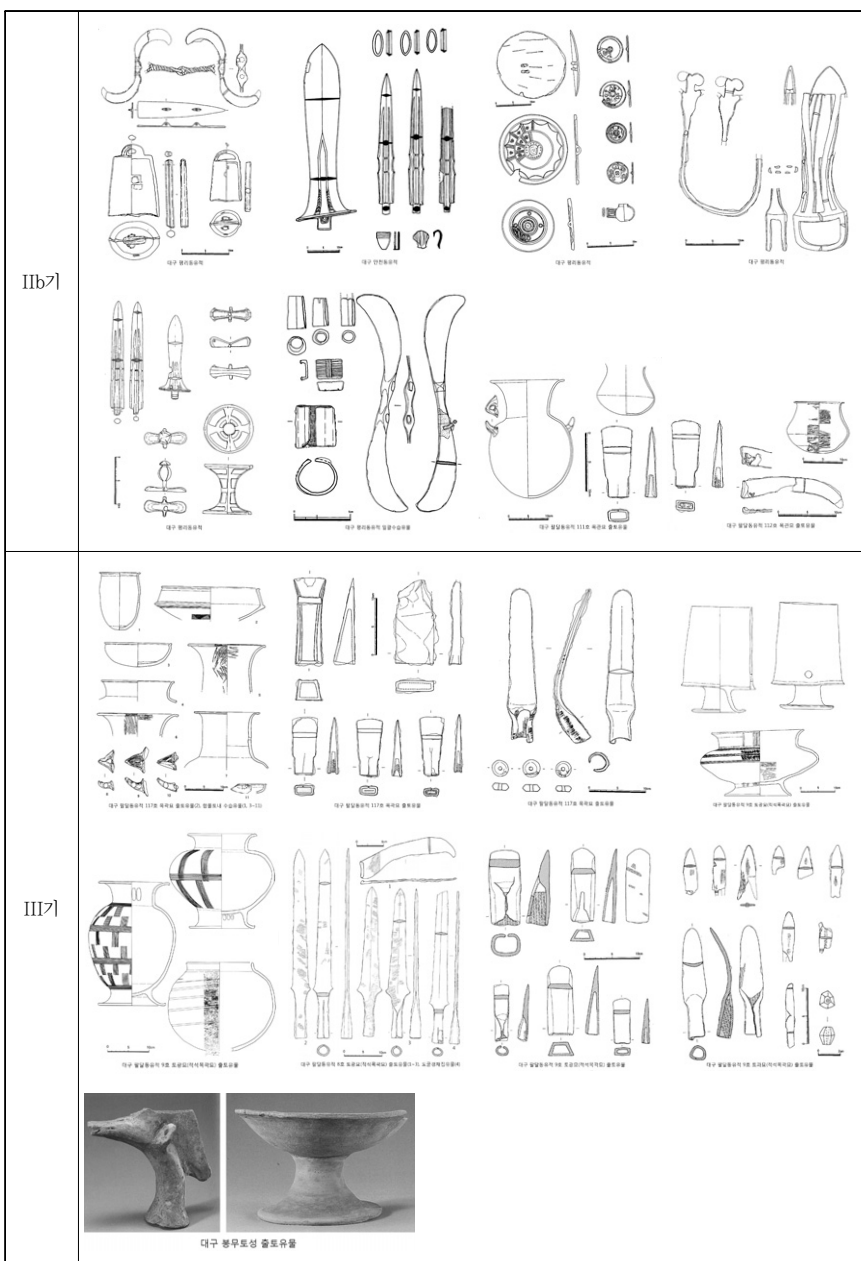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시기구분을 하지 않은 면은 있으나 이렇게 하는 것이 편년 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기 폭은 중심시기를 나타내는 것임으로 앞뒤로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 그럼으로 목관묘의 출현 시기를 기원후 2세기 중반으로 보는가 아니면 기원후 1세기 후반으로 올려 보는가는 연구자마다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심연대로 본다면 약간 신축성 있게 본다면 편년의 상한과 하한에서 약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년방식이 대구지역에서의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 이어지는 문화양상을 추적하고 사회상을 검토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에서는 대구지역에서의 사회복합도 증대과정 즉 소국형성과정을 추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팔달동유적의 축조집단계통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야 漢四郡 설치 이후와 설치 이전의 양상 그리고 각 단계별 문화변동과정에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팔달동유적 내에서의 위계양상을 팔달동유적 내 목관묘군에서의 부장품의 종류와 양을 근거로 검토하고자 한다.

시기	시기별 대표유물
Ia기	대구 연방산악적 지료제집 현도대포기 구문문편 대구 연방산악적 지료제집 두형토기 대구 연방산악적 지료제집 유물 대구 연방산악적 지료제집 유물
Ib기	대구 말발동유적 40호 목관묘, 출토유물 대구 말발동유적 지료 제자목관묘 출토유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



〈도면 1〉 시기별 대표유물

셋째, 유적의 長期持續性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대구 팔달동유적을 포함한 관련유적이 목관묘단계에서 목곽묘단계까지 장기지속성을 띠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며 또 그 과정에서 유적과 관련된 집단위상의 변천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데 이는 목곽묘는 축조되나 집단의 위상은 중하위로 전락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그리고 장기지속적으로 축조되지 않고 1개 또는 소수의 목관묘만 축조되는 경우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넷째, 이 논문에서는 대구지역 사회구조와 위계형성과 대구지역 속에서의 팔달동유적의 위상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섯째, 대구지역사회에서의 장거리교역 연계망의 변화양상을 유적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장거리교역 연계망의 변화양상과 대구지역 유력자의 출현, 사회구조, 정치체의 형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Ⅲ. 대구 팔달동유적 속에서의 집단구성과 사회구조

1. 대구 팔달동유적의 축조집단계통 파악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목관묘와 토광묘 102기, 목곽묘 18기, 옹관묘 139기가 조사되었다²⁾.

2)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1992년 경북대박물관의 발굴에서 원삼국시대 목곽묘 17기, 삼국시대 석곽묘 3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가 조사되고(윤용진 외 1993), 1996년 영남문화재연구원의 조사에서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목관묘와 토광묘 102기, 원삼국시대 목곽묘 1기·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석곽묘 32기 등이 조사되어(박승규 외 2015b)모두 합해서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목관묘와 토광묘 102기·목곽묘 18기·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석곽묘 34기·석실묘 1기가 조사되었다.

〈표 2〉 대구 팔달동 무덤의 종류와 주요사례

팔달동유적 무덤의 종류	주요사례
통나무목관	팔달동58호, 64호, 71호, 83호, 100호, 107호 등
통나무관 적석목관묘	팔달동45호, 55호, 90호 등
판재식 목관묘	팔달동12호, 26호, 28호, 29호, 31호, 37호, 38호, 40호, 43호, 49호, 50호, 52호, 57호, 59호, 63호, 74호, 75호, 78호, 82호, 85호, 94호, 95호, 96호, 99호, 102호, 105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8호, 120호, 125호, 126호 등
판재식 적석목관묘	팔달동30호, 35호, 41호, 44호, 47호, 77호, 79호, 80호, 86호, 88호, 101호, 106호 등
토광묘	팔달동32호, 39호, 42호, 48호, 60호, 73호, 76호, 81호, 85호, 87호, 110호, 116호, 122호, 124호 등
목곽묘	117호 등 목곽묘18기
옹관묘	139기
삼국시대 목곽묘	22기
삼국시대 석곽묘	34기
삼국시대 석실묘	1기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통나무목관, 통나무관 적석목관묘, 판재식 목관묘, 판재식 적석목관묘, 토광묘, 목곽묘가 확인되었다. 대구 팔달동목관묘 군에는 적석목관묘와 목관묘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사용되지 않는 통나무관 적석목관묘(팔달동 45호, 55호, 90호)를 제외하고는 통나무관 목관묘, 판재식 목관묘, 판재식 적석목관묘, 토광묘 모두 기원후 1세기까지 지속된다. 그리고 팔달동유적의 103기의 목관묘 중에서 58기가 판재식목관이어서 56%를 차지하며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기원후 1세기 후반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영남문화재연구원 2000:281).

무덤의 구조를 고려할 때 적석목관묘는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예산 동서리 적석목관묘가 지금까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유구로서 기원전 4세기 말~3세기 초로 편년된다. 그러나 대구 팔달동유적의 41호 판재식 적석목관묘가 기원전 2세기말로 올라가는 유구로서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와 예산 동서리 적석목관묘보다 약 150년~200년 늦다. 유구의 계통으로는 팔

달동 적석목관묘는 호서지역 초기철기시대 적석목관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통나무목관(팔달동71호)이나 판재식목관묘(팔달동40호), 토광묘(팔달동76호, 110호)는 말기양식 비파형동검,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등의 유물이 출토된 김천 문당동 1호 목관묘의 사례가 암시하듯 기원전 4세기경 영남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목관묘 전통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구를 통해서 볼 때 대구 팔달동유적 축조집단은 호서지역의 초기철기시대 문화요소인 대전 괴정동 적석목관묘의 전통을 수용하고 또 이와 더불어 말기비파형동검문화요소가 남아 있으면서 흑도장경호와 원형점토대토기로 대표되는 초기철기시대문화요소가 함께 보이는 김천 문당동 1호 목관묘의 유적사례 속의 청동기시대 후기의 목관묘문화요소를 문화적 pool로 하여 다양한 목관묘 또는 적석목관묘 문화요소를 채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IIa기 팔달동유적 유력자의 무덤들인 팔달동 45호에서는 세형동검, 검파두식, 판상철부, 철착,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조합형우각형파수부호 등이 출토되었고 팔달동 90호 목관묘에서는 유문동과, 동모, 철부, 철모, 철검, 고배, 파수부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팔달동 100호 목관묘에서는 동모, 세형동검, 검파두식, 철모, 철부, 철검, 철착,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이 출토되었다. 팔달동100호 목관묘에서는 와질토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기원전 1세기 중반이전일 가능성도 암시된다. 그러나 漢鏡도 출토되지 않아 기원전 2세기 후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이들 유물 구성은 세형동검에 동모와 동과가 유입되고 철제무기가 부장되는 양상이며 漢鏡이 없으면서 와질토기가 없는 경우(팔달동 100호 목관묘 등)도 편년을 하는데 근거가 된다. 세형동검과 철부나 철착이 함께 부장되는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그리고 장수 남양리유적의 철가문화유입양상이 팔달동유적 목관묘군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세형동검을 토대로 하면서 새로이 철기문화를 받아들이던 IIa기 기원전 1세기경 대구지역 유력세력의 존재를 암시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구 팔달동유적의 목관묘군 축조자들은 漢四郡 설치 이래 유입되는 漢系 文化要素보다는 그 이전의 세형동검문화(세형동검, 흑도장경호, 원형점토대토기 등)를 토대로 하면서 새롭게 철

기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세형동검문화의 문화요소를 토대로 새롭게 철기문화를 수용하는 양상이어서 IIa기 대구 팔달동 목관묘의 축조자들은 초기철기시대 전반기의 권위체계와 이념체계를 가졌던 집단이라고 추정된다.

2. 유력부장묘의 출현과 분묘양상

대구 팔달동유적 중에서 기원전 2세기 말엽에 해당하는 Ia기에 속하는 유구 40호 판재식목관묘에서는 점토대토기 웅 1점이 출토되고 41호 판재식 적석목관묘에서는 흑도장경호, 점토대토기, 두형토기대각편, 단경호 등이 출토되고 71호 통나무관 목관묘에서는 철검 1점, 76호 토광묘에서는 두형토기대각편과 흑도장경호, 110호 토광묘에서는 대부발, 장경호가 출토되어 부장품에 있어서 확실하게 유력자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로 편년되는 IIa기에는 유력자의 존재 또는 위계를 상대적으로 나타내는 증거가 출현한다. IIa기 전반기인 기원전 1세기 전반기에는 팔달동 45호 목관묘, 99호목관묘, IIa기 후반기인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팔달동 90호 목관묘와 100호 목관묘가 속한다. 대구 팔달동 45호(통나무관 적석목관묘), 90호(통나무관 적석목관묘), 대구 팔달동 99호(판재식목관묘), 100호(통나무관 목관묘)에서 청동기류가 집중 부장되었는데 이들이 팔달동 99호 판재식목관묘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나무관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나무관 적석목관묘는 팔달동유적 IIa기에 위계가 높은 유력자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팔달동유적 내 청동제품을 포함한 부장유물은 대구 학정동 초기철기시대 목관묘군이나 대구 금호지구유적 조사된 초기철기시대 목관묘군의 부장유물에 비하여 종류와 양에 있어서 우월하다. 이는 IIa기에는 팔달동유적 목관묘축조집단의 유력자가 대구지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유력자였음을 암시한다³⁾.

3)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의 지배자의 무덤을 부장품의 질과 양이 탁월한 무덤

3. 팔달동 유적 장기지속성의 검토

대구 팔달동유적의 경우 기원전 2세기말(Ib기)부터 기원전 1세기(IIa기)를 거쳐 기원후 0년~기원후 1세기 말엽(IIb기)까지 목관묘가 지속적으로 조영되며 그 이후 기원후 2세기(III기)부터는 목곽묘가 조영된다. 그리고 팔달동유적의 경우 삼국시대까지 목곽묘, 석곽묘, 석실묘도 계속 조영되며 장기지속성을 띤다. 이는 무덤축조집단의 장기 지속성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러나 삼국시대로 들어가서 목곽묘와 석곽묘가 지속적으로 축조되지만 팔달동유적 목관묘 및 목곽묘 축조집단에서 분리되어 유력해지는 대구 구암동고분군집단보다 그 위상이 작아지는 모습이다⁴⁾. 그리고 대구 달성고분군이나 대구 불로동 고분군보다 대구 구암동 고분군이나 대구 팔달동 삼국시대 고분군은 무덤의 규모와 부장품의 종류와 양 그리고 고분군의 규모로 볼 때 그 위상이 낮은 모습이다. 이에 비하여 대구 비산동지역의 목관묘군은 평리동유적도 동일한 유적군으로 볼 경우 기원후 4세기 전반의 비산동 3호 목곽묘가 유력하게 등장하며 고층단계에는 해당지역집단의 묘역이 평리동-비산동지역에서 인근의 비산동-내당동지역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다(金大煥 2000:89-116). 또 이와는 별도로 오리형토기가 수습된 대구 봉무동 추정 목곽묘군유적은 불로동고분군과 인접해 있어서 하나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음으로 용관묘 등의 단계를 거쳐 목곽묘단계에서 고층고분까지 장기지속적으로 무덤이 해당지역에 축조되는 양상이다.

(목관묘, 목곽묘, 석관묘)으로 본 견해가 있다. 이 견해에서는 구체적으로 청동거울, 청동무기, 이형동기, 방울 등이 부장된 기원전 3-2세기 적석목관묘를 지배자의 무덤으로 보고 있다(이청규 1998:125).

- 4) 대구 팔달동유적의 원삼국시대 목관묘 축조집단과 삼국시대 인근 대구 구암동고분군집단과의 상호관계가 주목된다. 두 고분군의 근접성과 고고학과 고대사에서의 연구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시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구 구암동고분군 출현 이전의 목관묘유적이 아직 인근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두 고분군의 축조세력이 동일한 축조집단일 가능성이 있는데 대구 팔달동 원삼국시대 목관묘와 목곽묘 축조집단이 팔달동에 남아 있는 삼국시대 목곽묘와 석곽묘 축조세력과 대구 구암동 축조세력으로 분리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다. Ia기 초기철기시대에 속하는 대구 서변동에서 수습된 유건동부는 팔달동 목관묘 축조집단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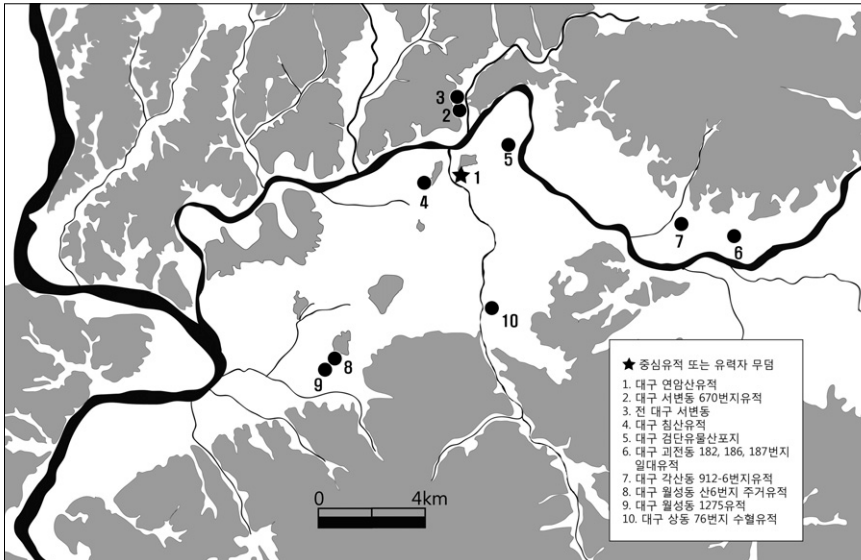
아무튼 대구 팔달동유적은 IIa기에 팔달동유적 속에서도 유력자가 확인된다. 그리고 그리고 목관묘군(木棺墓群)이 군집을 이루면서 부장품의 양과 종류에서 대구분지 내에서도 탁월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IIa기 팔달동 목관묘유적과 관련된 유력자들이 간두령 2점, 동모 2점, 동과 2점, 마탁 2점이 출토된 대구 신천동 589-205유적의 피장자에 버금가는 힘과 위상을 가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Ⅳ.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위계

1. 대구지역에서의 사회구조와 위계

Ia기에 속하는 대구 연암산유적, 침산유적, 서변동유적 등에서는 아직 유력자의 존재는 확실히 보이지 않는다. 다만 대구 서변동에서 채집된 유건동부의 존재가 유력자의 존재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구 연암산유적의 경우 발굴된 유적이 아니며 지표채집자료를 근거로 유적의 성격을 논의하는 것이어서 자료의 한계상 논리를 전개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양인석부, 유구석부, 편평편인석부 등의 미완성석기나 石器製作用 石材가 多量 採集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초기철기시대의 전반부인 Ia기 연암산유적 자체만을 위한 석기생산인지 아니면 연암산유적 하위의 취락에서 사용될 석기제작과 그 이상의 외부취락 등에 유통시킬 목적이었는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적어도 연암산유적과 관련된 여러 취락에 사용될 석기를 생산하던 유적이 연암산유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중간재인 미완성석재들을 석재채취장소에서 만들어 연암산유적에서 확인된 석기제작장소에 보급하는 정도의 역할분담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석기제작장소라는 성격이 연암산유적 전체적인 성격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그 이상의 기능을 했던 유구들이 발굴되지 않았을 뿐일지도 모른다. 연암산유적이 발굴되지 추정적인 해석에 불과할 수 있으나 지금까지 발굴된 초기철기시대 유사한 입지의 다른 유적을 고려하여 그 성격을 추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연암산유적은 금호강과 신천이 합수되는 지점이 내려다 보이는 전략적인 장소에 입지하는 유적으로서 한편으로 고지성 환구유구(高地性 環溝遺構)와 대규모 주

거지들이 밀집된 안성 반제리유적이나 강릉 방동리유적과 유사한 초기철기 시대 전기 중심취락일 가능성이 있다. 안성 반제리유적이나 강릉 방동리유적과 같은 중심취락으로서 석기제작장이 있는 유적이 바로 대구 연암산유적일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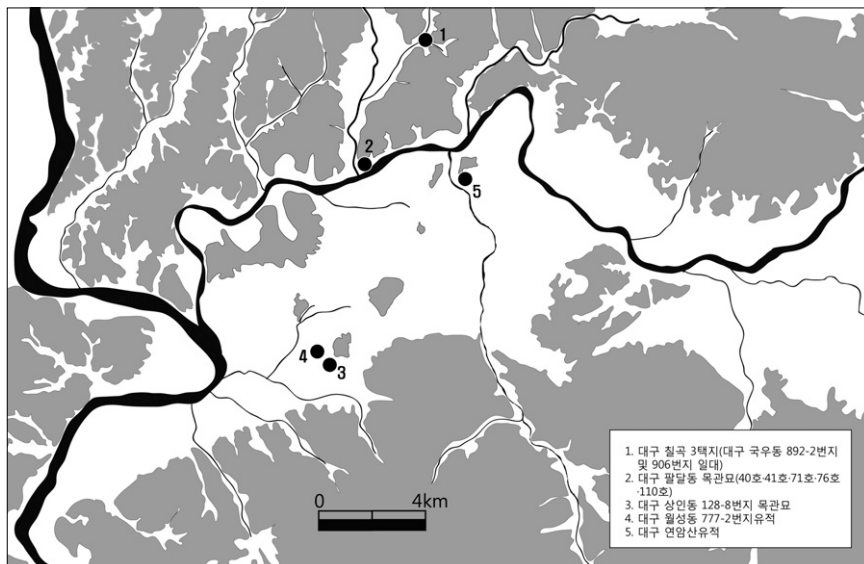


〈지도 1〉 Ia기 주요유적분포도

연암산유적의 하위취락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연암산유적의 동 시기 또는 다음 단계인 대구분지 밖의 다른 유적을 통하여 그 양상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낮은 평지 또는 낮은 구릉대에 입지하는 경산 하양 대학리 생활유적, 경산 와촌 동강리 취락유적, 달성 평촌리유적 등의 사례들⁵⁾을 통하여 평지나 평탄 구릉지 등에 중소규모의 취락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는데 대구 연암산유적이 만약 대

5) 주거지1기, 수혈유구15기, 구상유구3기, 주혈군 등의 유구가 확인되고 삼각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등이 출토된 평지에 입지하는 경산 하양 대학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21-233), 평지 또는 평탄한 낮은 구릉지에 입지하는 두형토기대각 2점이 지표수습된 경산 와촌 동강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5:364-365), 평탄지에 입지하며 주거지6기, 수혈24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규모 중심취락이라면 이러한 중소규모의 취락이 대구 연암산유적 아래 연계되어 있고 이들 하위취락에서 사용할 석기도 함께 제작하고 그 이상의 범위에도 유통시키는 연계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연계된 사회단위를 고대사학계의 용어로 표현하면 읍락이라고 할 수 있다. 연암산 유적은 대구지역의 중심취락과 그 하위취락의 양상을 보여주는 읍락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또 Ia기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은 청동기시대 지석묘축조집단이 입지한 장소의 인근에 입지하고 있어서 지석묘축조집단과 초기철기시대 목관묘 축조집단과의 통합관계와 관련되어 주목된다.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에서 출토된 흑도장경호가 나온 추정 목관묘유구는 팔달동 목관묘군이 축조되기 이전 단계에 속할 수 있는 목관묘 축조집단이 대구분지내에서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러한 초기철기시대 전기라고 할 수 있는 Ia기의 취락구조와 관계망이 훗날 「국(國)」형성의 기반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지도1>.



<지도 2> lb기 주요유적분포도

두형토기, 주머니호 등의 유구와 유적이 확인된 달성 평촌리유적(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10:145-201, 339-341), 주거지3기, 수혈유구5기, 구4기, 웅관묘 4기

연암산유적은 Ib기까지도 중심취락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으며 대구분지내에서 도시화되면서 다수의 초기철기시대 생활유적이 유실되어 Ib기 유적분포도가 <지도2>처럼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대구 월성동 777-2번지유적의 목관묘군도 Ia기 대구 월성동 1275번지유적에 이어 Ib기 월배지역의 선상지에 지속적으로 축조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초기철기시대 주거지가 청동기시대 주거지와는 달리 지하굴착을 크게 하지 않는 지상식주거지이면서 현재의 취락이나 도시의 입지와 유사하여 많은 훼손과 유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구릉이나 평지에 입지하는 달성 평촌리유적, 경산 와촌 동강리유적, 경산 경리440-5번지유적 등의 사례가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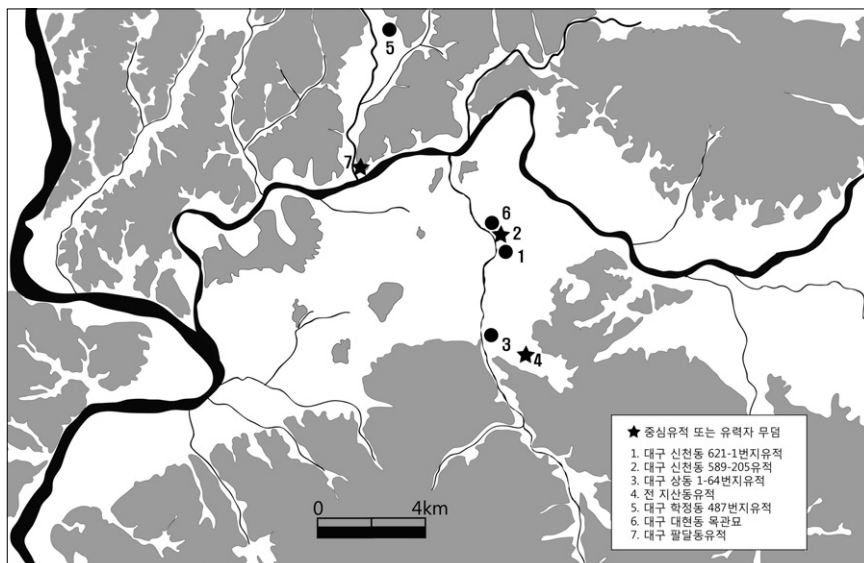
또 취락자료와 더불어 무덤유적을 중심으로 대구지역에서의 유력집단의 존재양상과 사회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구 팔달동 통나무관 목관묘·통나무관 적석목관묘와 판재관 목관묘는 각기 군을 이루며 墓區를 어는 정도 형성하고 있는데(李熙濬 2000a:103-104) 이는 집단의 구성과 위계를 보여줄 수 있다. 왜냐하면 적절하게 거리를 두고 입지하는 통나무관 적석목관묘(팔달동 45호, 55호, 90호)를 중심으로 IIa기의 목관묘들이 자리를 잡고 그 이후 IIb기의 목관묘들이 군집을 이루며 새롭게 분포하는 양상이다⁶⁾.

기원전 1세기(IIa기) 전반기 유적인 팔달동 45호 목관묘와 99호 목관묘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중후반기에 속하는 팔달동 90호목관묘와 100호

등의 유구와 삼각형점토대토기웅과 두형토기편 등의 유물이 출토된 경산 경리 440-5번지유적(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등의 사례는 Ia기와 Ib기 취락유적의 분포양상을 잘 보여준다.

- 6)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목관묘와 더불어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걸친 옹관묘가 139기 조사되었는데 팔달동 목관묘와 더불어 주목된다. 특히 옹관묘가 목관묘와 구역을 달리하여 목관묘의 주변부에 입지하거나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집중 분포하는 양상이다. 옹관묘가 유아묘인지 여부와 다른 기능이 있었는지 여부도 앞으로 염두에 두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시 유아사망률이 높은 결과 옹관묘가 많았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유아유골이 옹관묘에서 다량 출토될 때 검증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직 가설적 해석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

목관묘에서 팔달동 내의 다른 유구보다 월등한 청동유물이 출토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원전 1세기 전반부터 팔달동에서 유력자가 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청동유물과 철제품 등은 대구 학정동 목관묘군, 대구 금호지구 목관묘군 등의 부장품보다도 우월한 양상이다. 그러나 동모 2점, 동과 2점, 간두령 1쌍, 소동탁 2점이 출토된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유적과 비교하면 부장품의 종류와 수량이 떨어진다.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유적은 주위를 전면적으로 발굴하지는 않았지만 군집을 이루는 목관묘군이 아니라 단독 목관묘일 가능성이 커서 팔달동유적과는 서로 구분된다. 즉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유적은 1회성으로 축조된 반면⁷⁾ 대구 팔달동유적의 목관묘군은 군집을 이루며 장기지속성을 띠면서 축조되었다. 이점에서 기원전 1세기경(IIa기) 팔달동 목관묘축조집단은 대구지역에서 상당히 유력한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암시된다. IIa기인 기원전 1세기 후반에 속하는 전 대구 지산동에서도 일광경 5개와 소명경 1개, 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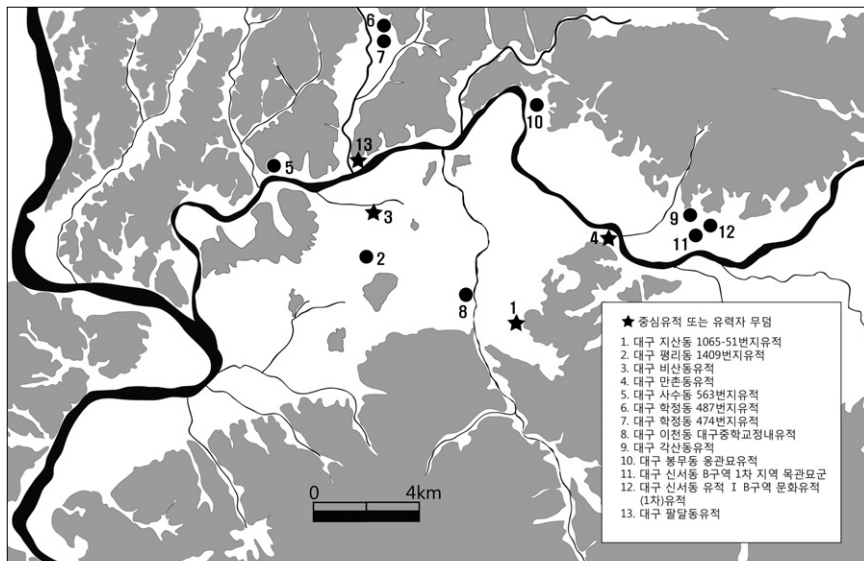
〈지도 3〉 IIa기 주요유적분포도

7) 해당지역이 유적발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오래전에 이미 도시화되어 현재의 확인된 자료만 가지고 전체 양상을 말하기는 어려운 점이 존재한다.

과두식, 우각형동기, 과초장식구(戈鞘裝飾具) 등이 출토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발굴된 자료는 아니더라도 일괄출토품으로 상정한다면 청동유물의 종류와 양은 세형동검문화에 토대를 두고서 낙랑과 교역망을 가진 유력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아마도 팔달동집단과는 다른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진 새로운 세계관을 가진 유력자의 존재를 전 대구 지산동 한경출토유적은 암시한다. 그리고 IIa기의 목관묘군 유적들은 단독으로 분포한다고 하기 보다는 서로 연계되어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분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지도3>.

대구지역에서 이 시기에 보이는 유력자의 존재가 강하게 암시되는 목관묘가 팔달동유적에서 보이는 반면 부장품의 종류와 양이 적어서 팔달동유적보다는 위계상 하위였을 것으로 보이는 대구 학정동유적 등은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IIb단계인 기원후 1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대구 평리동유적에서 출토된 漢鏡, 방제경 다수, 대구 만촌동유적에서 출토된 細形銅劍과 中廣形銅戈, 대구 비산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세형동검, 中廣形銅戈 등은 청동유물 등을 포함한 부장유물의 종류와 양을 고려할 때 대구지역 유력자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며 IIb기에는 IIa기에 유력했던 대구 팔달동유적의 위상은 쇠퇴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대체로 대구지역에 대구 만촌동유적, 대구 비산동유적, 대구 평리동유적 등에서 확인된 다량의 청동기류의 존재양상은 대구분지에서 금호강을 따라서 유력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모습이다<지도4>. 그리고 30개 이상의 전한경이 출토된 福岡縣 前原市 三雲南小路遺蹟과 春日市須玖岡本遺蹟을 중국 사서에 나오는 「伊都國」, 「奴國」의 왕묘로 보고 있는데(松永辛南男 1997:12)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물론 한경이나 방제경의 수량은 적다하더라도 IIa기에 속하는 한경이 다수 출토된 전 대구 지산동유적과 IIb기 한경과 방제경이 출토된 대구 평리동유적은 각각 대구지역 소국(小國)의 왕묘(王墓) 또는 수장묘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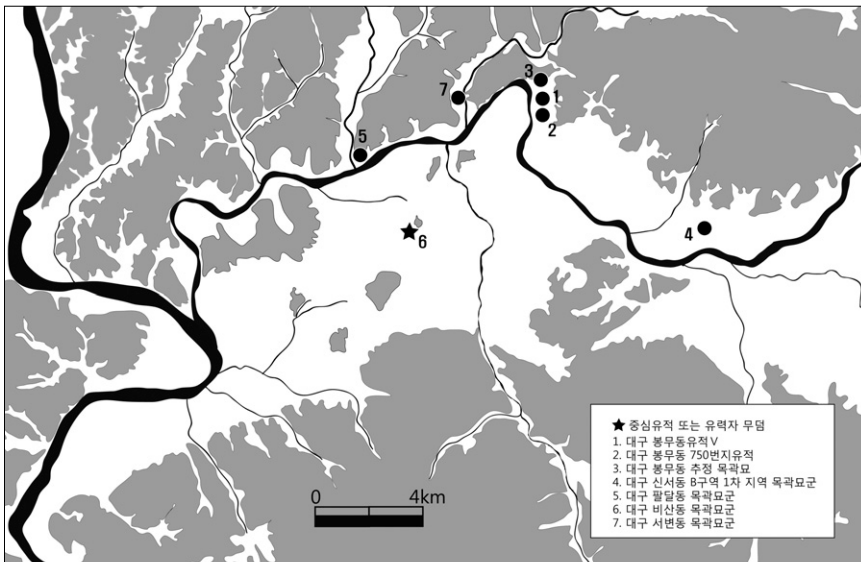
〈지도 4〉 IIb기 주요유적분포도

III단계인 기원후 200년~기원후 300년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⁸⁾,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정 목곽묘⁹⁾, 대구 서변동 목곽묘군,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다(지도5). 아마도 발굴조사가 되지 않았으나 삼국시대로 들어와서는 비산동과 내당동을 포함한 달성고분군 일대, 대명동고분군 일대, 불로동고분군 일대, 복현동고분군, 구암동고분군 일대에서 고총고분군이 확인됨으로 고

8) 대구 비산동 3호 목곽묘를 포함한 목곽묘군은 기원후 4세기 전반에 속하나 비산동-평리동지역이 장기지속적으로 점유되면서 목곽묘-목곽묘가 축조되며 이어서 달성고분군과 같은 고총고분도 축조된다는 점에서 이 지역의 도시화과정에서 파괴되어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 논문의 III기 후반인 기원후 3세기 목곽묘도 존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도5〉에 비산동 목곽묘군을 포함시켜 표시하였음을 밝힌다.

9) 대구 봉무동 봉무토성 내에서 오리형토기 등 와질토기가 다수 수습되었는바(尹容鎮 外 1990:221, 국립대구박물관 2001:64) 봉무토성 축조이전에 목곽묘군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하여 대구 봉무동 추정 목곽묘로 호칭하였다. 대구 봉무동 목곽묘는 대구 불로동고분군의 인근에 입지하여 이들 고분군을 장기지속적으로 조성된 하나의 고분군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충고분군으로 발전하기 이전 원삼국대의 목곽묘군의 체계적 확인이 이들 지역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대구분지에서는 삼국시대의 4~5개의 주요고분군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공간을 더 확장하여 달성군 일대의 고분군까지 보면 죽곡리고분군, 문산리고분군, 문양리고분군, 화원 설화리고분군 등의 고분군으로 상징되는 고분축조집단으로 구성되었던 사회구조가 보인다.



〈지도 5〉 III기 주요유적분포도

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중심세력의 변화양상은 지금까지의 발굴자료양상으로 볼 때 크게 대구 연암산유적단계(Ia기)-대구 팔달동 40호목관묘단계(Ib기)-대구 신천동 589-205번지 청동간두령 출토유적, 대구 팔달동 45호목관묘, 전 대구 지산동 한경출토유적의 단계(IIa기)-대구 평리동유적과 대구 지산동 1065-51번지 목관묘 단계(IIb기)-팔달동목관묘 및 비산동목관묘 단계(III기)로 구분된다. 팔달동목관묘 단계(IIa) 초기 또는 전반기에 속하는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 청동간두령 등 청동유물 출토유적은 초기철기시대 청동기문화의 전통을 보여주며 낙랑문화요소나 왜

계요소가 유물 속에서 보이지 않는다. 그렇지만 IIa기 후반인 기원전 1세기 후반에는 전 대구 지산동유적이 암시하듯 낙랑과 교역을 하며 漢鏡을 유통시키는 유력자가 출현하며 전 대구 지산동유적 피장자는 세형동검문화에 기반을 두고 철기문화를 수용하던 팔달동 45호, 90호목판묘 피장자와는 구분된다. 그러나 대구 평리동유적단계(IIb)에 들어 와서는 대구 평리동유적의 사례가 보여주듯 낙랑을 통한 한경의 유입과 신(新)나라의 성립 등으로 일어난 전한과 후한 교체기에 漢鏡확보상의 어려움 등으로 방제경이 출현하는 양상이다. 그리고 IIb기인 기원후 1세기에 속하는 평리동유적단계(IIb기)에도 漢鏡이나 放製鏡을 유통시키는 중심인물이 대구 평리동유적에서 확인되어 낙랑과의 교역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이다. 대구 평리동유적의 피장자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한경과 방제경을 포함한 부장유물의 종류와 수량을 고려할 때 대구지역 소국의 왕의 무덤 또는 수장의 무덤으로 볼 수 있다. 또 대구 지산동 1065-51번지 목관묘유적에서는 철정으로 추정되는 유물 30여점이 출토된 것으로 보여(윤용진 외 1990:51-53, 대구시사편찬위원회 1995:122-124) IIb기 말엽인 기원후 1세기 말엽 또는 기원후 2세기 초엽 경주 사라리 130호분과 유사한 무덤의 존재와 그러한 무덤에 묻힌 유력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특히 이와 더불어 대구 비산동유적(국보로 지정된 조형검과두식 있는 세형동검 출토유적), 대구 만촌동유적, 대구 평리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청동유물은 기원후 1세기 전반 대구지역에 유력자가 주로 금호강을 따라서 인근 지역에 분포하는 양상이며 유력자가 다수 존재함을 암시한다(지도4).

이는 기원후 1세기 대구지역에 유력자의 통할을 받는 중심집단과 그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공동체가 다수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런데 비산동유적과 만촌동유적에서는 중광형동과¹⁰⁾가 출토되어 왜와의 교역도 수행하는

10) 대구 만촌동 출토 중광형동과와 대구 비산동 출토 중광형동과의 제작지가 한반도이고 동과의 광대화는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어나 일본열도로 건너가 일본에서 더 광대화되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 중광형동과의 용법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비하여 일본열도에서는 중광형동과(中廣形銅戈)의 용법도 출토된다. 이뿐만 아니라 야요이시대 중기전반 기원전2세기경부터는 일본열도에서 청동기가 자체생산되기 시작하고 중기후반에 청동기의 생산이 왜인의 기호에 맞게 이루어지며 야요이시대 후기에는 春日丘陵에 입지하는 수구오카모

유력자와 평리동유적의 경우와 같이 낙랑과의 교역내지 방제경의 교역을 수행하는 유력자가 존재함을 암시한다.

III기(기원후2세기~3세기)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정목곽묘,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다. 대구 비산동 3호 목곽묘는 기원후 4세기 전반의 유구이지만(金大煥 2000:89-116)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목곽묘단계부터 목곽묘 그리고 고총단계까지 분묘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III기(기원후2세기~기원후 3세기)에 속하는 목곽묘의 존재가 상정되며 비산동 37호분 출토 금동관 등 부장유물을 고려할 때 삼국시대 대구지역에서 최고로 유력한 고분축조세력이 이곳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대구 봉무동유적에서 28기의 원형, 타원형, 장방형, 부정형의 평면형태를 갖는 주거지가 28기 확인되었으며 노시설로는 구들식, 부뚜막식, 노지가 확인되었고 조합식우각형과수부호, 단정호주머니호편, 장동옹, 첨저옹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권용규 2013:60-61). 그리고 봉무동IV유적에서 조사된 옹해로, 제철폐기장, 추정단야로, 목탄요 등은 봉무동 원삼국시대

토유적(須玖岡本遺蹟) 등지에서 청동기가 집중되어 생산된다, 즉 청동기생산센터가 나타날 정도로 생산이 증대된다(片岡宏二 1997:17-19). 이러한 일본열도에서의 양상을 고려할 때 기원후 1세기 전반에 중광형동과 등이 일본열도에서 해로를 통하여 김해지역이나 낙동강하구에 도착한 후 대구지역으로 낙동강수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영남지역에서는 그 당시 이미 발달된 철기문화단계로 들어가 청동기가 철기로 대체되어 청동기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어 청동기제작기술이 쇠퇴하는 양상이라고 생각한다. 대구 비산동의 중광형동모도 일본열도에서 수입된 청동물품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비하여 기원전 2세기말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기원전 1세기 전반 경으로 편년되는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 출토 청동간두령과 동모 등 청동기들은 그 제작상태가 거칠어 철기의 보급으로 청동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며 청동기술이 쇠퇴하던 상태에서 한반도에서 제작된 청동기로 추정된다. 그러나 원삼국시대에도 경주 사라리 130호분 출토 세형동검, 대구 만촌동유적 출토 세형동검, 대구 비산동 출토 세형동검 등이 보여주듯 세형동검제작기술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 있게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락에서 철기를 생산하고 있었고 철소재는 경주~울산지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어서(김권일 2013:81-120) III기에는 경주지역과 I기와 II기보다 더 강한 연계망을 가졌을 가능성이 암시된다. 오리형토기가 수습된 대구 봉무동 추정 목곽묘군유적은 불로동고분군과 인접해 있어서 하나의 고분군으로 볼 수 있음으로 옹관묘 등의 단계를 거쳐 목곽묘단계에서 고총고분까지 장기간지속적으로 무덤이 축조되는 양상이고 봉무토성이 함께 있으면서 삼국시대 굴립주건물지로 대표되는 창고시설도 확인되어 원삼국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기간의 유력자의 지속적 존재가 암시된다.

2. 대구지역사회에서의 장거리 교역양상

Ia기에는 원형점토대토기, 흑도장경호, 세형동검 등을 토대로 하는 문화권의 영역에서 사회적 불평등이나 유력자의 존재를 나타내는 기물이 대구 서변동 발원 유전동부와 같이 존재는 하나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Ib기에는 세형동검, 흑도장경호, 우각형파수부호, 삼각형점토대토기, 와질토기의 미출현, 철기의 사용(팔달동 71호목관묘 출토 철검)을 특성으로 하며 적석목관묘, 통나무목관묘, 판재식 목관묘 등을 사용하는 집단이다. 이들의 물질문화는 기본적으로 세형동검을 토대로 철기를 받아들이는 양상이어서 서북한지역의 기원전 200년~기원전 100년의 물질문화와 유사한 부분도 있다. 이 시기의 대구 팔달동 목관묘 축조집단은 재지적인 세형동검, 흑도장경호, 우각형파수부호, 삼각형점토대토기, 목관묘를 사용하며 철기를 사용하는 집단이어서 호서지역과 호남지역의 초기철기시대문화 속에 철기를 받아들이는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장수 남양리유적, 함평 초포리유적 등과 물질문화상 공통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간두령은 확인되나 팔주령 등 방울류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대구지역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지역성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 팔달동 45호, 55호, 90호, 99호 목관묘 등의 사례와 전 대구 지산동에서 수습된 것으로 알려진 日光鏡 5점과 昭明鏡 1점 등의 존재는 IIa기에 낙랑과의 교역망이 존재했고 이에 관련된 유력자의 존재를 암시한다. 아

마도 漢鏡은 대구 지산동 유력자를 통하여 유통되거나 분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기원후 0년부터 기원후 1세기의 IIb기에 속하는 대구 평리동유적에서는 훼손문경 1점, 대형방제경 1점, 소형방제경 4점, 세형동검 3점, 동과 1점, 동탁 4점, 원형동기 2점, 청동제 말재갈 3점, 청동제 마면 2점, 철제 말재갈 2점 등 월등하게 탁월한 부장품이 출토되었다. 대구 평리동유적 출토유물이 갖는 의미를 검토하면 세형동검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기원전 2세기 후반부터 철기문화도입과 유사한 시기에 확산된 銅戈類를 가지고 있으면서 漢鏡 1점과 방제경 다수를 가지고 있어서 대구 평리동유적은 기원후 1세기 전반기 신나라가 흥망하는 전한과 후한 교체기의 유구라고 볼 때 낙랑과의 교역관계를 가졌던 인물의 무덤으로 보인다. 대구 평리동유적은 무덤출토 유물의 종류와 수량을 고려할 때 대구지역 소국의 왕묘(王墓) 또는 수장묘로 추정된다. 그리고 방제경의 출현과 유행이 전한과 후한의 교체기 신나라의 출현으로 한경의 유통에 문제가 발생하여 일어난 것으로 보거나(이청규 1998:132) 漢鏡과 같은 위세품의 성격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漢鏡이 유입되어 사용되는 단계와 이어져서 漢鏡의 본래적 의미가 거의 사라졌어도 방제경을 부장하는 습속으로 이어지는 단계도 염두에 두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이희준 2002:17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구 평리동유적도 기원후1세기(IIb기) 전엽의 유적으로 편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구 평리동유적 피장자도 대구 지산동유적 피장자와 마찬가지로 낙랑을 통하여 한경을 배급받아 유통시킨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진 유력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IIb기 대구 평리동유적의 유력자는 IIa기 대구 지산동유적의 유력자와는 달리 방제경도 유통시키는 중심인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¹¹⁾.

11) 倭의 경우에도 기원후2-3세기경의 福岡縣 平原遺蹟에서 漢鏡이 39점 이상 출토되어(前原市教育委員會 2000) 漢鏡의 유통과정에서 특정한 유력인물의 역할이 상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양상은 三雲南小路王墓에서도 57점, 須玖岡本王墓에서도 30점 출토되어(日本九州伊都國博物館 관넬진시내용, 이청규 2016:178 재인용) 일본열도 큐슈지역의 유력인물관련 유적에서도 서로의 시기는 다소 다를 수는 있지만 종종 확인됨을 보여준다. 전 대구 지산동유적, 대구 평리동유적, 영천 어은동유적, 경주 사라리유적, 경주 탑동 경주 탑동 21-3·4번지 내 목관묘유적(韓國

그리고 대구 만촌동유적에서는 세형동검, 중광형동과 등이 출토되어 만촌동유적의 피장자가 세형동검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어쩌면 낙동강수로를 통한 왜와의 직간접적 교역망을 가진 유력자로 추정된다. 물론 중광형동과가 왜의 것이 아니라 대구지역에서 처음 만들어져 왜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필자는 대구 비산동 출토 중광형동과와 중광형동모 그리고 대구 만촌동유적 출토 중광형동과와 같은 유물은 왜(倭)로부터의 유입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倭系遺物이라고 호칭하고자 한다. 이렇게 보면서 대구 비산동 출토 세형동검, 중광형동과, 광형동모, 개궁모(蓋弓帽) 등은 대구 비산동 일대의 다수 목관묘 피장자들이 세형동검문화를 토대로 하면서 낙랑이나 왜와의 교역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보는 것이 당시의 유물출토양상, 유력자의 존재, 교역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또 대구지역 소국은 낙동강 본류를 통해 김해지역에 이르는 교통로를 개척하여 낙동강유역 관계망에서 결절점(結節點)이 되었고 漢鏡이나 中廣形銅矛와 같은 외래계 위세품과 더불어 소금 유통망을 장악했을 가능성도 언급된 바 있는데(咸舜燮 2001:197) 앞에서 언급한 유물출토양상, 유력자의 존재, 교역망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가능성이 있는 견해로 판단된다.

또 지금까지의 유적과 유물의 분포양상은 IIb기에 대구지역의 경우 금호강을 따라서 대체로 대구 평리동-대구 만촌동-영천 어은동-경주 사라리-경주 탑동-경주 조양동으로 이어지는 낙랑과의 교역이 이루어지던 교역망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또 대구 만촌동유적의 중광형동과 등이 말해주듯 IIb 기에 대구지역은 낙랑과의 교역망과 더불어 왜와의 교역망도 가졌던 유력자의 존재가 암시된다. 이것은 Ia기, Ib기, IIa기와 달리 IIb기에는 낙랑과의 교역뿐만 아니라 왜와의 교역도 이루어져 교역망이 다양화되고 확대된 양상이다¹²⁾.

文化財保護財團 2011:133-176), 경주 조양동유적 등과의 漢鏡 또는 방제경 연계망 속에서 대구 지산동유적 피장자는 한경의 유통에 일정한 역할을 하였고 기원 후 1세기경 대구 평리동유적 피장자는 한경과 방제경의 유통(분배 또는 소비)에 일정한 역할을 한 대구지역 소국의 왕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III기에 오면 IIb기의 교역망은 그 중요성이 상실되며 목곽묘단계로 들어가며 漢鏡 등 낙랑관련유물이나 왜계 유물의 분묘에의 副葬은 거의 없고 철기류가 주로 부장되는 양상이 된다. 이러한 양상은 경주지역에서도 유사하여 경주지역과 연계된 양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구지역에서의 시기별 교역망의 변화는 경주지역, 사천, 능도, 김해지역에서의 중심지변화뿐만 아니라 낙랑과 왜와의 교역망 변화¹³⁾ 등과도 연계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3. 대구지역에서의 「국(國)」의 형성양상에 대한 검토

대구지역 IIa기(기원전100년~기원전 0년)의 전반적인 기원전 1세기 전반의 목관묘에서 확인되는 유력자의 존재(팔달동 45호 목관묘, 99호목관묘), 상대적으로 유력한 목관묘군의 존재(대구 팔달동 목관묘군)와 그렇지 아니한 목관묘군의 존재(대구 학정동 목관묘군 등)는 이들 유적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의 팔달동 목관묘군의 대구지역에서의 위상을 암시한다.

IIa기와 IIb기의 유력자들의 존재와 상호관계망 그리고 뒤에서 언급할 장거리교역 양상은 「국(國)」의 출현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유력자의 존재와 유력자네트워크 그리고 Ia기이지만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존재가능성은 IIa기와 IIb기에도 그러한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관계망을 상정하게 하는데 이러한 관계망과 위계양상을 「국(國)」이라고 할 수 있고 「국(國)」의 내부구조 구성양상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IIa기 동모 2점, 동과 2점, 간두령 1쌍, 소통탁 2점이 출토된 대구 신천동589-205유적은 대

12) 중광형 동모 또는 광형 동모가 김해지역에서 출토되는데 대구 만촌동과 비산동에서 출토된 중광형 동모를 포함한 분포양상을 고려할 때 기원후 1세기 전반에 대구에서 낙동강 본류를 거쳐 김해로 통하는 교통로가 이미 개척되었음을 시사한다는 견해가 이미 발표된 바 있다(李熙濬 2000a:107).

13) 능도를 중심으로한 교역망이나 능도의 교역에서의 위상변화나 김해지역의 교역 위상부상 등 「국(國)」의 형성과정에서 일어난 교역망과 교역중심체의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李在賢 2003:119-168, 야나기모토 테루오 2012:114-138, 이노우에 치카라 2011:247-267)가 나와 주목된다.

구 신천동621-1번지생활 및 의례유적과 약500m 내외 떨어져 있어서 이와 관련된 유력자의 무덤일 가능성이 주목된다. 따라서 대구지역에서의 「국(國)」의 출현은 IIa기 적어도 IIa기 후반기에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IIb기 전반인 기원후 1세기 전반부터 나타나는 대구 평리동유적은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진 환경을 분배하고 유통시키고 한편으로 방제경을 유통시키는 유력자의 존재를 암시하며 이들은 영천 어은동-경주 사라리 130호묘-경주 탑동21-3번지 목관묘 등으로 이어지는 연계망을 상징된다. 이들 연계망과 각각의 내부구조는 시기별로 그 성격이 변화된다. 첫째 팔달동 목관묘유적은 기원전 1세기경에 호서-호남지역의 적석목곽묘를 토대로 세형동검을 부장하면서 철기문화를 수용하던 부여 합송리유적, 당진 소소리유적, 장수 남양리유적, 함평 초포리유적 등의 전통을 잇는 집단의 유력자무덤이었고 기원전 2세기후반~기원전 1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대구 팔달동 45호목관묘, 99호목관묘와 대구 신천동 589-205번지유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 후반 전 대구 지산동유적의 사례가 보여주듯 낙랑과의 교역망을 가지고 漢鏡을 유통시키는 유력자가 등장한다. 둘째 기원후 0년~기원후 1세기의 대구 평리동유적, 대구 만촌동유적, 대구 비산동유적은 부장품의 종류와 양으로 볼 때 대구지역 유력자들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환경이나 방제경이 출토되는 평리동유적은 IIb기에도 IIa기 후반에 출현하는 낙랑과의 교역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대구지역 소국의 왕묘(王墓) 추정되며 漢鏡의 보급이 여의치 않게 되자 방제경도 유통시키는 유력자도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또 대구 만촌동유적이나 대구 비산동유적에서 출토된 중광형동과는 왜와의 교역망이 존재했음을 암시한다. 기원후 1세기경의 평리동유적, 비산동유적, 만촌동유적의 존재는 대구지역 집단유력자의 존재가 복수였고 복수의 유력집단 사이의 연합한 소국¹⁴⁾이었을 가능성이 있다<지도4>. 또 IIb기 말엽인 기원후 1세기 말엽경의 유적으

14) 신라의 화백제도와 같은 만장일치합의제도는 왕권의 확립이전 국(國)단계의 의사결정구조일 가능성이 크며 대구지역도 소국구성을 토대로 한 유사한 방식의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로 보이는 대구 지산동 1065-51번지 유적에서는 30여점의 철정추정유물도 출토되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경주 사라리 130호분과 유사한 철기문화에 토대를 둔 유력자의 존재도 대구지역에 존재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사실 소국이 존재하고 소국의 중심읍락인 국읍(國邑)의 존재여부를 평가하는 고고학적 기준에 대해서는 환호와 토성, 수장거소, 취락의 규모에서의 위계성, 대규모 건물지의 존재, 창고로 추정되는 유구의 존재, 청동기, 철기, 칠기, 목기를 제작하는 공방지의 존재, 장거리교역을 암시하는 외래품, 위세품, 교통결절지에 입지하는 중심취락, 의례기능, 분묘의 군집과 유력자 무덤, 목관묘-목곽묘-고총고분의 장기지속성여부와 단절성 등의 요소를 들 수 있고(權五榮 1996:116, 張容碩 2012:135) 이러한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국읍의 존재가능성은 커진다. 또 원삼국시대(IIb기와 III기)의 철기를 생산하고 분배하는 유적을 포함하고 있다면 국읍(國邑)의 존재를 보여주는 중심취락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 경주의 황성동유적은 사로국의 철기제작공방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요건을 많이 갖춘 유력한 국읍의 중심지가 경주분지, 경산 임당유적, 김해 봉황동유적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위와 같은 국읍의 구성요소를 다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유적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 대구 신천동 589-205호 청동기출토유적, 대구 팔달동 99호목관묘는 기원전1세기 부장품의 종류와 양에서 차이가 나타나서 유력자가 존재함을 암시하고 그 유력자들의 장거리교역활동과 대구지역 내 다른 유적 사이의 위계관계(팔달동유적, 학정동목관묘군 등)는 소국의 출현에 따른 국읍(國邑)의 존재와 소속된 하위 읍락의 구조를 추정하게 한다¹⁵⁾. 기원전 1세기 전엽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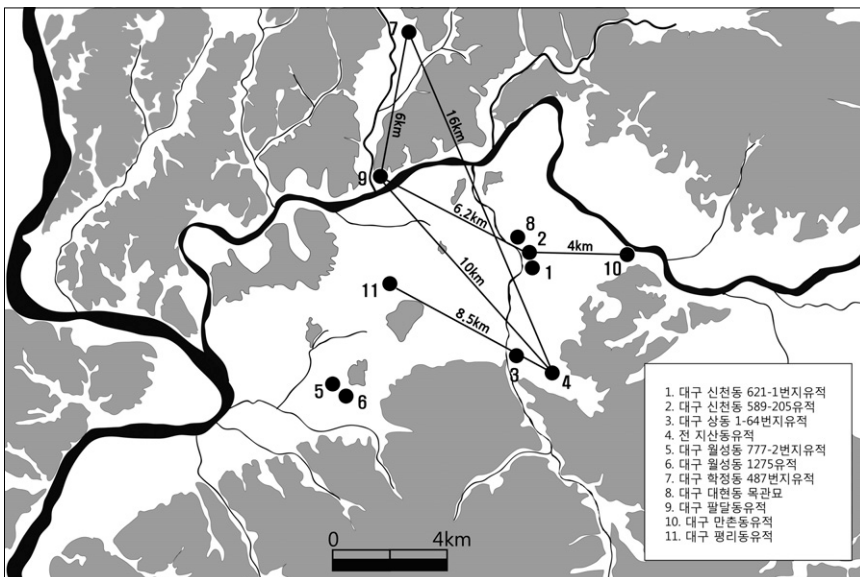
15) 대구지역의 읍락국가는 경주의 사로국에 통합되기 이전에 먼저 경산의 압독국에 복속되는 과정을 거쳤고 다시 押督國이 사로국에 복속되면서 2차적으로 신라에 편입되어 대구의 읍락국가명칭이 남지 않게 되었다는 견해(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43)는 대구지역 인근의 강력한 읍락국가가 압독국이라는 점에서 압독국과 대구지역의 관계 속에서 대구의 읍락국가명칭이 남게 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木棺墓群이 장기지속적으로 조영되고 취락의 위계와 관계망은 형성되었으나 대구양식의 토기생산까지 이어지지 않은 고고학적 양상을 설명하는데도 참고할만한 견해이다.

와질토기가 출현하고 기원전 1세기 중엽에 와질토기가 정형화되는 현상, 기원전 2세기에 출현하는 철기가 기원전 1세기 중엽 본격 생산되는 점, 기원전 2세기경부터 나타나 기원전 1세기 중엽을 거쳐 기원후 1세기까지 지속되는 목관묘의 집단화, 그리고 기원전 1세기 중엽부터 나타나는 漢鏡의 도입 등과 같은 외래계 유물의 출현을 토대로 기원전 1세기 중엽에 대구지역을 포함한 영남지역의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관계망으로서 진·변한의 성립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한 견해(이희준 2002:132-150)가 있듯이 대구지역에 나타나는 와질토기의 출현과 정형화, 철기의 생산, 목관묘의 집단화, 한鏡의 도입 등으로 암시되는 관계망과 대구지역 내에서의 목관묘 부장품의 종류와 양의 위계화 또는 차별화 양상은 기원전 1세기 중엽(IIa기) 대구지역에 「國」이 성립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고 이러한 「國」이 기원후 1세기(IIb기) 전엽에도 집단의 변화는 있으나 유력자들이 대구분지에 다수 분포하며 연계했을 가능성이 점차지며 그들의 교역망도 樂浪으로의 交易과 倭와의 交易으로 다양화되는 양상이다.

III기(기원후2세기~3세기)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정목곽묘,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다. 대구 비산동 3호 목곽묘는 기원후 4세기 전반의 유구이지만(金大煥 2000:89-116)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목관묘단계부터 목곽묘 그리고 고총단계까지 분묘가 조성된다는 측면에서 III기 목곽묘단계(기원후 2세기~기원후 3세기)에 속하는 목곽묘의 존재가 상정되며 비산동 37호분 출토 금동관 등 부장유물을 고려할 때 삼국시대 대구지역에서 최고로 유력한 고분축조세력이 이곳에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큼을 암시한다. 또 대구 신서동 유적 I B구역 문화유적(1차)유적 B-2구역 1호목곽묘에서는 유개대부완, 대부주머니호, 단경호, 장동옹, 철부, 철제재갈, 철모, 철검, 청동검과두식, 철검 등이 출토되었는데 그 부장유물의 종류와 양이 현격하게 많다. 대구 신서동지역에서는 목관묘에서 목곽묘로 이어지는 장기지속성이 보이나 삼국시대 고총고분으로는 연결되지 않아 경산 압록국으로의 통합가능성도 암시된다.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이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 추정목

곽요군 등 다른 목곽요군에 비하여 우월한지 여부는 발굴자료가 부족하여 확인하기 어려우나 대구 달성고분 37호분의 부장품 등을 고려할 때 고분축조세력의 장기지속적 측면에서 주목된다.

참고로 대구 학정동유적에서 대구 지산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16km, 대구 팔달동유적에서 대구 지산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10km, 팔달동유적에서 동천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6km, 평리동유적에서 신천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6km, 신천동유적과 대구 만촌동유적 사이의 거리가 약 4km이다. 이러한 유적의 분포양상은 크게 보아 대구지역 내 등장했던 소국(小國)의 공간적 범위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대체로 10km~15km 내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반경 5km 내외의 공간적 범위를 주요 취락들이 유력자를 중심으로 10km~15km의 공간 속에 분포하고 있어서 「國」의 내부구조를 암시해 주고 있다<지도3>, <지도4>, <지도5>, <지도6>.



<지도 6> 대구지역 주요유적 사이의 거리

대구지역의 경우 취락의 대형화와 위계화 그리고 인구의 집중을 보여주는 발굴된 취락자료는 추정적일뿐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취락자료는 정치체의 내적 통합과 외적 확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앞으로 자료의 축적이 기대된다. 대구지역의 경우 취락자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지만 무덤자료를 통하여 그 일단을 추적할 수 있다고 본다.

V. 맺는말

대구 팔달동유적은 대구지역 복합사회의 형성과 소국출현과 발전양상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다. 대구지역에서는 대체로 IIa기인 기원전 1세기 전 반부터 유력자가 나타나고 또 유력자를 중심으로 장거리교역이 이루어지며 유력자가 속한 집단과 그 하위집단으로 구성된 구조를 가진 정치체인 소국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Ib기인 기원후 1세기대에는 기원전 1세기경에 성립된 소국이 내적으로 통합되고 외적으로 더 강화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목관묘군의 지속적 축조, 와질토기의 정형화, 철기의 생산과 보급, 장거리교역의 출현과 다변화, 유력자의 등장과 다수 유력자의 확인 등은 「國」의 형성과 관련된 현상으로 볼 수 있고 「國」의 내부구조도 암시한다. 그러나 III시기의 목곽묘단계에는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이 존재하나 팔달동유적의 목곽묘단계에서 암시되는 바처럼 유력자의 존재가 특출하지는 않다.

I기에는 연암산유적의 다량의 미완성석재와 다른 중소규모 유적의 존재 등이 암시하듯 중심취락과 하위취락의 존재가 상정될 수 있다. 대구지역에 달성토성, 검단토성, 봉무토성 등이 있으나 원삼국시대에 축조되었는지 여부는 발굴조사가 충분하게 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 대구지역의 무덤으로 본 집단의 위계양상을 따져보면 IIa단계의 팔달동집단과 학정동집단, IIb기의 대구 만촌동유적집단, 대구 비산동유적집단, 대구 평리동유적집단이 주목되며 이들의 관계망과 장거리교역 그리고 출토유물의 우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구 팔달동유적의 청동유물 출토무덤은 대체로 유력자의 무덤이며 소국의 출현이 IIa기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III

기(기원후 2세기~3세기)의 유적으로는 대구 비산동 목곽묘군, 대구 팔달동 목곽묘군, 대구 서변동목곽묘군, 대구 봉무동유적, 대구 봉무동 추정목곽묘,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곽묘군 등이 있다. 현재까지 발굴된 자료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지만 대구 비산동목곽묘군이 달성고분군으로 발전하며 대구지역에서 가장 유력했던 고분축조집단으로 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보이는 편년상의 문제점, 해석상의 문제점과 논리전개상의 문제점은 모두 필자의 한계이며 책임이다.

〈표 3〉 대구지역 초기철기시대~원삼국시대 주요유적양상

		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 단계 ...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적석목관묘)	Ia기 (기원전 300년~ 기원전 200년)	대구 연암산유적 (대구 산격동1180번지 유적)	생활유적 추정	석부, 석착, 석촉, 다수의 미완성석기, 미완성유구석부, 원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공심대각/대각 내경의 두형토기) 등 채집	尹容鎮 外 (1990:59-62), 尹容鎮 外 (2011:15-76), 김양선 외 (2011:105-131)
		대구 서변동 670번지 일대 유적	생활유적 (하도)	원형점토대토기편	朴升圭 外 (2013:224-245)
		전 대구 서변동	유구미상	유견동부	尹容鎮 外 (1990:199),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1), 국립대구박물관 (1999:24, 2001:41)
		대구 침산유적 (대구 침산동 452번지 유적)	생활유적 추정	유구석부, 석도, 석기편, 무문토기편	尹容鎮 外(1990:62)
		대구 검단유물산포지 (대구 복현동 산1-5번지, 검단토성주변 포함)	생활유적 추정	유구석부, 마제석촉, 마제석기 반제품, 무문토기, 와질토기 등 산재	慶北大學校博物館 外 (1989:25), 俞弘濤 外 (1997:58)
		대구 괴전동 182, 186, 187번지 일대유적		두형토기, 원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편 등 지표수습	尹容鎮 外 (1990:111-114)
		대구 각산동912-6번지 유적	생활유적	주거지 12기, 원형점토대토기편, 두형토기, 평저호	朴憲敏 外 (2008:44-71)
		대구 월성동 산6번지 주거유적	생활유적	원형점토대토기편, 우각형파수, 유구석부, 미완성석기 등	국립김해박물관 (2003:75)
		대구 상동 76번지 수혈유적	생활유적	원형점토대토기편, 석부 편	국립김해박물관 (2004:77-78)
		대구 월성동1275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추정)	흑도장경호 등	李清圭 外(2006)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 단계 … 원형점토대토기 단계 (적석목관묘)	Ib기 (기원전 200년-기원전 100년)	대구 연암산유적 (대구 산격동 1180번지 유적)	생활유적 추정	삼각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실심대각/대각八字형의 두형토기)	김양선 외 (2011:115-116)
		대구 칠곡 3지구 3구역 (대구 국우동892-2번지 및 906번지일대)	생활유적 (주거지 8기, 수혈 14기, 고상가옥 6기, 구 6기, 옹관묘 1기, 늘지 1개소 등)	원형점토대토기, 삼각형점토대토기, 우각형파수부호, 유구석부, 두형토기편	韓國文化財保護財團 외 (2000:29-76, 231-250), 李熙濤(2000b:98)
		대구 팔달동 목관묘 (40호·41호·71호·76호·110호 목관묘)	무덤유적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대구 상인동128-8번지 목관묘	무덤유적	무문토기저부, 미완성적축 등	하영중(2010)
		대구 월성동777-2번지 유적(목관묘군)	무덤유적 (목관묘 19기)	삼각형점토대토기, 두형토기, 청동검파두식, 철검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8)
II 단계 … 삼각형점토대토기·고식와질토기 단계 (목관묘)	IIa기 (기원전 100-0년)	대구 팔달동 35호·39호·42호·44호·45호·49호·52호·55호·57호·63호·73호·75호·77호·79호·81호·99호·113호·114호·122호·125호·126호 목관묘(이상 기원전 1세기 전반) 대구 팔달동 30호·59호·60호·64호·78호·80호·83호·86호·87호·88호·90호·94호·100호·116호·118호·120호·124호(이상 기원전 1세기 중후반) 대구 팔달동 옹관묘군 (131호 옹관묘, 138호 옹관묘, 269호 옹관묘 등)	무덤유적	주머니호, 흑도장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두형토기, 세형동검, 동모, 검파두식, 漆靽 철모, 철부, 철착, 판상철부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박승규 외(2015a), 국립대구박물관 (2001:41-44)
		대구 신천동621-1번지 유적	생활유적(구 3기, 구상유구 4기, 주혈군, 주혈 27기, 수혈 7기) 무덤유구(옹관묘 1기)	삼각형점토대토기 구연부, 두형토기, 우각형파수부호, 석부	박정화 외(2010)
		대구 신천동589-205 유적	무덤유적	동모 2점, 동과 2점, 간두령 1쌍, 소동탁 2점	尹容鎮 外(1990:55-59),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1-123), 국립대구박물관 (2001:45-47)

		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I 단계 ... 삼각형점토대토기 · 고식와질토기 단계 (목관묘)	IIa기 (기원전 100-0년)	전 대구 지산동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추정)	日光鏡, 昭明鏡 등 6매	국립대구박물관 (2001:48)
		대구 상동1-64번지 유적	생활유적 (수혈 4기)	삼각형점토대토기, 무문토기 파수부편, 무문토기저부	世宗文化財硏究 (2012b:106-113)
		대구 학정동487번지 유적(수혈 1기)			世宗文化財硏究院 (2012a)
		대구 대현동 목관묘	무덤유적 (목관묘)	흑도장경호 등	嶺南文化財硏究院 (2005:193-210)
	IIb기 (0년-기원후 100년)	대구 팔달동 12호 · 26호 · 28호 · 29호 · 31호 · 32호 · 37호 · 38호 · 43호 · 47호 · 48호 · 74호 · 82호 · 85호 · 101호(이상 기원후 1세기 전반) 대구 팔달동 50호 · 95호 · 96호 · 102호 · 105호 · 106호 · 107호 · 111호 · 112호(이상 기원후 1세기 후반) 대구 팔달동 옹관묘	무덤유적 (목관묘)	주머니호, 단경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철부, 철검, 구슬 등	嶺南文化財硏究院 (2000), 尹容鎮 外(1990), 박승규 외(2015a),
		대구 지산동 1065-51번지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추정)	세형동검, 방제경, 추정 철정 (유실) 30여점 출토전언	尹容鎮 外 (1990:51-53),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2-124)
		대구 평리동유적 1409번지	무덤유적 (목관묘 추정)	세형동검 3점, 십자형검과두식금구, 철제계갈, 한경 1점, 대형방제경 1점, 소형방제경 4점 등	尹容鎮 外 (1990:62-75),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4-126), 국립대구박물관 (2001:51-55)
		대구 비산동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추정). 다수의 목관묘에서 수습된 유물일 가능성 있음.	동모 3점, 동과 2점, 조형검 파두식이 있는 세형동검 1점, 개공모 1점, 우각형동기 3점, 호형대구 5점 등	국립대구박물관 (2001:50),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19-121)
		대구 만촌동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추정. 매납유구라는 견해도 있음.	세형동검 3점, 중광형동과, 검파두식장식구, 칼코부속구	尹容鎮 外(1990:55),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121-122), 국립대구박물관 (2001:49)
		대구 사수동 563번지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15기, 옹관묘 2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주머니호, 옹, 장동옹 등	世宗文化財硏究 (2012c)
		대구 학정동 487번지유적	무덤유적 (목관묘 10기, 수혈 1기)	흑도장경호, 주머니호, 두형토기, 철검, 철모	世宗文化財硏究 (2012a:49-67)

		유적이름	유적성격	출토유물	인근지역(참고자료)
II 단계 … 삼각형 점토 대토기 · 고식 와질 토기 단계 (목판요)	IIb기 (0년-기원후 100년)	대구 학정동 474번지유적	무덤유적 (목판요 7기, 웅관요 7기, 토광요 4기)	조합형우각형파수부호, 장경호, 청동제 검촉, 철검, 철부, 철촉, 철모, 철착, 주머니호	閔善禮 외(2009)
		대구 이천동 대구중학교정내 유적	무덤유적 (목판요 추정)	세형동검 1점 채집	大邱市史編纂委員會(1995:119)
		대구 각산동유적	무덤유적 (목판요 2기, 토광요 1기, 웅관요 1기)	주머니호, 두형토기, 조합식 유각형파수부호, 웅, 칠초철검, 판상철부 등	경북문화재연구원(2012:89-106)
		대구 봉무동 웅관요유적	무덤유적 (웅관요 1기)	靑銅劍把附鐵劍, 小環頭刀子	朴相銀 외(2010:27-32, 162-163)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판요군	무덤유적 (목판요 15기)	주머니호, 단경호, 소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심발형 토기, 철검, 철모, 단조철부, 판상철부, 철검, 철착, 따비, 동환, 원통형동기 등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11:272)
		대구 신서동 유적 I B구역 문화유적(1차) 유적	무덤유적 (목판요 34기)	주머니호,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단경호, 장동웅, 철부, 철모, 철검, 철검, 도자, 청동제검과두식, 철제제갈	韓國文化財保護財團(2012a, 2012b)
III 단계 … 신식 와질 토기 단계 (목판요)	III기 (기원후 100년-300년)	대구 팔달동 117호 (목판요)	무덤유적	철부, 철제따비, 철검편, 장경호편, 조합식우각형파수 등	尹容鎭 外(1993), 嶺南文化財研究院(2000:224-232)
		대구 비산동 목판요군	무덤유적	승석문양이부단경호, 철모 등	金大煥(2000:89-116)
		대구 서변동 목판요군 (5호, 12호, 27호 목판요)	무덤유적	兩耳附直口壺, 三耳附直口壺, 노형토기, 단경호 등	윤온식(1999:69-119)
		대구 봉무동유적V	생활유적(주거지 17기, 수혈 유구 9기, 구상유구 3기)	주머니호, 단경호, 장동웅대호, 완, 발, 시루, 찜저웅, 웅법편, 주조철부 등	尹敏根 外(2011a, 2011b)
		대구 봉무동 750번지유적	생활유적(주거지 8기, 주혈군 12기)	소옹,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찜저웅, 승문단경호, 내박자 등	삼한문화재연구원(2011:47-81, 290-296)
		대구 봉무동 (봉무토성 내) 추정목판요	무덤유적(추정목판요)	城 내부에서 오리모양와질토기, 고배와질토기 등 채집. 와질토기 편 산재	尹容鎭 外(1990:221), 국립대구박물관(2001:64)
		대구 신서동 B구역 1차 지역 목판요군	무덤유적 (목판요 10기, 웅관요 12기)	단경호, 웅, 제갈부속구, 제갈, 검부속구, 단조철부, 원통형토기,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 등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2011:273-278), 韓國文化財保護財團(2012b:51-54, 245-247)

|| 참고문헌 ||

- 慶北大學校博物館・大邱直轄市, 1989, 『大邱伏賢洞古墳群 I』.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하양~와촌~대구간 도로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하양 대학리・와촌 동강리유적-』.
- _____, 2008, 『大邱 月城洞 777-2番地 遺蹟(II)-青銅器~近代-』.
- _____, 2010, 『달성 평촌리・예현리 유적-본문-』.
- _____, 2011, 『대구 신서혁신도시 B-1 3북구역 유적-본문-』.
- _____, 2012, 『대구 신서혁신도시 A구역 내 大邱 角山洞遺蹟』.
- 國立金海博物館, 2003, 『弁辰韓의 黎明-점토대토기의 등장』.
- _____, 2004, 『韓國 圓形粘土帶土器文化 資料集』.
- 국립대구박물관, 1999, 『국립대구박물관』, 통천문화사, 서울.
- _____, 2001, 『대구 오천년』, 통천문화사, 서울.
- 權五榮, 1996, 『三韓의 「國」에 대한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권용규, 2013, 「대구 봉무동유적 취락의 성격-주거지와 굴립주건물지를 중심으로-」, 『嶺南文化財研究』26:53-80.
- 김권일, 2013, 「대구 봉무동집단의 고대 생산활동-제철유구, 목탄요, 추정토기요, 채토수혈-」, 『嶺南文化財研究』26:81-120.
- 金大煥, 2000, 「大邱 飛山洞 木槨墓」, 『嶺南文化財研究』第12輯: 89-116.
- 김양선・박단아・이수정, 2011, 「大邱 燕岩山遺蹟 出土 土器」, 『考古學論叢-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30周年 紀念-』, 慶北大學校 出版部:105-131.
- 노중국, 2002, 「辰・弁韓의 政治・社會구조와 그 운영」,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217-294.
- 大邱市史編纂委員會, 1995, 『大邱市史』 一券.
- 文昌魯, 2000, 『三韓時代의 邑落과 社會』, 신서원, 서울.
- 閔善禮・禹炳喆, 2009, 『大邱 鶴亭洞 474番地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 朴相銀・崔永浩・尹敏根, 2010, 『大邱 鳳舞洞遺蹟 III』, 嶺南文化財研究院.
- 박승규, 2008, 「고고학으로 본 압록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한구 고대사 속의 경산』, 경산시・대구사학회:93-122.
- 朴升圭・河眞鎬・李那榮・尹敏根・李秀正, 2013 『大邱 西邊洞 聚落遺蹟 II』, 嶺南文化財研究院.
- 박승규・하진호・이석범・민선례, 2015a, 『大邱 八達洞遺蹟 II』, 嶺南文化財研究

院.

박승규 · 이석범 · 민선례 · 김경환 · 권옥택, 2015b, 『大邱 八達洞遺蹟 III-』, 嶺南文化財研究院.

박정화 · 류미라 · 곽우영, 2010, 『大邱 新川洞621-1番地 遺蹟』, 삼한문화재연구원.

朴憲敏 · 申順澈 · 崔永浩, 2008, 『大邱 角山洞912-6番地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삼한문화재연구원, 2011, 『대구 봉무동750번지유적』.

_____, 2012, 『慶山 慶里 440-5番地 遺蹟』.

世宗文化財研究院, 2012a, 『대구 학정동487번지유적』.

_____, 2012b, 『대구 상동1-64번지유적』

_____, 2012c, 『大邱 泗水洞 563番地 遺蹟』.

야나기모토 테루오(柳本照男), 2012, 「양동리고분군 출토 왜계유물로 본 한일교섭-삼국시대 전기를 중심으로-」, 『김해 양동고분군과 고대 동아세아』(제18회 가야사 국제학술회의):114-138.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_____, 2005, 「大邱 大賢洞 木棺墓」, 『慶山 縣內里 II 遺蹟』: 193-210.

俞弘濬 · 梁道榮 · 金廣明 · 鄭尙洙 · 金昊鎭 · 朴桂然, 1997, 『琴湖 · 東大邱間의 文化遺蹟- 京釜高速道路 擴張區間의 地表調査』, 嶺南大學校 博物館 · 韓國道路公社.

尹敏根 · 鄭玟 · 權容圭 · 朴泳協 · 孫諱理 · 金泰亨 · 金賢貞, 2011a, 『大邱 鳳舞洞遺蹟 V -住居址 · 竪穴遺構-』, 嶺南文化財研究院.

尹敏根 · 鄭玟 · 權容圭 · 朴泳協 · 孫諱理 · 金泰亨 · 金賢貞, 2011b, 『大邱 鳳舞洞遺蹟 V -掘立柱建物址 外-』, 嶺南文化財研究院.

윤은식, 1999, 「西邊洞 古墳群 목곽묘 발굴조사 개요」, 『嶺南文化財研究』 第10輯:69-119.

尹容鎭, 1974, 「大邱의 初期國家 形成過程-考古學的 資料를 中心으로-」, 『동양문화연구』 Vol. 1:231-243

尹容鎭 外, 1990, 『大邱의 文化遺蹟-先史 · 古代』, 大邱直轄市 · 慶北大學校博物館.

_____, 1993, 『大邱 八達洞遺蹟』, 大邱直轄市 · 慶北大學校博物館.

윤용진 · 홍순광 · 류지환, 2011, 「大邱 燕岩山遺蹟 出土 石斧」, 『考古學論叢-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30周年 紀念-』, 慶北大學校出版部:15-76.

- 이노우에 치카라(井上主税), 2011, 「泗川 勒島遺蹟의 쇠퇴-그 역사적 배경에 대하여-」, 『考古學論叢-慶北大學校考古人類學科 30周年 紀念-』, 慶北大學校出版部:247-267.
- 李在賢, 2003, 『弁·辰韓社會의 考古學的 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文學博士 學位論文.
- 李清圭, 1998, 「지배층 무덤의 변천에 대하여-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 『人類學研究』제8집(嶺南大學校 文化人類學研究會):125-134.
- _____, 2000, 「‘國’의 形成과 多鈕鏡副葬墓」, 『先史와 古代』 14(韓國古代學會):27-47.
- 이청규, 2016, 『해상활동의 고고학적 기원과 전개』, 경인문화사, 파주.
- 李清圭·李珍柱·張順子, 2006, 『大邱 月城洞 1275遺蹟』, 嶺南大學校博物館.
- 李賢惠, 1984, 『三韓司會形成過程研究』, 一潮閣, 서울.
- 李熙濬, 2000a, 「대구 지역 古代 政治體의 形成과 變遷」, 『嶺南考古學』 제26호:81-119.
- _____, 2000b, 「삼한 소국 형성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의 틀-취락 분포 정형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제43집:113-138.
- 이희준, 2002,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119-175.
- 張容碩, 2012, 「考古資料로 본 林堂 中心邑落의 諸 樣相」, 『嶺南文化財研究』 25:133-155.
- 주보돈, 2002, 「辰·弁韓의 成立과 展開」, 『진·변한사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5-71.
- 하영중, 2010, 『大邱 上仁洞 128-8番地 遺蹟』, 삼한문화재연구원.
- 韓國文化財保護財團, 2011, 「4. 경주 탑동 21-3·4번지유적」, 『2010년도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IV-경북 2-』:133-176.
- _____, 2012a, 『大邱 新西洞 遺蹟 I-대구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부지 B구역 문화유적(1차)-』
- _____, 2012b, 『大邱 新西洞 遺蹟 II-대구 신서혁신도시 개발사업부지 B구역 문화유적(1차)-』.
- 韓國文化財保護財團·韓國土地公社 慶北支社, 2000, 『大邱 漆谷 3宅地(2·3區域) 文化遺蹟 發掘調査 報告書(1)-3·2-가區域』.
- 咸舜燮, 2001, 「大邱의 地理的 特性과 古代 地域政治體」, 『대구 오천년』, 국립대구박물관, 통 천문화사, 서울: 185-203.
- 松永幸男, 1997, 「I 輸入された青銅器」, 『彌生の鑄物工房とその世界』, 北九州市立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考古博物館:12-16.

前原市教育委員會, 2000, 『平原遺跡』(前原市文化財調査報告書 第70集).

片岡宏二, 1997, 「IIa 國産のはじまりとそのひろがり-北部九州を中心に-」, 『彌生の鑄物工房と その世界』, 北九州市立考古博物館:17-19.



부록1

- ① 대구 구암동고분군 1호분 조사내용과 성과
_ 이재광 · 김경환
- ②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_ 김지영 · 최규진
- ③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_ 이수정 · 권용규
- ④ 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_ 남도인 · 박영협 · 장기명

대구 구암동고분군 1호분 조사내용과 성과

이재광 · 김경환

영남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조사내용

1. 층위

2. 유구

3. 출토유물

III.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IV. 맺음말

대구 구암동고분군 1호분 조사내용과 성과

이재광 · 김경환*

I . 머리말

대구 구암동고분군은 대구지역의 대표적인 고분으로서 1975년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56호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바 있다. 학술적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도굴 행위, 자연유실, 경작지, 민묘 조성 등에 의해 유적의 훼손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어, 유적의 보존·보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대구 구암동고분군 중 대형 고분 1기(1호분)를 발굴하여 고분의 내부구조와 현황 및 부장유물을 검토하여 그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더불어 발굴성과를 토대로 구암동고분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 복원 및 활용계획의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지역인 구암동고분군은 함지산(287.9m)의 서쪽 능사면에 위치한 곳으로 북동쪽으로는 팔공산에 연결되고 북서쪽은 팔거천 유역의 넓은 충적평야에 접하며, 남서쪽은 팔거천을 따라 금호강까지 이어진다. 함지산은 생김새가 마치 함지박을 엮어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함지산’ 또는 ‘티산’ 이라고 불린다.

조사대상지가 위치한 구암동고분군 아래의 팔거평야 일대 칠곡분지에는 선사~조선시대에 걸쳐 다수의 유적이 확인된다. 조사대상지인 구암동고분군 주변에는 청동기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각종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취락유적인 대구 동천동유적에는 원형, 장방형의 주거지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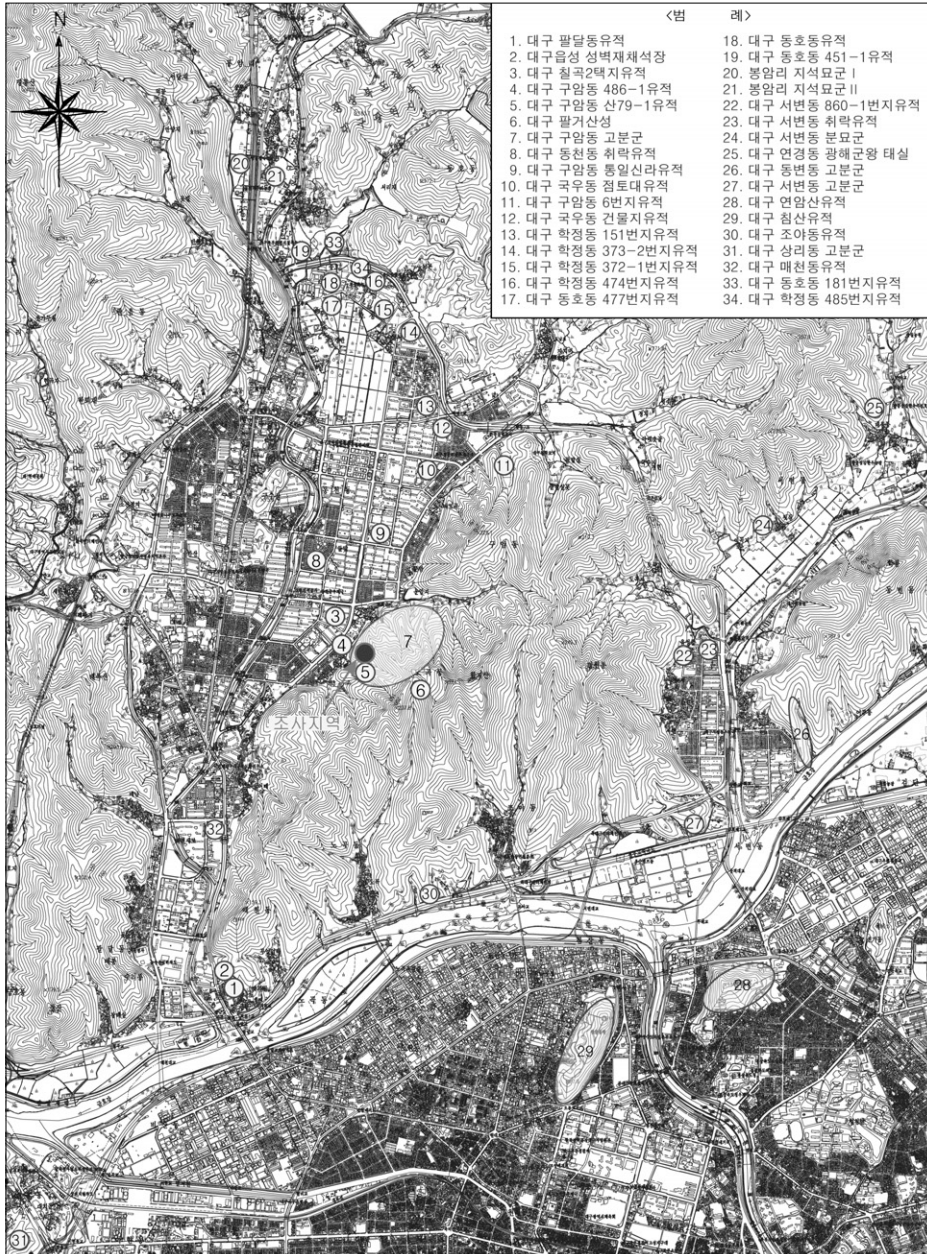
* 영남문화재연구원

석관묘, 경작지, 환호, 집수지가 조사되었고 대구 팔달동유적에서는 장방형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또한 칠곡 택지개발 3지구 2구역에서는 말각장방형주거지가, 대구 동호동유적에서는 말각방형주거지와 경작지, 하도 등이 조사되었다. 대구 매천동유적에서 석기 및 목기가 다량 출토된 하도와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지석묘는 팔거천의 상류쪽인 동명면에 분포하며 중류의 봉암리 지석묘와 봉암리 지석묘Ⅱ, 상류쪽에 금암리 지석묘Ⅰ, 금암리 지석묘군Ⅱ, 기성리 지석묘 등이 확인된다. 이후 초기철기시대 및 삼한시대의 생활유적으로는 칠곡 3지구 3구역의 국우동 점토대토기유적에서 두형토기가 출토되는 수혈유구가 조사되었으며, 학정동474번지 유적, 학정동487번지 유적, 학정동490-1번지 유적, 팔달동 유적에서 목관묘와 옹관묘가 조사되었다. 삼국시대 생활유적으로는 칠곡 택지개발 2지구의 대구 동천동유적에서 확인되었으며, 분묘유적으로는 대구 팔달동고분군 등이 있다.

구암동고분군이 분포하는 능선은 비교적 험준하고 기복이 심하다. 이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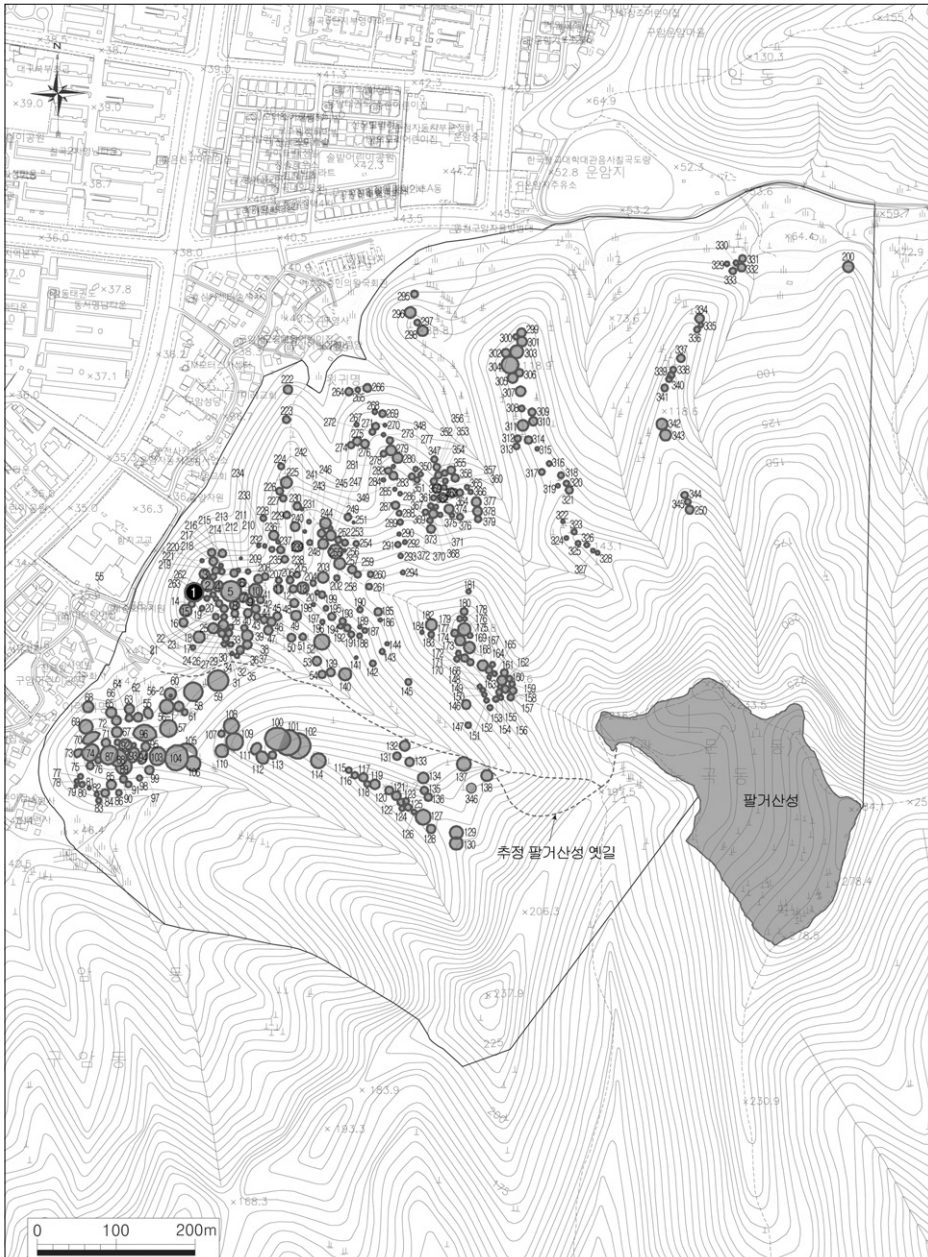


〈사진 1〉 조사지역 전경



〈도면 1〉 조사지역(●) 및 주변유적 분포도(S=1:50,000)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도면 2〉 구암동고분군 분포도(1호분 위치(●), S=1:4,000)

릉의 능선상에는 비교적 대형분이, 사면 일대에는 소형분이 분포하고 있다. 함지산의 5개 능선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구암동고분군에서는 대형(직경 20m이상) 19기, 중대형(직경 16m이상~20m미만) 21기, 중형(직경 11m이상~16m미만) 90기, 소형(직경 10m이하) 249기로 총 379기의 봉분이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 1능선에서 총 86기 중 대형 16기, 중대형 15기, 중형 24기, 소형 31기가 위치하며, 2능선에서는 총 240기 중 대형 2기, 중대형 5기, 중형 52기, 소형 181기가 위치한다. 3능선은 총 34기 중 대형 1기, 중대형 1기, 중형 9기, 소형 23기가 위치하며, 4능선은 총 18기 중 중형 4기, 소형 14기가 위치하고, 5능선은 중형 1기만 위치하고 있다. 대형 고분은 주로 1능선과 2능선에 집중 분포하며, 북쪽으로 갈수록 중형의 고분이 집중되는 양상이다.¹⁾

Ⅱ. 조사내용

1. 층위

조사대상지 일대는 함지산의 서사면 능선 말단부에 해당한다. 봉분은 상부 약 5~10cm 정도는 암갈색 사질점토인 표토층과 동일한 흙으로 덮여져



〈삽도 1〉 구암동고분군 1호분 봉분 적석 단면 전경

1) 영남문화재연구원, 2015, 『대구 구암동고분군 및 팔거산성 문화재 정밀지표조사 보고서』.

있었으며, 그 하부에는 표토보다 단단한 회백색의 사질점토와 30~60cm 크기의 할석과 석재들이 뒤섞여 개석 상단부까지 형성되어 있다(삽도 1).

2. 유구

1호분은 북동-남서방향으로 경사를 이루는 지형에 축조시기가 서로 다른 3기의 봉분이 연접된 고분이다. 1호분의 봉분 전체 규모는 길이 22.0m, 너비 11.4m, 잔존 높이 7.6m 정도이다. 평면형태는 표형(瓢形)이며, 매장주체부는 7기의 수혈식석곽묘로 축조된 적석석곽분이다.

〈표 1〉 유구 및 유물 현황

유 구			출토유물(점)							비고
시대	성격		수량	토도	금속	유리·보석	석	기타	합계	
삼국	1-1호분	봉분(적석)	1	12					12	
		주곽	1	67	12		·	·	79	
		부곽	1	59	10				69	
		배장곽	1	22	9				31	
	1-2호분	봉분(적석)	1	1					1	
		주곽	1	22	53				75	
		부곽	1	29	3				32	
		배장곽	1	15	2				17	
	1-3호		1	12	8	3			23	
	합 계		9	239	97	3	·	·	339	

※ 유물의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2016년 3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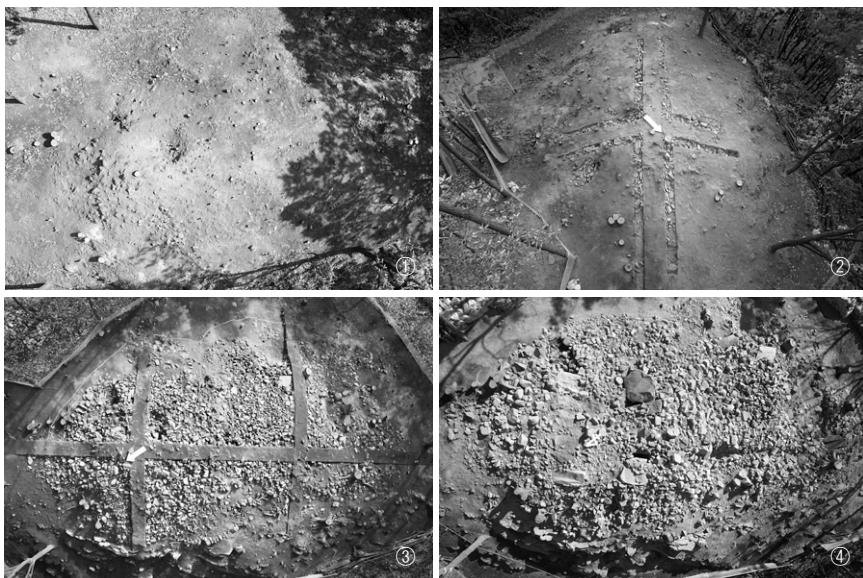
1) 봉분조사

구암동고분군 1호분 주변의 수목과 잡목, 낙엽, 쓰레기를 제거하자 북동~남서방향의 장타원형의 봉분이 확인되었다. 봉분에는 크고 작은 도굴갱이 4개 정도 확인되었으며, 남쪽 하단부에 위치한 도굴갱에서는 교란된 대형할석 3개가 매장주체부 내부에 함몰된 상태였다.

56호분의 조사 사례와 지표상에 노출된 석재들을 통해서 적석석곽분임을 추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지표상에서 확인된 봉분의 주방향을 따라서 기준 독을 설치하고 기준 독과 직교되게 5m 간격으로 3개의 단축 방향의 독을 설정하였다. 독의 너비는 80cm로 설정하였고, 독에 연접하여

너비 50cm의 트렌치를 설정하였다. 트렌치 조사를 한 결과, 약 10cm 아래에서 10~30cm 정도 크기의 할석들이 확인되었다. 트렌치에서 확인된 할석을 기준으로 봉분 전체의 표토를 제거하자 10~60cm의 크고 작은 할석이 확인되었다. 1차 노출된 상태에서 봉분의 중간지점에서 연접양상이 확인되었다. 연접부의 할석은 10~30cm 정도 크기로 전체 봉분에 사용된 할석에 비해 비교적 작은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1호분에서 2개의 봉분이 확인되어 남쪽에 위치한 봉분을 1-1호, 북쪽에 위치한 봉분을 1-2호으로 각각 명명하였다. 1-1호분과 1-2호분의 선후관계는 연접부에 대한 트렌치 조사와 1-1호분의 매장주체부와 1-2호분의 매장주체부의 위치에서 확인하였다. 트렌치 조사에서 봉분석의 축조된 양상을 보면, 1-1호분의 봉분석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경사지게 놓여져 있는데, 그 상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경사지게 놓여진 봉분석이 덮고 있었다. 그리고 1-1호분의 매장주체부 위치를 볼 때, 주곽과 부곽이 위치하는 공간이 협소하여 1-2호분의 봉분과 중복되고 있었다. 1-1호분의 매장주체부와 1-2호분의 매장주체부의 높이 차이를 보면, 1-1호분의 매장주체부가 약 1.5m



〈사진 2〉 구암동고분군 1호분 봉분 조사(①:조사전, ②:Tr 조사, ③:1차 노출, ④:봉분석 제거)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의 중복관계에서도 1-2호분의 봉분 적석이 1-1호분의 봉분 적석 상부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상의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1-1호분이 1-2호분보다 선축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트렌치 조사와 병행하여 봉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봉분에 형성되어 있는 사질점토는 암갈색의 거칠고 점성이 약한 편이다. 하지만 개석 상단면에서 약 20cm 두께로 덮여 있는 점토는 단단하였다. 그래서 개석에 대한 밀봉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 봉분 조사의 기준면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봉분 구성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양상은 큰 돌을 놓고 그 사이를 작은 할석과 흙을 사용하여 메우는 방식으로 봉분을 조성하였다.

1-1호분의 봉분 남쪽부분에 잇대어 1-3호가 축조되었으나, 최초 교란이 심하여 봉분의 형태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보완조사에서 1-3호 석곽 바닥면에서 1-1호분의 적석렬이 확인되어, 1-1호분과 1-3호분의 선후관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1호분의 봉분 전체 규모는 길이 22.0m, 너비 11.4m, 잔존 높이 7.6m이다. 평면형태는 표형(瓢形)이며, 주축방향은 북동-남서향이다. 1-1호분의 봉분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4m, 높이 4.4m이며,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다. 1-2호분의 봉분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0m, 높이 2.9m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1-3호분의 봉분 규모는 직경 7.2m, 높이 3.5m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1호분에서 확인된 매장주체부는 수혈식 석곽묘 7기이며, 1-1호분에 3기, 1-2호분에 3기, 1-3호분에 1기가 확인되었다.

2) 매장주체부

(1) 1-1호분

1-1호분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경사진 지형을 일부 정지를 한 후, 수혈식 석곽묘를 지형과 직교되는 방향으로 주·부곽을 '11자' 형태로 배치하였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610cm, 너비 84cm, 깊이 110c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60°-W이다. 주곽의 상부에서 6매의 개석

이 교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개석의 규모는 길이 100~120cm, 너비 30~90cm, 두께 12~25cm 정도이다. 부곽은 조사전 이미 동쪽 부분이 개석부까지 도굴로 인해 교란되었고, 서쪽 부분은 수목에 의해 교란되었다. 부곽의 규모는 길이 480cm, 너비 77cm, 깊이 110c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 방향은 N-60°-W이다. 개석은 5매가 교란된 상태로 확인되었다. 개석의 크기는 길이 100~120cm, 너비 30~90cm, 두께 12~25cm 정도이다. 1-1호분의 매장주체부 남쪽에 배장곽이 확인되었는데, 봉분의 외곽에 잇대어 축조된 수혈식 석곽묘이다. 규모는 길이 268cm, 너비 56cm, 깊이 74c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70°-E이다. 개석은 할석재 판석 6매가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90~100cm, 너비 30~60cm, 두께 10cm 정도이다.

적석부는 크고 작은 할석을 이용하였으며, 적석 사이에는 자갈과 흙을 섞어서 적석 봉분을 견고히 하였다. 적석 상부에는 흙을 덮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봉분의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4m, 높이 4.4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사진 3〉 구암동고분군 1-1호분 조사 전경(①) 및 세부(②:주곽 유물, ③:부곽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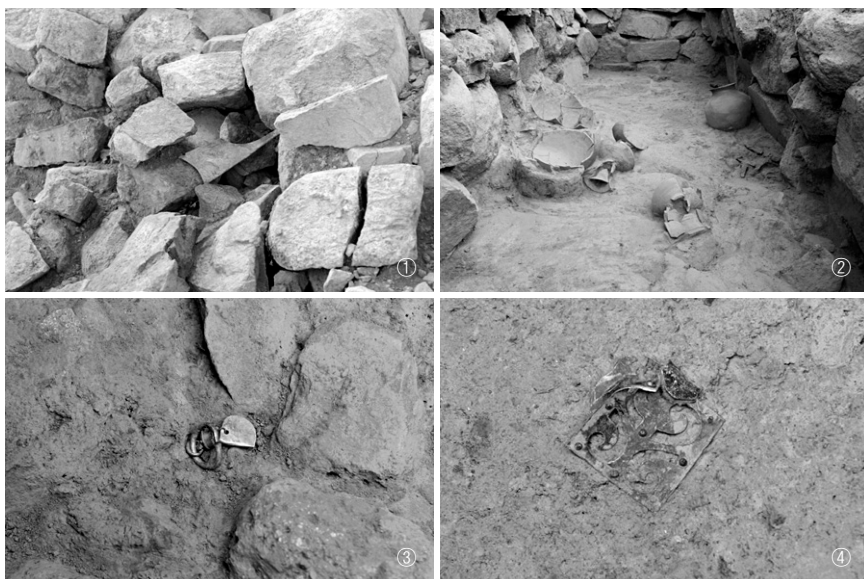
(2) 1-2호분

1-2호분은 1-1호분의 북동쪽에 잇대어 축조하였는데, 주곽과 부곽이 위치하는 곳만 일부 정지한 후 수혈식석곽묘를 '11'자 형태로 배치하여 주·부곽을 축조하였다. 주곽의 규모는 길이 516cm, 너비 86cm, 깊이 153c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50°-W이다. 벽석을 축조할 때 석재들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점토반죽을 사용하였다. 주곽에는 4매의 개석이 확인되었는데, 규모는 길이 153~195cm, 너비 52~163cm, 두께 8~26cm 정도이다. 부곽은 주곽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닥의 높이가 주곽보다 80cm 정도 높다. 부곽의 규모는 길이 510cm, 너비 86cm, 깊이 120c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주곽과 동일한 N-50°-W이다. 주곽과 동일한 방식으로 벽석을 축조한 흔적이 확인되었다.

부곽의 개석은 6매가 확인되었다. 개석의 규모는 길이 112~160cm, 너비 60~145cm, 두께 12~35cm 정도이다. 주곽과 부곽의 개석 상단에는 25cm 정도 두께의 점토와 15cm 내외의 할석을 같이 사용하여 개석의 상부



〈사진 4〉 구암동고분군 1-2호분 조사 전경(①) 및 세부(②:밀봉토, ③:벽석 세부)



〈사진 5〉 구암동고분군 1-2호분 세부 ①:은제 관식, ②:토기류, ③:세환이식, ④:은제 대금쪽

와 개석과 개석 사이를 밀봉하였다. 석곽의 최상단석과 개석 사이에는 벽면 축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점토 반죽을 사용하여 서로 밀착되게 하였다. 1-2호 매장주체부의 북쪽에서 매장곽이 확인되었는데, 호석의 북쪽면에 잇대어 축조되었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280cm, 너비 40cm, 깊이 40c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1-2호의 매장주체부와 동일한 N-50°-W이다.

적석부의 적석 방식은 1-1호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봉분의 규모는 길이 12.0m, 너비 11.0m, 높이 2.9m이며,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3) 1-3호분

1-3호분은 1-1호분의 남서쪽에 연결된 적석분이다. 1-1호분의 남서쪽 봉분 일부를 절개한 후 잇대어 축조하였다. 매장주체부는 수혈식석곽묘이다. 석곽의 규모는 길이 362cm, 너비 80cm, 최대 잔존깊이 114cm 정도이며, 평면형태는 세장방형이며, 주축방향은 N-57°-W이다. 조사전 이미 상부는 교란으로 인해 봉분이 모두 유실되었고, 개석 3매가 석곽 서쪽 내부로 함몰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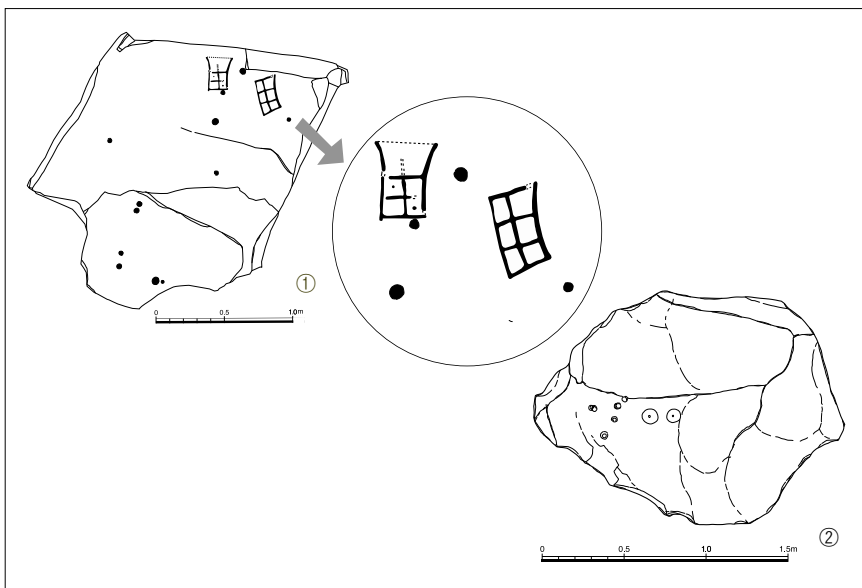
채 노출되어 있었다. 개석의 규모는 길이 90~110cm, 너비 40~60cm, 두께 15~30cm 정도이다. 적석부의 적석 방식은 1-1호와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봉분의 규모는 직경 7.2m, 높이 3.5m 정도이며, 평면 형태는 원형이다.



〈사진 6〉 구암동고분군 1-3호분 조사 전경

3) 암각개석

암각개석은 구암동1호분 3기의 연접분 중 1-2호분 주곽의 개석에서 확인되었다. 1-2호분 주곽의 상단에는 모두 4매의 개석이 덮렸으며, 서쪽으로부터 2번째 및 4번째 개석에서 검파형 암각, 원형 암각, 성혈 등의 암각이 확인되었다. 4번 개석은 내측 표면에서 성혈과 일월 표식으로 추정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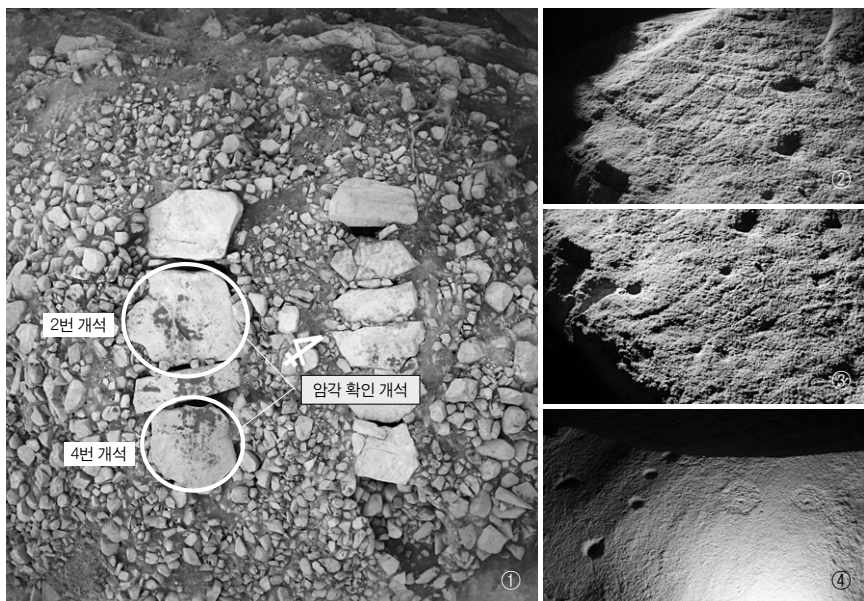


〈도면 3〉 1-2호분 주곽 2번(①) 및 4번 개석 평면도(②)-성혈 및 검파형 암각

원형 암각이 확인되고, 2번 개석은 외측 표면에서 다수의 성혈과 검파형 암각 2면이 확인되었다.

2번 개석은 규모가 길이 193cm, 너비 173cm, 두께 14~24cm이다. 부정형의 조립사암질계열의 석재이다. 개석 상면(무덤축조당시 기준)의 가장자리에 검파형 암각 2면이 확인된다. 검파형 암각은 가로 23~27cm, 세로 13cm, 깊이는 1mm 내외이다. 개석의 전체에는 직경 2~5cm 크기의 성혈 12개가 확인된다. 이 중 2개의 성혈은 천공 후 마연되었고, 나머지는 천공하여 표시만 하였다.

4번 개석은 규모가 길이 190cm, 너비 140cm, 두께 16~20cm인 부정형의 조립사암질계열의 석재이다. 개석의 내면, 즉 석곽 동측 4번 개석 천정 면에 장벽 쪽으로 치우쳐 고타하여 원형 암각이 되어있고, 근접하여 4개의 성혈이 열을 지어 배치되어 있다. 일월로 추정되는 원형 암각은 좌측이 직경 7cm, 우측 6.5cm이며 깊이는 1mm 내외이다. 원형 암각의 가운데 약간 더 깊이 패여 있는 중심점이 표현되었다. 성혈은 직경 3cm내외,



〈사진 7〉 구암동고분군 1호분 암각 개석 위치(①) 및 세부(②·③: 2번 개석 암각, ④: 4번 개석 암각)



〈사진 8〉 구암동고분군 1호분 조사후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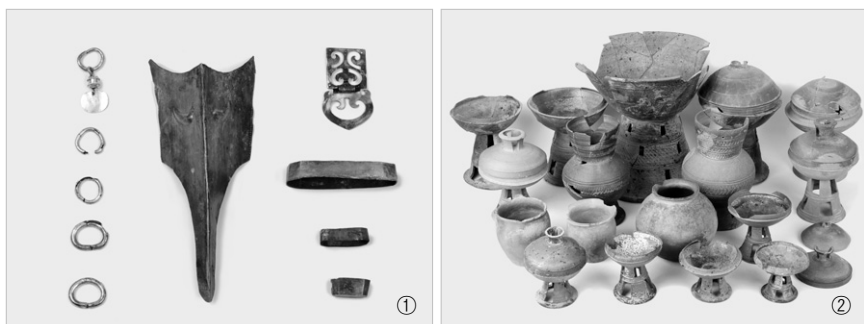
깊이 1cm 정도이며, 성혈1은 천공 후 마연되었고, 나머지는 천공하여 표시만 하였다.

3. 출토유물

1) 장신구

은제의 翼型冠飾이다. 구암동1-2호분 출토 은제관식은 나비날개형에 해당한다. 중앙의 접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가 대칭된 형태이며, 출토 당시 접히는 부분이 우그러져 있어 접혔던 각도는 알 수 없다. 신부 아래에서 1/3 정도부터는 가장자리에 2조로 타출을 하여 점열문이 새겨져 있으며, 상위 대칭으로 곡옥 모양의 문양이 타출되어 있다. 삼국시대 신라 중앙의 경주 황남대총북분 출토품과 신라 지방으로는 의성 대리리 49-1호분 출토품과 유사한 형태이다.

금동제 세환이식 5점이 출토되었으며, 1-2호분 출토 세환이식은 수하식이 연결된 형태이다. 1-2호분 세환이식은 중간식이 소환과 각목대 2조 등



〈사진 9〉 구암동고분군 1호분 출토 유물(①:장신구류, ②:토기류)

을 조합하여 만든 원통형 장식으로 5세기 후반이후에 크게 유행하는 형태이다. 수하식의 문양은 원형에 가깝다. 5세기 후반이후 경주 황남대총 북분을 비롯한 지방 수장급묘에서 주로 확인된다.

2) 토기

구암동고분군 1호분에서는 모두 236점의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기종은 일단투창고배와 이단투창고배, 발형기대와 대부장경호, 단경호와 장경호, 개와 같은 경질토기류가 주를 이루며 연질옹을 비롯한 연질토기류도 낮은 빈도로 포함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시간성과 지역성의 분석이 용이한 것이 이단투창고배이다.

이단투창고배를 살펴보면,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와 이단각의 이단투창고배로 구분된다.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는 기고가 20cm 이상의 비교적 크기가 큰 편이며, 대각은 상위에서 하위로 직선적으로 벌어지는 형태로, 장방형 또는 방형의 투창이 상하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다. 중위에는 무문, 파상문, 사격자문이 시문되어 있다. 배신에도 무문이 대부분이지만 사격자문이 시문되는 경우가 있다. 이단각의 이단투창고배는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보다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대각에는 장방형 또는 제형에 가까운 투창을 상하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다. 소위 경주양식의 고배로 볼 수 있는 기종이다.

구암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상을 살펴보면, 삼단각의 이단투창고배의 출토량이 많은 점이 특징이다. 이 기형의 고배는 기고가 20cm 이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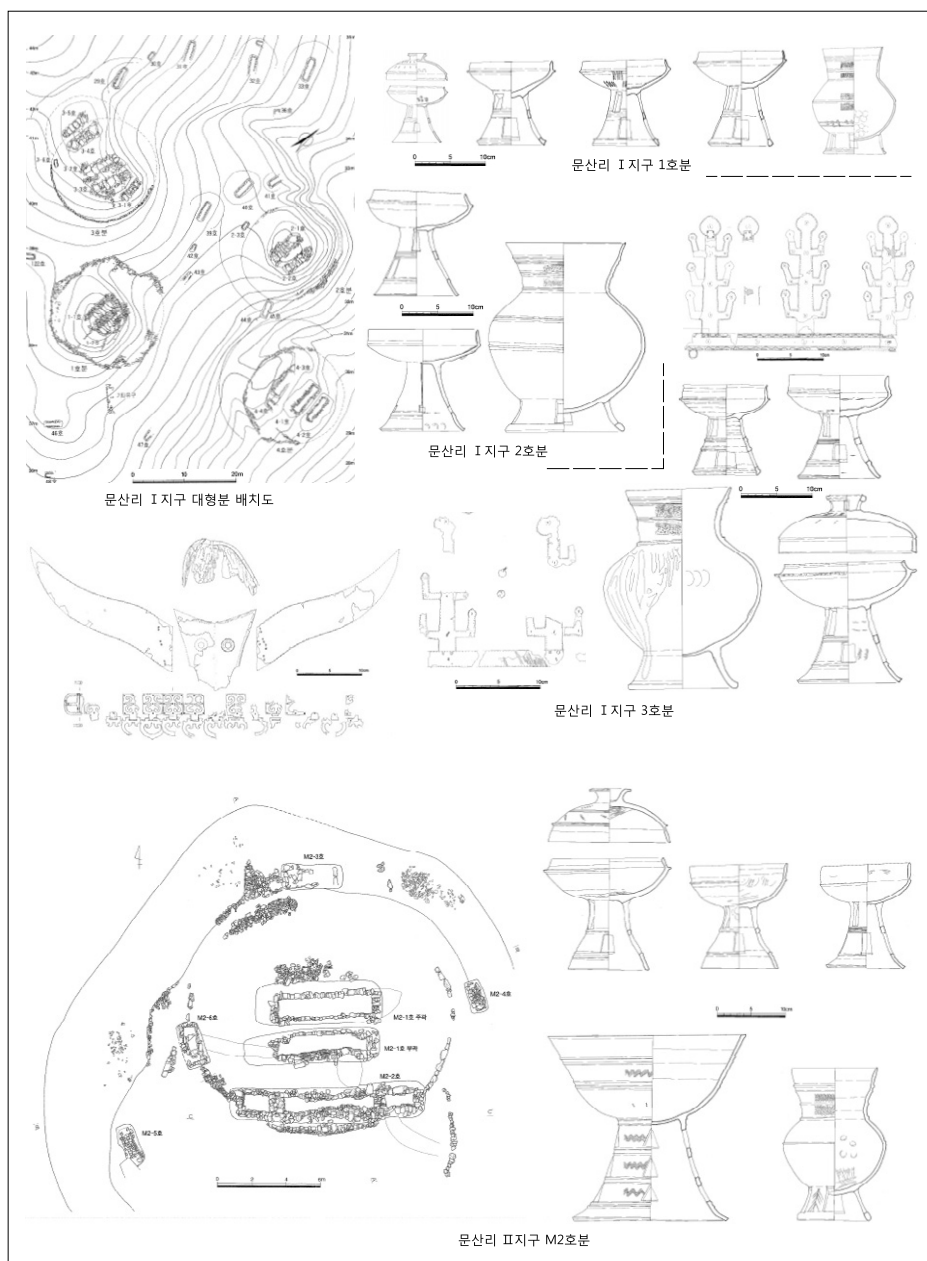
로 크고 대각의 중위와 배선에 사격자문 또는 파상집선문과 같은 문양이 시문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배는 칠곡지역의 지역색이 강한 고배로 파악할 수 있다. 구암동고분군에서 출토되는 토기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보아 고분군의 축조시기는 대체로 5세기 중·후반에서 6세기 초반으로 편년된다.

Ⅲ.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구암동고분군 1호분에서 확인된 유구는 3기의 봉분과 7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239점, 금속류 97점, 옥석류 3점 등 총 339점이다.

구암동고분군의 구조는 석곽을 덮은 봉분은 모두 적석분이며, 매장주체부는 석곽으로 짜여진 전형적인 적석석곽분이다. 이러한 적석석곽분은 낙동강 중류역의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구조이다. 하지만 구암동고분군 1호분처럼 주·부곽이 '11'자 형태로 배치되는 구조는 낙동강 중류역의 고분군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낙동강 중류역에 위치하고 있는 달성 문산리고분군(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2004, 영남문화재연구원 2005), 달성 죽곡리고분군(대구대학교박물관 2002)에서 주·부곽의 배치가 '11'자 형태로 되어 있다. 이렇게 '11'자형의 주·부곽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 고분들은 고분의 규모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그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장급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암각개석은 구암동1호분 3기의 연접분 중 1-2호분 주곽에서 확인되었다. 1-2호분 주곽의 상단에는 모두 4매의 개석이 덮였으며 서쪽으로부터 2번째 및 4번째 개석에서 성혈, 원형암각, 검파형 암각 등이 확인되었다. 고분의 개석에 암각이 확인되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의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도면 4〉 달성 문산리고분군 유구 및 유물

Ⅳ. 맺음말

구암동고분군 56호분 발굴조사 이후 40년만에 조사된 구암동고분군 1호분 조사결과는 유구는 3기의 봉분과 7기의 수혈식 석곽묘가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 239점, 금속류 97점, 옥석류 3점 등 총 339점이다.

구암동고분군의 구조는 석곽을 덮은 봉분은 모두 적석분이며, 매장주체부는 석곽으로 짜여진 전형적인 적석석곽분이다. 이러한 적석석곽분은 낙동강 중류역의 고분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특이한 구조이다. 주변의 유적과 비교해 보면 '11' 자형의 주·부곽의 배치를 가지고 있는 고분들은 고분의 규모와 출토유물을 통해 볼 때, 그 지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장급의 무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1-2호분 주곽에서 확인된 개석의 성혈, 원형암각, 검파형 암각은 고분의 개석에서 확인되는 것은 드문 경우로서 우리나라 암각화 연구의 새로운 자료를 확보한 점에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향후 보고서 작성에 있어 본 발굴조사 결과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적석석곽분의 축조방법 및 구조에 대한 이해와 주변의 발굴조사된 자료 및 연구성과를 비교하여, 대구 지역의 고분 연구에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김지영 · 최규진

영남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조사내용

III. 조사성과 검토

1. 유구

2. 유물

3. 중심조업 및 유통

IV. 맺음말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김지영 · 최규진*

I . 머리말

유적이 위치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신매동 57번지 일원은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된 공사구역에 해당한다. 특히 이 일대는 문화유적분포지도상 중산동 고분군의 북쪽 범위 끝자락에 포함되어 매장문화재가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구역으로 알려져 왔다. 때문에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기 전 표본조사를 시행(대구광역시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10196호, 2015.8.24.)하도록 조치되었고, 이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해 도로건설공사구역에 대한 매장문화재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전기대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다.

조사 진행 과정에서 유적이 확인되는 층이 중복(상층:적심건물지 조성, 하층: 기와가마 조성)되어 확인되었고, 당초 표본조사를 통해 수립된 계획보다 유구 및 유물의 수량이 많이 확인되었다. 이에 발굴조사 연장신청 후 조치를 받아 조사를 완료하였다. 조사기간 중 학술자문회의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학술자료로서의 가치를 평가받았다.

유적이 위치한 신매동은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뜻으로 신기(新基)라 불리웠고 옛날부터 있던 마을은 신기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서 내매(內梅)라고 불렸다. 그 후 1914년에 신기와 내매를 합쳐 신매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 영남문화재연구원

신매동이 속한 시지지구(新市街地)는 대구시 택지계획의 일환으로 개발된 신시가지(新市街地)이다. 본래 시지지구는 행정구역상 경산군 고산면에 속해 있다. 1981년 7월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고산면이 대구직할시에 편입되었다. 시지지구 지명의 유래는 시지동의 유래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과거 이 지역은 서울-안동-대구-경산-청도-부산을 잇는 국도가 통과하는 중요한 교통요지로서 시지원(時至院)이라는 원(院)이 설치되어 있었다. 현재의 시지동이라는 동명은 이러한 시지원에서 유래하였으며, 시지지구라는 명칭도 과거의 중요한 역사적 배경을 통해 현재 명명되고 있다.

고산은 삼국시대 신라에 복속되기 이전에는 압독국(押督國)의 일부였다. 압독과 압량은 경산의 옛지명으로, 이 지역에 있었던 소국의 이름에서 비롯되어 군명(君名) 및 주명(州名)으로 사용되었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의하면, 경산지역에 압독국 또는 압량소국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三國史記』신라본기에는 파사왕 23년(102년)에 압독국이 스스로 항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4년뒤 사로국의 파사왕이 이 지역을 진흥하기 위하여 1월부터 3월까지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일성왕 13년(146년)에 사로에 반기를 들었으나 평정되고 잔존세력들은 남쪽으로 옮겨졌다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압독국이 대체로 2세기 초에 사로국에 복속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전기의 건물지와 기와가마가 확인되었는데, 동쪽에 기 조사된 대구 중산동 건물지유적¹⁾(현재 사월동 이마트부지)의 조선시대 적심건물지 4기를 비롯한 다수의 생활유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남동쪽 800m 정도 떨어져 경산 옥산동 300번지유적²⁾에서는 조선시대 후기 기와가마를 비롯한 청동기시대 이후의 다수 유적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1) (財)嶺南文化財研究院, 2004, 『慶山 中山洞 建物址遺蹟』

2) (財)嶺南文化財研究院, 2011, 『慶山 玉山洞 300番地遺蹟』

Ⅱ. 조사내용

유적은 해발 64m 정도의 구릉 정상부에서 북쪽으로 20m 정도 길게 이어지는 능선 말단부에 위치한다.

조사는 도로건설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사 결과 조선전기대에 조업이 이루어진 기와가마 3기와 적심건물지 1기가 확인되어 조사하였고, 유구 내부에서는 가마의 연대를 알 수 있는 평기와와 분청사기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1. 유구

구릉 정상부에서 뺀내려온 북쪽 능선 말단부에서 기와가마 1~3호가 조성되어 있었고, 적심건물지는 기와가마 2호의 연소실 상부에서 중복되어 확인되었다.

1) 기와가마

총 3기가 확인되어 조사하였다. 구릉 남쪽 사면부 해발 61~63m 선상에 위치하며, 등고선과 직교한다. 가마는 모두 구릉의 경사면을 터널식으로 뚫어 지중에 축조한 지하식 구조이다. 평면형태는 훼손이 심한 3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형이다. 또, 아궁이와 연소실의 단면형태는 수직연소형, 소성실과 연소실 사이에 수직에 가까운 90cm 정도의 단벽을 설치하였으며, 소성실 바닥에는 아무런 시설이 없는 유계무단식의 구조이다. 가마의 조업 횟수는 연소실-아궁이-요전부-회구부에 이르는 토층의 재층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데, 1호의 경우 최소 5회 이상의 조업이 이루어졌다.

〈표 1〉 기와가마 제원표

호수	주축방향	전체 길이 (cm)	요전부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연도	단벽 높이 (cm)	아궁이 축조 방법
			길이 (cm)	너비 (cm)	단면 형태	너비 (cm)	길이 (cm)	너비 (cm)	길이 (cm)	최대 너비 (cm)	깊이 (cm)	경사도 (°)			
1호	N-51°-E	1,110	120	160	U자형	90	240	240	693	210	90	20°	유실	93	石, 기와 + 점토

호수	주축방향	전체 길이 (cm)	요전부		아궁이		연소실		소성실				연도	단벽 높이 (cm)	아궁이 축조 방법
			길이 (cm)	너비 (cm)	단면 형태	너비 (cm)	길이 (cm)	너비 (cm)	길이 (cm)	최대 너비 (cm)	깊이 (cm)	경사도 (°)			
2호	N-43°-E	1,030	120	140	U자형	80	230	180	696	240	100	19°	유실	70	기와 + 점토
3호	N-53°-E	1,180	110	100	U자형	60	190	140	(300)	160	100	26°	유실	62	점토

2) 적심건물지

조사대상지 내 중앙부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구릉 북쪽 사면부 해발 62m 선상에 위치하며, 가마 2호와 중복되었다.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잔존하는 적심을 기준으로 정면 3칸×측면 2칸이다. 적심은 8개만 확인되었으며, 북쪽이 삭평이 된 것으로 보아 더 있었을 가능성도 보인다. 적심간 거리는 220~235cm로 등간격을 이룬다. 주축방향은 N-45°-W이며, 규모는 (동-서)잔존길이 780cm, (남-북)너비 510cm이다. 적심 규모는 직경 75~100cm, 깊이 20cm이며, 내부는 25cm 미만의 할석으로 채웠다.

〈표 2〉 적심건물지 제원표

호수	평면형태	규모(cm)		면적(m²)	구조		출토유물	비고
		길이	너비		정면	측면		
1	장방형	780	510	40	3	2	자기편, 수키와편	적심 8개

Ⅲ. 조사성과 검토

1. 유구

1) 입지 및 축조순서

가마 내부에서 출토된 유물은 모두 조선시대 전기의 것으로, 기와가마 3호의 연도와 2호의 연소실을 덮고 있는 층(적심건물지의 기반층)에서 적심 건물지와 기와가마 1호가 구성되어 있는 점, 유적의 동쪽 기준토층상에서

확인되는 회구부의 층위로 보아 유구의 축조순서는 (先)3호>2호>1호는적심건물지(後)로 판단된다.

2) 기와가마의 구조³⁾

① 연도부

훼손이 심하여 가마 1·3호의 연도는 흔적만 확인되나 축적된 자료를 통해볼 때 소성실 후벽으로 갈수록 급격히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마 2호의 경우 돌출된 연도가 확인되며, 구조는 소성실 끝단에서 ‘ㄴ’ 자형으로 오르고 있다.



〈삽도 1〉 연도 세부

② 소성실

소성실은 기와를 적재하여 소성하는 가마의 중심부분이다. 유적에서 확인되는 가마의 소성실 평면형태는 훼손되어 확인이 어려운 3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제형이다. 소성실의 바닥면에서는 아무런 시설이 확인되지 않는다. 요상경사도는 20° 정도로 비교적 급경사이며, 평면형태는 소성실 후벽이 말

3) 기와가마의 구조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 진행된 바 있다.

이 훈, 1996, 「와요의 구조변천 연구」, 공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성진, 2004, 「조선전기 경남지역 와요 및 평기와의 전개양상」,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헌민, 2013, 『영남지방 와요의 구조변천 연구』 등 다수.

각형태로 좁아지는 가마 2호의 바닥에서 기와편을 전체적으로 편평하게 깔아놓았는데, 이 용도는 조업시 기와의 적재 또는 가마 바닥과 기물이 뜨거운 온도에 의해 불지 않게 하기 위한 이상재(離床材)의 역할⁴⁾도 한 것으로 보인다.



〈삼도 2〉 소성실 세부

③ 연소실

연소실은 땀감을 쌓아 불을 지피는 곳으로 연료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연소실의 평면형태는 반원형을 띠며 무단식 구조로 그 깊이는 1.7m 정도로 매우 깊으며, 다른 시기에 비해 너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아궁이와 연소실의 연결 단면상태는 외고내저형의 한 형태인 수직연소형 구조⁵⁾를 띤다. 소성실과 연소실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90cm 정도의 비교적 높고 수직에 가까운 단벽이 구축되어 있다. 단벽은 생토면을 굴착하여 사용하다가 그 위에 기와를 덧대고 점토를 발라서 보수하여 사용한 방식(1호)이 확인되었다.

4) 여기서 離床材의 가장 큰 기능은 기와가 가마바닥부와 직접 닿아 용착되는 것을 막는 것은 물론窯内の 열기가 기와 전면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5) 수직연소형 구조는 토기가마 자료를 볼 때 원삼국~삼국초기라는 특정시기, 마한-백제권역이라는 특정지역에만 집중되어 조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활발한 조사에 의해 축적된 자료를 보면 조선시대 전시기 기와가마 구조의 큰 특징으로 보여진다.



〈삼도 3〉 연소실 단벽 세부

④ 아궁이

연료의 공급 및 기물의 출납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마의 입구에 해당한다. 돌, 기와 또는 할석+점토를 이용하여 구축⁶⁾한 흔적이 1호에서 확인된다. 아궁이 부분의 너비는 90cm 정도이다.



〈삼도 4〉 아궁이 세부

⑤ 요전부

요전부는 번조와 소성제품의 반출입 및 적재 등의 작업을 위해 확보된 공간이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이며 가마의 장축방향과 동일하게 축조되었다. 요전부에서 회구부로 이어지는 부분에 가마 장축방향과 동일하게 수키와를

6) 이상준, 2000, 「생산고고학의 연구성과와 과제 「삼국시대 가마(窯)를 중심으로」 『제4회 부산북천박물관 학술발표회 자료』, 부산북천박물관.

金才喆, 2011, 『韓國 古代 土器窯 變遷 研究』, 慶北大學校 文學碩士學位論文.

- 최근까지 아궁이 부분에 적석시설이 된 가마를 '火口積石窯'라 부르고 6세기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신라 고유의 양식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론이었으나 이보다 이른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으로 알려진 대구 신당동 제 1·2호 가마에서 이러한 적석시설이 된 토기요가 확인되어 늦어도 4세기 후반부터 등장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렬로 연결하여 놓은 양상이 1호에서 확인되는데 이는 배수나 송풍의 기능을 한 것으로 추정⁷⁾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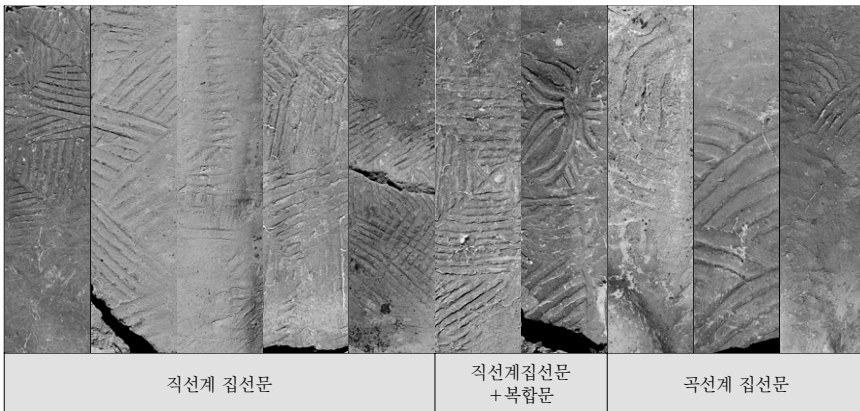


〈삼도 5〉 요전부 와열 비교

2. 유물

유적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66점으로, 조선전기대 기와가마에서 64점, 적심건물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극히 일부 분청사기편도 확인되나, 대부분이 기와인 점으로 보아 가마는 기와 전업가마임을 알 수 있다. 평기와만 확인되며, 대부분 가마 내부 소성실에서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평기와는 모두 와도흔이 양쪽 내측에서 확인되고, 타날판의 길이는 장판이다. 하단 내면 조정방법은 모두 물손질하였고, 그 범위는 5~10cm 이내이

〈표 3〉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 출토 평기와 문양표



7) 이러한 양상은 경주 화천리 산251-1 유적 삼국 5호와 경주 방내리 생활유적 8호에서 유사한 양상이 확인되었다.

다. 길이는 대부분 40~48cm 정도이고, 두께는 2~3cm 정도이다. 또, 수키와는 유단식의 미구기와⁸⁾만 확인된다. 기와의 문양은 집선문(직선계 다수, 곡선계 소수)이 대부분이고, 무문, 복합문 등이 있다.

3. 중심조업 및 유통

유구와 유물의 검토에 기반하여 신매동일원에 있어서 조선전기 기와 조업과 유통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대구 신매동 57번지 유적의 기와가마 구조 속성은 아래 <표 4>와 같이 확인된다.

<표 4> 기와가마 구조 속성분류표

(●:유효, ○:가능성)

호수	축조 위치	연도	소 성 실			연 소 실			아궁이		
			평면 형태			평면형태			단면형태		
			장 타 원 형	제 형	장 방 형	역 제 형	반 원 형	방 형	내외평단형	외고내저형	
										외고내저형	수직연소형
1	지하식			●			●			●	
2	지하식	돌출		●			●			●	
3	지하식			○			●			●	

기와가마의 소성실 평면형태는 훼손된 3호를 제외한 1·2호 모두 제형을 띠고, 연소실의 평면형태는 반원형, 아궁이의 단면형태는 외고내저형으로 확인되는 등 여말선초대에 해당하는 동일한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유구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기와의 문양형태 및 제작속성이 해당시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적 내에서 조사된 기와가마의 연대를 알 수 있다. <표 6>을 통해 신매동 기와가마의 연대를 보정해 보면 14세기 후엽~15세기 중엽으로 한정할 수 있겠다. 또한 주변 유적인 경산 중산지구 건물지유적⁹⁾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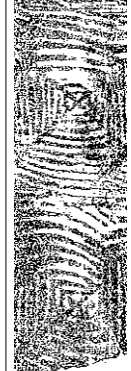
8) 미구기와는 중요한 편년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인숙(2004)은 양양 진전 사지 출토 '천경 3년(天慶三年, 1113)' 銘 기와를 기준으로 고려 중기 이전에는 토수기와가, 이후에는 미구기와가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9) 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경산 중산동 건물지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학술조사보고 제 75책.

서 동일한 제작속성 및 문양형태를 가진 평기와의 출토됨에 따라 신매동 57번지유적 기와가마에서 생산된 기와의 유통관계를 밝히는데 핵심자료가 된다.

소비지로 추정되는 경산 중산지구 건물지유적은 조선시대 건물지유적으로 적심석균, 배수로, 수혈유구, 석렬유구 등이 다수 조사되었다. 그 중 신매동 57번지 유적에서 출토된 기와와 동일한 타날판이 사용된 기와가 출토된 유구는 1구역의 수혈유구, 석렬유구 등이 있다. 수혈유구는 모두 2기가 확인되었으며, 평면형태는 원형과 부정형이며 1호의 경우 내부에 아궁이 시설과 구시설이 갖춰져 있고 2호는 배수시설로 보이는 석렬이 확인되었으며 바닥의 전면에는 와편과 자기편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수혈유구는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5〉 신매 57번지 유적 출토 평기와의 타날문양 비교

문양형태		직선계 사선 집선문			곡선계 호상 집선문	
출토유적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						
대구 중산동 건물지 유적						

〈표 6〉 신매동 기와가마 고고지자기연대¹⁰⁾

유구	고고지자기연대	비고
1호 기와가마	A.D.1640 ± 50년 또는 A.D. 1440 ± 20년	
2호 기와가마	A.D.1365 ± 15년 또는 A.D. 1735 ± 25년	
3호 기와가마	A.D.1375 ± 10년 또는 A.D. 1740 ± 20년	

〈표 7〉 유구 및 유물현황

유 구			출토유물(점)						비고
시대	성격	수량	토도	금속	유리·보석	석	기타	합계	
조선전기	기와가마	3	64	·	·	·	·	64	
	적심건물지	1	2	·	·	·	·	2	
	지표수습	·	·	·	·	·	·	·	
합 계		4	66	·	·	·	·	66	

IV. 맺음말

대구 신매동 기와가마 유적은 (주)중산도시개발에서 추진하는 ‘대구 신매동 57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과 관련된 대호1류46호선 도로건설’과 연관되어있다. 조사결과, 대구 신매동 일대에 조성된 조선 전기대기와 생산유적을 확인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된 유구는 기와가마 3기와 적심건물지 1기로 총 4기이다. 유물은 모두 토도류로 기와와 자기편 등 총 66점이 출토되었다. 유적에서 조사된 기와가마의 연대는 조선 전기대로 판단되는데, 이는 기존 연구된 기와가마의 구조 및 출토유물과 자연과학분석을 통해서 명확히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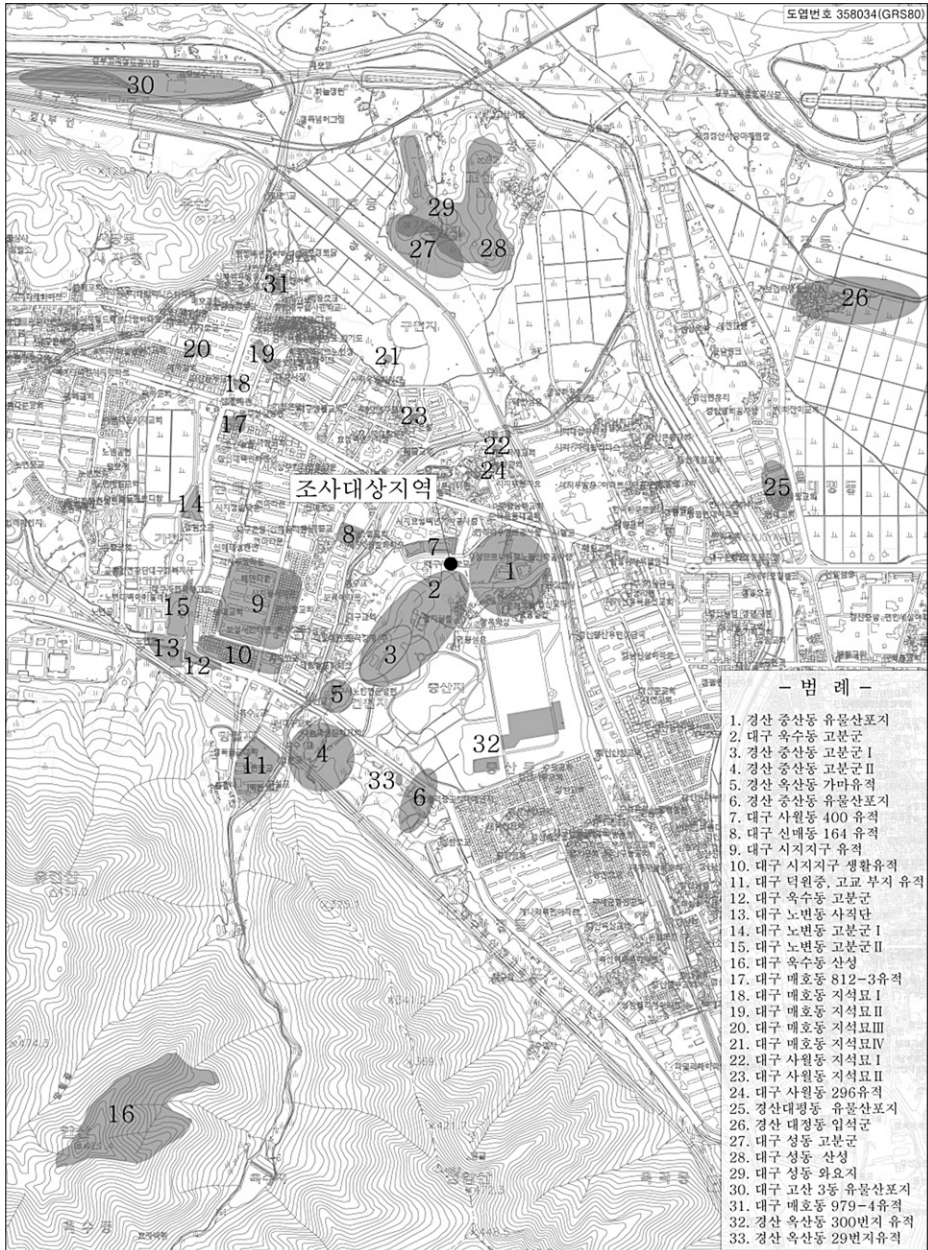
먼저 가마의 구조를 중심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소성실의 축조위치는 모두 지하식에 해당하고, 소성실 평면형태는 제형이다. 아궁이와 연소실의 단면형태는 수직연소형, 그리고 소성실과 연소실 사이에 수직에 가까운 90cm

10) 성형미, 2016, 「대구 신매동 57번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내 유적에 대한 고고지자기학적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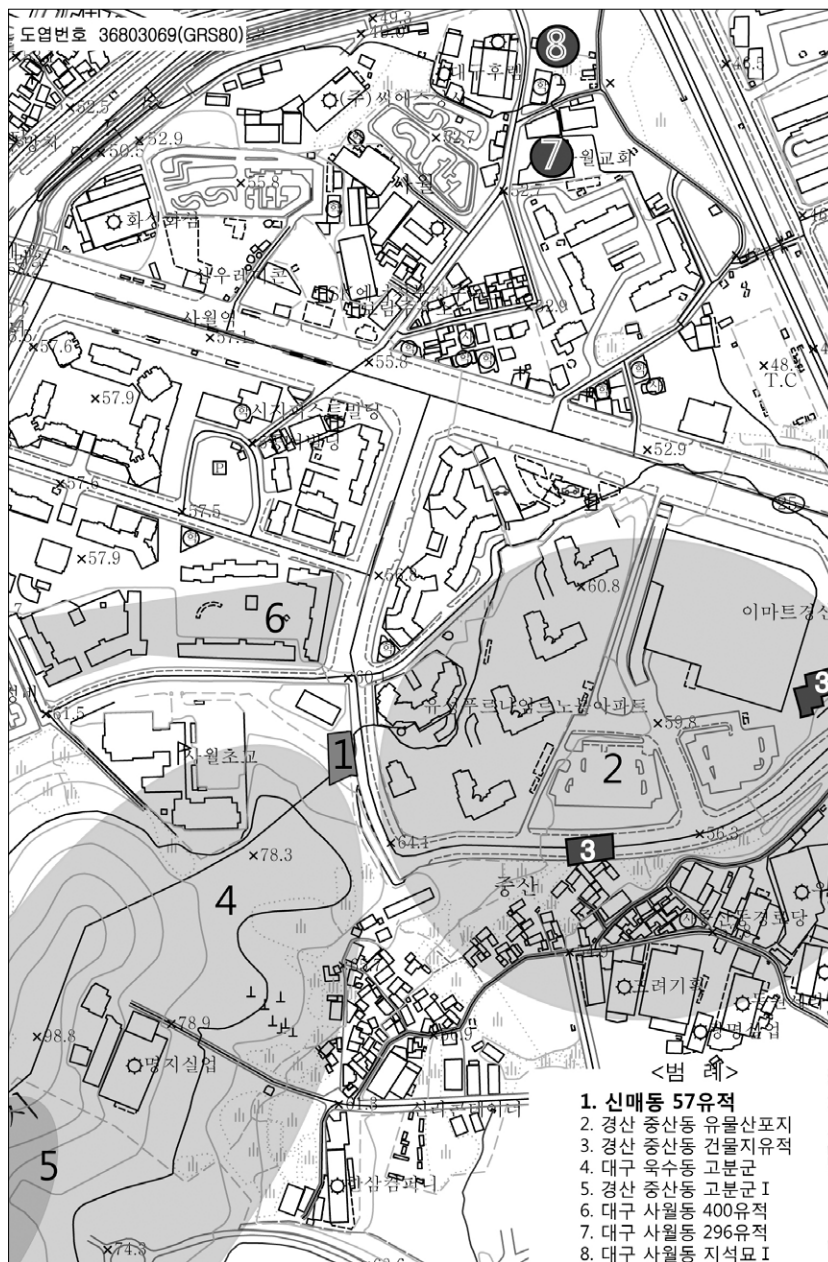
정도의 단벽을 설치하였고, 소성실 바닥에는 단시설이나 기와편을 이용한 시설이 없는 유계무단식의 구조를 보인다. 다음으로 출토된 유물을 살펴보면 평기와와 타날문양은 직선계 사선집선문이 곡선계 호상집선문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출토된다. 이러한 점을 통해 보았을 때 유적에서 조사된 기와가마의 연대를 알 수 있다.

대구 신매동 57번지 유적 주변에는 삼국시대 토기를 생산한 유적 이외에도 고려~조선시대 기와 생산유적 유적 등이 다수 분포해 있다. 이는 이 일대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시지·경산 일대의 토기·기와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외에도 생산된 기와의 수급처를 알 수 있는 유적이 기조사됨에 따라 이 지역 기와의 유통 연구에도 큰 도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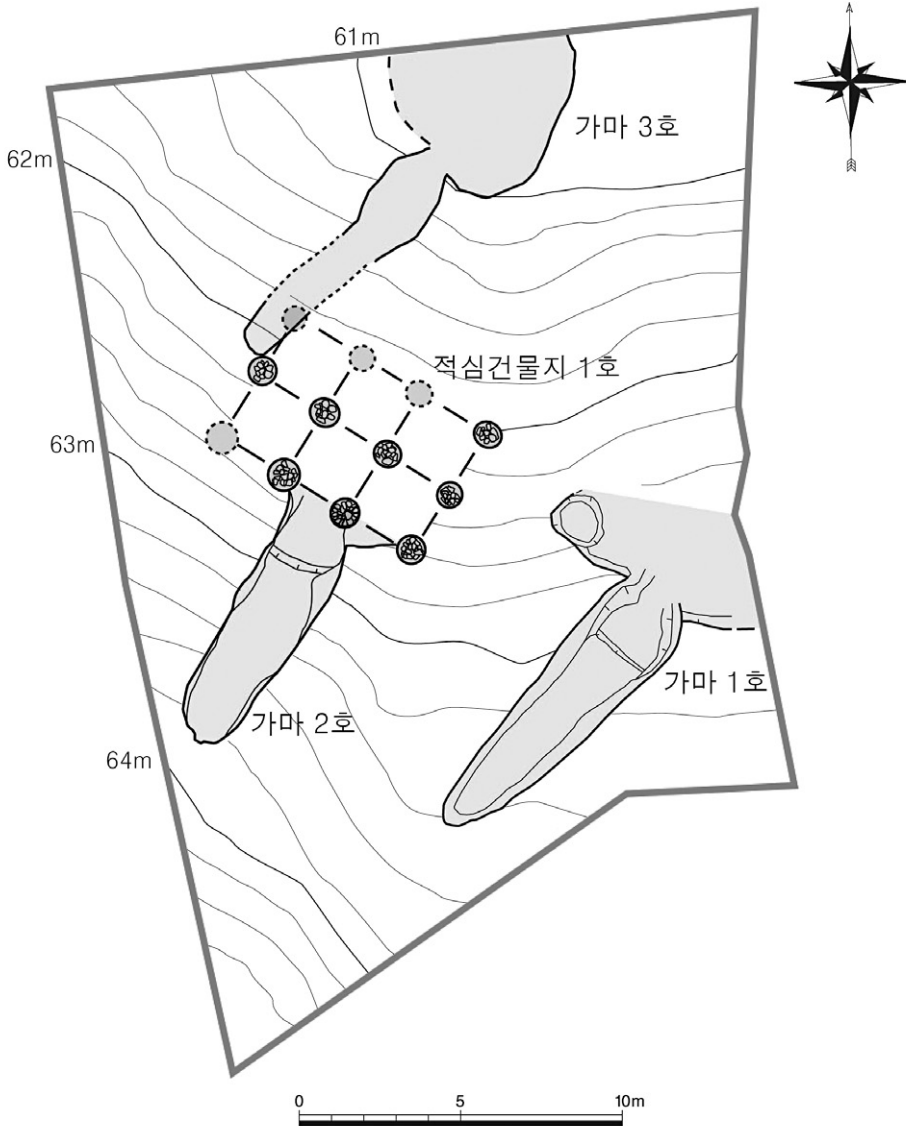
향후 유적의 조사과정 중 확인된 이 지역 일대의 기와 생산과 수급처가 희소적인 가치가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자료를 추가로 수집한다면 대구·경산지역 조선시대 기와의 유통방식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 1〉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S=1:3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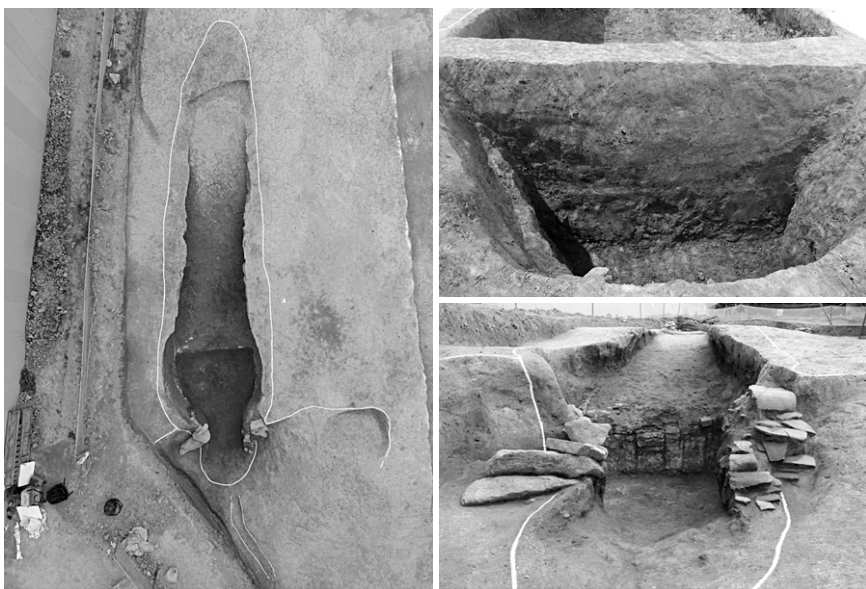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 및 주변유적(S=1: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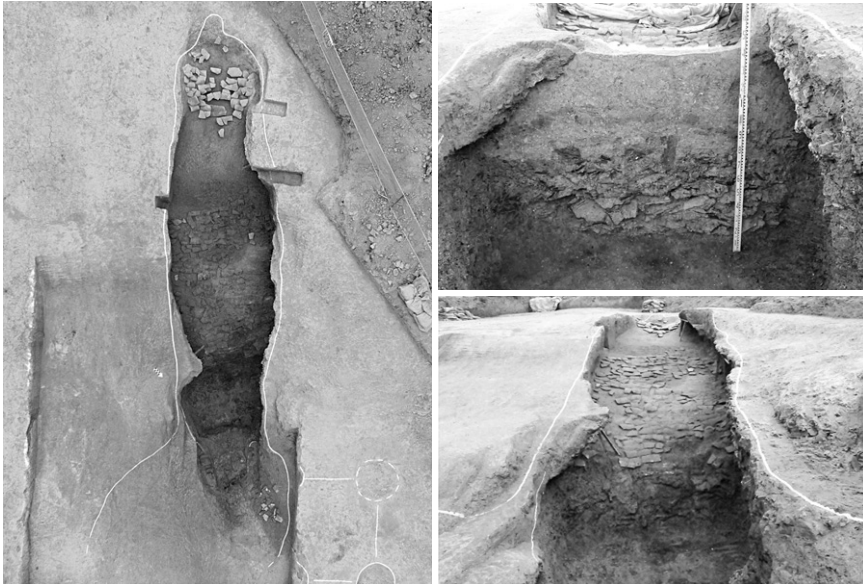
〈도면 3〉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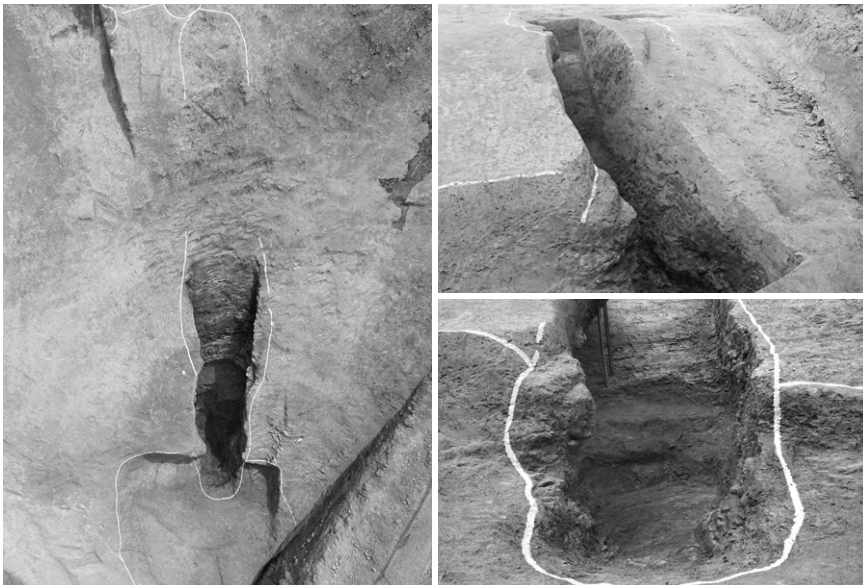
〈사진 1〉 조사구역 전경



〈사진 2〉 기와가마 1호 전경 및 세부



〈사진 3〉 기와가마 2호 전경 및 세부



〈사진 4〉 기와가마 3호 전경 및 세부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이수정 · 권용규

영남문화재연구원

I. 머리말

II. 조사내용

1. 유구에 대한 검토
2. 유물에 대한 검토

III.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1. 고려시대 토광묘와 출토 동경

IV. 맺음말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이수정 · 권용규*

I. 머리말

본 조사는 건축주(백운태)가 추진 중인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일원 단독 주택단지 건립부지에 관한 문화재 발굴조사이다. 건축주(백운태)가 경주시청에 건축허가를 협의한 결과, 사업부지가 문화재지정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이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경주 구정동 유적)에 포함됨에 따라 경주시 문화재과의 매장문화재 시·발굴조사 보완 요구가 있었다(접수번호 2015-5050000-0327270). 이에 건축주는 행정절차에 따라 문화재청의 허가를 득하고(허가번호 제 2016-0042호, 2016. 01. 13.), 영남문화재연구원에 발굴(시굴)조사를 신청하게 되어 2016년 3월 23일부터(실작업일수 5일)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고려~조선시대 분묘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시굴조사(3,168㎡)에서 유구가 확인된 지역(1,680㎡)에 대해 문화재청 부분완료조치 통보(발굴제도과-5113, 2016. 04. 22.)에서 유적이 확인된 잔여 지역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시행하라는 조치가 있었고 이에 발굴(시굴)조사 변경허가를 득(2016. 04. 29)하여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경주시와 구정동 일대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漢 五鳳 원년(BC 57)에 시조 혁거세가 나라를 열어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서야벌(徐耶伐)이라 했다. 혹은 사라(斯羅), 사로(斯盧)라고 부르다가 제 15대 기림왕 10년(307) 신라로 칭하였다. 고려 태조 18년(935)에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

* 영남문화재연구원

왕 김부가 항복해오니, 나라를 없애고 9州的 하나인 경주라 칭하였다. 고려 태조 23년(940)에 승격시켜서 대도독부로 삼았으며, 성종 6년(987) 지방관을 동경유수(東京留守)로 고쳤다가, 14년(995)에 유수사(留守使)로 불러 영동도(嶺東道)에 속하게 했다. 현종 3년(1012)에 지방관을 경주방어사(慶州防禦使)로 하여 강등시키는 등 여러 차례에 개칭이 있었으며, 이 후 충렬왕 34년(1308)에 계림부(鷄林府)로 고쳐 부르기도 하였다. 조선 태종 13년(1413)에 경주부(慶州府)로 개칭되었으며, 세종 때는 진(鎭)을 두었다. 고종 32년(1895)에 동래부 소속의 경주군으로 되었다가 광무 10년(1896)에 대구부(大邱府) 소속이 되었으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해 12개면의 경주군이 되었다. 해방 이후 1949년 안강읍을 포함한 3읍 10개면이 되었다가 1955년 경주시로 승격되었다. 1995년 경주시와 경주군이 통합되어, 현재의 4개읍 8개면이 되었다. 조사대상지역이 위치한 구정동은 예로부터 ‘소정각단’이라 불러 오다가 그 후 이 마을에서 고려와 조선조에 걸쳐 아홉 명의 정승이 배출되었다 해서 ‘구정리(九政里)’라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 경주시는 잘 알려져 있듯이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다종다양한 유적들이 조사되었고, 현재까지도 수많은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조사지역이 위치한 구정동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은 대부분은 고분군으로 그 중에서도 원삼국시대 목관·목곽묘군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죽동리유적,¹⁾ 조양동유적,²⁾ 구정동유적³⁾이 경주방면으로 위치하고, 입실리유적,⁴⁾ 중산리유적,⁵⁾ 구어리유적⁶⁾ 등이 울산방면으로 위치한다. 이 중 경주 구정동유적은 일제 강점기인 1936년(昭和 11년) 동해남부선 철로 공사 중 청동유물이 일괄로 출토되어 그 존재가 알려진 후 긴급수습 조사 등 여러 조사가 시행되었다.

1) 國立慶州博物館, 1998, 『慶州 竹東里 古墳群』.

2) 國立慶州博物館, 2000, 『慶州 朝陽洞遺蹟 I』.

國立慶州博物館, 2003, 『慶州 朝陽洞遺蹟 II』.

3) 國立慶州博物館, 2006, 『慶州 九政洞 古墳』.

4) 朝鮮總督府, 1925, 「南朝鮮に於ける漢代の遺蹟」『大正11年度古蹟調査報告書』第2冊.

5) 昌原大學校博物館, 2006, 『蔚山 中山里遺蹟』.

6) 嶺南文化財研究院, 2011, 『慶州 九於里 古墳群 II -木槨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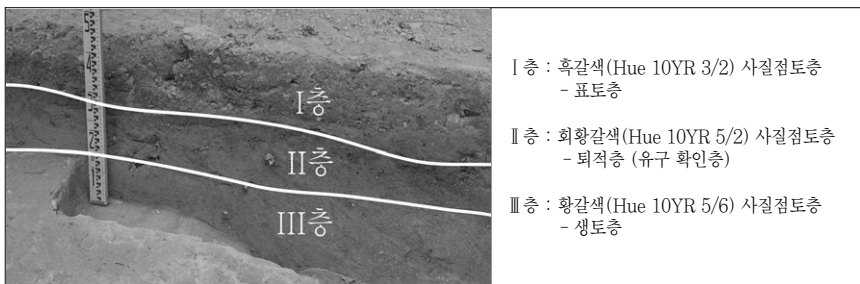
이상으로 구정동 일대는 신라 국가형성 과정과 관련하여 신라 혹은 사로 육촌의 위치 비정에 관계된 곳으로, 신라왕경의 동남부 외곽의 관문성까지 이어지는 군사교통로 상의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조사지역 주변 유적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사지역 주변유적 현황

연번	유적명	시대	성격	비고
1	경주 구정동유적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2	경주 구정동유적Ⅰ	청동기시대	생활	
3	경주 구정동유적Ⅶ	청동기시대	생활	
4	경주 구정동유적Ⅵ	청동기시대	생활	
5	경주 구정동고분군Ⅵ	삼국시대	분묘	
6	경주 구정동유적Ⅷ	청동기시대	생활	
7	경주 구정동고분군Ⅷ	삼국시대	분묘	
8	경주 구정동255-1번지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9	경주 구정동유적Ⅱ	청동기시대	생활	
10	경주 구정동고분군Ⅶ	삼국시대	분묘	
11	경주 조양동고분군Ⅳ	삼국시대	분묘	
12	경주 구정동고분군Ⅰ	삼국시대	분묘	
13	경주 구정동유적Ⅲ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14	경주 구정동유적Ⅺ	청동기시대	생활	
15	경주 구정동유적Ⅹ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16	경주 조양동유적Ⅲ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17	경주 구정동유적Ⅳ	청동기시대	생활	
18	경주 구정동고분군Ⅱ	삼국시대	분묘	
19	경주 구정동고분군Ⅸ	삼국시대	분묘	
20	경주 구정동고분군	삼국시대	분묘	
21	경주 구정동고분군Ⅲ	삼국시대	분묘	
22	경주 구정동고분군Ⅳ	삼국시대	분묘	
23	경주 구정동유적Ⅴ	청동기~삼국시대	생활, 분묘	
24	경주 구정동고분군Ⅴ	삼국시대	분묘	
25	경주 구정동방형고분군	통일신라시대	분묘	
26	경주 마동 경주출토유물 보관동부지 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27	경주 마동 769번지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28	경주 구정동255-1번지유적	청동기시대	생활	

조사지역은 경주 구정리 방형분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넓게 분포한 경주 구정동 유적 내에 위치한다. 지형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가 형성된 능선 정상부와 능선사면에 해당된다. 1993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정밀 지표조사를 실시한 이래로 이 일대에서 무문토기 산포지, 삼국시대 고분군 등 총 28개의 유적이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은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어지는 구릉의 완만한 정상부와 사면부 일대이다. 유구는 조사범위의 정상부와 남서쪽 사면에서 확인되며 표토층 바로 아래에서 고려시대 문화층(분묘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 아래층에서는 청동기시대 문화층(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시굴조사 지역의 능선 정상부와 사면부의 표준층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삽도 1〉 조사지역 표준토층

Ⅱ . 조사내용

1. 유구에 대한 검토

조사지역이 위치한 구릉 정상부에서 사면 아래쪽으로 해발 약 144~130m 정도로 동-서 방향으로 길게 이어지다가 동쪽 구릉 말단부에서 북쪽으로 꺾인다.

금번 조사는 단독주택단지 건립과 관련있으며,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와 고려 토광묘 2기, 시대미상 토광묘 4기가 확인되어 조사하였고, 유구 내부에서는 무문토기발과 마제석촉, 석부, 고려경, 병, 청자 접시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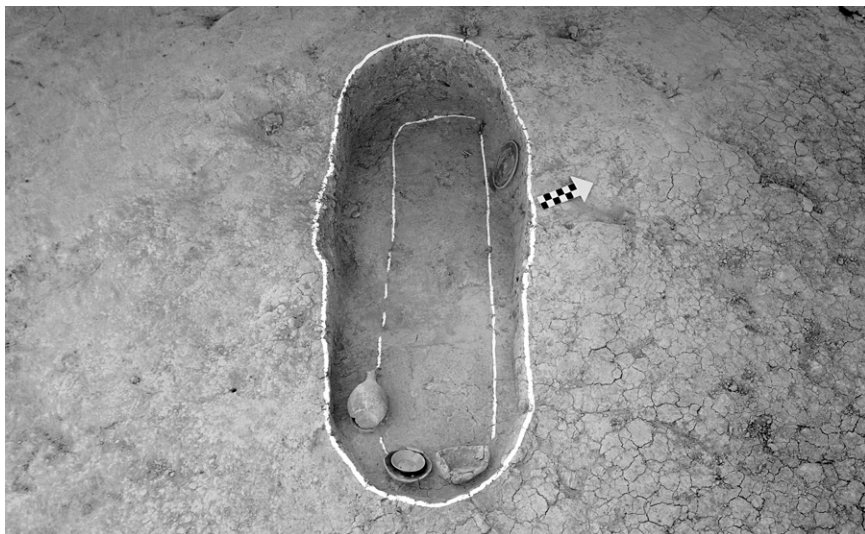
(1) 고려시대 및 시대미상 분묘

고려시대 및 시대미상 분묘는 총 6기로 동쪽 구릉 중앙에서 5기, 서쪽 구릉 중앙에서 1기가 확인되었다. 묘광은 회황갈색암반과 황색풍화암반을 수직으로 굴착하여 조성하였다. 묘광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이며, 장축방향이 1호~5호는 등고선과 직교하며, 6호는 등고선과 평행한다. 묘광의 규모는 길이 212~149cm, 너비 92~28cm이다.

고려시대 토광묘는 2호와 4호로 조사구역의 동쪽 구릉 중앙에 위치하며, 목관을 사용하여 피장자를 안치하였다. 토광묘 2호에서는 북쪽 장벽의 서쪽에서 직경 22.7cm 가량의 동경이 세워져서 확인되었으며 동경 뒤에는 갈대로 추정되는 초본류흔이 확인되었다.

시대미상 분묘는 4기로 조사구역의 동쪽 구릉 중앙과 서쪽 구릉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토광묘 1·3·5호는 등고선 방향과 직교하고 있으나 토광묘 6호는 등고선과 평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축방향은 거의 비슷한 방향을 향하고 있다.

유물은 고려시대 분묘에서 청자 접시, 청자 종지, 병, 동경, 청동합, 청동 집게, 청동손가락,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사진 1〉 고려시대 2호 토광묘

〈표 2〉 고려시대 토광묘 제원표

호수	평면형태	주축방향	묘광규모(cm)			관규모(cm)		출토유물(점)	비고
			길이	너비	깊이	길이	너비		
1호	장방형	N-20°-W	211	88	81	·	·	·	·
2호	말각장방형	N-59°-W	212	90	46	180	44	병(1), 청자 종지(1), 청자 접시(1), 청동순가락(1), 청동합(1), 청동거울(1), 동곳(1), 관정(4)	·
3호	장방형	N-66°-W	(205)	66	46	(175)	51	·	요갱
4호	장방형	N-39°-W	(149)	62	28	(135)	42	청동순가락(1)	·
5호	말각장방형	N-19°-W	182	92	54	136	42	·	·
6호	장방형	N-70°-E	210	70	64	172	43	·	·

2. 유물에 대한 검토

토광묘는 고려시대 토광묘에서만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자기류는 총 3점으로 청자 접시와 청자 종지, 병이 각각 1점씩 확인되었다. 금속류는 총 8점으로 동경, 청동합, 청동집게, 청동순가락, 관정 등이 출토되었다. 특히 토광묘 2호에서 확인된 동경은 매우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다. 동경은 쌍용문운문대경(雙龍文雲文帶鏡)으로 묘광의 북장벽에 세워져 출토되었으며, 원형으로 표면은 청녹색을 띤다. 문양의 구성은 외연인 중속문양대에는

〈표 3〉 고려시대 토광묘 2호 출토 동경과 청주 용암유적II 출토 동경 비교



등간격으로 돌아가며 운문을 배치하였다. 주문양대는 3개의 발가락을 한 2마리의 용이 여의주를 향하여 날아가는 모습을 서로 꼬리를 바라보도록 표현하였다.뉴좌부분은 뉴를 중심으로 중연판문을 돌렸다. 또한 뉴에는 거울을 메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섬유질이 남아있다.

같은 형식으로 청주 용암유적 II-1유적 57호 토광묘⁷⁾에서 출토되었는데 문양의 형식과 직경이 같다. 청주 용암유적II에서는 개원통보, 해동통보, 천성원보, 삼한통보 등 총 5점의 동전들이 공반하였으며 이 중 가장 늦은 시기에 주도된 삼한통보가 1095~1105년⁸⁾에 주도된 것으로 보아 토광묘는 11~12세기경 축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4〉 유구 및 유물현황표

유 구			출토유물(점)						비고
시대	성격	수량	토도	금속	유리·보석	석	기타	합계	
청동기시대	주거지	2	2	·	·	4	·	6	
고려시대	토광묘	2	3	9	·	·	·	12	
시대미상	토광묘	4		·	·	·	·	·	
합 계		8	5	9	·	4	·	18	

Ⅲ.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1. 고려시대 토광묘와 출토 동경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유적 토광묘 2호에서 출토된 동경은 청주 용암유적Ⅱ 출토 동경과 같은 용법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직경이 같으며, 문양구성 또한 동일하다. 이와 같은 문양구성을 가진 동경은 개성에서

7)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청주 용암유적Ⅰ·Ⅱ』.

8) 원유한, 2006, 『한국화폐사:고대부터 대한제국시대까지』, 한국은행 발권국
개원통보(중국, 고려) - 621년~1009년.

해동통보(고려 성종~숙종) - 981년~1105년.

천성원보(송나라 인종) - 1023년~1031년.

삼한통보(고려 숙종) - 1095년~1105년.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동경(덕5110)이 있으며 상기 2개의 동경의 직경이 23cm, 개성출토품은 22.9cm로 거의 동일하며, 문양구성도 같다. 한반도 출토 쌍룡문경은 총 7기가 확인되었으며, 그 중 3기가 개성에서 출토된 동경이다. 문양 구성이 일부 다를 뿐 문양대와 기본구도는 거의 동일하며, 직경 또한 22.9~23.6cm 사이에서 존재한다. 상기와 같은 점을 보면 개성에서 만든 동경을 지방 호족세력에게 하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경은 주조한 후에는 줄로 갈고 숫돌로 다듬고 다시 탄가루로 문지르거나 주석도금을 한 후에 鏡箱을 사용하여 보관하였다. 경상에 넣을 때에는 한지 또는 천과 같은 유기물로 싼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보관하던 동경을 그대로 부장할 때 넣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구정동 출토 동경은 경면과 토광묘 바닥에 접하는 부분에 섬유질이 잔존하고 있으며, 이는 대나무 또는 갈대로 싼 바구니로 추정된다. 구정동 출토 동경은 유기물로 싸지는 않았으며, 彩箱에 넣어 보관하던 것을 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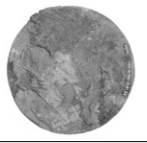
동경 부장방법은 총 5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칠기상자(평양 석암리 205호 王吁墓), 청자상자(전남 장흥 고려무덤), 채상(경주 구정동 산20번지 토광묘 2호), 직물주머니(청주 용암유적Ⅱ-2 16호 토광묘), 한지(서천 추동리 IF-6호묘)에 넣어 부장하였다. 서천 추동리 IF-6호묘에서 동경을 감쌌던 한지에서 ‘己亥’라는 간지가 확인되었으며, 공반 출토된 녹청자, 청자잔, 송녕중보(1102~1106) 등을 참고할 때, 1119년 또는 1179년으로 추정된다. 이는 고려 동경과 고려묘 편년에 좋은 자료로 판단된다.⁹⁾

또한, 동경의紐에는 직물흔이 일부 확인되며, 동경을 사용할 때 사용하였던 끈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직물흔이 확인되는 동경은 청주 용암유적과 서천 추동리 유적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동경의 외면에 운문과 운문사이(표 3. 빨간 점선)에 동경을 보수한 흔적이 확인된다. 동경을 단기간만 사용하고 부장한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에 걸쳐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보수흔은 개성과 청주 출토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9) 국립중앙박물관, 2010, 『고려동경 - 거울에 담긴 고려 사람들의 삶』

〈표 5〉 고려시대 동경 부장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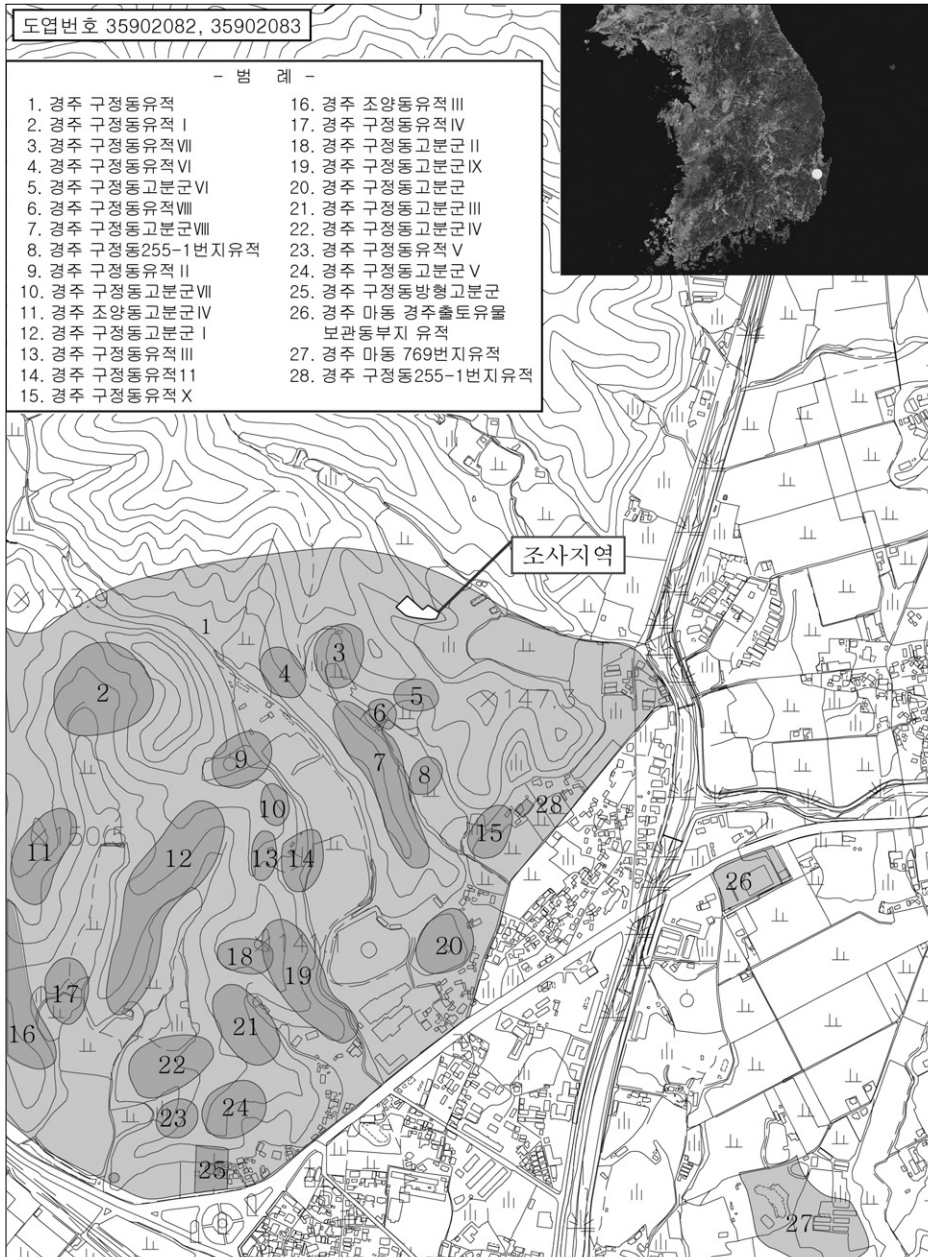
보관 방법	철기상자	청자상자	채상	직물주머니	한지
출토 유적	평양 석암리 205호 王吁墓	전남 장흥 고려무덤	경주 구정동 토광묘 2호	청주 용암유적 Ⅱ-2 16호 토광묘	서천 추동리 I F-6 호묘
동경					

Ⅳ.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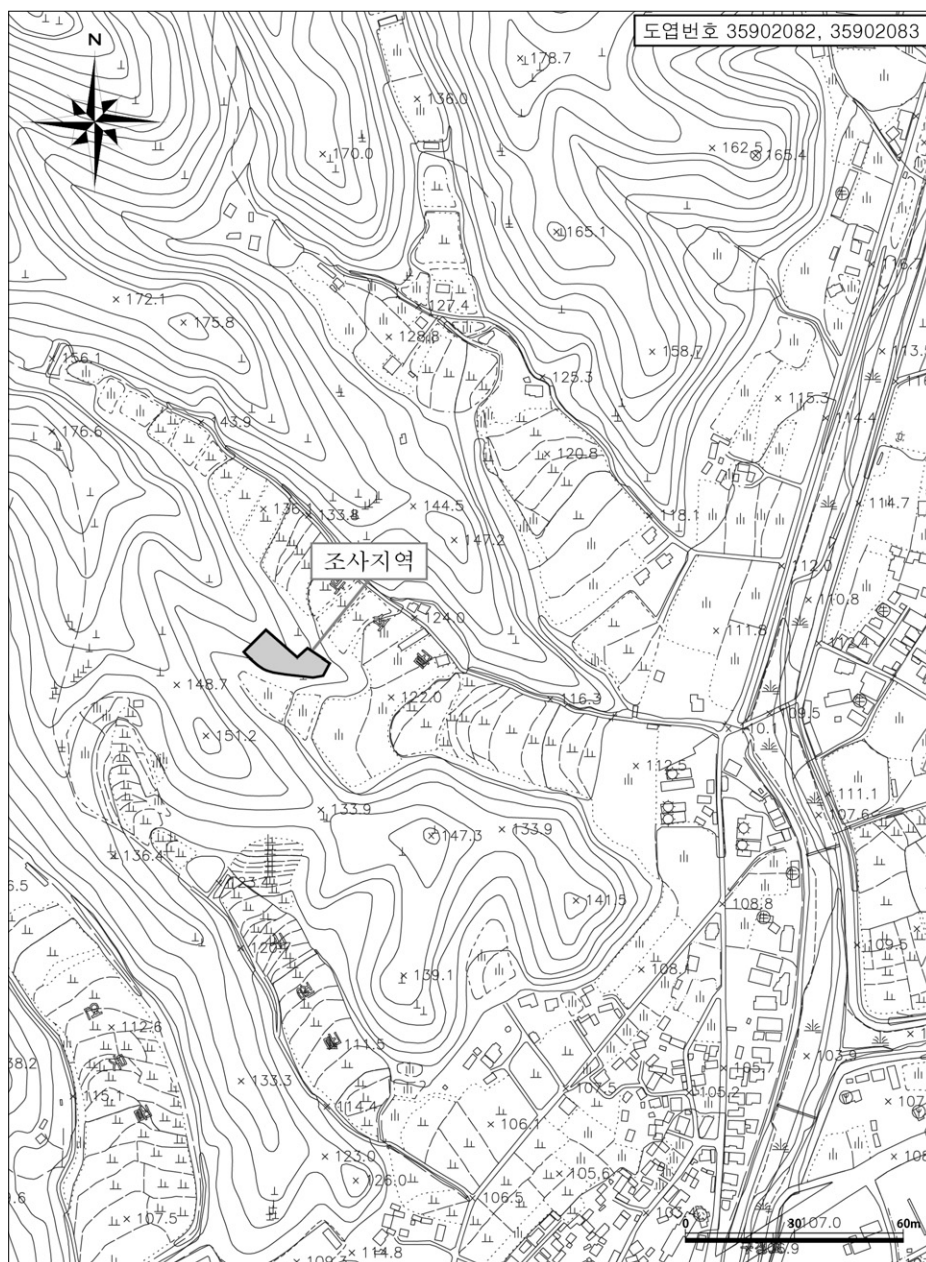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일원으로 단독주택단지 건립부지에 해당한다. 발굴조사 결과,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고려시대 토광묘 2기, 시대미상 토광묘 4기가 확인되어 총 8기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유물은 무문토기 저부, 청자 접시, 청자 종지, 병 등의 토도류 5점과 동경, 청동합, 청동집게, 청동손가락, 관정 등 금속류 9점, 석촉, 석부 등의 석기류 4점 확인되었다. 주변유적으로 경주 구정동유적 I·II·VI·VII·VIII, 구정동 225-1번지 유적 등 청동기시대 생활유적과 경주 구정동유적 IV·VI·VII·VIII 등의 삼국시대 분묘유적, 경주 구정동 방형고분군 등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이 다수 분포하며, 이 일대가 청동기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생활유적과 분묘유적이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한반도 출토 쌍용문경

연 번	출토지	유적명	직경 (cm)	사진	공반 유물	비고
1	경북	경주 구정동 산20번지 토광묘 2호	23.0		청자종지 1, 청자대접 1, 병 1, 청동순가락 1, 청동 합 1, 동곳 1, 관정 3	
2	충북	청주 용암 유적 금천Ⅱ-1 토광묘 57호	23.0		청동발1, 청동접시 1, 은 곳1, 동전 5, 철제가위 1	
3	경기	개성	22.9			덕5110
4	경북	청도 대전리 19호 토광묘	23.3		병 1, 도기옹 1, 청자대 접 1, 청자접시 1, 청동 순가락 1, 철편	
5	경기	화성 반송리 행장골 23호 묘	23.2		자기편, 청자접시 1, 청동 완 1, 동곳 1, 철제가위 1	
6	경기	개성	23.6			덕315
7	경기	개성	23.0			덕615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분포도(S=1:5,000)



〈도면 2〉 조사지역(■) 범위도(S=1:2,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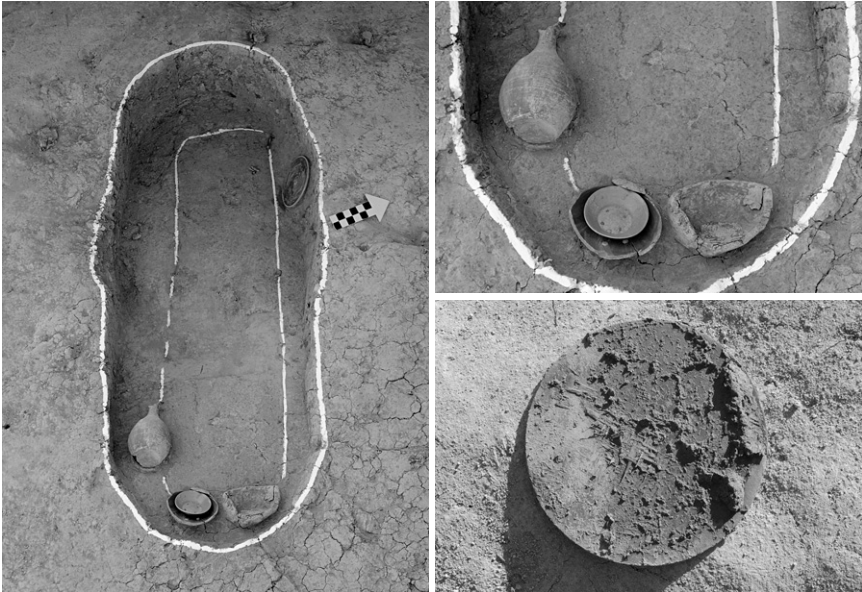


〈도면 3〉 조사지역 유구배치도(S=1: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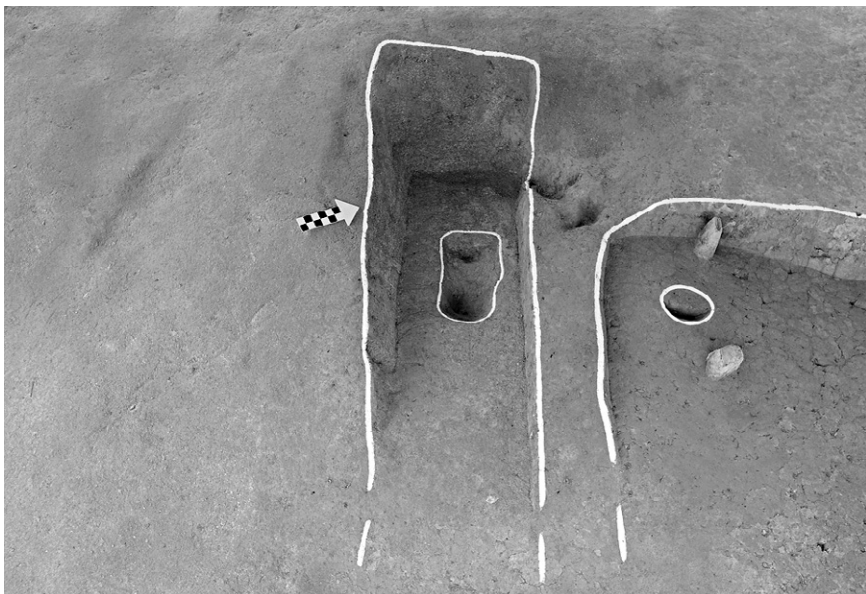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사진 2〉 조사지역 원경(上:남동→북서) 및 전경(下:남→북)



〈사진 3〉 고려시대 토광묘 2호



〈사진 4〉 시대미상 토광묘(上:3호, 下:5호)

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남도인 · 박영협 · 장기명

영남문화재연구원

- I. 머리말
- II. 조사 내용
 - 1. 유구에 대한 검토
 - 2. 유물
- III.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 IV. 맺음말



울진 읍남리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남도인 · 박영협 · 장기명*

I. 머리말

본 조사는 (주)로템하우징이 계획 중인 울진군 울진읍 읍남리 산54-1번지 일원의 공동주택신축과 관련한 문화재 발굴조사이다. 금회 조사지역은 (재)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04년 4월 16일~19일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였고, 시굴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¹⁾. 시굴조사는 2007년 8월 16일~28일까지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청동기시대 생활유구 1기, 삼국시대 봉토분 3기, 석곽묘 12기, 주구 1기, 불명유구 1기 등 다수의 유구가 확인됨에 따라 정밀발굴조사 허가(문화재청 발굴제도과-2332(2016. 02.24)를 득한 후 5,500㎡에 대한 발굴조사를 2016년 4월 11일부터 7월 28일까지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지역이 속한 울진군은 경상북도 동북단에 위치하며, 동쪽으로는 동해에 접하고, 서쪽은 봉화군과 영양군, 남쪽은 영덕군, 북쪽은 강원도 삼척시와 지리적 경계를 이룬다. 전체적인 지형은 서쪽에 형성된 높은 산지가 동쪽의 동해에 면해 발달해 있어 산지와 해안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울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낙동정맥 동사면은 비교적 험한 곡간의 산악지대로서 해안에 인접한 해발 100m 이하의 저지대나 100~300m 사이의 구릉지역에 촌락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 영남문화재연구원

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울진 청량아파트 신축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서」.

울진²⁾³⁾에 대한 옛 명칭은 『삼국사기』, 『고려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우진야(宇珍也)로 기록⁴⁾되어 있으며, 창녕신라진흥왕 척경비에는 우추(于抽)로 명시되어 있다. 울진이라는 명칭은 군지에 따르면, 삼국 통일기에 김유신이 대군을 거느리고 우진야에 당도하니 산천이 웅장하고 진귀한 보배가 많음을 보고 울진이라 칭하였다는 설이 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울진은 장수왕의 남진정책에 의해 잠시 고구려의 우진야현으로 복속되었으나⁵⁾, 신라 지증왕 6년(505)에 삼척에 州를 설치하고 군주를 두어⁶⁾ 신라가 5세기 말~6세기 초에 동해안의 영토를 다시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울진 일대 고분군의 발굴조사에서 덕신리 고분군⁷⁾은 5~6세기, 덕천리 고분군⁸⁾은 5~7세기, 봉평리 고분군⁹⁾과 매화리 고분군¹⁰⁾은 6세기에 조영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읍남리고분군¹¹⁾, 오

- 2) 蔚珍郡, 2001, 『蔚珍郡誌』.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蔚珍白巖山城-精密地表調査報告書』.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蔚珍郡』.
- 3) 蔚珍郡·安東大學校, 1991, 『蔚珍의文化財』.
蔚珍郡·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4, 『文化遺蹟分布地圖-蔚珍郡』.
심현용, 2006, 「통합이전 울진지역의 역사개관」, 『울진문화』 제20호, 울진문화원.
- 4) 『三國史記』 권35 잡지4 지리2 명주울진군조 및 권37 잡지6 지리4 고구려하슬라주조.
『高麗史』 권58 지12 지리3 동계강릉부울진현조.
『世宗實錄』 권153 지리지강원도울진현조.
『新東國輿地勝覽』 권45 강원도울진현조.
- 5) 『三國史記』 권35 잡지4 지리2 명주 울진군조에는 ‘于珍也縣’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권37 잡지6 지리4고구려 하슬라주조와 권32 잡지1 제사악소사조에는 ‘于珍也郡’으로 기록되어 있다.
- 6) 『三國史記』 권4 신라본기4 지증마립간6년조.
- 7) 안동대학교박물관, 2004, 『울진 덕신리 유적』.
- 8) 聖林文化財研究員, 2014,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Ⅰ』.
聖林文化財研究員,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Ⅱ』.
- 9) 安義政·蔡奎敦, 1992, 『蔚珍郡 鳳坪里 石槨墓 收拾調査 報告』, 『古代研究』 3집, 古代研究會.
- 10) 안동대학교박물관, 2003, 『울진 매화리 고분 발굴조사보고서:울진 덕신리 유적 발굴조사』.
- 11)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4, 『울진 청량아파트 신축공사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산리 고분군¹²⁾, 노음리 고분군 등에서 5~7세기 신라양식 토기가 출토되어 고고학적 증거로도 확인되고 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신문왕 5년(685)에 영토를 9州로 분할할 때 명주(溟洲, 지금의 강릉)는 북쪽으로 통천, 서쪽으로 안동시 임하와 청송, 남쪽으로 청하까지의 영역으로 되어 있었으며, 이후 경덕왕 16년(757년)에 전국의 주군현 명칭을 개칭할 때 우진야현(于珍也縣)에서 울진군(蔚珍郡)으로 개칭하고 영현으로는 해곡현(海曲縣)을 두고 그대로 명주의 관할 하에 두었다.

조사지역 주변 유적으로는 고분군과 지석묘, 패총 등 다수의 고고 유적과 조선시대 분묘유적·민속신앙 유적 등이 분포하고 있다. 연대적으로 가장 빠른 것이 중기 구석기 유적인 북면 주인리 석수동유적¹³⁾이 있다. 이곳에서는 B.C.12만년~B.C.4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주먹도끼, 굽개 등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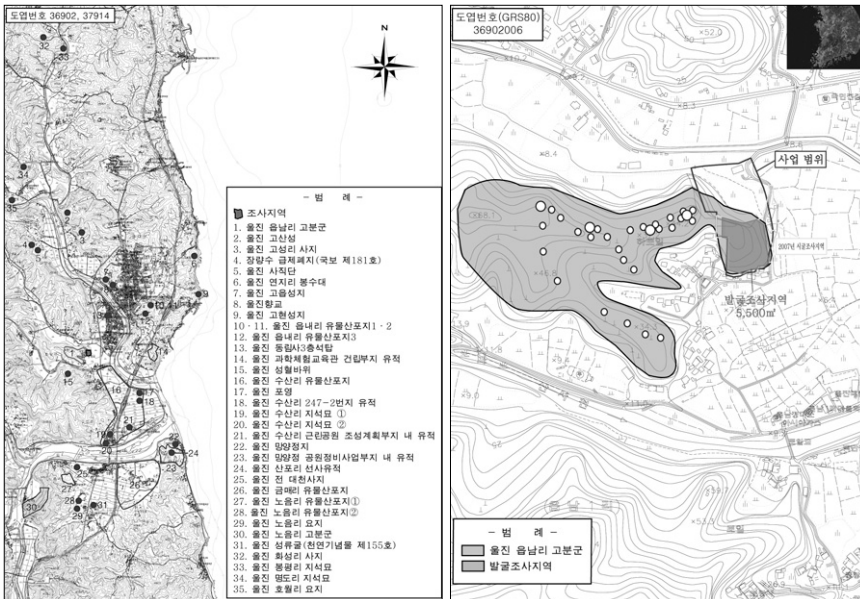
신석기시대 유적으로는 후포면 후포리유적¹⁴⁾이 있다. 이 유적은 1983년 경북 울진군 후포리의 후포항 동쪽에 접해 있는 등대산 정상부에서 확인된 집단매장유적으로서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사하였다. 확인된 유구는 지름 4m 안팎의 부정형의 수혈로서 최소 40인 이상의 2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남녀 인골이 출토되었다. 세골장으로 추정되며, 출토유물로는 시신을 덮을 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180여 점의 석부와 관옥, 석재 장신구 등이 출토되었다. 유적의 연대는 토기가 한 점도 출토되지 않아 명확하지 않지만, 춘천 교동 유적·통영 옥지도에서 출토된 석부와 비교해 볼 때 대체로 신석기시대 후기로 추정되고 있다. 그리고 죽변면 죽변리 일원에서는 용기문토기편이 수습되었는데¹⁵⁾, 이와 관련된 문화층이 2009년 10월 (재)삼한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되었다. 이 죽변리 1-25번지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용기문토기, 침선문토기, 채색토기, 무문양토기, 석촉, 결합식 낚시

12) 심현용, 2003, 「울진군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1)」, 『울진문화』 17, 울진문화원, p.128.

13) 홍영호·김상태, 2002, 「경북 동해안지역의 새로운 구석기유적」, 『한국구석기학보』 3집, 한국구석기학회.

14) 國立慶州博物館, 1991, 『蔚珍厚浦里遺蹟』.

15) 국립경주박물관, 2003, 「학술조사」, 『年報(2002년)』, pp.44~50.



〈도면 1〉 조사지역 위치도 및 주변유적 분포도 〈도면 2〉 조사지역 범위 및 주변 지형도

바늘, 낚시추, 석부, 석도, 굽개 등 100여 점의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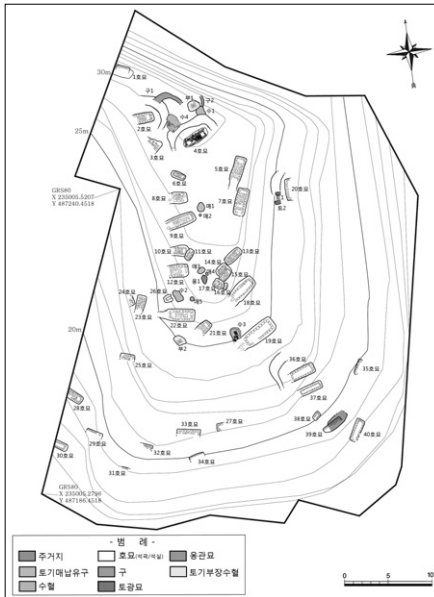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지석묘가 보고되어 있는데¹⁷⁾, 북면 고목2리 지석묘군, 북면 나곡2리 지석묘, 근남면 진북리 지석묘, 북면 신화리 지석묘, 북면 부구리 지석묘, 근남면 덕신리 무문토기산포지 등이 알려져 있으며, 최근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에서주거지가 조사·보고 되었다¹⁸⁾. 이러한 청동기시대 유적은 주로 하천변에서 확인된다¹⁹⁾.

16) (재)삼한문화재연구원, 2012, 『蔚珍 竹邊里 遺蹟』.

17) 울진군·안동대학교 민속학연구소, 1992, 『울진의 문화재』, 양지상사.

18) (재)영남문화재연구원, 2007, 「울진 읍남리 공동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지도위원회 자료집」.

19) 심현용, 2002, 「동해안지방 지석묘 시론-경북 울진군을 중심으로-」, 『향토문화』 17, 대구향토문화연구소.



〈도면 3〉 유구배치도



〈사진 1〉 조사구역 전경(항공촬영)

울진지역은 청동기시대 이래 활발한 사회문화가 일어나 하나의 소국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한의 우중국(優中國)²⁰⁾을 역사학계에서는 대체로 울진으로 비정하고 있다. 다만 울진지역에서는 원삼국시대에 해당되는 분묘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죽변면 죽변리 패총유적은 이 시기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고분 유적도 다수 확인이 되었는데, 덕신리 고분군, 봉평리 고분군, 매화리 고분군, 읍남리 고분군, 마산리 고분군, 노음리 고분군, 덕천리 고분군 등이 있다. 이외 524년 건립된 울진봉평 신라비(국보 제242호)는 신라의 동해안 진출과 관련된 중요한 자료이며, 통일신라 말 창건되어 조선 초까지 범통을 유지한 전청암사지도 조사·보고 되었다²¹⁾.

20) 『三國志』 권30 위서30 동이전 진·변한조.

21) 蔚珍郡·慶州大學校博物館, 2008, 『蔚珍 九山里 傳青巖寺址 發掘調査報告書』.

Ⅱ. 조사 내용

조사지역은 북고남저형의 지형으로 해발고도 18~32m 선상에 위치하여 북쪽에서 남쪽 중앙까지 경사가 완만하게 이어지다가 동사면에서 급격하게 떨어진다.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남쪽 능선 말단부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 삼국시대 석곽묘 29기, 횡구식석실묘 11기, 옹관묘 1기, 매납 유구 5기, 부장수혈 2기, 구 2기, 수혈 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1. 유구에 대한 검토

본 유적에서 중심을 이루는 유구는 삼국시대 분묘로 석곽묘 29기, 횡구식석실묘 11기, 옹관묘 1기,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표 2〉 참조). 석곽묘와 석실묘는 장방형 혹은 세장방형²²⁾의 평면형태를 띠고, 석실묘의 경우 횡구식 구조만 확인된다. 방형계 횡혈식 석실묘는 보이지 않아 장방형과 세장방형 석곽묘에서 세장방형 횡구식 석실묘로 변화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분묘의 조영 기간은 5세기 중엽~6세기 후엽인 것으로 파악되며, 집중적인 조영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유구의 중복이 거의 없고 구조와 유물 부장상 등이 유사하여, 동일집단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묘역을 이룬 것으로 확인된다.

확인되는 유구는 모두 조사전 봉토와 상부가 유실된 상태였고, 4호묘와 36호묘의 경우 북쪽으로 주구가 설치되었다. 지형이 북고남저형을 띠는 점을 감안할 때 주구는 배수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 내부에서 대호편과 함께 토기류가 확인되었고, 36호묘 주구의 경우 상형토기와 압형토기가 출토되었다.

분묘의 토층은 대부분 2개 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2008년 조사 중지 이후 복토한 층, 2층은 유구 내부토(갈색사질점토)로 나뉘진다. 벽석은 대

22) 본고에서는 1:3의 평면 비율을 기준으로 그 이하를 장방형(1:3 미만), 그 이상을 세장방형(1:3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부분 네 벽 모두 잔존하는데 경사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하는 북장벽의 경우 내부로 기울어져 있으며 남장벽의 경우 1~2단을 남겨두고 대부분 유실된 상태이다. 벽석은 20~40cm 가량의 할석을 사용하여 최하단석은 횡평적하였고, 2단부터 횡평적과 종평적을 혼용하여 쌓았다.

바닥 중앙에는 시상 1~2개가 확인되었다. 시상은 암반면 위에 바로 설치되거나 갈색사질점토를 깔아 정지한 후 그 위에 설치되었다. 추가장의 경우 천석을 1~3겹으로 깔고, 그 위에 다시 할석이나 크기가 다른 천석을 이용하여 구분하였다. 천석과 할석을 혼용하여 구분한 경우는 5호묘, 7호묘, 12호묘에서 확인되며, 이 경우 1, 2차 시상이 뚜렷하게 구별된다.

유적의 횡구식석실 축조공정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 과정을 복원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묘지를 선정하고 묘광을 판다.
- ② 묘광 바닥에 사질점토로 정지한다.
- ③ 석실의 벽석을 1단을 횡평적하여 석실/석곽의 틀을 만든다.
- ④ 시상을 주검 안치부분에 설치한다(5호묘는 할석 시상과 천석 시상으로 나누어 설치함, 12호묘는 할석 시상을 2~3차례에 걸쳐 구분해 설치함). 시상을 제외한 양단벽에 사질점토로 시상 높이에 맞춰 채운다(5호묘는 남단벽에 사질점토를 채우는 과정에서 유물을 부장함). 2단부터 벽석과 함께 봉토를 축조한다. 벽석 사이 빈 공간에 작은 할석과 점토를 끼워 보강한다. 봉토가 양호하게 남아있는 사례가 없지만, 매장주체부가 반지하식 혹은 반지상식을 띠는 점과 18호묘와 36호묘의 사례에서 매장주체부 주위로 누층적으로 쌓은 봉토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벽석과 함께 봉분이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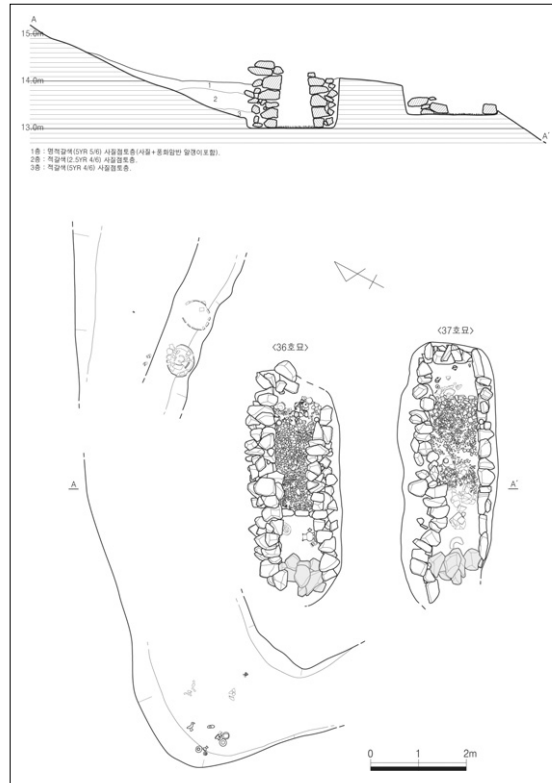
⑤-1 두상-시상-족상²³⁾에 유물을 배치한다. 두상에서는 토기를 여러 겹으로 쌓아 부장하기도 하며, 족상에서는 대개 호류가 부장된다. 개석을 덮는다.(17호 소형 석곽묘에서만 개석이 확인되어 정확한 면모를 알 수 없으나 토층 양상으로 보아 목개의 존재는 상정할 수 없고 대부분 개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다만 소형급 분묘에서만 잔존 사례가 있어 중·대형급 분묘에서 보이는 밀봉토나 목탄의 존재 등은 알 수 없음)

⑤-2 개석 위로 봉분을 쌓아 올린다. 형질 변경과 후대 교란으로 인해 정

확히 알 수 없으나 주구가 남아있는 분묘와 분묘 간의 배치 간격으로 볼 때 봉분이 그리 크거나 높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⑥ 봉분을 인식하고 주변에 매납유구 및 부장수혈을 축조한 것이 있으나 이것은 봉토가 남아있지 않아 추가장 이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장은 단벽 일부를 허물고 내부에 시상을 정지한 후 시신을 안치하고 들어간 입구를 할석으로 막은 것으로 파악된다(4·5·12·36호묘의 경우 폐쇄석이 확인.

시상 아래에서 토기류가 출토되어 시상과 구별됨)



〈도면 4〉 36·37호 평면도 및 단면도

〈표 1〉 울진 읍남리 유적의 석실묘 / 석곽묘 구별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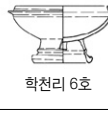
묘도	연도	폐쇄석	추가시상	유물시기 차이	매장주체부 평면형태	명칭
×	×	×	×	×	장방형	석곽묘 29기
△	△	○	○	○	장방형/ 세장방형	황구석석실묘 11기 (4, 5, 7, 9, 12, 18, 19, 22, 36, 37, 40호)

23) 시상을 기준으로 피장자의 머리 위 공간을 두상, 아래 공간을 족상으로 분류하였다.

2. 유물

유물은 868여점이 출토되었다. 유물 구성은 토기류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무기류, 장신구류, 농구류와 마구류가 뒤를 잇는다.

토기류는 유개고배, 개, 고배, 배, 유개대부완, 대부완, 파배, 연질발, (유개)대부장경호, (유개)직구호, 단경호, 시루 등이 확인된다. 이 중 출토 수량이 가장 많은 기종은 배로 두상에 2~3점이 겹쳐진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리고 개와 고배는 뒤집히거나 넘어진 상태로 다수가 출토되었다. 고배와

지역 단 계	울 진		경 주	포 향
	읍남리	덕천리		
400中 I	 22호	 덕천리 II-46호	 황남대총 남분	 학천리 104호
II	 4호	 덕천리 II-93호	 월성로 나-8호	 괴시리 16호분
500 III	 25호	 덕천리 II-112호	 봉길리 80호	 학천리 93-1호
500中 IV	 40호	 덕천리 3호	 월성로 가-18호	 옥성리 가-74호
600 VIII	 4호	 덕천리 10호	 신당 35 수혈	 학천리 6호

〈도면 5〉 고배 기형을 통한 상대편년(축척부동)

개는 분묘 별로 수량이 거의 동일하여 매납 당시에는 유개고배 세트로 부장된 것으로 판단된다. 개와 고배의 문양과 형태적인 속성으로 파악해보면 축조시기가 가장 늦은 분묘는 18호묘이다. 18호묘의 남단벽 부근에서 출토된 개는 드림의 형태가 '入' 자형이며, 개신 외면에 2단으로 수직문이 시문되었다. 이 개는 6세기 후엽에서 7세기 전엽 사이에 추가장에 의해 부장되었는데 최초로 분묘가 축조된 시기는 북단벽 부근의 고배를 통해 6세기 전엽임을 통해 상당한 시간차를 확인할 수 있다. 유구 내부에서 파악되는 고배와 개를 통해 볼 때 조사구역 내 분묘의 중심연대²⁴⁾는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장이 된 고분을 통해 5세기 후엽에서 7세기 전엽까지 분묘의 추가장이 진행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도면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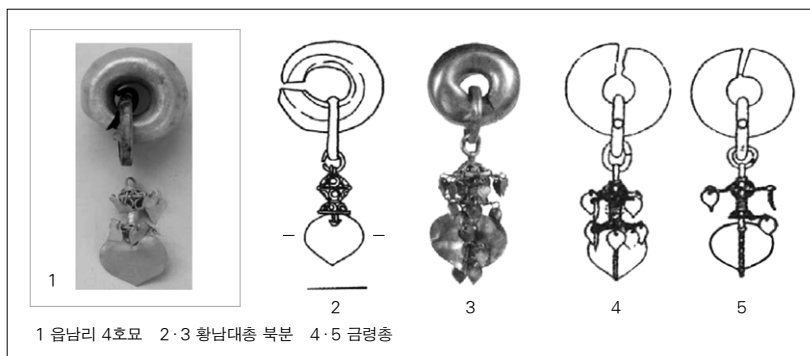
무기류는 많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기존 신라 분묘의 출토구성과 유사한 양상이다. 도자, 철촉, 소도, 단조철부, 장식도의 환두부 등이 출토되었다. 도자와 철촉의 비중이 가장 높는데 철촉은 축두부가 능형과 유엽형이 주류를 이룬다. 소도는 12호묘, 44호묘에서 출토되었는데 44호묘의 출토품은 완형으로 전신이 40cm 정도이다. 철도의 환두부는 12호묘와 19호묘에서 확인되며, 모두 금동제로 상원하방형의 삼엽문 장식이다²⁵⁾. 전자는 소도의 환두부로 추정되며, 후자는 자도의 환두부로 보인다.

장신구류는 이식, 구슬, 대금구 등이 출토되었다. 이식²⁶⁾은 태환과 세환

24) 토기의 기본적인 편년은 황남대총 남분을 눌지왕릉으로 본 김용성의 편년(2007)에 따랐다(세부적으로 5세기대는 남익희(2014, 「고 신라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pp.64~70)의 경주지역과 포항지역의 편년안을, 6세기대는 윤상덕(2014, 「인화문토기」, 『신라고고학개론 下』, 진인진, pp.96~107)의 편년안을 참고).

25) 장식도의 환두부 중 삼엽문은 황남대총 남분 단계 이후로 통일되는 형태이다(이한상, 2016, 『삼국시대 장식대도 문화 연구』, pp.199~200). 울진지역에서 덕천리(聖林文化財研究院,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Ⅱ』, pp.122~123)에서 삼엽문 환두대도가 완형으로 출토되었는데 이 대도의 환두부는 읍남리의 19호묘와 유사하다.

26) 이한상(2004, 『황금의 나라 신라』, 김영사, pp.139~174)과 김우대(2013, 「新羅 垂飾附耳飾의 系統과 變遷」, 『韓國考古學報89』, 韓國考古學會)의 연구에서 연결금구와 중간식의 형태는 천마총 이후에 유행한 형태이나 수하식은 황남대총 남분과 안동 대화동 9호에서 출토된 것과 유사한 삼엽형을 띠고 있어 속성에 따



〈도면 6〉 태환이식 비교자료

으로 구분된다. 태환이식은 4호묘와 9호묘에서 확인되는데 전자는 1쌍이, 후자는 1점이 출토되었다. 특히, 4호묘의 태환이식은 주환, 유환, 연결금구, 중간식, 구체간식, 수하식으로 구성된다(도면 6 참조). 중간식은 구체로 만들고, 금사를 꼬아 영락을 달았다. 이 이식의 전반적인 형태는 금령총 출토품과 유사한 심엽형이나 수하식의 외연에 각목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세환이식은 4호묘, 5호묘, 8호묘, 9호묘, 12호묘, 44호묘에서 출토되었으며, 유환이 남아있는 것은 12호묘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구슬은 4호묘, 28호묘, 35호묘에서 출토되었다. 4호묘의 시상 위에서 출토된 유리구슬은 직경 1.5cm 가량으로 전반적인 색상은 청색을 띠며, 부분 부분 다른 색상의 유리가 상감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대금구 과판이 19호묘의 시상대 위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과판의 재질은 청동제이며, 형태는 상방하원형을 띠는데 이는 당식과대²⁷⁾에 해당된다. 이러한 당식과대 대금구는 덕천리 31호 석실묘에서 교구, 대단금구, 방형과판이 set로 출토된 사례가 있다²⁸⁾.

른 계통 분류에 있어 혼선이 있다. 길게 형성된 화룡형의 형태에 따른다면 천마총 단계에 가까이 들 수 있다.

27) 당식과대는 山本孝文(2006, 『三國時代 律令의 考古學的 研究』, 서경, pp.364~418)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28) 聖林文化財研究院, 2015, 『蔚珍 德川里 新羅墓群 I』, pp.301~302

Ⅲ. 조사성과에 대한 검토

조사지역은 울진 읍남리 고분군의 일부로서 이 일대는 삼국시대 고분군이 집중적으로 조성되어 있다. 발굴조사와 함께 병행한 주변조사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주능선과 가지능선 일대에 30기 이상의 중대형분이 유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는 봉토분이 남아있지 않았던 구릉의 말단부 일부(5,500㎡)에 발굴조사로 청동기시대 주거지 1동과 삼국시대 석곽묘 29기, 횡구식석실묘 11기, 옹관묘 1기, 매납유구 5기, 부장수혈 2기, 구 2기, 수혈 4기와 조선시대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삼국시대 석곽묘와 석실묘에서 유개고배, 유개대부완, 유개단경호, 유개대부장경호, 태환이식, 장식도 환두부, 살포, 철촉, 철부 등 총 868점이 출토되었다.

조사지역 내에서 확인된 석곽묘와 석실묘는 대부분 삭평되고 도굴되어 그 형태가 온전하지 않지만 구릉 능선을 따라 조성된 현상이 파악되었다. 석곽묘와 석실묘는 평면형태가 장방형과 세장방형이 주류를 이룬다. 석실묘는 석곽묘와 석실묘의 과도기적인 형태를 가진 횡구식 석실묘가 대부분이고, 전형적인 방형계 플랜의 횡혈식 석실묘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2〉 읍남리 유적 유구 유물현황표(유물정리 과정에서 증감할 수 있음.)

구분	시대	유구명	유구수	출토유물				비고
				토도류	금속류	석기류	합계	
울진 읍남리 신축공사부지내 유적	청동기	주거지	1	0	0	1	1	
	삼국	석곽묘	29	328	35	5	368	
		횡구식석실묘	11	359	56	30	445	
		옹관묘	1	8	0	0	8	
		구	2	4	0	0	4	
		수혈	4	12	1	0	13	
		매납유구	5	6	0	0	6	
		부장유구	2	15	0	0	15	
	조선	토광묘	2	0	0	0	0	
	지표수습		0	7	1	0	8	
	총		57	739	93	36	868	

울진에서 조사된 동일 시기의 고분군인 덕천리 고분군과 좋은 비교자료가 될 수 있다. 덕천리 고분군은 전체적으로 해발 10~40m의 구릉지대와 5~21m의 계곡부 및 해안사구 지대에 군집되어 구성되어 있고 목곽묘부터 수혈식석곽묘, 횡구식석실묘, 횡혈식석실묘, 옹관묘 등의 묘제가 확인되었고, 다량의 토기와 함께 금동관, 삼엽문환두대도, 모자곡옥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두 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당대의 울진 지역 정치체의 모습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Ⅳ. 맺음말

울진 읍남리 유적은 신라의 동해안 진출에 있어 주요 거점 중 하나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에도 경주→포항→영덕→울진→삼척→강릉으로 연결되는 지점이고, 울진-봉화-영주를 잇는 교통로에 위치하는 유적으로 그 가치가 매우 높은 유적으로 볼 수 있겠다.

조사구역 내의 분묘의 중심연대는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볼 수 있으며, 추가장이 된 고분을 통해 7세기 전엽까지도 분묘가 조영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으로 향후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횡구식석실묘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비교·분석하여 최초 고분이 조영된 시점과 추가장이 이루어진 시점의 차이를 밝힐 계획에 있다. 그리고 경북 북부지역(영주지역)의 고분군과 지역 내 고분군의 비교를 통해 집단의 성격과 위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은 문제제기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덕천리 유적에서 확인되는 출토품과 간략하게 비교하면 토기류와 태환이식, 환두대도 등은 두 유적에서 모두 확인되나 읍남리 유적에서는 덕천리 유적에서 3점이나 출토된 금동관이 출토되지 않은 점이 흥미롭다. 일부만 발굴되어서 나타나지 않는가? 고분의 삭평으로 인해 결실되었는가? 신라중앙집단에서 지역간의 위계차이를 두었는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봉평신라비에서 언급된 481년 남미지촌에서 노인촌으로의 변경되는 시

점은 공교롭게도 울진 읍남리 유적의 중심연대와 맞아 떨어진다. 이에 대해 가설을 세워보자면 울진의 어느 지역이 고구려에 협조하였을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²⁹⁾. 지역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친 후 신라조정에서 행한 전후처리로 당연히 신라 조정에서는 전투에서의 공과 과를 따졌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남미지촌에서 노인촌으로 변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읍남리 유적과 덕천리 유적을 두고 어느 곳이 노인촌인지에 대한 비정이 남아있다. 울진지역의 삼국시대 성지인 죽변성, 장산성, 안일왕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풀 수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읍남리 유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여 울진지역의 5~6세기대 지역사³⁰⁾ 연구에 한 발짝 다가갈 것을 약속하며 갈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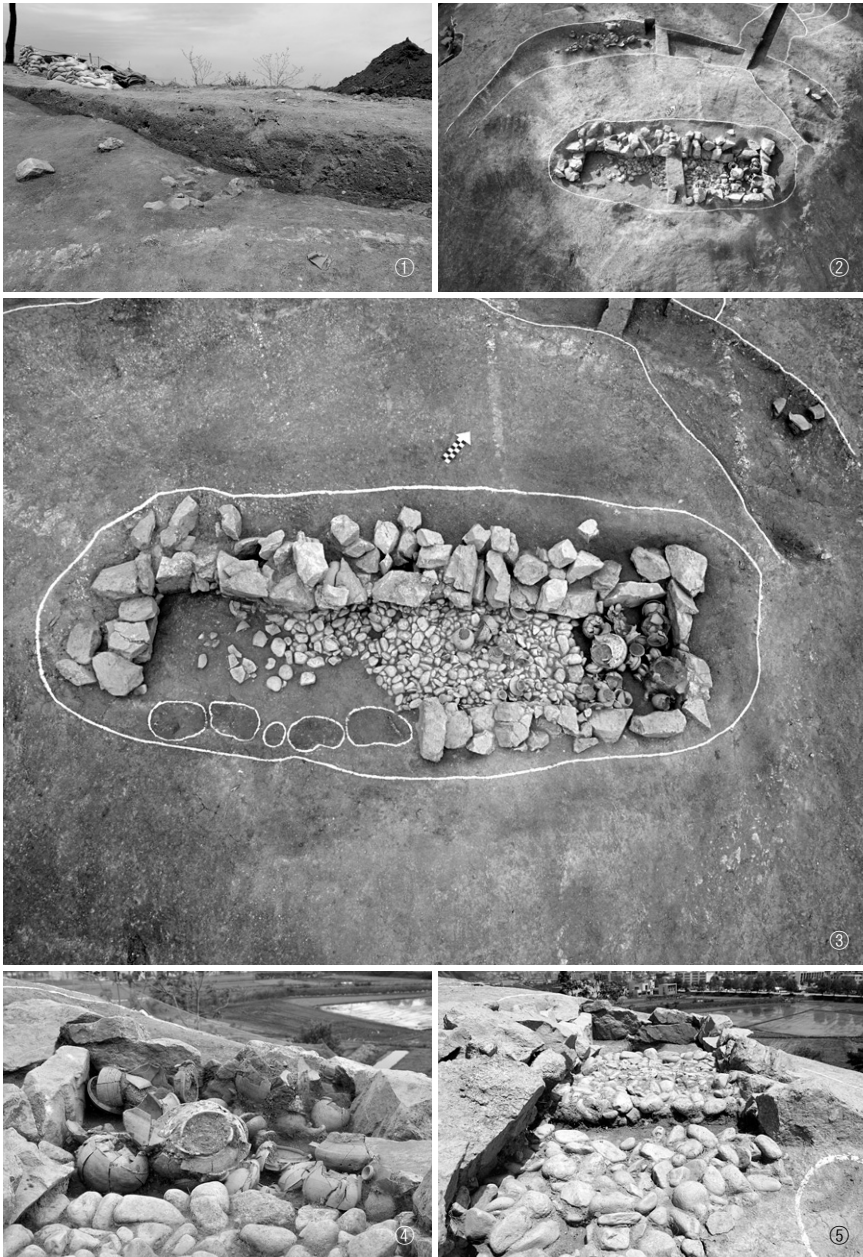
29) 노중국, 2016, 『지정학적 위치로본 고대의 울진』, 『울진군의 역사와 문화』, (재)삼한문화재연구원 · (재)성림문화재연구원.

30) 울진지역은 481년 남미지촌이 노인촌으로 변경되고 524년 이전 어느 시기부터 도사가 파견되는 성(촌)이었고 늦어도 561년에는 당주가 파견되는 군이었다.

〈표 3〉 올진 읍남리 삼국시대 유구제원표

용진 읍남리 삼국시대 유구제원표																
호수	시대	주축방향	개석	모광			석과 / 석실					석제	유물 부장	비고		
				형태	길이	너비	깊이	규모			형태					
					길이	너비	깊이	평면비	평면	벽석	시상	횡구				
주거지 1호	청동기	N-51°-E	·										1			
		N-65°-W	·		254	(57)	20	·	·	황평적	·	·	·	·	·	
2호	삼국	N-57°-E	·		(344)	(212)	(72)	(304)	(168)	62	·		4	주구		
3호	삼국	N-74°-W	·	·	(260)	(210)	22	(200)	(120)	22	·	·	2			
4호	삼국	N-47°-E	·	세장방형	524	207		383	76	54	1:5.04	세장방형	84			
5호	삼국	N-19°-E	·	세장방형	484	210	72	410	80	44	1:5.16	세장방형	21			
6호	삼국	N-86°-W	·	장방형	290	140	66	218	96	72	1:2.27	장방형	9			
7호	삼국	N-7°-E	·	·	(530)	235	(83)	468	170	59	1:2.75	장방형	41			
8호	삼국	N-77°-E	·	·	(308)	(195)	(286)	(82)	(23)		·	·	9			
9호	삼국	N-68°-E	·	·	(504)	(220)	58	470	152	58	1:3.09	세장방형	32	수혈 2		
10호	삼국	E-W	·	·	(302)	(209)	(29)	(180)	(74)	(45)	·	·	12			
11호	삼국	N-38°-E	·	장방형	210	140	20	(133)	75	41	·	·	6			
12호	삼국	N-49°-W	·	장방형	430	234	52	270	94	57	1:2.75	장방형	47			
13호	삼국	N-42°-E	·	타원형	348	180	58	320	116	64	1:2.76	장방형	13			
14호	삼국	N-47°-E	·	장방형	226	150	30	162	100	23	1:1.62	장방형	10			
15호	삼국	N-47°-E	·	장방형	250	140	54	214	112	41	1:1.91	장방형	4			
16호	삼국	N-68°-W	○	장방형	166	82	44	86	50	48	1:1.72	장방형	5			
17호	삼국	N-7°-W	○	타원형	196	156	42	160	110	45	1:1.45	장방형	6			
18호	삼국	N-56°-E	·	세장방형	(674)	312	110	512	200	80	1:2.56	장방형	12			
19호	삼국	N-62°-E	·	세장방형	(700)	250	90	520	200	31	1:2.6	장방형	39			
20호	삼국	N-2°-E	·	·	(380)	(166)	(35)	(350)	(136)	(33)		·	3	주구		
21호	삼국	N-38°-E	·	·	(292)	166	50	(242)	146	60	·	·	14			
22호	삼국	N-87°-E	·	·	(640)	260	(70)	428	186	50	1:2.30	장방형	38			
23호	삼국	N-15°-E	·	·	(370)	194	60	(257)	86	68	·	·	5			
24호	삼국	N-26°-E	·	·	(173)	(93)	(28)	(167)	(61)	(32)	·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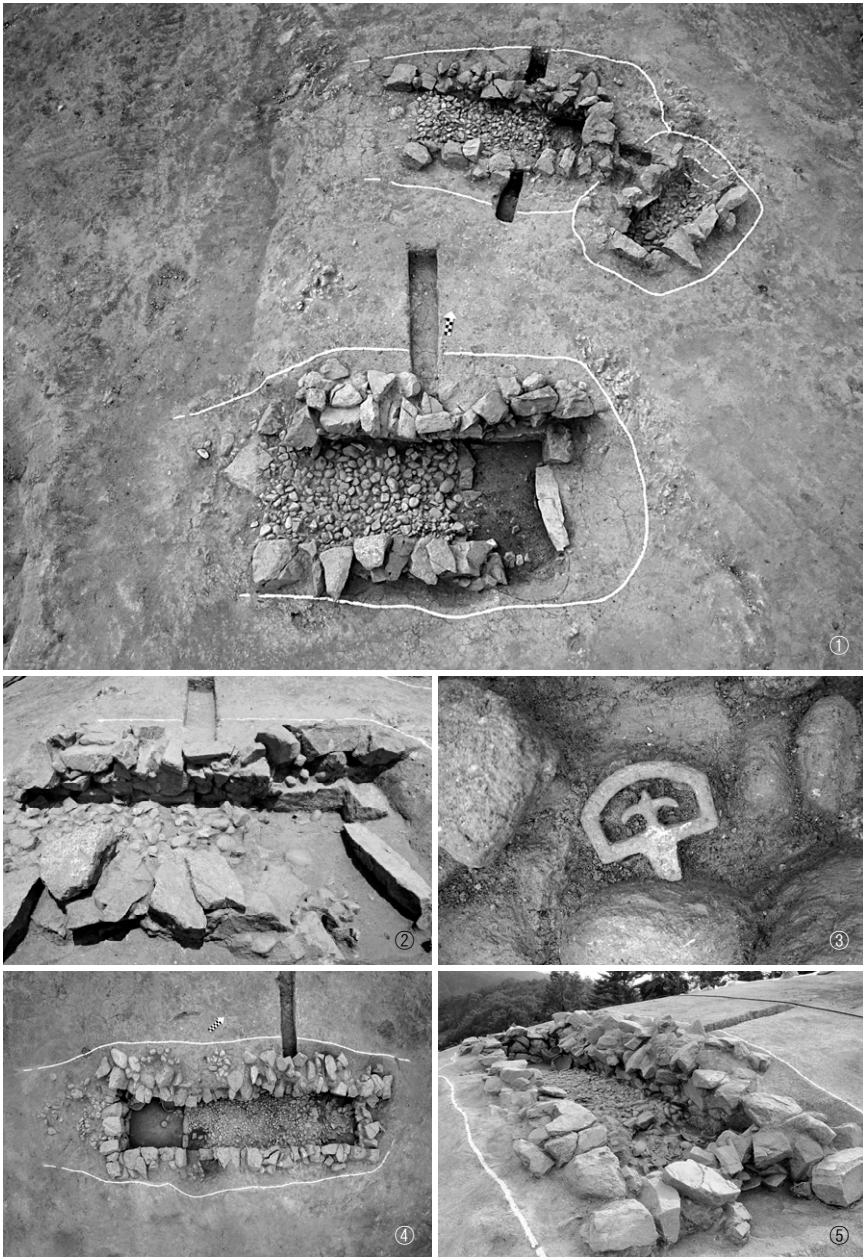
울진 읍남리 삼국시대 유구해원표																
호수	시대	주축방향	개석	묘광			석곽 / 석실						석재	유물 부상	비고	
				형태	길이	너비	깊이	규모			평면비	평면				벽석
25호	삼국	N-83°-W	·	장방형	300	(116)	30	220	(80)	13	·	·	외수적, 횡평적	중앙?	·	16
26호	삼국	N-87°-E	·	장방형	240	120	20	200	(80)	16	·	·	횡평적	중앙	·	
27호	삼국	N-88°-E	·	·	(139)	(173)	(40)	(98)	(115)	26	·	·	외수적	·	·	8
28호	삼국	N-66°-E	·	장방형	(314)	180	50	(260)	150	33	·	·	외수적, 횡평적	중앙?	·	
29호	삼국	N-75°-W	·	·	(319)	(75)	16	(237)	(66)	15	·	·	횡평적	·	·	37
30호	삼국	N-77°-W	·	·	(332)	200	35	(320)	200	34	·	·	횡평적	중앙	·	
31호	삼국	N-89°-W	·	·	(149)	(47)	(24)	(103)	(38)	(23)	·	·	횡평적	·	·	1
32호	삼국	N-85°-W	·	·	(200)	(85)	(39)	(200)	(37)	(30)	·	·	·	·	·	
33호	삼국	E-W	·	·	(410)	(135)	(54)	(351)	(82)	(35)	·	·	횡평적	·	·	·
34호	삼국	N-74°-E	·	·	(310)	(110)	(34)	(190)	(70)	(18)	·	·	외수적	중앙?	·	
35호	삼국	N-9°-E	·	·	(380)	(146)	(35)	(340)	(162)	(30)	·	·	횡평적	중앙	·	53
36호	삼국	N-60°-E	·	·	(520)	(200)	49	500	188	82	1:2.65	장방형	·	·	·	
37호	삼국	N-61°-E	·	·	(572)	200	53	500	166	33	1:3.01	세장방형	·	·	·	64
38호	삼국	N-30°-W	·	·	(420)	(70)	46	(380)	(70)	20	·	·	횡평적	중앙	·	
39호	삼국	N-47°-E	·	·	(160)	110	(23)	(120)	60	29	·	·	횡평적	중앙?	·	11
40호	삼국	N-30°-E	·	·	(496)	200	56	440	138	47	1:3.18	세장방형	·	·	·	
웅관묘 1호	삼국	N-47°-E	·	부장형	142	140	(24)	106	48	25	·	·	·	·	·	8
구 1호	삼국	·	·	일지형	(540)	150	30	·	·	·	·	·	·	·	·	
구 2호	삼국	·	·	일지형	(200)	44	8	·	·	·	·	·	·	·	·	4
수혈 1호	삼국	·	·	부장형	(220)	130	28	·	·	·	·	·	·	·	·	
수혈 2호	삼국	·	·	부장형	228	156	18	·	·	·	·	·	·	·	·	1
수혈 3호	삼국	·	·	장방형	(287)	224	21	·	·	·	·	·	·	·	·	
수혈 4호	삼국	·	·	부장형	(302)	246	62	·	·	·	·	·	·	·	·	7
매남유구 1호	삼국	·	·	타원형	200	136	13	96	96	12	·	·	·	·	·	
매남유구 2호	삼국	·	·	·	36	34	8	22	24	8	·	·	·	·	·	3
매남유구 3호	삼국	·	·	타원형	130	106	16	74	58	14	·	·	·	·	·	
매남유구 4호	삼국	·	·	타원형	40	54	16	32	16	16	·	·	·	·	·	2
매남유구 5호	삼국	·	·	·	112	92	32	72	80	34	·	·	·	·	·	
부장수혈 1호	삼국	·	·	타원형	210	180	40	·	·	·	·	·	·	·	·	1
부장수혈 2호	삼국	·	·	부장형	220	160	20	·	·	·	·	·	·	·	·	
토광묘 1호	조선	N-87°-E	·	장방형	(114)	54	17	84	46	·	·	·	·	·	·	7
토광묘 2호	조선	E-W	·	장방형	(140)	60	27	110	56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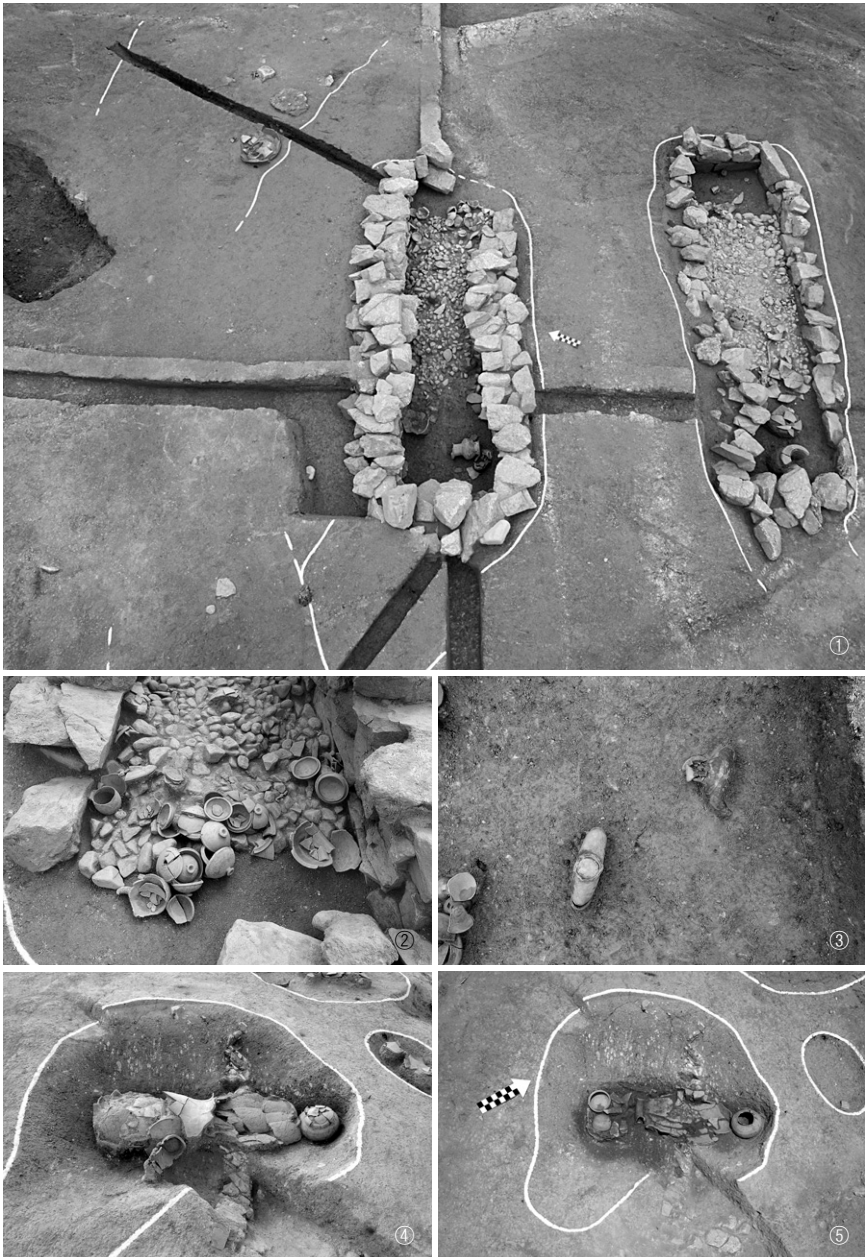
〈사진 2〉 유적토층(①) 및 4호묘 전경 및 세부(②~⑤)



〈사진 3〉 5호묘 전경(①) 및 세부(②·③), 9호묘 전경(④) 및 세부(⑤)



〈사진 4〉 12호묘 전경(①) 및 세부(②·③), 19호묘 전경(④) 및 세부(⑤)



〈사진 5〉 36·37호묘 전경(①) 및 세부(②) 주구 출토유물(③), 응관묘 1호 전경(④·⑤)



〈사진 6〉 유적 출토유물 ①~③)



부록2

『嶺南文化財研究』총목차

『嶺南文化財研究』 총목차

嶺南文化財研究 第1輯(1995. 8)

〔遺蹟調査概報〕

고령 지산동 유물전시관부지내 발굴조사내용金滢燮

고령 쾌빈동 대가야타운부지내 발굴조사 개보河眞鎬

嶺南文化財研究 第2輯(1995. 12)

〔遺蹟調査概報〕

浦項 玉城里 古墳群 發掘調査韓道植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調査 概報金昌億

義城大里 3號墳 發掘調査 概報朴貞花

嶺南文化財研究 第3輯(1996. 4)

〔論考〕

鐵製模型農工具의 檢討 -大伽倻地域을 中心으로 -安順天

〔遺蹟調査概報〕

慶山 林堂洞遺蹟 發掘調査 概報장용석 · 권태용 · 유경원

宜寧 泉谷里 古墳群 發掘調査金滢燮 · 朴相銀

嶺南文化財研究 第4輯(1996. 7)

〔論考〕

三國時代 우물 遺構에 대한 檢討(1)金昌億

- 大邱 漆谷택지(2)遺蹟,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例를 中心으로 -

〔遺蹟調査概報〕

慶州市 舍羅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하진호 · 박정화 · 이재홍

大邱 時至洞遺蹟 發掘調査 概報(Ⅱ)김창익 · 전종식 · 허정화

大邱 龍山遺蹟 發掘調査 概報최재현 · 김상희 · 임미정

嶺南文化財研究 第5輯(1996. 10)

[論考]

- 慶山 林堂洞遺蹟 出土土器의 一研究 장용석
-2段透窓 有蓋高杯의 變化過程을 中心으로-

[遺蹟調査概報]

- 慶山 林堂遺蹟 G地區 發掘調査概報 장용석 · 권태용 · 유경원
宜寧 泉谷里古墳群 發掘調査 概要 金滢燮 · 陳成燮 · 朴相銀 · 李建忠

嶺南文化財研究 第6輯(1997. 4)

[論考]

- 慶山 林堂 G-5·6호분의 성격에 대하여 장용석
출토유물의 보존과 관리방법(1) 최재현
-발굴조사현장에서-

[遺蹟調査概報]

- 경산 임당유적 A-I·II 지구 발굴조사 김수남
義城 鶴尾里古墳 發掘調査 概報 金東淑

嶺南文化財研究 第7輯(1997. 11)

[遺蹟調査概報]

- 大邱 時至地區 古墳群 發掘調査 김창익 · 최봉인 · 박진 · 허정화 · 박상은
慶山 林堂 F-II 地區 周溝附建物址 권태용

[其他]

- 金屬遺物의 과학적 保存 · 復元처리 장경숙
-浦項 玉城里古墳群 출토 頸甲의 復元 및 保存 처리를 中心으로-

嶺南文化財研究 第8輯(1998. 5)

[論考]

- 林堂土城에 대하여 李在興 · 金才喆
- 古代土城의 築造技法에 대한 약간의 검토 -

大邱 八達洞 青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俞炳琿

〔遺蹟調査概報〕

昌原 盤溪洞 聚落遺蹟 調査豫報崔憲燮

嶺南文化財研究 第9輯(1998. 12)

〔論考〕

대구 팔달동 유적 목관묘에 대하여진수정

三國時代 聚落의 立地에 관한 一 考察張容碩

- 大邱·慶山地域을 中心으로 -

포항 옥성리고분군 출토 철기에 대한 금속학적이해장경숙

〔遺蹟調査概報〕

大邱市 漆谷 3地區 建物址遺蹟 發掘調査 概報車順喆·許正和·朴達錫

嶺南文化財研究 第10輯(1999. 6)

〔遺蹟調査概報〕

永川 淸亭里遺蹟 發掘調査概報金昌億·朴 珍

대구 동천동 유적 수리시설 발굴조사개보권태웅

西邊洞 古墳群 목곽묘 발굴조사 개보윤온식

〔其他〕

목제유물의 보존(Ⅰ)이효선

嶺南文化財研究 第11輯(1999. 12)

〔論考〕

豎穴住居址 조사방법론 Ⅰ유병록

〔遺蹟調査概報〕

金泉 帽岩洞古墳群 發掘調査 概報陳城燮

고령 지산동 대가야역사관 신축부지 발굴조사 개보정창희

嶺南文化財研究 第12輯(2000. 6)

〔論考〕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 3C代 토기의 樣式과 地域性尹溫植

「영남지방 목곽묘 출토 3C代 토기의 樣式과 地域性」에 대한 討論李盛周

〔遺蹟調査概報〕

慶山 中山洞 土器窯址에 대한 檢討최봉인 · 박상은

大邱 飛山洞 木槨墓金大煥

大邱 佳川洞古墳群 發掘調査 概報尹善姬 · 朴 珍

朝鮮時代の 社稷壇에 대하여金昌億 · 朴達錫

嶺南文化財研究 第13輯(2000. 12)

〔遺蹟調査概報〕

達城郡 汶陽里 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I尹千洙 · 洪大雨

-석곽묘를 중심으로-

대구 西邊洞유적 발굴조사의 개요와 성과유병록 · 김병섭

〔其他〕

일본 埴輪의 기초적인 소개小栗明彦

고대 유리의 과학적 분석 연구金奎虎 · 安順天

-대구 팔달동 · 포항 옥성리 유적을 중심으로-

嶺南文化財研究 第14輯(2001. 6)

〔論考〕

목관계 목곽묘의 등장과 배경이재홍

人間活動の舞台としての上部 更新統 · 完新統趙哲濟

-大阪平野の考古遺跡を例にして-

〔遺蹟調査概報〕

蔚山 川上里 環濠聚落에 대하여하진호 · 김명희

金泉 帽岩洞遺蹟 發掘調査 概報권태용

-住居址를 中心으로-

嶺南文化財研究 第15輯(2002. 6)

〔論考〕

- 高塚古墳의 被葬者 性別에 대한 一 考察張容碩
-임당유적의 일례를 중심으로-
- 時至聚落遺蹟에 대한 약간의 檢討金才喆

〔遺蹟調査概報〕

- 達城 汶陽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Ⅱ洪大雨
-封土墳을 中心으로-
- 淸道·慶山地域의 先史遺蹟 소개朴 珍
- 최근의 조사성과를 중심으로 -
- 蔚山 中山里 聚落遺蹟에 대하여金玟憬

嶺南文化財研究 第16輯(2003.12)

〔論考〕

- 達城 汶陽里古墳群의 編年에 대한 小考尹千洙
- 石槨墓를 中心으로 -
-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竪穴遺構의 用途에 대한 一考金成泰
- 경주 사라리 55호 종장판 판갑의 제작과정과 용도崔在賢·金東允

〔遺蹟調査概報〕

- 淸道 陳羅里遺蹟의 支石墓에 대하여朴達錫
- 達城 汶山里Ⅱ-M2號墳 調査概報洪大雨
- 大邱-釜山間 高速道路區間內 大邱 佳川洞遺蹟 發掘調査崔奉仁
- 木棺墓와 木槨墓를 中心으로 -
- 達城 舌化里古墳群 發掘調査 概報金允喜·鄭 玟

嶺南文化財研究 第17輯(2004.12)

〔論考〕

- 嶺南地域 磨製石鏃의 型式分類李錫凡
- 嶺南地方 出土 4~6세기 鐵鏃의 형식분류우병철

영남지역 출토 마주에 관한 연구	金美淑
大邱 佳川洞遺蹟 出土 金銅冠에 대한 一考察	張容碩
우물에 대한 祭儀와 그 意味	金昌億
〔研究노트〕	
古代의 八角形建物에 보이는 2種의 平面形態에 대하여	李陽浩
-近年 알려진 集安丸都山城과 慶州蘿井의 例를 中心으로-	
수혈건물지 조사방법론Ⅱ	유병록
-시기차가 있는 출토유물의 해석문제-	
〔遺蹟調查報告〕	
大邱 新塘洞遺蹟 發掘調査	이재홍 · 신순철
대구 영신초 · 중 · 고등학교 이전예정부지내	
大邱 鳳舞洞古墳群 發掘調査 概報	金才喆
慶州 松仙里 青銅器時代 住居遺蹟에 대하여	이석범
〔資料紹介〕	
구미 봉산리유적 삼가마를 통해 본 ‘삼무지’	유병록 · 정민

嶺南文化財研究 第18輯(2005.12)

〔論考〕

南韓出土 鎏部多角形 鐵鉢에 대한 一考察	禹炳喆
建物址 出土地 鎭 · 鎭壇具의 檢討	金成泰
〔遺蹟調查報告〕	
慶州 月山里遺蹟 調査報告	閔善禮
大邱 鋤齊里 土器가마遺蹟 調査報告	申順澈
尙州 伏龍洞遺蹟 調査報告	朴達錫 · 權憲胤
慶州 芳內里 기와가마遺蹟 調査報告	洪大雨
〔資料紹介〕	
大邱 · 慶山地域의 古代 道路遺構 紹介	朴相銀

嶺南文化財研究 第19輯(2006.12)

〔論考〕

통일신라 수막새 집합기법의 검토李元太

9~10世紀の韓日における陶磁器生産の展開市川 創

〔資料紹介〕

月背扇狀地の 靑銅器時代遺蹟 分布様相 檢討尹千洙

大邱地域の 考古遺蹟 分布 分析權憲胤

〔遺蹟調査報告〕

경부고속철도 경주 구간내

慶州 德泉里遺蹟 調査報告李錫凡

-靑銅器・原三國時代를 中心으로-

대구 봉무지방산업단지 제1단계 조성공사부지내

大邱 鳳舞洞遺蹟 調査報告朴憲敏

- 도로유구・목탄요에 대하여

嶺南文化財研究 第20輯(2007.12)

〔論考〕

〈유적소개〉 청도 진라리유적 개요허정화

淸道 陳羅里 遺蹟의 聚落構造와 變遷河眞鎬

淸道 陳羅里遺蹟 출토유물의 편년과 그 위치유병록

청도지역 지식묘의 공간적 특성과 상징성민선례

-진라리유적을 중심으로-

慶州地域 原三國時代 褒棺墓의 編年李錫凡

경주지역 6~7세기 황혈식석실분 구조에 대한 일고찰李慧靜

〔資料紹介〕

5~6世紀 韓半島 南部地域 出土 日本列島系 鐵鍬禹炳喆

〔遺蹟調査報告〕

大邱 梅湖洞 1008番地遺蹟우병철・이원태

高靈 池山里 44-1番地遺蹟金成泰

대구 봉무동 외국인학교부지 내 유적 조사보고	朴相銀 · 崔永浩
達城 內里古墳群 調査報	權憲胤
慶州 芳內里古墳群 調査報告	朴 珍
칠곡 학하리유적	신순철

嶺南文化財研究 第21輯(2008.12)

〔주제논문 : 영남지역의 목관묘〕

영남지역 목관묘의 구조와 특징	정 민
-경산 신대리유적을 중심으로-	

대구 · 경북지역 목관묘 유적의 전개양상	이나영
辰韓地域 木棺墓 出土 靑銅器에 대하여	李陽洙
洛東江流域圈의 瓦質土器, 그리고 樂浪土器	정인성
「영남지역의 목관묘」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영남지방 고려~조선시대 瓦窯의 구조 분류	朴憲敏
------------------------------	-----

〔유적조사보고〕

경주 충효배수지 신축예정부지내	
慶州 忠孝洞 山156番地遺蹟 調査報告	이석범 · 박정욱
慶山 林堂洞 208-2番地遺蹟	우병철 외
칠곡 송림사 삼성각개축공사부지 내 유적	최한태

嶺南文化財研究 第22輯(2009.12)

〔주제논문 :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경주 황성동 일대 유적의 조사 현황	한도식
경주 황성동 원삼국시대 분묘의 변천과 성격	이재홍
경주 황성동 유적 주거지의 구조와 성격	金羅英
경주 황성동 유적 製鐵文化에 대한 연구	김권일
原三國~三國時代 鐵器 副葬樣相으로 본 隍城洞集團의 性格	우병철

경주 황성동 유적 와질토기에 관한 一考이제동

「원삼국시대 경주 황성동 유적의 성격」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慶山 林堂地域 古墳의 大壺 副葬과 그 意味張容碩 · 金大郁

[자료소개]

출토 水浸木器의 보존처리이현혜

문경 호계리 고분군 현황 조사 보고오동욱

[유적조사보고]

대구 죽곡리 고려시대 경작유적 조사 개보박헌민 · 이재광 · 김지영

경주 서부리 451번지유적 조사 개보김성태 · 최한태

嶺南文化財研究 第23輯(2010.12)

[주제논문: 삼국시대의 대구지역 사회]

新羅 麻立干時代의 大邱朱甫噉

5~6世紀 大邱地域 古墳群의 動向홍대우

古墳群 分布로 본 三國時代 大邱地域의 內部構造張容碩

성곽을 통해 본 삼국시대 지역사회의 사회 모습조효식

대구지역 삼국시대 토기의 생산체계김옥순

「삼국시대의 대구지역 사회」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유적조사보고]

大邱 東湖洞181番地遺蹟

靑銅器 · 朝鮮時代 遺蹟 調査 概報권현윤 · 김미숙 · 이재광

영천 청정리 삼국시대 고분군 조사 개보오동욱 · 이재철

경주 화천리 유적 삼국시대 기와가마 조사 개보박헌민 · 김지영

醴泉 南本里遺蹟 調査 概報정민 · 이제동 · 최규진

[기타]

몽골 도르릭나르스 유적 발굴조사에 참여하며윤민근

중국 고대 도성지를 다녀오다(西安, 洛陽)하진호

嶺南文化財研究 第24輯(2011.12)

[주제논문:고대도시 상주와 복룡동유적]

古代 都市 尙州의 탄생	이영호
상주 복룡동유적의 발굴조사현황과 성과	권현운
墳墓資料로 본 尙州地域의 古代 政治體	김진형
伏龍洞遺蹟으로 본 統一新羅時代 沙伐州의 都市構造	박달석
통일신라시대 상주지역 瓦연구-상주 복룡동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박현민
상주 복룡동유적과 경주 왕경	이은석
「고대도시 상주와 복룡동유적」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慶州地域 三國~統一新羅時代 막새기와의 流通	김지영
-------------------------------	-----

[자료소개]

금속유물 보존의 이온크로마토그래피 활용	정지해
-철제유물 안정화과정을 중심으로-	

[유적조사보고]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부지(이천동 구간)내 청동기시대	
석관묘군(舊 大鳳洞支石墓 第Ⅰ區)유적	권현운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내(Ⅰ구역:견탄원지) 유적 조사 개보	
.....	이재광 · 최영호
상주 왕산역사공원부지 조성공사 사업부지내	
尙州邑城 官衙址遺蹟 調査 報告	이제동 · 김성태 · 정민 · 김경환
예천 남본리 고려~조선시대 건물지유적 조사 개보	신순철 · 남도인

嶺南文化財研究 第25輯(2012.12)

[주제논문:임당 발굴 30년 그리고 압독문화]

압독과 임당고분	김용성
경산 임당유적 발굴조사성과와 연구현황	박상은
임당유적 목관묘 축조집단의 성격	정 민

임당 유적 묘제의 신라화와 전통의 창조	김대환
林堂遺蹟 聚落의 形成과 展開	하진호
考古資料로 본 林堂 中心邑落의 諸 樣相	장용석
「임당 발굴 30년 그리고 압록 문화」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연구논문〕	
高麗時代 伽藍配置와 院·胎室과의 相關性 研究	권현운
〔유적조사보고〕	
浦港 草谷地區 都市開發事業 敷地(1區域)內 遺蹟 調査 報告	
.....	이원태 · 권용규 · 김지영
문경 국군체육부대 이전부지 내(Ⅲ 구역:傳 烏井寺址) 유적	
.....	이재광 · 손혜성 · 박영협 · 김경환
군위 운산리 산121번지 골프장 조성부지 내 유적	
.....	민선례 · 최한태 · 김태형 · 최규진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3공구 월포리 유적	윤민근 · 이재철 · 이수정

嶺南文化財研究 第26輯(2013.12)

〔주제논문:대구 봉무동 유적의 고고학적 검토〕

대구 봉무동유적의 조사개요

대구 봉무동유적의 고환경 변화와 유적입지 변천사

류춘길

대구 불로동·봉무동고분군의 편년과 성격

윤천수

대구 봉무동유적 취락의 성격

권용규

대구 봉무동집단의 고대 생산활동

김권일

대구 봉무동유적 도로의 구조와 기능

박상은

원삼국시대-삼국시대 대구지역 분묘와 취락

정창희

〔유적조사보고〕

경주 망성리 윗골들 생산유적

윤민근 · 이나영 · 이수정

慶州 牟梁里 統一新羅時代 都市遺蹟

.....정 민 · 이원태 · 권용규 · 이재철 · 김지영 · 이수정

대구 화원 명곡체육공원부지 내 유적 조사 개보	이석범 · 남도인 · 김경환
慶州 芳內里 기와가마 遺蹟	박현민 · 오동욱 · 최규진

嶺南文化財研究 第27輯(2014.12)

[주제논문:삼국시대 시지지역의 고분과 취락]

時至遺蹟의 發掘調査 現況과 檢討	박현민
삼국시대 시지지역 고분의 변천과 성격	박상은
三國時代 時至聚落의 構造와 性格	김재철
三國時代 時至 聚落과 周邊地域 共同體의 相互作用	장용석
일본 고분시대 취락연구의 현상과 전망	高田貫太

[연구논문]

三國時代 淸道地域 古墳의 性格	이재광
조선시대 영남지역 회곽묘 연구	민선례

[유적조사보고]

고속국도 1호선 연양~영천간 확장공사(2공구) 내	
울주 활천리 서당골 유적 조사성과	우병철 · 최규진
고속국도 1호선 연양~영천간 확장공사(3공구) 내	
경주 망성리고분군Ⅳ 유적 조사성과	이재광 · 이수정
칠곡 왜관3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부지 내(Ⅰ 구역)	
왜관 낙산리 조선시대 분묘유적 조사성과	민선례 · 김태형 · 권옥택

嶺南文化財研究 第28輯(2015.12)

[주제논문:청동기시대 대구지역의 취락과 사회]

취락과 무덤군의 상관관계로 본 청동기시대 대구 월배지역 취락의 전개과정	
.....	류지환
대구지역 신천일대의 주거와 취락	유병록
청동기시대 대구 금호강 이북지역의 주거와 취락	이석범
석기를 통해 본 대구지역 청동기시대 사회	황창한

大邱地域 靑銅器時代 巨石記念物과 무덤	김광명
〔연구논문〕	
청동기시대 주거지 구조변화에 대한 연구 -영남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	이수정
원삼국~삼국시대 경산 임당 I지구 주거지 연구	김경환
〔유적조사보고〕	
성주 성산동고분군 사적공원 조성부지 내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 삼국시대 유구를 중심으로 -	김태형 · 권옥택
경산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대로1-5) 개설공사부지 내 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권용규
영천 완산동 원삼국~삼국시대 취락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이수정
대구 학정동 490-1유적의 조사내용과 성과	권현운
〔특별논고〕	
대구 구암동고분군의 문화유산 가치와 활용 방안	
- 신라고분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과 연계하여 -	박승규

팔달동유적과 초기철기~원삼국시대의 대구

인쇄일 | 2016년 12월 12일
발행일 | 2016년 12월 16일
편집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발행 | (재)영남문화재연구원
인쇄 | 서재문화사 053-253-6445



嶺南文化財研究院
The Yeongnam Institute of Cultural Properties

39852 경북 칠곡군 가산면 천평2길 43
전화 054-971-8085 · 8086 / 전송 054-971-8083 · 8090
홈페이지 <http://www.ynicp.or.kr>

